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이 책을 들어가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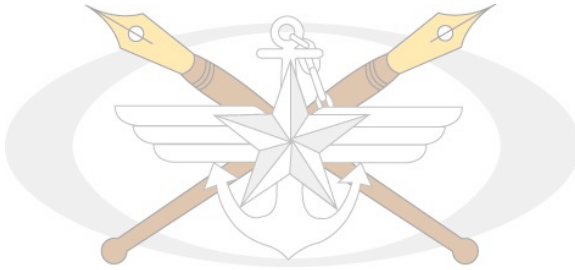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으며,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침체된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 정의, 대상 및 범위를 재검토 하였다. 그리고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발발한 지 어느덧 60여 년이 흘러 이제 점점 잊혀진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이 자행하는 일련의 도발로 인해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 현실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전쟁은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군간의 일치된 노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총력전의 양상을 띠었던 6·25전쟁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군과 함께 나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학생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는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쳐 공산군의 침략에 대응함으로써 민족적인 재앙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펜 대신 총을 들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터로 달려간 학도의용군의 용기와 애국심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유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번은 물론 계급도 없이 정든 부모형제와 꿈으로 가득 찬 교정을 뒤로한 채 스스로 전선으로 뛰어든 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약화된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와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서와 자료집의 발간은 국가 총력전이었던 6·25전쟁의 실상과 학도의용군이 보여준 애국적 행동을 재조명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자료를 집대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연구서 중 먼저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에서는 관련 현행법령을 검토하고 용어 및 자격을 재분석함으로써 연구 목적의 핵심인 학도의용군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학도호국

단의 창설과 6·25전쟁 이전의 병력충원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전쟁단계에 따라 시기 및 지역별로, 그리고 활동단체별로 조명함으로써 전쟁기간 중 이들이 보여준 활동을 평가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에는 참전자의 증언녹취록과 체험담, 참전자 및 전사자 명부, 주요 참전단체의 현황 및 활동사항 등을 수록함으로써 연구의 사실성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연구서와 자료집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가 6·25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학도의용군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 성과가 6·25전쟁 시 국가 총력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참전자를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하고 새로운 자료발굴에 힘쓴 육군사관학교 나종남 교수를 비롯한 집필진과 원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고견을 내어주신 감수 및 자문위원, 출판에 도움을 주신 국군인쇄창 관계관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이라는 고귀한 신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홀연히 전쟁터에 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학도의용군 참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복진**

일러두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1)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2) 절 : 1, 2, 3,

(3) 항 : (1), (2), (3),

(4)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 지명, 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에서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 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6.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면의 하단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7. 이 책의 각종 <표>의 명칭은 본래 명칭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용하되, 명칭이 없는 경우는 본문의 내용과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명명하였으며,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순번을 표기하였다.
8. 이 책에 사용된 일자 및 시간표기는 다음과 같다.
- (1) 일자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
 - (2) 시간 : 04시, 10시, 04시 30분, ...
9.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 () : 인명, 지명, 속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2)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3)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4)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10. 자료집에 수록된 증언 및 체험담은 해당 참전자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으며, 학술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1. 자료집에 수록된 학도의용군 관련 현충시설 현황은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정보를 발췌, 정리하였다.
12. 이 책은 6·25전쟁 참전 학도의용군에 관한 학술서 발간을 목적으로 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위탁편찬계획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편찬한 것이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목 차

- 발 간 사
- 일 러 두 기

제1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전개과정
2. 연구의 범위와 대상 : '학도의용군은 누구인가?'

제2장 6·25전쟁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 20

1.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 배경
2. 국군의 창설과 6·25전쟁 이전의 병력충원 체제
3. 6·25전쟁 초기 학도의용군의 형성 과정

제3장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 : 시기별, 지역별 구분 | 52

1. 제1단계 : 개전~낙동강 방어선 형성 이전 (1950. 6~7)
2. 제2단계 : 낙동강 방어선~학도 복귀령 발령 (1950. 8~1951. 3)
3. 제3단계 : 학도 복귀령 발령~휴전 (1951. 3~1953. 7)

제4장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 : 활동 단체별 구분 | 75

1.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
 - (1)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 (2) 제3사단 학도의용군
 - (3)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 (4) 서울학도포병대대
 - (5) 태백학도의용군

2.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서 결성된 학도의용군
 - (1)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 (2) 육군본부 직할 정훈 제1, 2대대와 선무반
3. 특수작전(유격전)을 수행한 학도의용군
 - (1) 용진학도유격대
 - (2) 태극단 학도의용군
4. 제일학도의용군
5. 여자학도의용군
6. 기타 학도의용군

제5장 휴전 이후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시기별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 297

1. 휴전~1950년대의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2. 1960~1980년대의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3. 1990~현재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제6장 결론: 학도의용군의 평가와 의의 | 319

1. 학도의용군의 활동에 대한 평가
2. 6·25전쟁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의

참 고 문 헌 | 331

찾 아 보 기 | 334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전개과정

6·25전쟁 시의 학도의용군은 1950년 6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학생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싸운 의병(義兵)들이었다. 이들 의병의 활동은 개전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 어수선한 상황이던 6월 29일에 수원에서 ‘비상학도대(非常學徒隊)’를 조직하여 한강을 도하하려던 북한군을 노량진 일대에서 저지하기 위해 참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되어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더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들이 가담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충원,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 수행, 후방지역 치안유지 및 선무공작 등을 담당하면서 전황의 호전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국군이나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단체나 부대에 속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입대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전세 역전에 기여하였다. 결국 전세가 호전되고, 국가의 병력충원제도가 정비되어 원활한 병력충원이 가능해진 1951년 2월 말과 3월 초에 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참전 학도 복교령’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4월 3일에 정훈공작대가 해산됨을 마지막으로 6·25전쟁에서 학도의용군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었다.¹⁾

이와 같이 학도의용군이 6·25전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앞세워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국가수호에 앞장섰던 학도의용군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1) 손규석,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88-89.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이 자신들의 눈물나는 사연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말해왔으나,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 중에 학도의용군들이 주로 국군이나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하거나, 적지에서 유격대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식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이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때마다 앞세웠던 이유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전자들이 고향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실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오래된 변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학도의용군의 활동과, 그것이 전쟁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 및 외국 학계는 6·25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연구해왔으나, 유독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²⁾

그런데 1994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당시까지 제시되었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공간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연구의 성격상 참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와 구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에도 불

2)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전혀 없는 바는 아니다. 학도의용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학도의용군 부대의 소대장이었던 남상선에 의해서였다. 그는 『6·25와 학도병』(1974)과 『학도의용군』(1975) 등의 저서를 발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는 추가 연구가 뒤따르지 않았으며, 학도의용군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찾기 힘들고, 간헐적으로 학도의용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터뷰 기사나 단편적인 글을 게재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다변화되었다. 먼저 『웅진학도유격부대전사』(1992), 『서울학도의용군』(1995)과 같은 개인 차원의 연구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육군본부가 주관하는 두 개의 중요한 연구인 『학도의용군 이화남』(1991)과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1994)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내 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나라사랑 국가수호정신』(서울: 국가보훈처, 2005), pp. 49-90.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하재평이 “6·25전쟁 시 국가총력전 전개 양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6·25전쟁을 국가총력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학도의용군의 활약상을 간략하게 다뤘다. 하재평, “6·25전쟁 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전사, 제3호(2001. 6), pp. 1~44.

구하고, 이 연구는 학도의용군 연구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학도의용군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공간사는 연구가 시작된 배경이 명확치 않았으며, 이 연구에서 주목한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학도의용군에 대한 현행 법률적 해석과 그에 따른 대상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참전단체와 개인들은 선정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과연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누가 그 대상인지에 대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후속연구를 유인(誘引)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1994년에 학도의용군에 대한 최초의 공간사가 발간된 이후 일부 연구자들이 이 공간사의 문제를 인지하고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후속연구들은 학도의용군이 갖는 현대적 의미의 조명에 집중한 나머지,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학도의용군 참전자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³⁾

한편 60여 년 전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활약했던 학도의용군의 활약상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일부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그동안 학도의용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 및 공개하려는 학계나 군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등에서 학도의용군의 활약상을 담은 단편적인 자료집

3) 하재평, “6·25전쟁 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pp. 1~44; 손규석,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 pp. 55~89.

들을 일부 편찬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 학계, 정부의 지적,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급속하게 저변이 확대된 인터넷을 통해 학도의용군 참전자 개인과 단체의 자료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도의용군 연구와 관련한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⁴⁾ 이러한 자료들은 제공자들의 시각과 경험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과장 및 왜곡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⁵⁾ 학도의용군에 관련된 검증된 자료의 현황, 정리와 소개, 그리고 효율적인 자료 공개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학도의용군에 대한 학술연구와 자료 축적이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행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신문, 방송, 영화 등에서는 점차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인 학도의용군을 기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중매체들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증가된 지적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학도의용군 출신 박양호의 『6·25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2009)와 신문 기고문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출간되어 현대인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학도의용

4) 육군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도의용군 관련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www.army.mil.kr/history/%B3%AB%B5%BF%B0%AD%B9%E6%BE%EE%BC%B1%C0%D B%C0%FC/3-1.htm>(검색일: 2011. 9. 9))

5)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학도의용군' 검색 결과. 예를 들면, www.naver.com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지식 iN에서 검색되는 아래 자료(<http://cafe.naver.com/bizcanada/5222> <INPUT id = cafeurlstr type=hidden value=http://cafe.naver.com/bizcanada/5222 name=cafeurlstr>)의 경우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에서 인용한 사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또 다른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검색일: 2011. 9. 9)

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⁶⁾ 또한 2010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 ‘포화 속으로’는 포항에서 활약했던 71명의 학도의용군을 소재로 다루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관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 속 주인공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데 기여하였다.⁷⁾ 재일학도의용군을 소재로 다룬 KBS ‘수요기획: 재일학도의용군’(2010년 8월 15일 방송) 역시 학도의용군 단체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학도의용군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와 언론이 직접 나서서 6·25전쟁에서 활약했던 학도의용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서두에 밝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6·25전쟁 시의 학도의용군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판된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1994년에 육군본부에서 주관하여 출판한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본 연구에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약 100여 명의 학도의용군 참전자들과 약 2년여에 걸쳐 개별적으로 진행된 구술 인터뷰와 녹취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흔쾌히 구술을 수락한 참전자들은 60년 전의 기억이지만, 대부분 개인의 경험과 사정을 진솔하게 제시하였다.

1994년의 연구가 특정 단체와 인물을 중심으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6) 박양호, 『6·25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서울: 화남, 2009); “학도의용군 고귀한 희생 잊어서야,” 세계일보, 2010년 9월 30일 4면.

7) 영화 ‘포화 속으로’에 대한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http://www.remember-71.co.kr/main/re_gate.html를 참고할 것(검색일: 2011. 9. 9).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려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참전자 개인들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해진 학도의용군 단체와 개인의 자서전, 수기와 팸플릿, 신문 기고문 등 관련 출판물도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다만, 6·25전쟁 학도의용군 관련 법령 중 현재까지 유효한 두 개의 법령을 - 1957년의 병역법과 시행령, 1984년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 입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연구의 범위와 대상 : ‘학도의용군은 누구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학도의용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누구이며, 이들의 활동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들의 활동 범위와 대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도의용군 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참전 당시에 학생신분이 아닌 분들도 있으며, 참전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지만 곧바로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에 편입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채 학교에 복귀한 분들과, 이분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처럼 6·25전쟁에서 활약했던 학도의용군들에 대한 용어와 개념, 대상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간혹 혼선을 빚곤 한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혼용되고 있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학도의용군 관련 현행 법령검토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의 정의, 범위와 대

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학도의용군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시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하여 참전하였던 의용병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⁸⁾ 하지만 이 함축적 정의는 현행 법률이나 공간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1959년에 공포된 병역법과 그 시행령⁹⁾에서는 학도의용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도의용군’이라 함은 1950년 6월 29일 이후 ‘학도의용군’(재일동포 학도의용군을 포함한다)으로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소속되어 1951년 2월 28일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전상(戰傷)으로 인하여 중간에 나온 자를 포함한다.

한편 국가보훈법¹⁰⁾에서는 학도의용군 중 재일학도의용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적용 기준을 고려하는 병역법에서 제시하는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은 재일학도의용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법과 큰 차이가 있다. 즉, 두 개의 상이한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적용 대상, 시기, 범위에서 모순이 있는 셈이다. 병역법상의 정의는 활동기간이 짧으며, 행동범주도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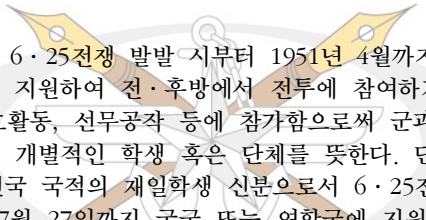
8)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 11.

9) 『병무행정사』(상), p. 278.

10) 국가보훈법령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1장 4조 8항.

에 참가한 자로 국한하였으며, 현역 지원자는 제외시킨 반면, 국가보훈법상의 정의는 활동기간이 길고, 행동범주도 참전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현역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부서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법령들이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각 법의 입법 의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전자는 병역혜택의 특전 부여를 심사하는 취지에서 정의한 것이고, 후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재일동포 참전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결정하려는 취지에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¹¹⁾

병역법과 국가보훈법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달리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간사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에서 제시한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¹²⁾은 다음과 같다.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뜻한다. 단, ‘재일학도의용군’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학생 신분으로서 6·25전쟁 발발 시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또는 연합군에 지원입대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를 뜻한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칭호는 ‘학도의용군’, ‘학도병’, ‘학병’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학도의용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공간사에서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첫째는 참전활동에 나선 사람들의 신분이 학생신분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이들의 참전 활동이 국가의 징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원에 의해, 즉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학도의용군의 활동 중 학생들이 직접 전투에 참가했든, 혹은 후방 각지에서 치안유지, 공비소탕,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의 활동에 참여했든 전투와 관련된

11)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 17.

12)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17~18.

모든 활동을 고려한 것이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학도의용군의 활동이 국군, 유엔군 등 군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나 독립유격대 또는 조직 등에서 활동한 것도 인정한 점이다. 즉, 이들이 어떠한 기관에 속해서 활동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6·25전쟁 발발로부터 1951년 4월까지 전쟁 초기 10개월 간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비상학도대가 결성된 1950년 6월 29일을 시작으로 하고, 활동 종결 시기는 1951년 3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학생 학교복귀지시 담화’가 있는 날로 하되, 육군본부 정훈공작대의 실제 해산일인 1951년 4월 3일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이 활동 시기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은 예외이며, 이들의 경우 1953년 7월 27일, 즉 휴전일로 하였던 것이다.¹³⁾

하지만 이 공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실제 이 공간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이 연구는 학도의용군의 활동시기를 1950년 6월 29일부터 4월까지라고 한정하였으나, 이후 각 학도의용군 단체의 활동을 사례로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를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 혹은 1954년 초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군번 부여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했던 동기, 즉 참전동기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신분으로 자원하여 참전했다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학교로 복귀한 ‘순수한 의미’의 학도의용군과 학도의용군 활동 중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한 ‘확대된 의미’의 학도의용군 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학도의용군의 용어 정의에서 지리적

13)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17-18.

범위를 ‘대한민국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애국청년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다.

(2) 용어와 자격 재검토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행 법률과 학술연구는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통일된 의사가 반영된 용어를 정의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25전쟁에서 학도의용군으로 활약했던 참전자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하루빨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념과 정의, 범위와 대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용어 검토 - ‘학도의용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와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검토하여 보자. ‘학도(學徒)’라는 단어는 전쟁발발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학도호국단에서 유래한 것이며, 6·25전쟁 개전 초기인 6월 29일에 수원에서 ‘구국비상학도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용군(義勇軍)’이라는 용어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용군이라는 단어는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칫 학도의용군의 범주나 성격을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⁴⁾ 북한이나 중국의 군대 구성 및 명칭

14)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 (2011년 2월 21일).

에 포함된 의용군 외에도 개전 초기에 남한을 점령한 북한이 남한 지역의 양민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명칭도 의용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가 꺼림칙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⁵⁾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학도의용군 단체 중에는 스스로 ‘학생의병(學生義兵)’ 혹은 ‘학도의병(學徒義兵)’이라고 개명하는 단체도 있었다.¹⁶⁾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적의 침략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학생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용어가 이미 6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특정의 대상자들에게 사용해 온 통일된 용어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행 법령과 기존의 학술연구가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어로 검토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지금에 와서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범위와 대상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자격 검토 - ‘학생’ 신분 여부

학도의용군에 대한 현행 법령과 공간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인 과연 “누구를 학도의용군으로 할 것인가?” 즉,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학도의용군의 자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전자가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혹은 “학생이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학도의용군 혹은 학도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참전자의 학적부

15) 박경석, 『서울학도의용군』 (서울: 서문당, 1995), pp. 116-117.

16)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 (2011년 2월 21일).

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미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학적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 경우 참전 당시에 자신이 학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참전자들이 문제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학적부에 준하는 공식 기록이나 앨범 그리고 사진 등 비공식 기록과 더불어 2인 이상의 인후보증(人後保證)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학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이 학생이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참전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는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자격 검토 - '군번' 부여 여부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자들 중에서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만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학도의용군에 나선 참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군번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군번을 부여받았을 경우 정규군의 일원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논리이다.

학생 신분으로 자원했다 하더라도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에 편입된 경우와 군번을 부여받지 않고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경우의 차이는 1951년 초의 학생 학교복귀 지시 담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학도의용군들은 1951년에 전선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정부와 대통령의 지시와 담화에 의해 복귀할 수 있었으나, 일단 군번을 부여받은 경우는 계속 현역으로 복무해야 했던 것이다. 단, 학생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했던 자들 중에서 군번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군번을 부여받기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학도의용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격 검토 - 활동 시기

활동 시기는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특히,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활동했던 것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날짜와 시점을 기준으로 학도의용군 참전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6·25전쟁 개전 (1950. 6. 25)
- 수원에서 '비상구국학도대' 결성 (1950. 6. 29)
- 법률 제58조: '국민병 소집' 시행 (1950. 7)¹⁷⁾
 - 편성관구사령부 설치(1950. 7. 8). 이에 따라 전북편성관구사령부와 전남편성관구사령부, 영남편성관구사령부가 창설되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해체되어 7월 말 대구방어사령부에 흡수됨.
 - 훈련소 개소: 제1훈련소(7월 중순, 대구), 제2훈련소(8월 20일, 부산), 제3훈련소(8월 말, 구포리), 제5훈련소(9월, 제주도) 등
- 이 대통령 '병역법 실시에 관하여' 담화 (1950. 9. 1)¹⁸⁾: 실질적인 국민 총동원령 발령
- 정부의 학도의용군 해산 명령일 (1951. 2. 28)
- 이 대통령 '학생 학교 복귀 지시 담화' 발표 (1951. 3. 16)
- 국방부 정훈공작대 실제 해산일 (1951. 4. 3)
- '병역법' 개정 (1951. 5)
 - 전쟁 중 국무원 소집 공고: 제2국민병 (만 17세 이상~만 25세 미만)
- 6·25전쟁 휴전 (1953. 7. 27)

먼저 학도의용군 활동이 시작된 시기로 개전일인 6월 25일과 학도호국단이 수원에서 '구국비상학도대'를 조직한 6월 29일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체로 후자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¹⁹⁾ 한편 학도의용군의 활동이 중

17) 『병무행정사』 (상권), pp. 271~274에서 재인용.

18) 『한국전란 1년지』, p. C 10.

19)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 (2011년 2월 21일).

료된 시기, 즉 참전자들의 자발적 참전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훨씬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1951년 2월 28일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한 날이며, 3월 16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학생 학교복귀 지시 담화가 발표된 날이다. 또한 4월 3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기준으로 국방부 정훈국의 정훈공작대가 공식적으로 해산한 날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개전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려 낙동강 방어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던 1950년 9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총동원령을 시사한 담화를 발표한 점을 더욱 중시하여 판단한다면, 학도의용군으로 활약한 이들의 자발성이 종료되는 시기는 훨씬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⁰⁾

5) 자격 검토 - 활동 지역

다음으로 고려할 요소는 1994년 공간사에서 제시한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에서 제외된 요소로서, 학도의용군의 참전 및 활동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지역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²¹⁾ 즉, 학도의용군의 대상자를 ‘대한민국 학생’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6·25전쟁 발발 초기에 북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복진할 때 합류하거나, 혹은 중공군 참전 이후에 자발적으로 남하하거나 적진에서 유격작전을 수행한 북한 지역의 학생들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만약 이들이 참전 당시에 학생의 신분이었고, 국군에서 군번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공산군과 싸웠던 북한 학생이라고 할 때, 이들을 현재의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우 학도의용군 참전자 선별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대상자,

20) 『한국전란 1년지』, p. C 10.

21)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17-18.

활동 시기, 활동 형태를 결정하는 고려요소도 다양해서 전체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6) 자격 검토 - 활동 내용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에서는 전투 임무만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전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전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범주도 한정해야 할 것이다. 1994년의 공간사는 대체로 전투, 치안유지, 공비소탕,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을 학도의용군 단체가 수행한 주요 활동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때 선무공작과 노무와 운전을 포함한 전투 관련 활동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²²⁾

(3) 학도의용군 - 새로운 용어 정의와 대상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학도의용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라 함은

1. 시기

- “6·25전쟁이 개전한 시점부터 1951년 3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학생 학교 복귀 지시담화’에 의해 국방부 정훈공작대 등이 실제 해산한 1951년 4월까지”

2. 학생 여부

- “전쟁 발발 당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중에서”

22)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17-18.

3. 자발성 여부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들 중에서”

4. 군번부여 여부

- “군번을 부여받지 않고 활동하였던 자로서”

5. 지역적 범위

- “한반도 전역에서”

6. 활동 범위

- “공산군을 상대로 한 전투(정규 및 비정규)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의 공비소탕 및 치안유지, 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전·후방에서의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뜻한다.”

단, 이와 같은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중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에 포함하되, 이들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학생 신분으로서 6·25전쟁 발발 시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또는 연합군에 지원입대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로 한다.

한편 앞서 검토한 학적부 보유 여부, 자발성 판단, 활동 시기, 내용 및 지역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시 활동했던 학도의용군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학도의용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범주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했으며,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채 활동하였으며, 학교 복귀령에 의해서 복귀한 자들로만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범위를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한 1,844명으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6·25전쟁이 휴전을 맞은 지 6~7년 후에 전쟁 중의 활동을 인정받아 당시 정부의 엄격한 심사 끝에 병역 면제 대상자로

확정된 이들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야말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학도의용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국방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가장 좁은 범위의 학도의용군’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정부로부터 학도의용군으로 인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 1,844명과 재일학도의용군 642명으로 한정한다.²³⁾ 주로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제3사단 학도의용군’, ‘여수·순천 학도의용군’, 그리고 각 지방에서 활약한 학도의용군들 중에서 전국학생연맹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직한 학도의용군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학도의용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상은 참전 당시에 학생이었으며, 참전의지 또한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이 범주에서는 참전 당시 학생이었는지 여부만 고려했을 뿐, 참전 직후나 나중에 군번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국가가 위협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높이 살 만하며, 특히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였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

23) 1957년 8월 15일에 공포된 병역법 제62조와 동법 시행령(1959. 2. 18)의 적용을 받는 학도의용군 참전자(육군)의 참전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996년 9월 11일 육군본부에서 확인 발행한 이 명단에 포함된 총인원은 1,844명이며, 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판정이 이뤄졌다. 특히 5·16 직후에 이뤄진 마지막 예비역 편입 판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여군번	인원	처분일자	처분근거	병적사항
0784164-0784167	6	1959. 3. 31.	육특(을) 362호	입영(계급 및 군번부여)과 동시 제대, 제1예비역 편입(구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종 의거 학도의용군으로 인사처리)
0784183-0785386	1,204			
0785471-0785889	419	1959. 12. 31.	육특(병) 3호	
0785890-0785936	47		육특(병) 6호	
0786196-0786371	176	1961. 9. 30.	육특(병) 550호	

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진에 소중한 참전 경험을 소개한 대부분의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은 참전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참전하였으나, 각급 부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던 중 군번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학교 복귀령을 듣지 못한 채 계속 복무하거나, 학교 복귀령을 들었지만 적과 싸우고 있는 동료들 곁을 떠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군대에 잔류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들이 참전할 당시의 국가 행정체계와 병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도의용군 활동에 참가한 여자학도의용군을 포함시킬 수 있다. 1950년 당시 우리나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규모, 가용한 사료와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대상은 대략 25,000~3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951년 4월에 전국학생연맹에서 추정한 전국적인 참전 학생 수는 대략 27,700여 명이었다.²⁴⁾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서울 학도포병대’와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육군본부 직할 정훈 제1, 2대대’ 등에 소속되어 활약한 학도의용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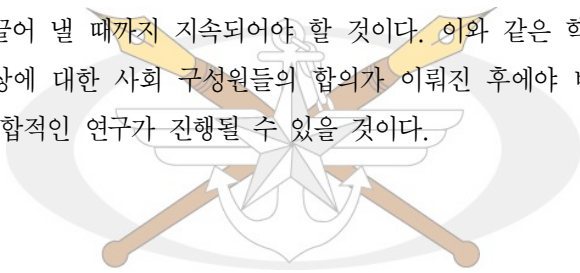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도의용군의 또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참전 당시에 학생의 신분이었으나, 활동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치 않은 자들이다. 인천 주변과 웅진 등 한반도 서해안의 다양한 도서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적과 맞서 싸웠던 학도의용군의 활동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학도의용군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51년

24) 1951년 4월 현재 출정 학생 수(자료출처: 학군단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 68, 표 1-3.)

지 역	인 원	지 역	인 원
부 산	4,500명	대 구	2,000명
서 울	3,200명	기 타 각 도	18,000명
합 계		27,700명	

4월 이후에도 현역에 소속되지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 유격단체나 비정규 전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학생의 신분으로서 북한지역 등지에서 학도의용군 단체 등을 조직하여 활동한 자들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가용한 사료와 연구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인원은 대략적으로 35,000~4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²⁵⁾ 이 범주에는 ‘웅진학도유격대’, ‘태극단 학도의용군’, 그리고 후방 각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학도의용군들이 해당한다.

이상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 정의, 대상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한 학술적 연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참전자와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5) 단, 이 연구서의 부록에서 제시하는 2,900여 명의 명단은 1994년 육군본부 공간사에서 제시한 명단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이 명단이 학도의용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서두에 밝혀둔다.

제 2 장 6·25전쟁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1.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 배경

학도의용군의 주체가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이 6·25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학업 대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나섰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이 전쟁발발 이전부터 활약하던 학도호국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정신적 모체가 되었던 학도호국단의 창설 과정과 6·25전쟁 발발 이전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1) 해방 직후의 학생운동

해방 후 반탁 및 반공 투쟁을 전개하던 '전국학생총연맹'을 위시한 우익 학생들과 학도호국단의 학생들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의 기습에 국군이 후퇴하자, '비상학도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도의용군을 조직하고 조국을 수호하는데 신명을 바쳐 앞장서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학도의용군의 자발적인 참전이 가능했던 것은 전쟁발발 이전부터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된 조직과 체계,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해방 직후 미 군정 하에서 좌우의 정치세력이 대립되어 투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학생과 학생조직이 취했던 행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우리 민족은 손꼽아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곧바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주체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일본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즉각적으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

족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신들의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서 군사적으로 점령하였으며, 이들 점령군들이 처음에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분단한 이후 이 분단이 점차 냉전 상황에서 정치적 분단으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해방 직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외세에 의해서 국내 정세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이자, 남한 내부에서는 수많은 정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자주독립과 건국을 외치면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주도했던 정파는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이라 한다), 박헌영 중심의 공산당, 이승만과 송진우 중심의 한국민주당, 그리고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 세력 등이었다. 여운형이 주도했던 인공은 일본 패망 이후 발 빠르게 정치적 행동에 나서서 미군이 진주하기에 앞서 이미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등 정권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인공은 본질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지향했으며, 이에 따라 원래 가담했던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이탈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적극 가담하여 좌익 성향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한편 공산주의 계열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직후 건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준을 통한 자신들의 역량 발휘에 주력하였다.²⁶⁾

반면에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민족주의 계열의 보수 우익 인사들은 해방 직후 정국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후 이승만의 귀국을 계기로 일부 우익 인사들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미군이 군정을 개시함에 따라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미 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구의 한국독립당 계열의 인사들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26) 육군본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23~26.

받았으나, 귀국 후에 국내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국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특히 이들의 혼란을 좌익 세력이 악용함에 따라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은 자주 독립국가로의 건국이 이뤄져야 하는 정국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²⁷⁾

이와 같은 해방 직후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945년 8월 16일에 서울학도대회를 개최한 학생들은 해방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서 건국을 향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에는 건준의 발족과 때를 같이하여 ‘건국학도대’를 결성하였는데, 이 조직은 해방 직후 조선 사회를 뒤덮은 건국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결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건국학도대는 8월 25일에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발족한 ‘조선학도대’가 결성됨에 따라 해체되었다.²⁸⁾

조선학도대는 “학생은 정치 색채를 떠나 대동단결하여 자립적 입장에서 치안 유지에 노력한다”는 강령을 내걸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 조직은 일본 패잔병의 발악적 파괴행위로부터 각 학교와 관청, 공장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직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던 일본 경찰의 치안권을 접수하여 스스로 행사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학도대의 학생들은 서울시를 여섯 등분하여 학생 자신들이 스스로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직접 활동에 나섰다. 이때 조선학도대에 가담했던 학교들은 경성대학교 동 예과, 보성전문, 연희전문, 동양의전, 경사, 해화전문, 경의전문 등이었고, 이 조직의 본부는 휘문중학교에 있었다.²⁹⁾ 하지만 조선학도대에 좌익의 손길이 침투하여 일부 좌익 성향의 학생들이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자 1945년 9월 말에 소위 ‘후기 조선학도대’가 형성되었고, 이어 10월 초에는 ‘순국학생동맹’이라는 조직으로

27) 육군본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23~26.

28)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 10년지』, pp. 54~59.

29)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 10년지』, pp. 54~59.

연결되었다. 이러한 학생 조직의 변화는 애국 학생들이 좌익 학생들의 침투와 공격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순수한 애국애족정신을 구현하여 자주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었다.

그러던 중 1945년 말에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던 국제사회는 자주독립을 꿈꾸던 우리 민족에게 신탁통치라는 난제를 제시하였다. 신탁통치안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 전체, 그리고 남한 내부의 좌익과 우익의 대결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1945년 12월 16일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정파가 이를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은 좌익이 곧바로 태도를 바꿈에 따라 한반도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남한과 신탁통치를 수용하는 북한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으며, 남한 내부에서도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들이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어 사회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³⁰⁾

이처럼 정국과 사회 전체가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원에 침투한 좌익 계열의 학생들이 찬탁을 주장하면서 조선학도대와 다른 우익 계열의 학생 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공작을 개시하였다. 1946년 1월 7일에 우익 진영의 학생들이 신탁통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탁학생 총연맹(이후 ‘학련’)’을 결성하였다. 보성전문대학의 이철승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학생들은 조직이 결성되자마자 대규모 시가행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려 하였다.

특히 이날의 시위와 전국 학생대회에는 약 1만여 명의 중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녀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³¹⁾

30) 육군본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23~26.

31)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 10년지』, pp. 60~62.

한편 우익 진영의 학생들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좌익 계열의 학생들도 이틀 후인 1946년 1월 9일에 ‘재경학생 행동통일 축성회(이후 ‘학통’)을 결성하고,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을 주장하면서 역시 시가행진을 하였다. 결국 ‘학련’과 ‘학통’으로 대표되는 대립적인 학생단체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조선학도대가 붕괴된 이후 학생운동에서의 좌우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따라 자유와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로 분화되었고, 이러한 대결에서 영향을 받은 남한에서의 학생운동이 좌익과 우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 것이다.³²⁾

그런데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활동하던 학생조직들의 활동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었으며, 급기야 이들 사이에 무력충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6년 1월 18일 반탁 학련의 시위대와 학병동맹 대원들이 거리에서 충돌하여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소위 ‘학병동맹사건’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학련에 대한 학병동맹의 계획적인 공격으로 추정하고, 바로 다음날 학병동맹의 본부를 급습하여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학생운동에서 좌우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잘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좌우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전초전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또 한 차례 좌익과 우익 계열의 학생조직이 대립했던 계기는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안이 발표되었던 1946년 7월 중순이었다. 이 사건은 학병동맹사건 이후 침체에 빠진 좌익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국립대학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야기되었으나, 우익 학생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서고, 미 군정이 원래의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일단락되어 큰 파장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익 진영의 학생들이 총단합하여 1946년 7월 31일에 ‘전국 학생총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조직에 기존의 ‘반탁학련’, ‘경성대학동지회’,

32)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 10년지』, pp. 60-62.

‘독립학생전선’, ‘서북학생원호회’, ‘유학생동맹’ 등이 가담함으로써 명실공히 우익진영의 통합된 학생조직으로 발전하였다.³³⁾

한편 찬탁운동이나 국립대학안 반대운동을 선동했던 좌익계열의 학생단체들에 대해 미 군정청과 경찰 당국이 견제의 수위를 높였으며, 급기야 1947년 5월 초에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1947년 5월 1일에 메이데이 사건이었다. 소련 등 공산국가에서 기념하는 노동절인 5월 1일에 남산 기념식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경찰이 연행한 후 석방하였으나, 각 학교들이 이들을 퇴학시킴에 따라 점차 학교에서 좌익계열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운동은 퇴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좌익이 주도하는 학생운동이 퇴조에 따라 점차 전국총학생연맹이 주도하는 우익 학생운동은 날개를 달게 되었으며, 이 조직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후 남한만의 단독선거, 정부수립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⁴⁾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문교부는 학도호국단을 설립하여 모든 학생운동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전국총학생연맹을 포함한 모든 사설 학생 조직과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해체명령에 대해 전국총학생연맹은 불응하다가, 결국 1949년 11월 21일에 자발적으로 해산하였다.³⁵⁾ 하지만 1946년 1월 7일에 반탁운동이 계기가 되어 결성되었고, 이후 미 군정청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우익 학생운동 단체의 연합체인 전국총학생연맹은 우익 학생운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학도호국단이 우익 학생운동의 계보를 계승하였다.

33)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 10년지』, pp. 71~75.

34) 육군본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29~31.

35) 육군본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p. 29~31.

(2) 학도호국단의 창설과 활동

학도호국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초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안호상의 구상에 의해 탄생하였다. 안호상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새로운 국가를 세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념과 사상, 즉 정신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중심으로 국가와 온 국민의 사상적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민족의 운명은 젊은 학도들이 좌우하게 된다”라는 주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필기대회, 강연회, 책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³⁶⁾ 안호상 장관은 이와 같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학생조직을 만들 것을 주창하였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군사훈련, 학도호국단 조직 및 국립 학도호국단 간부훈련소 설치와 간부훈련 등을 중요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³⁷⁾

학생들의 정신통일과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대 문교부장관의 정책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의 상황에서는 좌익들이 학교와 대학에 깊숙하게 잠복해 있었지만,³⁸⁾ 이에 대항하여 맞서 싸울 우익 학생단체들은 조직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이합집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⁹⁾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정부의 지도자들은 학교에서 좌익 세력 및 좌익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력을 제도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문교부 차원에서는 장차 국가의 희망이자 국가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에게 단체훈련을 통하여 신체단련과 정신연마를 통한 단결심을

36) 안호상의 생각과 그의 ‘일민주의’에 대해서는 안호상, 『우리의 부르짖음』(문화당, 1947), 『민주적 민족론』(어문각, 1951), 『청년과 민족통일』(배영출판사, 1976) 등 참조.

37) 『한국교육 200년사』, p. 606.

38) 이기봉, “축사,”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10년지』(서울: 동단, 1957), p. 29.

39) 손도심, “대한애국학도들이 걸어온 길”, 『학도호국단 10년지』, pp. 73-74.

함양하고, 이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익을 이겨낼 수 있는 사상적 단결을 이루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구체화되어 1948년 12월 초에 중학교 이상의 각 급 학교에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중앙학도호국단 결성식(1949. 4)

학도호국단이 출범한 직후인 1948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중등학생 간부 300여 명을 제1기 학도 특별 훈련생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서울사대 구내에 설치된 학도호국대 간부훈련소나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켜 중앙학도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⁴¹⁾ 선발된 학도호국대 간부들에 대한 특별훈련은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이 훈련을 받은 각 학

40) 학군발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육군본부, 1986), pp. 61~62.

41) 『한국학생 건국운동사』, p. 503 ; 건국10년지간행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동화, 1959) p. 315.

교의 학도호국대 간부들은 자신들이 교육 및 훈련받은 바를 각자 학교로 복귀하여 이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문교부는 1949년 1월 23일에 전국에 걸쳐 확산단계에 있는 학도호국단의 모든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지도요강을 공포하였다.⁴²⁾

이처럼 1948년 12월부터 시작된 학도호국단의 단기 군사훈련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중등학교 학생 2,400여명을 훈련시켰다. 그 결과, 훈련을 마친 학생들을 기반으로 1949년 2월 중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중등학교에 학도호국단 창단이 완료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개학을 맞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3월과 4월 중에 학교별로 학도호국단 결성을 완료함으로써, 학도호국단은 1949년 초에 명실공히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⁴³⁾

이처럼 학도호국단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편성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지도할 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문교부와 국방부는 1948년 12월 26일부터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체육교사들 중에서 군사훈련 교관 희망자를 문교부 배속장교 요원으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모집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제1기 236명, 제2기 156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제3기에는 여자 교사 32명을 포함한 379명을 육군사관학교에 입소시켜 42일간 군사 지식과 훈련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문교부 배속장교 요원들은 예비역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문교부의 발령에 의해 각 학교별 교련(敎鍊) 교사로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⁴⁴⁾

이러한 창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49년 4월 22일 중앙학도호국단이 결

42) 『한국교육 2000년사』, p. 335.

43) 『학도호국단10년지』, p. 89.

44)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6), p. 256, 493; 『한국교육 2000년사』, p. 335;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p. 115.

성되고, 문교부 내에 중앙학도호국단 사무국이 설치되었다.⁴⁵⁾ 그러나 당시 모든 학생단체는 학도호국단으로 통합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학련 등 학련출신 동지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부 학생단체들이 해산하지 않고 별도로 활동중에 있었다.⁴⁶⁾ 이처럼 일부 학생단체들이 문교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학도호국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즉, 각급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이외의 학생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학생들의 활동은 학도호국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법령화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9월 27일에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한 것이다.⁴⁷⁾ 이보다 앞서 1949년 8월 6일에 공포된 병역법 제78조에서도 전국의 중등학교 학생 이상 대학생은 전원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에 편입되어 학생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하였다.⁴⁸⁾ 따라서 1949년 말에 학도호국단은 전국의 중학교 이상 947개교, 총 단원수는 45만 명을 총괄하는 전국적인 학생조직으로 발전하였다.⁴⁹⁾

창단 당시 학도호국단의 조직체계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단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는 각각 해당 지구 내의 각 학교별 학도호국단을 통괄하는 시·도별 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별 학도호국단과는 별개로 각 대학교에는 학도호국단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조직들은 독자적인 운영체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학도호국단 전체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총재는 대통령이 맡았고, 중앙 학도호국단 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문교부장관과 차관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단장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각 학교 학도호국단 단장에는 해당 학교의 교장과 총·학장이 선임되었다. 학생조직은 학도부

45)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 62.

46) 『대한민국 건국10년지』, p. 315.

47) 『대한민국 건국10년지』, p. 315.

48) 『병무행정사(상)』, p. 45.

49) 국방부, 『국방사(1)』 (국방부, 1984), p. 392.

장 혹은 대대장에 임명되는 체계였는데, 이러한 전체 학도호국단의 지도와 행정사무를 위해 문교부 내부에 중앙학도호국단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⁵⁰⁾ 그 외에도 학도호국단 산하에는 감찰, 선전, 문화, 체육, 후생, 훈련, 총무 등의 부서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지도 및 관리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전에 나타난 학도호국단 활동의 핵심은 정부수립 이전의 대국민 계몽운동을 이어받은 사회활동과 학생들의 사상지도 활동을 위한 계몽활동이었다. 먼저 학도호국단 중앙단에서는 40여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도계몽유세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1949년 7월 20일부터 약 2주간 방학을 이용하여 지방 각 도에 파견되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몽, 국민사상의 통일과 반공운동을 전개하였다.⁵¹⁾ 이와 같은 계몽유세대의 활동 외에도, 경상북도의 학도호국단에서는 애국애족 사상의 고양을 위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⁵²⁾ 또한 각 지역 학도호국단들이 중심이 되어 수시로 웅변대회 등을 통해 학도들의 계몽, 국민사상의 통일과 반공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1949년 1년간 중앙학도호국단 주최로 군대, 경찰, 학도 친선대회, 비상학도 쫓기 대회, 미국 철수반대, 국군 무장강화 요구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⁵³⁾

그러나 학도호국단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훈련이었다. 1950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281호에 의거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각 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군사훈련은 필요를 예상하고 신속하게 양성되어 각급 학교에 배속된 장교들의 지원 아

50)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 62.; 『학도호국단 10년지』, p. 89.

51) 『학도호국단 10년지』, p. 343.

52) 『학도호국단 10년지』, p. 315.

53) 『대한민국 건국10년지』, p. 315.

래 실시되었다.⁵⁴⁾ 안호상 문교부장관은 자신이 늘 강조하던 대로, 이북 총진군(以北 總進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문교부장관의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을 강조하는 의도에 따라 학도호국단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시가행진과 도보훈련을 실시하였다.⁵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도호국단은 해방 직후부터 전개되었던 다양한 학생운동 단체들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 주도하에 통합하여 발족한 학생단체였으며, 1949년 9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유일하게 공인된 전국적 조직을 갖춘 학생단체였다. 학도호국단의 창단과 활성화는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호국단 창단 이전까지의 학생운동이 정부의 주도하에 장악됨으로써 그 성격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외의 정치적인 사안을 문제삼아 집단적인 행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일단 유사시에 국방의 전선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도호국단은 발족 직후부터 계몽활동과 군사훈련 등 창단 취지에 따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조직의 활동에 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가장 먼저 학도호국단의 활동 자체가 기대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현실적이었는데, 왜냐하면 학도호국단이 창단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초기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6·25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의 기습공격과 아군의 무질서한 후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학도호국단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전선이 어느 정도 고착된 후 비로소 학도호국단은 그 기능을

54) 『국방사(1)』, p. 392.

55) 『학도호국단 10년지』, p. 76.

일부 회복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는 이미 국토의 대부분을 적에게 점령당한 후였다.⁵⁶⁾

학도호국단이 창립 초기부터 가장 중시하였던 군사훈련도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비전력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⁵⁷⁾ 이는 예산지원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과 조직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교부가 지도하고, 학생 간부가 정부 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임명되는 식의 관료적 운영체제는 학도호국단 조직과 운영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와 단점이 누적되다가 조직 전체가 하향적 관료체제로 일관되었으며, 정부에 의해서 조종받는 학생 자치단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어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도호국단은 창단 10여 년이 지난 1960년 5월 10일에 대통령령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⁵⁸⁾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도호국단은 적의 침략에 의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정신적 근원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조직적으로도 학도호국단이 학도의용군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학도호국단 활동을 통하여 체득된 기초적인 군사 경험이나 그에 수반된 애국심 고양 등의 정신교육은 학도의용군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전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학도호국단은 물론 기존의 조직과 간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학도의용군을 결성할 수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6·25 전쟁발발 이전의 학도호국단 활동이 개전 직후부터 시작된 학도의용군 활

56) 『학도호국단 10년지』, pp. 79-80.

57) 『국방사(1)』, p. 392.

58) 『대한민국 학생군사훈련발전사』, pp. 73-74.

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학도호국단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예비 병력으로서의 학도호국단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병력확충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군의 정규군 규모 확대를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규군의 최대 규모를 10만 명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능력상 1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위기는 대한민국의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병역법에서도 지원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고심하던 국방부는 소요 병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군제도를 착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국군(護國軍)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호국군은 국내의 잉여 인력자원을 사전에 예비 병력으로 육성하다가, 장차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가 도입되면 현역으로 전환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다수의 문맹 청년들에게 예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전쟁발발 등 국가 비상시에 정규군으로 즉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맥락에서 1948년 11월에 호국군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은 국군조직법에 정식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1949년 1월 20일에는 긴급 대통령령(대통령령 제52호)에 의해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 조치령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호국군은 정규군의 전투력을 보강함을 사명으로 하되,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로 구분 편성하고 유사시 또는

59) 『국방사(1)』, p. 385.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정규군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그 병원(兵員) 획득은 지원에 의한 모병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호국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장교와 사병 공히 예비역으로 하여 각자 거주지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에 소속되며,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⁶⁰⁾ 호국군의 창설계획에 따라 1949년 1월에 4개 여단(제101, 제102, 제103, 제106여단)이 창설되었고, 창설 당시의 병력은 약 2만 명 정도였다.⁶¹⁾ 그리고 1949년 7월에는 제105여단이 창설됨으로써 호국군은 모두 5개 여단, 10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그러나 호국군은 그 자체의 무기와 장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시에는 일선 부대에서 무기와 장비를 빌어다가 훈련해야 하는 실정이었다.⁶²⁾ 국방부는 호국군을 창설할 때부터 미국 정부에 10만 명 창설을 목표로 하여 그에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49년 7월 16일 호국군 2개 여단과 8개 연대의 증설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시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복잡한 정치논쟁으로 부상하여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다가 8월 6일 병역 지원제가 징병제로 개정된 새로운 병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호국군은 8월 31일부로 해체되기에 이른다.⁶³⁾

1949년 8월 6일의 병역법 공포와 이어 단행된 호국군 해체 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긴박한 국방 정세를 고려하여 민병(民兵) 20만 명을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49년 11월 초에 병역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을 근간으로 한 청년방위대가 출범하였다.⁶⁴⁾ 대한청년단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각종 청년단체를 단일화

60) 『국방사(1)』, pp. 385~386; 『병무행정사(상)』, pp. 36~38.

61) 『병무행정사(1)』, p. 257.

62) 『국방사(1)』, p. 387.

63) 『국방사(1)』, p. 388.

64) 병역법 제77조의 내용은 "...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이다.

시켜 만든 조직이었다. 해방 이후 전반적인 국내의 정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각종 정치단체와 연결된 많은 청년단체가 난립하고 좌·우익으로 분열하여 빈번하게 충돌사건을 일으키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의 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청년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게 되었고, 이 지시에 따라 우익 5대 청년단체 및 20여 개의 군소단체가 1948년 12월 19일에 서울운동장에 집결하여 대한청년단 결단식을 가졌다.⁶⁵⁾ 대한청년단은 그후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특히 대도시 및 지방의 읍과 면, 동과 리까지 조직을 팽창하였고, 남녀를 불문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조직에 가입한 정규 대원수만도 2백만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가진 대한청년단은 비록 군사단체나 민병조직은 아니었지만, 당시 국내의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반공 일선에서 치안확보와 질서유지에 협력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조직이 방대해지자 단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 및 군사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8월 청년간부 중에서 720명을 선발한 후 보병학교에 입교시켜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청년단 배속장교들이었다.⁶⁶⁾ 청년방위대는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되, 간부요원은 대한청년단의 배속장교와 해체된 호국군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2주간의 보수교육 후 임명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와 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郡)단위로 지대(연대급), 면(面)단위로 편대(대대급), 리(里)단위로 구대(중대급) 또는 소대를 두었다. 1950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대편성과 조직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6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청년방위대원들은

65) 『국방사(1)』, p. 389.

66) 『국방사(1)』, p. 389; 『병무행정사(상)』, p. 259.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었으며, 그중 일부 간부와 대원이 현역에 편입되었다.⁶⁷⁾

앞에서 학도호국단이 1949년 4월 22일 창단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이 의무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에서 중학교로부터 대학교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젊은 학생들의 규율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교육적 방편만은 아니었다.

정부수립 직후에 국군이 미국에 장비와 재정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 10만 명 이외의 별도의 병력, 즉 예비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 증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정규군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하였다. 정부수립 직후의 호국군 창설과 청년방위대 조직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도호국단 단원들에 대한 군사훈련도 정부수립 직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예비전력 보완책의 하나로 실시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⁶⁸⁾

하지만 학도호국단은 6·25전쟁 발발 시에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창단 이후 6·25전쟁 발발 시까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기간이 짧았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1950년도 정규예산에는 반영되지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임시비에 겨우 8백여만 원이 책정되었을 따름이었다. 학도호국단의 방대한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군사훈련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67) 『병무행정사(상)』, p. 259.

68) 『국방사(1)』, pp. 391-393.

것은 그 자체가 무리였다.⁶⁹⁾ 그러므로 학도호국단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것은 유사시 전투원에 즉시 투입될만한 훈련을 받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단원들에게 유사시 현역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 것이라는 정신적 측면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은 훗날 위기의 상황에서 현역에 자원입대하거나 또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2. 국군의 창설과 6·25전쟁 이전의 병력충원 체제

6·25전쟁 발발 직전 대한민국은 10만 명 정도의 정규군 병력을 유지 하었는데, 이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였다. 비록 징병제가 선포되기는 했지만 전쟁발발 이전까지 실제로 징병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제대로 된 병무행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1951년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부가 제2국민병 소집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징병제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시된 정부수립 직후의 병력 충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민 개별징병이 실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참전이 주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장 단순한 질문, 즉 당시의 병역제도가 어떠했기에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혹은 학생들은 왜 징집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학도의용군이라는 별도의 집단이 구성되었는가? 등의 확대된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1) 국군의 창설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 하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다. 광복 직후부터 많은 한국인 사이에는

69) 『국방사(1)』, pp. 392-393.

과거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하겠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광복군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군사경험을 쌓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를 역설하면서 사설 군사단체 및 유사 군사단체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경에는 사설 군사단체 및 유사 단체가 무려 60여 개가 난립함으로써, 출발 동기가 애국적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무질서하고 혼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946년 1월 20일 미군정 당국은 사설 군사단체 해체령을 내려 군사단체들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미군정 당국은 국내 치안유지책으로서 일본 경찰기구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경찰력으로는 혼란한 한국 내 치안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미 미 군정장관 아놀드는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 군정청 내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초대 부장에 시크(L. E. Schik) 준장을 임명하였다. 경찰관계를 다루는 경무국과 육군부와 해군부로 구성된 군무국으로 편성된 국방사령부는 장차 창설될 한국군의 조직과 편성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군대창설 계획은 동경의 맥아더 장군의 의견에 따라 경찰창설 방안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대신 1945년 12월 5일 미군정 당국은 국방경비대 기간 요원만을 양성할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를 설치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30일 폐교될 때까지 4개월 동안 110명의 장교를 임관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은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로 계승되었다.

육군의 모체는 경기도 양주군 태릉(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이다. 국방경비대는 6백 명으로 제1연대 제1대대를 편성, 1946년 1월 15일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7일 국방경비대사령부가 설치되었고, 1946년 4월까지 8개 연대를 창설하였다. 같은 해 3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63호로 국방사령부 산하의 경무국을 독립시키고, 이어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사령부를 국방부

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그 해 5월 1일 태릉에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세워 장교양성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1946년 5월 서울에서 속개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의 이름 시비로 국방의 개념을 국내 치안으로 한정시키고, 이름을 국내경비부로 바꾸었다.

국방경비대는 그 해 11월 16일부터 1948년 5월까지 8개 연대를 더 창설하여 총 16개 연대로 늘어나자 1947년 12월 12일 각각 3개 연대를 지휘할 여단(旅團)을 창설하고 서울에 제1여단, 부산에 제2여단, 대전에 제3여단을 배치하였다. 이어 1948년 4월 충주에 제4여단, 광주에 제5여단, 서울에 제7여단을 창설배치하였다. 조선경비대는 정부수립에 따라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여단의 중절과정에서 미군정 당국이 지나치게 불평부당주의를 취함으로써 군내에 공산주의 세력을 발붙이게 하는 빌미를 주어 1948년 4월 3일의 제주도 사건에 이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사건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방경비대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하는 한편 공산주의자들을 군내에서 쫓아냄으로써 민주 국군의 바탕을 다지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편되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되었다. 먼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통위부에서 국방부로 한국 국방기구의 틀에 변화가 있었으며,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 육군사령관 사이에 군사안전 대책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군사협정은 대한민국과 미 주둔군의 공동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방·군비 통솔권과 통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할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사고문 사절단 예하에 임시군사고문단(PMAG)을 설치했는데, 이들은 1949년 6월말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7월 1일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8월 16일부로 이미 육군과 해군이라 호칭되다가 9월 1일부로 정식으로 육군과 해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9월 5일 총래의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러한 국군으로의 개편과정에서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이 공포되었다.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 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로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직이 확정되었다.

국방부의 기구편성은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 작업으로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됨으로써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총참모장제만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군 기구 간소화 조치로 인해 각 군의 총참모장이 소관 군의 최고 통솔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지휘체계 하에서 육군으로 개편된 조선경비대는 1948년 12월 7일 국방부 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를 육군총사령부라 개칭하고, 사령부 예하 부대로 보병 5개 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를 편성하였다. 육군총사령부는 다시 12월 15일 육군본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고, 육군총사령관은 육군총참모장이라 불렀다.

육군은 1949년에도 증강을 계속하여 이범석 장관의 재임 말기인 1월경 이미 제7여단을 창설하여 6개 여단에 20개 연대로 늘어났다. 예하 여단을 지원하는 부대편성도 급진전되어 후임 신성모 국방부장관 재임기인 그해 5월 12일 국군조직법 제3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켰다. 다시 6월에 이르러 육군은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의 창설로 총 8개 사단에 23개 연대가 되었다.

(2) 6·25전쟁 이전의 병력충원 체제

병력충원의 방법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징집하여 현역으로 복무토록 하였다가, 제대 후에 예비역으로 분류

한 뒤 유사시에 예비역을 소집 동원하는 징집과 소집, 순수하게 지원병에 의하여 병력을 총동원하는 모병 등이 있다. 먼저 모병은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징집과 소집을 골간으로 하는 현대의 병역제도는 19세기 초에 프로이센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⁷⁰⁾ 이러한 징집 및 소집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징집 후소집(先徵集 後召集)’을 따르고 있다. 즉, 먼저 장정을 뽑아서 군대를 양성 훈련하고 이들을 제대시켜 무기를 다루는데 숙달된 예비역을 많이 확보한 후, 유사시에 예비군을 소집하여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창군 후 2년 뒤에 발발한 6·25전쟁 초기에 전혀 예비군다운 예비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잠시 언급한 호국군은 집에서 거주하며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념상 현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호국군은 8개월 만에 폐지되었고, 청년방위대도 청년 군사훈련 단체로서 현역에 입대하기 이전까지 사전교육을 시키는 군사조직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비군이라 볼 수 없었다. 우리 정부가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시기가 1949년 8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연히 지원에 의한 모병이 병력충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또한 그 이전 시기에는 병무행정기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병은 충원을 필요로 하는 군대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경비대는 ‘BAMBOO 계획’의 승인에 따라 남한의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예비대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는데, 창설 당시 한국인들은 이를 남조선 국방경비대로 호칭하였다. 25,000명 규모의 병력 편성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미 군정청의 국방사령부 군부국은 전국적인 모병운동을 전개하여 각 도별로 1개 연대씩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이 해방 후 최초의 모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1

70) 『병무행정사(상)』, p. 368.

연대에서 ‘국방군 응모’라는 제목 아래 신문 광고와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사설군사단체와 경찰을 통하여 광범위한 모집활동을 벌여, 1946년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응모자 1천여 명 중 2백 50명을 모집한 것이 모병의 시초로 볼 수 있다.⁷¹⁾ 이 때 모병된 인원 중 1백 87명으로 제1연대 1대대 A중대를 편성하여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의 태릉(현 육군사관학교 위치)에서 입대식을 거행함으로써, 국군 탄생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첫 부대가 창설되었다. 이때 모집인원 선발과정은 이력서를 통한 구두시험과 간단한 신체검사가 전부였다.⁷²⁾

1947년 초에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조선경비대의 증강 문제가 대두되었다. 1947년 10월 22일 주한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Hodge) 중장은 유사시 북한군에 대항할 최소한의 자체 방위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경비대의 인원을 20만 명 선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1948년 2월 6일 조선경비대의 보강에 관한 그의 보고서에서 남한에서의 정규 군대의 창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난관이 너무 많아 유보되어야 하며, 다만 경비대의 병력을 2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증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미 합동참모부는 1948년 3월 10일 맥아더 사령관의 건의안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정부수립을 앞두고 경비대 병력을 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 1일 육군으로 편입될 당시 조선경비대의 병력은 5개 여단 15개 연대, 총 병력 5만 4백 90명(장교 1천 4백 3명, 사병 4만 9천 87명)에 달하였다.⁷³⁾

정부수립 후 미군은 속속 철수를 단행하여 1949년 6월 29일 마지막 부대가 한국을 떠났다. 당시 북한은 날로 병력을 증강하고 38도선에서 충돌

71) 『국방사(1)』, pp. 203-204.

72) 『국방사(1)』, pp. 296-297.

73) 『국방사(1)』, pp. 300-305.

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폭동사건을 빈발시키고 있어 정부는 미군이 떠난 국방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48년 11월 11일 국군 4만 명 - 국군 10만 명 편제 중 현 보유병력 5만 여명을 제외한 미 보충 병력 - 의 응급모집을 결정하고 이를 각 청년 단체에서 선발 모집키로 하였다. 다만, 모병이 통상 개인지원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 반해 이 시기의 모병은 일종의 단체모집으로써 집단응모의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이 모집인원을 토대로 1949년 5월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켜 6월에는 육군은 8개 사단 23개 연대의 부대 편제를 갖게 되었다.⁷⁴⁾ 그러므로 해방 이후 이 시기까지 모병에 의한 병력충원은 대략 10만 명 선으로 추산되었다.⁷⁵⁾

정부수립 후 나타난 최초의 병역 관계법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제정된 병역입시조치령(1949. 1. 20, 대통령령 제52호)으로서 병역법이 공포시행될 때까지의 한시적 법령이었다. 이 법은 미국의 철수가 단행되면서 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긴급조치로써, 전술한 호국군은 이 법에 근거하여 창설된 것이었다. 이 법은 국군편입(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개인적 지원에 한정함으로써 병력충원에 있어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병원칙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모병은 매년 만 17세 이상 만 28세까지의 자로서 군사교육이나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었다(제 21조).⁷⁶⁾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의무병역제에 의한 징병은 병역법 제정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모병 즉 지원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그 나름의 장점이 없지 않았으나, 응모자의 신원조사나 소행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즉,

74) 『병무행정사(상)』, pp. 251~252.

75) 『병무행정사(상)』, p. 255.

76) 『병무행정사(상)』, pp. 36~38.

경비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모병의 자유주의적 원칙만을 강조함으로써 좌익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입대하여 경비대의 내부 갈등과 시련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⁷⁷⁾ 정부수립 후의 여수·순천 10·19사건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모병의 폐단이 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수립과 아울러 공포된 헌법 제30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국민개병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이러한 국민개병주의가 철저하게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병무행정 쇄신요강」(1955년 4월 1일, 국무회의 가결)이 제정될 즈음에 가서야 겨우 가능하게 되었다.⁷⁸⁾ 그 이전은 병무행정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골격을 만드는데 분주하였으며, 더구나 6·25전쟁 3년간은 모든 정부의 부서가 그러했듯이 병무행정도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응 위주였다.

정부수립 후 최초의 병역법은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되었다. 전문 제8장 제81조로 구성된 이 병역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한 병역제도는 의무적인 징병제도와 자유선택에 의한 지원병제도를 병용하여 여자도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매년 만 20세에 달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호국병, 제1보충병의 순으로 징집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하는 자는 만 26세까지의 징집이 연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청년 및 중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었다.⁷⁹⁾

이상과 같은 병역법의 시행과 아울러 병사행정(兵事行政)의 체계화를 위

77) 『국방사(1)』, p. 300.

78) 『병무행정사(상)』, pp. 290~292.

79) 『병무행정사(상)』, p. 345.

하여 병사구사령부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청주, 대전, 춘천 등 도청 소재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로 병무국을 국방부 내에 설치하였다.⁸⁰⁾ 이 기구는 병역법 공포에 따른 의무병 징집에 의욕을 갖고 징병적령자 등록 등 제반 준비작업을 마치고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군 10만 편제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징병검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후 징병검사의 실시를 보류하고, 군 예산의 절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950년 3월에는 병무국과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해체하였다.⁸¹⁾ 그야말로 병무행정 부재의 상황에서 전란을 맞이하게 된 셈이었다.

6·25전쟁 개전 초 국군은 중과부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 기간 중 국군은 충분한 병력충원을 기할 수 없었다. 응급조치로 정부는 1950년 7월 중순부터 병력동원이 가능한 지역인 전라남북도과 경상남북도에 병사구사령부를 재설치하고 병력충원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호남 일대도 순식간에 적에게 유린되고, 영남 지역도 적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충원 가능 지역은 경남·북의 2개 도에도 미흡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병력충원의 방법으로는 당시 국군은 건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비군(제대군인)이 거의 없었고, 징집도 전술한 대로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입영하지 않은 대기 장병도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1950년 7월부터 제2국민병(병역의 하나로서 만 17세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대상이 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전쟁은 가장 치열하였고, 피난민 대열과 소집 절차의 미비 등으로 가두소집이나 강제모병이 불가피하였다.⁸²⁾

응급조치 방식으로 병력충원이 진행 중이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아울러 아군의 총반격이 개시됨으로써, 후방지역의 급속한

80) 『국방사(1)』, p. 285.

81) 『병무행정사(상)』, p. 263.

82) 『병무행정사(상)』, p. 273.

병력충원이 더욱 시급하였다. 반격 당시의 소요병력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만 명의 신병 보충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50년 11월 제2국민병 등록을 실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만 명을 넘는 병력을 짧은 시간 안에 소집한다는 것은 당시의 불충분한 병사기구와 행정지원으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연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1951년 5월 25일 병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통령이 각종 소집을 실시할 때는 병종(兵種)과 연령을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해 7월 처음으로 국무원에 의한 소집공고가 실시되었다. 이후에야 비로소 제2국민병 소집이 수월해졌다.⁸³⁾

1952년 9월 5일부터 제2국민병 소집과 아울러 처음으로 징집을 개시하였다. 지원과 징집에 의해서만 신병을 보충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8월 31일 제2국민병 소집이 종결되면서 시작되었다.⁸⁴⁾ 1949년 8월 병역법이 공포된 이후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역법이 천명하고 있던 징집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것이었다. 학도의용군이 자진하여 참전을 요청하여 온 것은 개전 초기 한참 제2국민병이 소집되던 시점이었다. 정부가 병무행정의 미비, 급속한 신병충원의 필요성 때문에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강제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상황이었다. 남들은 강제소집당하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취하고 있을 때, 이들은 자원하여 참전에 나선 것이다. 참전을 자원한 학도의용군들은 학생의 신분이었음으로 기본적으로 병역법상 징집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16세~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제2국민병의 소집 나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전쟁발발 이전에 우리 정부가 병역법을 개정하거나 학생들의 징집 및

83) 『병무행정사(상)』, pp. 273~275.

84) 『병무행정사(상)』, p. 272.

모병을 위한 행정절차의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객관적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병력충원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학도의용군이나 용감한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찬양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적 조치의 불비와 같은 정부의 준비 소홀은 반드시 짊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6·25전쟁 초기 학도의용군의 형성 과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 기습남침이 시작되어 서쪽의 용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또한 유격대와 육전대는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의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하였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이 시작되자 38선으로부터 불과 40km 남쪽에 위치한 수도 서울은 혼란에 빠졌다. 사전에 치밀한 남침계획을 수립했던 북한군은 서울 북쪽에 주공인 제1군단을 투입해 서울을 목표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38선 일대의 국군부대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여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 부대와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군부대들이 미처 준비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의 공격은 막강하였다. 특히 북한군을 선도한 소련제 T-34전차와 SU-76 자주포의 위력은 강력하였다. 그들의 전차와 자주포가 국군의 방어진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군은 단 한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하였고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도 없었다. 전차의 위력을 보고 있는 아군 병사들은 공포에 빠졌으며, 일부는 전의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화염병을 들고 또는 박격포탄을 메고 전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공대의 활약도 태세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전방사단으로부터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6월 26일 13시경, 의정부가 남침 하루만에 점령되고 27일 오전, 아군부대들이 미처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도 전에 40여 대의 전차와 자주포로 증강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방어부대들은 창동지역을 포기하고 미아리와 태릉 일대로 분산 철수하였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고, 전차를 앞세운 적은 아군이 미아리 삼거리에 설치해 둔 장애물을 쉽게 밀어제치고 길음교를 통과해 서울 도심으로 진출하였다. 미아리 방어선의 붕괴는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 방어선의 붕괴였다.

미아리 방어선의 붕괴로 적 전차가 시내에 진입함에 따라 서울시가지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시내 곳곳에 차량·목책 등으로 긴급히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지만 효과적인 저항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육군본부는 서울 시내에서 시가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6월 28일 날이 밝으면서부터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진하여 분전하고 있는 국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바로 학도호국단 소속의 학생들이었다. 6월 26일 오전 일찍부터 대부분의 중학교와 대학에서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모여 북한군 남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였다.

이들은 라디오 뉴스만으로 전해지는 전황의 자세한 전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대체로 전세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렴풋한 예측과 걱정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대생들이 부상자 치료를 대비하여 병원에 모여들었으며, 성균관대학교와 동국대학 등의 학생들은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을 찾아가 참전할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국방부에 찾아가 참전의를 밝히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6월 27일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단지형서

로 종군을 자원하는 학생도 있었다.⁸⁵⁾

그러던 중 6월 27일 오후에 6·25전쟁 중에 조직된 최초의 학생조직인 ‘학도위문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이 주축이 되어 20여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도위문대는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을 찾아가 “국가와 민족이 대난에 처한 상황에 학도로서 봉공할 길을 열어달라”고 탄원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난길에 오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우게 해달라는 젊은 학생들의 굳은 의지를 높게 평가한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을 해결하고 주선하였으며, 그 결과 학도위문대가 성공적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도위문대는 조직 자체가 급하게 추진되었고, 가용한 비용과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고작해야 과자와 음료수 등을 마련하여 화물차에 싣고 일선의 미아리, 청량리 등지로 달려가 장병들을 위문하는 것이 전부였다.⁸⁶⁾

그러나 6월 27일 저녁부터 서울에 적이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이후 수도 서울이 실패되는 등전세는 점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사적으로 한강을 도하하여 수원에 모인 학생들 중 2백여 명이 6월 29일 오후에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비상학도대’를 발족하였다.

비상학도대는 이후 6·25전쟁 중에 모습을 드러낸 여러 학도의용군 단체의 모체가 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서울, 경기 지구에서 모여든 전국학련, 이북학련, 반공학련 출신들과 학도호국단 학생간부들이었다. 국방부 정훈국은 이들에게 정훈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였으며, 모두 3개 소대로 편성하여 전투에 투입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학도전투대를 편성하여 수류

85) 『한국 학생건국운동사』, pp. 521-522.

86) 손도심, “6·25와 학도의용대,” 중앙학도호국단, 『전몰학도명단』 (서울: 동단, 1957), p. 84.

탄을 소지하고 다시 서울 방면으로 북상하여, 노량진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강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이 필사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용감한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서 가담했던 것이다. 훗날 한강방어선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수많은 학도들이 전사하였는데, 비상학도대의 이와 같은 활동은 이후 전세가 아군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던 순간에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참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⁷⁾

한편 비상학도대 소속의 몇몇 학생들은 ‘학도선전대’를 조직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황을 보도하는 등의 가두선전과 피난민 구호, 남하하는 학생들의 규합 등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⁸⁸⁾ 그러나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이 7월 3일 즈음에 수원을 탈취하자, 비상학도대 소속의 학도의 용군들도 피난민과 후퇴하는 국군대열에 휩쓸려 뿔뿔이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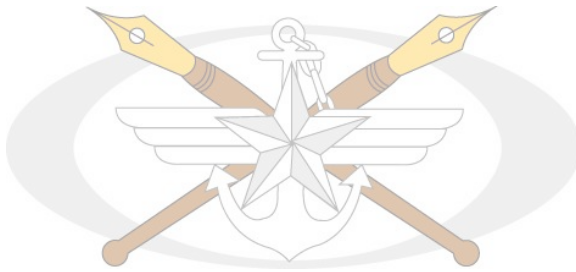
이처럼 6월 29일에 수원에서 형성된 비상학도대가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동안, 7월 초에 남하한 정부를 따라 대전에 내려온 학생들이 김득신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 정훈국의 지도 아래 ‘의용학도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700여 명의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도병 모집, 보도선전 등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던 국군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전세가 악화되어 정부가 대구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 의용학도대 소속의 학생들도 대구로 이동하였다.⁸⁹⁾ 이리하여 수원에서 철수한 비상학도대와 대전에서 내려온 의용학도대가 대구에서 집결하였다. 이후 두 조직은 7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통합하여 대한학도의용대로 개편한 이후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87)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22.

88) 『6·25와 학도의용대』, p. 84.

89) 『6·25와 학도의용대』, p. 84;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59.

하여 부산에 집결되었던 학도들도 심영택을 중심으로 대한학도의용대를 조직하였는데, 이 조직도 초기에는 별도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와 임시수도를 정하자, 두 개의 학도의용대가 부산 동아극장에서 통합식을 통해 조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⁹⁰⁾ 이 조직이 바로 국방부 정훈국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전시학도 조직체의 본산이었으며, 6·25전쟁 시 활약한 학도의용군의 실질적인 모체였다.⁹¹⁾



90)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60.

91)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 67.

제 3 장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 : 시기별, 지역별 구분

1. 제1단계 : 개전 ~ 낙동강 방어선 형성 이전 (1950. 6 ~ 7)

예상치 못했던 북한군의 기습공격이 개시되자 38선 일대의 국군 부대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38도선 상의 국군 방어진지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 부대와 치열한 접전을 치렀으나, 소련제 T-34 전차와 SU-76 자주포를 앞세운 적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했으며,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도 없었다. 개전 이틀째인 6월 26일 13시경에 의정부가 적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어서 6월 27일 오전에는 아군 부대들이 미처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도 전에 40여 대의 전차와 자주포로 증강된 적이 공격을 감행하자 국군부대들은 창동지역을 포기하고 미아리와 태릉 일대로 분산 철수하였다. 일부 국군부대들이 미아리 방어선을 구축했으나, 27일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공격이 재개되자 곧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28일 새벽에 한강교가 폭파됨에 따라 서울은 사실상 적에게 점령되었다.

(1) 대한학도의용대와 전국학련구국대의 활동

1) 비상학도대 결성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국군의 전열이 무너지고, 개전 이후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실함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도호국단 소속의 학생들은 자진하여 국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 소식이 전해진 이후 6월 26일 오전 일찍부터 대부분의 중학교와 대학에 모여 북한군 남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였다. 특히 이들은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전세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점차 학교에 모여 차후의 상황 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와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6월 26일 오후부터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부상자 치료에 대비하여 서울 시내의 각 병원에 모여들었으며, 성균관대학교와 동국대학교 학생 중 일부가 정훈국의 이선근 대령에게 직접 참전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을 신청하기도 하였다.⁹²⁾ 그러던 중 6월 27일 오후부터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도위문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평소에 학도호국단 간부학생들의 애국충정을 이해하고 있던 이선근 대령은 전면전의 발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도위문대와 같은 학생들의 노력이 점차 위기에 처한 국군의 전황을 호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조직되어 비용이나 물자 등이 부족했던 학도위문대에 조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음료수 정도를 준비하여 미아리와 청량리까지 밀린 장병들을 위문하는 것이었다.⁹³⁾

이와 같은 학생들의 활동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바로 서울의 실패이었다. 서울의 실패는 6·25전쟁에서 학도의용군 활동이 시작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6월 27일 저녁부터 서울에는 북한군이 침입하기 시작했으며,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사실상 서울이 적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이처럼 적이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실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처럼 조국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결사적으로 한강을 도하한 학도호국단 소속의 학생들이 하나 둘 수원에 모여들었다. 이후 200여 명으로 늘어난 학생들은 6월 29일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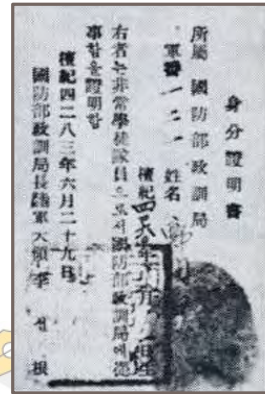
92) 『한국 학생건국운동사』, pp. 521-522.

93) 손도심, “6·25와 학도의용대”, 중앙학도호국단, 『전몰학도명단』 (서울: 동단, 1957), p. 84.

에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비상학도대를 발족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비상학도대는 이후 6·25전쟁 중에 모습을 드러낸 여러 학도의용군 단체의 모체였다. 비상학도대의 구성원은 서울, 경기 지구에서 모여든 전국학련, 이북학련, 반공학련 출신들과 학도호국단의 학생 간부들이었다.

6월 29일 한강을 도하한 200여 명의 학생들은 수원에 집결하여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비상학도대를 발족시켰는데,⁹⁴⁾ 이는 전쟁초기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여 미군과 유엔군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던 학도의용군의 모체이다. 비상학도대는 서울, 경기지구의 전국학련과 이북학련, 그리고 반공학련 출신



비상학도대 신분증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학도호국단 간부 일부도 이 조직에 참여하였다. 3개 소대로 구성된 비상학도대의 일부는 학도전투대를 편성하여 노량진 전투에서 최초의 참전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나머지 일부 인원은 학도선전대를 조직하여 전황보도 등의 가두선전과 피난민 구호, 남하학생 규합활동을 수행하였다.⁹⁵⁾ 국방부 정훈국은 이들에게 정훈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였으며, 수원에 모여든 200여 명의 학생들을 3개 소대로 편성하여 한강방어선 전투에 투입하였다. 한강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이 필사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용감한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서 가담했던 것이다.

94) 비상학도대의 발족일자는 관련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된 일자는 당시 단국대학에 재학 중 부산학도의용대장으로 활동했던 심영택의 증언을 근거로 하였다.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2)』 (서울 : 중앙일보사, 1985), p. 319.

95)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 67~68.

훗날 한강방어선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개전 초기에 비상학도대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의 전사하였는데, 비상학도대의 활동은 이후 전세가 아군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던 순간에 후방의 많은 학생들에게 참전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⁹⁶⁾ 한편 비상학도대 소속의 몇몇 학생들은 학도선전대를 조직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황을 보도하는 등의 가두선전, 피난민 구호, 남하하는 학생들의 규합 등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⁹⁷⁾ 그러나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이 7월 3일 아침에 수원을 탈취하자, 비상학도대 소속의 학도의용군들도 피난민과 후퇴하는 국군대열에 휩쓸려 산발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대한학도의용대 발족

6월 29일에 수원에서 형성된 비상학도대가 활동을 개시하고 있던 7월 초, 남하한 정부를 따라 대전에 내려온 학생들이 김득신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 정훈국의 지도 아래 의용학도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700여 명의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도병 모집, 보도선전 등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전세가 악화되어 정부가 대구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 의용학도대 소속의 학생들도 대구로 이동하였다.⁹⁸⁾ 이리하여 수원에서 철수한 비상학도대와 대전에서 내려온 의용학도대가 대구에서 집결하였고, 이후 두 조직은 7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통합하여 '대한학도의용대'로 개편하고 활동을 지속하였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에 부산에 집결한 학생들이 심영택을 중심으로 결성한 대한학도의용대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직과 같은 명칭이었으

96)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22.

97) 「6·25와 학도의용대」, p. 84.

98) 「6·25와 학도의용대」, p. 84;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59.

나, 두 개의 단체는 결성시기와 활동내용이 달랐다. 이후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와 임시수도를 정하자, 두 개의 학도의용대는 7월 26일에 부산 동아극장에서 통합식을 통해 조직을 통합하였다.⁹⁹⁾ 전쟁 당시 학도병의 대부분이 대한학도의용대를 거쳐 군에 입대함으로써 병력조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들 병력이 국군 10개 사단과 예하 부대에 배속되어 낙동강 교두보 전투에 참전하였다. 당시 대한학도의용대는 1951년 2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 복귀령으로 인해 해산될 때까지 27,7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27만여 명이 후방에서 선무공작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⁰⁾



학도의용대 결성대회

이처럼 전쟁 전부터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학생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6월 29일에 최초로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를 조직하였으며, 곧바로 노량진 전투 등에 참전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1951년 초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선이 두 번이나 요동쳤으나, 국

99)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60.

100) 앞의 책, pp. 68-69.

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아군이 전반적인 전세를 장악하자, 점차 후방에서 안정을 회복한 우리 정부가 병무행정을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후 점차 병력충원제도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병력충원이 가능하게 된 1951년 2월 28일에 개인별,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복교령이 공포되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선에서 군번도 없이 적과 맞서 싸우고 있던 학생들은 학교로 속속 복귀하였으며, 4월 3일에는 국방부 정훈국 예하의 정훈공작대가 마지막으로 해산함에 따라 6·25 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다.¹⁰¹⁾

이들 학도의용군의 일부는 학생 집단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편성하여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군번도 없는 학도병으로서 개인적으로 군부대에 예속되어 활동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대하여 정규군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일선에서의 이러한 활동과 아울러 후방에서는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 선무공작 등에 종사하기도 하고, 적 후방에서의 유격부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6·25전쟁에 참전했던 학도의용군은 국내 학생들로만 조직된 것이 아니라 재일교포 학생들도 있었다.

6·25전쟁 당시 개별적으로 군에 자원입대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대한학도의용대를 거쳐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대한학도의용대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당시 국군의 모든 사단과 예하 부대에 대한학도의용대를 통해 출정한 학도의용군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가 없을 정도였다. 이들은 낙동강, 다부동, 안동, 기계, 안강, 영천, 포항, 창녕 등 최후의 교두보에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장렬하게 싸우다 생명을 바치면서 조국수호에 앞장섰다. 이후 1951년 2월 28일 학도의용군에 대한 학교 복교령이 내려짐으로써, 참전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학도의용대도 해산하게 되었는데, 대한학도의용대는 해산되기까

101) 『병무행정사(상)』, p. 278; 『학도호국단 10년지』, pp. 79-80.

지 27,000여 명의 대원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모두 27만여 명의 대원을 보유하면서, 후방선무공작 등을 통하여 보국에 공헌하였다.¹⁰²⁾

〈표 1〉 출정 학생 수

지 역	인 원	지 역	인 원
부 산	4,500명	대 구	2,000명
서 울	3,200명	기 타 각 도	18,000명
합 계		27,700명	

〈자료출처 : 학군단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 68, 표 1-3〉

〈표 2〉 대한학도의용대 대원수(1951년 4월 현재)

출 신 지	인 원	출 신 지	인 원
서 울 특 별 시	6,700명	전 라 남 도	23,800명
경 기 도	23,500명	경 상 남 도	65,000명
충 청 남 도	42,000명	경 상 북 도	56,000명
충 청 북 도	21,500명	강 원 도	6,500명
전 라 북 도	27,200명	체 주 도	3,000명
합 계		275,200명	

3) 전국학련구국대(全國學聯救國隊)의 활동

대한학도의용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안 전국학련 간부 출신들은 ‘전국학련구국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국학련 출신의 학생들은 대전에서 구국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전세가 악화됨에 따라 별다른 성과 없이 대구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에 내려온 전국학련 간부들은 경북학련을 주도하던 학생들과 재회하여 조직을 재편하였으며, 1950년 7월 17일에는 정식으로 전국학련구국대를 발족하였다. 이 철수를 총본부 위원장으로 한 전국학력구국대의 주요 활동목표는 학도지원

102)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pp. 67~68.

병 모집 및 후방선무공작, 대한학도의용대의 보완적 업무, 현역 입대 및 참전, 후방치안과 정보업무 수행, 그리고 수복지역의 선무공작 수행 등이었다.¹⁰³⁾ 7월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전국학련의 초기 활동은 위급한 전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병을 모집하여 학도의용대를 편성한 후, 각 전선으로 투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유엔군의 증강에 따라 적의 남하속도가 둔화되자, 전국학련구국대는 후방의 민심수습과 치안확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전쟁 중에 후방 치안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이 학도경찰대였다. 내무부장관이었던 조병옥과 협의하여 9월 4일 대구에서 정식으로 ‘대한학도경찰대’가 발족된 것이다. 전국학련 간부 출신인 유구환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학도경찰대는 1주간 특수훈련을 받고 후방치안을 담당할 요원으로 기용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지리산 공비도벌작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학련구국대의 형성과정과 초기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대한학도의용대가 국방부 정훈국의 지휘 하에 있었던 반면 전국학련구국대는 내무부와 협조하면서 유지 및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전방과 후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투와 비전투 임무에 직접 참가한 점 또는 치안유지나 선무공작 등으로 전방 및 후방에서 국가의 위기에 자발적으로 투쟁하였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 제2단계 : 낙동강 방어선 ~ 학도 복귀령 발령 (1950. 8 ~ 1951. 3)

6·25전쟁 발발 당시 학생들은 대부분 학도호국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학도호국단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뿐만 아니라 학도호국단은 그 자체가 학생 중심의 조직체였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일시분란하게 동원되거나 움직

103)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p. 539-540.

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다. 게다가 학도호국단의 지휘 체제가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남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학도호국단 조직 전체가 붕괴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편 학생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공산주의에 동조하였거나 중도적인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내에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학도호국단 지도체제가 동요하고, 내부의 학생들은 부득이 개별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¹⁰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전쟁발발과 동시에 학도의용군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학생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야하는 것이다.

1950년 7월 31일부터 개전 직후 국군과 유엔군이 수행하던 지연작전이 종결되고 새롭게 형성된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방어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국군과 미군의 부대 운용은 적이 방어선의 어느 정면에서 공격해 오더라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도의용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부족 상황을 해소하였으며, 이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이후에 전개된 학도의용군의 활동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훨씬 다양하고 포괄적이었다. 여기에는 7월말까지 지속되었던 대한 학도의용대와 전국학련구국대 소속의 학도의용군 단체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한 독립 제1유격대대, 제1, 2정훈대대 등도 전후방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외에도 제일학도의용군처럼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했던 학도의용군, 자신들의 고향에서 준동하던 공산 게릴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된 해군 묵호경비부 학도의

104)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 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1986), pp. 520~521.

용대와 같은 자발적인 학도의용군 등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1951년 2월부터 4월 초 사이에 정부의 해산지시로 해산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현역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학도의용군 신분으로 전투 및 비전투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1) 대한학도의용대와 전국학련구국대 주축의 학도의용군 활동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직후부터 국군은 각 지역에 편성관구를 구성하고, 각급 부대의 재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8월 20일에는 국군 사단 증편계획의 일환으로 민부대와 독립유격 제1, 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이 재창설되었고, 8월 27일에는 제11사단에 대한 신편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에 제2, 제5사단의 재창설, 제9사단, 제3군단의 신편계획도 이어졌다.¹⁰⁵⁾ 8월 중순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전 정면에서 학도의용군의 숫자가 증가되었다. 특히 포항지구에서는 8월 중 제3사단을 지원하여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9월 초에는 자원자 153명이 중화기 중대요원으로 운용되어 영일비행장 경비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¹⁰⁶⁾

일본에서는 재일교포 학도병 54명, 애국청년 25명이 참전한 것을 필두로 641명의 자원자가 국군과 미군에 편입되어 9월 13일부터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 시기의 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계급과 군번도 없이 각 부대에 편입하여 직접 전투나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6·25남침을 응징하기 위한 전 국민의 적개심이 고조되어 여성들까지도 군복무를 열망함에 따라 부산에서 애국여성 중 500명을 선발하여 9월 6일 육군 제2훈련소에 '여자의용군교육대'를 창설하였다.¹⁰⁷⁾

10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346~347.

106) 남상진, 『학도의용군』(서울: 효성출판사, 1975), pp. 63-70.

107) 국방부, 『국방사(2)』, 1987, p. 64; 『병무행정사』(상), p. 642.

전쟁초기 북한군이 시도한 낙동강 교두보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맞서 포항전투에 참여했던 ‘제3사단 학도의용군’ 71명은 김석원 장군을 따르던 학도병들이 단위부대로 결성한 조직이었다. 이들은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에 설치된 제3사단 후방지휘소를 사수하기 위해 48명의 인명을 희생하면서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은 재집결하여 형산강 전투를 전개하고, 국군 및 유엔군의 반격작전 시에는 길주까지 북진을 계속하는 등 정규군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다.

8월 11일에 치러진 네 차례의 근접전에서 학도의용군은 전사자 48명, 행방불명자 4명, 포로 13명, 후송자 6명 등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적의 진격은 지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영일만에 정박하고 있던 700여 척의 선박으로 포항 시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해군, 경찰관, 미군 군수지원부대 일부 병력도 영일만에서 감포로 무사히 철수하여 3시간 후에 감행된 미 제8군의 반격작전에 기여하였다.¹⁰⁸⁾

8월 11일의 포항여중 전투에서 대부분 산화한 제3사단 학도의용군중대는 다시 120여 명의 학생을 보충받아 재편되었다.

이때부터는 중상으로 입원한 학생신분의 중대장을 대신해 사단에서 현역장교가 직접 나와 중대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의 훈련과 전투를 지휘하였다. 재편된 학도의용군중대는 포항에서 북한군의 9월 총공세를 맞아 싸우다가 유엔군의 총반격에 따라 사단과 함께 북진을 감행, 함경북도 길주까지 진격하였다. 이처럼 제3사단 학도의용대는 북진대열에 동참하여 주로 선무와 정훈활동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7월 26일 대구에서 자발적으로 결성,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를 거쳐 제3사단 학도의용대로 활동한 이들은 포항의 전투의 신화를 간직한 채 1951년 3월 16일 강원도 홍천

108) 『한국전쟁사 학도의용군』, p. 95.

에서 해산되었다.¹⁰⁹⁾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바로 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가 정규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성되었고, 다른 학도의용군 조직의 모범이 되었던 부대가 바로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었다.

전국학련 소속의 학생들로 구성된 ‘여수·순천 학도의용군’ 역시 학도의용군만의 독자적인 부대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으며, 일부 정규군 부대로 편입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도의용군 부대의 건재를 유지하였다. 그후 이들은 1951년 2월 28일에 정부에 의해서 학교 복교령이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여 학교로 돌아왔다. 이로써 개전 직후에 시작된 학도의용군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¹¹⁰⁾

한편 7월 중순에 결성된 전국학련구국대는 8월 중순 이후 유엔군의 증강에 따라 적의 남하 속도가 둔화되자 후방의 민심 수습과 치안확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방 치안활동 지원에 가장 앞장선 조직이 바로 학도경찰대였는데, 이들은 당시 조병옥 장관과 협의를 거쳐 9월 4일 대구에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유구환 등 500여 명의 전국학련 간부들이 중심이 된 학도경찰대는 1주간 특수훈련을 마친 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가담하여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에서는 신국봉 등을 중심으로 중앙학도호국단 치안대가 조직되었다. 소위 학도치안대는 경상남도 경찰국의 후원으로 경남 지역의 치안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용되었으며, 200여 명의 대원이 경남 관내 경찰서

109) 앞의 책, p. 107.

110) 본 장에서는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참전, 복귀 그리고 부대가 해산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본문은 주로 남상선·김만규 공저인 『6·25와 學徒兵』과 남상선의 『學徒義勇軍』의 내용을 초록하고, 관련 서적 및 증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에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10월 말경에 전원이 북한 수복지역에 파견되어 경찰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¹¹¹⁾

하지만 9·28 서울 수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할 무렵에 경인지구 계엄사령관 이준식 소장은 전국학련구국대와 같은 학도의용군 단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학련구국대의 간부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수복지역에 대한 대민 선무공작, 후방 치안유지 등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역설하면서 해산명령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는 무시되었다. 결국, 전국학련구국대 예하 조직들은 10월 초에 대부분 해체되었다. 다만 구국대 본부 기간요원들은 모두 내무부 소속의 선무공작반에 편입되어 활동을 계속하였다.¹¹²⁾

특이한 것은 이 기간에도 국방부 청훈국 지휘 하에서 활동하며 직접 일선에서 다양한 전투임무를 수행했던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의용군 단체와 달리 전국학련구국대는 내무부와 협조하면서 주로 후방치안, 선무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 점이다.

(2) 국방부, 육군본부 지원 하의 학도의용군 활동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교두보에서 반격으로 전환하였을 당시 독립제1유격대대가 장사동 해안에서 수행한 작전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은 6일간의 작전기간 중 129명이 전사하고 1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겪었지만, 적 270명을 사살하고 학살 직전의 애국청년 10여 명을 구출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과는 단순히 전과의 수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평양방송이 “국군 1개 사단이 동해안에 상륙했다”고 보도했

111)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p. 550-554.

112)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p. 553-554.

고,¹¹³⁾ 북한군 제2군단이 포항 전선에서 2개 연대와 4대의 전차를 장사동으로 재배치했음을 볼 때,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만으로 적을 분산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전술은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⁴⁾

‘장사동상륙작전’으로 불리는 이 작전은 곧 감행될 인천상륙작전의 양공작전으로서 북한군의 이목을 동해안 영덕 지구로 흡인시켜 상륙지역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북한군 제5사단 및 제2군단 후방지역에 기습상륙을 감행하여 보급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0년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에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와 북한군 제5사단 및 제2군단 후방 치안부대인 제101보안연대 간에 이루어진 이 작전은 작전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연관된 양공작전으로서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적 후방교란과 병참선 차단 그리고 주 전투지역 전투 병력의 재배치를 강요하는 작전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¹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부산으로 귀환한 독립 제1유격대대는 국본 일반명령(을) 제72호(1950. 9. 18)에 의거, 정식으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로 명명되었고, 이후 북진하는 국군 및 유엔군의 뒤를 따라 북한군 패잔병소탕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 17일 제2사단의 가평 공략작전을 지원한 직후인 11월말 육본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는 해체되었고, 부대원들은 제2사단 제32연대에 현역 사병으로 편입되었다.¹¹⁶⁾

한편 제7사단 제18포병대대에 소속된 학도의용군들은 포병으로 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학도의용군 조직이었다. 당시의 포병은 각 병과 중에서도 두뇌와 체격이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학도

113) 앞의 책, p. 128.

114)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 『모래톱에 묻힌 충혼: 육본 직할 독립 제1유격대 참전기』, 1995, p. 145.

115) 앞의 책, pp. 146~147.

116) 『모래톱에 묻힌 충혼』, pp. 82~83.

의용군들은 어느 병과보다도 포병에서 선호하였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포병에 대거 입대하게 되었다. 미군으로부터 충분한 포를 지원받아 5개 대대를 10개 대대로 증편한 제7사단 제18포병대대는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 북진 중이던 1950년 10월 중순 서울에서 병력보충을 위한 학도병 모집에 임하였다. 당시의 전황으로 보아 3~4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판단한 모병관 최철 대위는 학생들에게 학생신분으로 참전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5, 6학년이었다.

간단한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341명은 10월 18일과 20일 2진으로 나뉘어 북진중인 제18포병대대에 배치되었다. 70~80명씩 각 포대에 배치된 이들은 낮에는 전포 및 통신훈련을 받고 밤에는 경계임무에 투입되었다. 11월 4일 이들은 평북 박천의 비호산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학도의용군들은 포병부대의 계속된 증설로 차출되어 나간 고참병들을 대신하여 제18포병대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덕천에서 크리스마스공세에 돌입했던 11월말 경에는 통신, 관측, 측지, 사격, 지휘 등 포병대의 모든 분야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큼 숙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과 크리스마스 공세의 실패로 후퇴하게 된 이들은 후퇴과정에서 200여 명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재편성 후 안동에서 새로운 포를 지원받은 이들은 중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사창리 전투와 철원지구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으나,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서울학도포병대’는 북진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포병대대의 병력을 충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병대대의 주체가 되어 지원임무가 아닌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현역에 편입된 관계로 이승만 대통령의 학도병 복교령에도 불구하고 전역이 용이치 않았으며, 전쟁이 끝난 지 5~6년이 되어서야 전역을 할 수가 있었다.¹¹⁷⁾

117)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 209-210.

한편 국군과 유엔군이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총반격을 시작한 이후 북한지역으로 밀고 올라가자, 점차 확대되는 북한 점령지역과 점령지의 주민들에 대한 대민 선무공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준장은 정훈대대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 11월 24일 국본 일반명령 제 109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의 정훈 제1대대(772부대), 제2대대(773부대)를 창설하였다.¹¹⁸⁾

정훈대대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민족정책의 정당성 인식, 6·25전쟁의 진상과 공산분자들의 죄악상 폭로, 민주주의적 이념과 생활방식의 체득, 국군에 대한 신뢰감과 대군협조의 강화, 공산주의 잔재의 급속한 청산 등을 각종 교화, 계몽, 선정을 통해 달성함으로써 멸공선전의 조속한 종결과 통일조국 부흥의 초석을 튼튼히 함을 그 임무로 하였다. 제1, 2대대를 통합한 정훈대대의 병력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애국청년들로 구성되었고 여학생이 대부분인 현역 여자의용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교, 사병, 문관 등 전체 468명 중 여자의용군은 71명에 이르렀다.¹¹⁹⁾

한편 정훈대대의 활동은 백야전전투사령부가 빠치산 공비토벌작전을 주관하던 서남지구에서도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정훈대대의 활동은 공비들이 남아서 활동하던 각 고지에서 귀향을 촉진하는 대적방송을 실시하거나, 입산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정훈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같은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잔비토벌작전기간 중에 1,239명의 잔비를 귀순시켰으며, 많은 수의 적의 세포조직을 분쇄할 수 있었다.¹²⁰⁾ 한편 국방부 정훈국에서 관할하던 대한학도의용대에서도 북한지역에 선무공작대원을 파견하였는데, 그들

118) 육군본부 정훈감실, 『정훈 50년사』, 1991, p. 137.

119) 앞의 책, p. 142.

120)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1월 25일까지 달성한 성과는 적 아지트 발견 117건, 루트 발견 160건, 지방세포 적발 1,033명, 정보 획득 30건 등이다.

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출신 학도들로 구성되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명 내외의 학생대원들이 각 도에 분산·배치되어 주로 선무공작과 학생들의 지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북한 지역의 완전 수복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활용하여 정훈대대를 편성하고, 이들에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무를 맡기기 위해 편성한 것이 정훈대대였다. 그러나 전세의 변화로 이들의 북한 파견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들의 임무는 남한 지역에서 대민 선무, 부대정훈, 공비토벌 등으로 전환되었다.

(3) 다양한 형태로 참전한 학도의용군 부대와 활동

1950년 7월 31일부로 형성된 낙동강 방어선은 지연작전기간 중 전 정면에 걸쳐 지속되었던 북한군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특히, 8월초에 이르자 낙동강 방어선을 방어하던 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에 맞서 싸우면서 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일 늘어나는 인명손실이었다. 이에 따라 각 부대별로 신병보충 문제는 각 부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선결사안이었다. 더구나 비밀리에 추진하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자, 한국군을 미군부대에 배속시키는 형태의 일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¹²¹⁾ 이를 위해 정부는 제2국민병 소집을 통해 인원확보를 계획하였으나, 시간상의 여유가 없자 8월 15일을 전후하여

121) 카투사 제도의 시초가 되었던 이 조치는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무초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위키는 “한국경찰을 전투대대로 편성·훈련시켜 적의 잠입을 색출하거나 후방에서 적의 위장침투에 대처하는 특수임무를 부여하자”는 무초의 제안을 수용, 7월 23일 미 국방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에 더해 무초는 병력부족에 시달리던 미군부대에 한국군을 배속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고, 인천상륙작전에 동원할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맥아더가 이를 받아들여 3~4만 명의 한국군을 미군에 배속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 1993, p. 11.

피난민이 운집했던 대구와 부산 등지의 거리에서 강제징집으로 인원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미군에 배속될 병력보충은 징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대규모의 한국경찰로 구성된 ‘국립경찰 화랑대대’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될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으며,¹²²⁾ 재일학도의용군과 진영학도의용대와 같은 일부 지원병력도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한 학도의용군 중 병력의 규모나 조직체계 등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재일학도의용군이다. 일본 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재일학도의용군은 제1진이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전투참전 이외에도 군수기지 경비, 통역, 점령지 치안업무 및 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¹²³⁾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여한 또 다른 학도의용군 조직인 ‘진영학도의용대’는 1950년 7월 20일경 서울에서 피난 온 대학생 100여 명이 경남 진영에서 조직한 학도의용군 부대이다. 이들은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전한 최초의 학도의용군이라 할 수 있다,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며 전우애를 다진 이들은 9월 2일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이곳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예하 부대에 분산·배치되었다.¹²⁴⁾ 배치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9월 11일, 이들은 미 제2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 K중대 소속으로 경남 함안지구 전투에 투입되었다. 투입에 앞서 이들은 태극기에 ‘결사보국 대한민국 만세’라는 혈서를 써 어깨에 두르고 전의

122) 앞의 책 p. 39.

123) 당초 미군이 재일학도의용군에게 부여한 임무는 군수기지 경비, 미군과의 통역,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및 경비업무 등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업무로 국한되었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대다수가 한국의 지리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미군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2002, p. 184.

124) 『한국전쟁사 학도의용군』, p. 294.

를 다졌으며,¹²⁵⁾ 이어서 의령지구의 갓 댐(God Damn) 산 전투와 충북 연풍의 소백산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특히 소백산 전투에서는 적군 1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²⁶⁾ 미군에 배속되어 각종 전투임무를 수행한 진영학도의용군은 이후 국군에 편입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과 진영학도의용군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군에 배속되어 직접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였으며, 보급지원 및 경계임무 등 후방 지원활동을 수행하여 전쟁수행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이후 이들은 국군에 편입되어 복전에 참여하였으나, 중공군개입 이후 후퇴과정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겪게 되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영동 지구에 소재한 삼척공업중학교, 북평중학교, 강릉상업중학교 등 7개 중학교 학생 75명은 조국수호라는 애국충정으로 1950년 10월 1일 해군 묵호경비부에 자원입대하여 해군학도병을 조직하였다. ‘해군 묵호경비부 학도의용군’이라 명명한 이들은 자원입대한 지 10여 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12일에 북한군 패잔병이 해군 묵호경비부를 기습 공격하자 이들에 맞서 공방전은 벌였다. 이어 12월에는 해병부대가 증원됨에 따라 해병대 예하의 2개 소대로 편입되어 옥계 지구 및 석병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북한군 패잔병소탕작전에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1951년 7월 31일 각 학교로 복귀하였다.¹²⁷⁾ 당시 해군 묵호경비부 학도의용군으로 활동했던 학생들은 교복이나 해병대의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M1, 칼빈, 기관단총 및 수류탄과 중화기로서는 60mm 박격포와 81mm 박격포 각 1문, LMG 1정, BAR 2정을 보유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125) 최의연과의 전화인터뷰 (2002. 12. 5) 재인용.

126)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294.

127) 해군학도병 6·25참전 동지회는 1990년 4월 30일, 6·25전쟁 당시 참전한 대원들의 증언을 종합한 증언록을 육군본부에 제시하였다. 이들의 참전사실과 활동내용은 그들이 제시한 종군증명서, 부대장 표창장 등의 첨부문서와 구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학도의용군)에 의거 1959년 7월 10일부터 1961년 7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군에서 학도의용군으로 소급 적용한 48명의 확인발령조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및 남파 불순분자들의 방화 및 살인과 후방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패잔병을 색출하고 토벌하는 작전에 참여하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학도의용군이 수행한 기능 중 하나의 특징은 각 지역에서 준동하는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낙동강전선에서의 국군의 총반격으로 북한군이 패주함에 따라 9월 중순 남로당은 “빨치산활동을 경험해본 자와 빨치산 활동이 가능한 자는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각 군당에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9월 28일을 전후로 모든 조직들을 자기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입산한 자들을 규합, 여러 개의 유격대를 조직하였다.¹²⁸⁾ 이처럼 빨치산과 합류한 패잔병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 차단, 식량약탈,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는데, 산세가 험한 호남지역과 경북 내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따라서 학도의용군의 공비토벌작전도 당연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정읍 지역의 학도경찰대와 칠보면 학도의용군, 전남 화순 연평마을 학도의용군, 보성중학교 학도의용대와 같이 지방의 자생적인 학도조직과 전국학련구국대나 학도경찰대 그리고 중앙학도호국단 치안대와 같이 전국적인 조직의 학도의용군들이 참가하였다. 각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학도의용군 조직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고향이나 마을을 자체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규합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

128)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 10,000여 명은 호남지역에서 각종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전남 지역에는 전남도당 유격대를 조직하고 총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예하에 화순·보성 유격대, 화순탄광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영광유격대, 광산유격대, 장흥광양장성유격대, 남해여단, 어버이부대, 담양유격대, 제522부대, 제523부대, 제524부대와 총사령부 직속으로 제1, 제3, 제8, 제15연대, 포부대, 제540부대, 제550부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전북지역에도 전북도당 유격대총사령부 예하에 전주시당 비락병단, 독수리병단, 카투사병단, 빈개병단, 보위병단, 기포병단, 칠보부대, 허사령부대, 탱크병단 일실 남원 순창 정읍 부안군당, 백암부대, 비호부대·제206부대 등을 편성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1945~1960)』, 1988, p. 167.

었으며, 무기나 장비 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활동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여학생의 신분으로 자원입대하여 전·후방에서 전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했던 여자학도의용대가 있다. 이들은 현역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군번 없이 전후방의 각 전투부대에서 행정업무 지원과 병원에서 간호 및 선무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자원입대하였으나,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현역으로 편입된 학도병도 있었다.¹²⁹⁾

3. 제3단계 : 학도 복귀령 발령 ~ 휴전 (1951. 3 ~ 1953. 7)

1951년 2월 28일 정부는 개전 초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학생 학교복귀 지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4월 3일을 마지막으로 국방부 정훈국의 정훈공작대가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학도의용군 해산명령이나 학교복귀 지시 담화를 들은 학도의용군 부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951년 2월말과 3월초에는 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이미 군번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이었다. 이들은 비록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했지만, 전쟁을 치르는 중 현역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학교로 복귀할 수 없었다. 다만,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의해서 학도의용군 부대로 별도로 관리되

129) 대표적인 사례가 '진해중학교 학도병'으로서, 1950년 8월 30일 당시 진해중학교 전교생의 약 1/3인 206명이 자원입대하였다. 열차편으로 부산에 있던 육군통신학교에 집결한 이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2주~3월간의 훈련을 마친 후 일선 사단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1950년 8월 31일 군번을 부여받음으로써 현역병으로 편입되었다. 손담, "이렇게 시작한 무전여행 : 학도지원병의 참전수기" 중 '6·25 한국전쟁의 이모저모' (미발간), pp. 2~3; 박차생, "진해중학교 학도병의 자원입대 및 전투 활동에 대한 증언"(2002. 12. 12).

던 정훈공작대와 같은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복귀 지시나 대통령의 담화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여전히 학도의용군들에 의한 전투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휴전이 체결되는 순간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특히, 지하에 숨어 활약하던 수많은 북한의 반공애국청년들은 국군이 북진을 계속하자 각종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치안을 확보하며 패주하는 적의 섬멸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이들의 일부는 연안의 도로나 산 속으로 들어가 결사항전을 계속하였다. 북한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곳곳에서 출신지역별로 규합,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훈련과 장비가 거의 없던 이들의 초기 유격전은 출신지역을 드나들며 적 후방의 행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았으나, 국군 정보장교나 유엔군과 접선이 되면서부터는 필요한 장비도 갖추고 산발적이던 조직도 점차 통합·확대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1951년 1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동·서해안 유격부대들의 작전은 정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한편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동해안 일대에서는 Y부대가 주한 유엔군연합고문단사령부(JACK)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적인 유격전을 전개하였고, 서해안 일대에서는 구월부대, 백마부대 등이 백령도 미 극동군 표작전기지사령부 예하 동키부대에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작전에 나섰다. 이들 유격부대의 임무는 주로 적의 후방 보급로 파괴, 후방 민심요란, 토벌대의 병력증강에 따른 적 일선병력의 약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유격작전과 더불어 중요 전투정보 입수, 지하에 은닉한 반공인사의 구출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¹³⁰⁾

유격대를 구성하는 반공청년들 중에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13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5)』, 1985, pp. 213~214.

높았으며, 이들은 웅진학도의용대의 경우와 같이 학도병 조직을 결성하여 참여하거나 또는 기존 단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격활동을 전개한 학도의용군의 대표적인 사례는 웅진학도유격부대이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전선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1년 1월 하순, 무기와 보급도 없는 상태인데다 각 학교별로 분산되어 편성된 조직으로는 적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단합할 필요성을 인식한 웅진 학도호국단 및 서부학도대 학생대표들은 웅진학도유격부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2월 4일 창린도를 비롯한 인근 도서의 학생 모두를 규합하여 ‘웅진학도의용대’를 창설하였다.¹³¹⁾ 이후 이들은 1951년 3월 초에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동키 제11유격부대로 편입되었다. 또한 이 부대는 정부가 국민방위군을 재편성하자, 그 휘하에 들어가서 재편성되었다. 그러나 4월 30일 국민방위군이 해산되자, 표작전기지사령부가 웅진학도의용대를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던 웅진학도의용대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체결되자 제8250부대로 개편되었다. 웅진학도의용대는 1951년 봄에 창설되어 1954년 초 해산될 때까지 전사 272명, 실종 100여 명, 중상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정규군도 감당하기 어려운 유격작전을 수행하였다.

131) 웅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학도유격부대전사』, 2002, p. 127.

제 4 장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 : 활동 단체별 구분

6·25전쟁에서 활동했던 학도의용군은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 참전하였으며, 참전한 이후 몇 가지 유형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학도의용군이 결성한 단체는 지역적 연관성이나 참전 동기에서 연유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후 점차 각 단체의 활동 유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에서 활동한 학도의용군의 활동 유형을 단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에 자발적으로 자원한 학생의용군 활동의 첫 번째 유형은 정규군 부대에 배속되어 통제를 받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도의용군 부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경우이다. 전국학생총연맹 소속의 학생들이 수도사단에 찾아가서 결성한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이어서 결성된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규부대와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후방경계나 대민 선무활동 등을 맡았으며, 때때로 전투임무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학도의용군 부대를 독자적으로 결성한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과 서울수복 이후 결성된 서울학도포병대대의 활동도 이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장사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제1독립유격대대의 경우처럼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조직하고, 직접 지휘하여 활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전투임무뿐만 아니라 국방부 정훈국에서 주관하여 조직한 정훈 제1, 2대대와 관련 선무반 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유격전이나 후방지역 작전과 같은 다양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학도의용군 활동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학도의용대나 기존의 특수부대에 학생신분의 학도의용군이 자원하여 참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웅진반도 등 서해안에서 활동했던 웅진학도유격대와 태극단 학도의용군, 그리고 후방지역에서 활동했던 각 지역별 학도의용군 단체들과 간호, 선무, 정훈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조직되었던 단체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한편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온 재일학도의용군과 여성이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도의용군 단체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여자학도의용군은 각각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

6·25전쟁 시 활약한 학도의용군 활동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가 정규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성되었고, 다른 학도의용군 조직의 모범이 되었던 단체는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었다.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김석원 장군 휘하에 모이기를 희망했던 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단위부대를 조직하여 수도사단을 거쳐 제3사단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김석원 장군을 따르던 학도병들이었다. 이들은 1950년 8월 11일에 포항여중 부근의 사단 후방지휘소를 사수하기 위해 48명이라는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적의 진격을 늦추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학도의용군들은 다시 모여 형산강 전투를 치루고 북진을 계속하여 길주까지 진격하였다. 이들은 전투는 물론이고, 이후에는 선무공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단 부산으로 철수하였다가 다시 북진하여 흥천지구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전국학련 소속의 학생들로 구성된 여수·순천 학도의용군 역시 학도의용군만의 독자적인 부대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으며, 일부 정규군 부대로 편입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도의용군 부대의 건재를 유지하였다. 그후 이들은 1951년 2월 28일에 정부에 의해 학교 복교령이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여 학교로 돌아왔다. 이로써 개전 직후에 시작된 학도의용군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다.¹³²⁾

(1)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1) 형성 과정

6월 29일 수원에 모인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을 받아 비상학도대를 발족시켰다. 당시 한강방어에 사활을 걸었던 국군 지도부는 교복과 교모를 쓰고 지원한 학생 지원병들에게 소총 1자루와 실탄만을 지급한 뒤 국군 혼성부대에 수십 명씩 편입시킨 후 한강 방어선에 투입하였다. 이처럼 한강 방어선은 학도병들이 국군과 함께 한강을 도하해 오는 적을 맞아 최초로 전투에 참전한 곳이었으며,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학생들 중에 최초로 희생자가 발생한 곳도 바로 한강 방어선이었다. 7월 2일 오후에 한강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이 경부선 방향에 주공을 두고 공격하다 7월 3일에 수원을 점령하자, 국군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전황이 이처럼 절박하게 전개되자 수원에서 결성된 비상학도대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당시 대전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도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서울과 수원에서 정부를 따라 남하한 학생들은 7월 4일에 다시 대전에 모여 대전역 앞에 사무실을 두고 '의용

132) 본 장에서는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참전, 복전 그리고 부대가 해산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본문은 주로 남상선·김만규 공저인 『6·25와 學徒兵』과 남상선의 『學徒義勇軍』의 내용을 초록하고, 관련 서적 및 증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학도대(義勇學徒隊)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700여 명의 학도를 규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은 의용학도대를 관장하여 지원자를 직접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의용학도대의 후방 지역에서의 선무공작 임무를 지원하였다. 의용학도대는 정훈국에서 파견된 정훈장교로부터 5~6시간의 선무활동에 관한 기본행동강령을 교육받고는 곧장 후방의 선무공작에 주력을 두었을 뿐,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학도의용대의 활동에 사기를 더욱 높여준 것은 미군의 지상전 투입 소식이었다.

육군본부를 따라 대구로 내려온 학도들은 7월 14일 ‘대한학도의용대’를 조직하였다. 대구역 인근의 동아빌딩 2층에 학도병 모병사무소를 두고, 거리에 다음과 같은 벽보를 써 붙여 학도병의 출전을 호소하였다.

조국을 사랑하는 학도여! 조국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가자! 김석원 장군의 휘하로!

7월 25일에는 이와 같은 벽보를 보고 학도병에 자원한 학생들에게 출전 지원서를 받고, 각각 결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¹³³⁾ 훗날 대한학도의용대 혹은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로 알려진 이들은 16세의 중학생으로부터 24세의 대학생에 이르는 87명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중대를 자처하고, 2개 소대와 6개 분대로 편성하였다. 중대장에는 서울대학 사범학부 교육과 2학년 김용섭이 추대되었다. 대한학도의용대 본부는 이들에게 태극마크가 그려진 흰띠와 완장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태극마크의 흰 띠는 교모에 동여매고, ‘대한학도의용대’라고 쓴 완장은 왼쪽 팔에 둘러댔다. 이들은 7월 26일에 육본에서 보낸 2대의 트럭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돈 다음 기차역에 도착하여 대한부인회 회원들로부터 열렬하게 환송을 받

133) 당시 학도의용군들이 서명한 결의서는 “하나,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 둘, 나는 이 순간부터 나의 조국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내용이었다.

았다.¹³⁴⁾ 대한학도의용대는 7월 27일 육군본부에서 출전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중대장의 선창에 따라 대원들은 다음과 같은 선서문을 제창하였다.

하나 :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년 학도이다. 죽음으로써 나라와 겨레를 지킬 것을 선서한다.

둘 :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술 것을 선서한다.

셋 :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는 날까지 펜 대신 총을 잡을 것을 선서한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학도병들은 대구를 출발, 기차로 안동역에 도착하여 곧바로 수도사단 후방지휘소로 이동하였다. 당시 수도사단장은 학생들에게 잘 알려졌던 김석원 장군이였다. 김석원 장군은 전쟁 발발 전에 국군 제1사단장으로 개성 송악산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널리 용맹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의 용장으로서의 이미지는 학도호국단 교련시간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송악산 10용사의 영웅담은 김석원 장군의 애국충정처럼 칭송되기도 하였다. 그는 전쟁발발 직전에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성남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쟁발발과 더불어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수도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석원 장군은 자발적으로 총을 잡은 학도병들에게 최후의 혈전에 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줄 것을 격려 호소하였다.

134)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1983), p. 331. 이때 황기태(黃棋台) 대원의 애인이 쫓아와서 울며불며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델테니 부산으로 가자는 것이였다. 끝내 거절하자 손을 깨물며 태극기에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혈서를 써주었다. 황기태는 태극기를 이마에 걸끈 동여매었다. 한편 이들 학도병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16세의 김만규(金晩圭)는 대구 성광중학 3학년으로 학도병에 지원하자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으나, 간곡한 청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후 사단 신고 시에 김석원 사단장이 몇 살이냐고 묻자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 어려서 안 되니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김만규는 또 애원하다시피 하여 학도병에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었다.

제군! 나는 군인으로서 제군들 앞에 큰 죄를 졌다. 국토방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전선을 이 모양으로 만든 군인으로서, 더구나 사단장급의 장군으로서 국가와 민족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단죄를 받는 것은 후일 우리가 복귀를 물리친 후 받기로 하고, 눈앞에 다가온 적을 섬멸해야 한다. 학교에서 펜을 던지고 교모를 쓴 채 전장에 달려온 제군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나는 감격할 뿐이다. 제군! 우리 대한의 남아답게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이것이 대한 남아의 본분이 아니고 무엇인가!¹³⁵⁾

2) 부대 편성 및 전투 준비

학도병들은 사단 직할대대와 지근거리에 있던 성당의 본관을 숙소로 정하고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하였다. 학도병들은 개인 화기로 지급 받은 M1소총, 갈빈 그리고 일제 3·8식 및 9·9식 소총 등으로 매일 실전보다 힘든 훈련을 받았다.



자원입대한 학도의용군의 기초군사훈련 모습

135)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 기념사업회,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1986), p. 565.

한편 학도병중대는 소대 편성을 완료하여 서울사대 출신의 김용섭을 중대장에, 1소대장에 유명옥, 2소대장에 김일호, 1소대 향도에 이우근, 2소대 향도에 안영걸, 김만규를 중대 연락병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김만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참전 당시 16세로 학도병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육군본부는 수도사단의 주력인 제18연대를 예천에 배치하여 북한군 제8사단의 전진을 저지하고,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연대를 안동 북쪽에 배치하여 북한군 제12사단과 대치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7월 31일에 북한군 제12사단이 안동을 공격해왔다. 이러한 전황 속에 김석원 사단장은 안동읍사무소에 모인 시민들에게 총궐기 할 것과 호림부대, 백골부대, 영남부대 등 민간 자원병 부대에 적극 가담토록 권유하였다. 그 결과 7월 31일 14시에는 87명의 학도병들이 사단장의 사열을 받고, 격려의 훈화를 들었다. 이들은 실탄 50발씩을 지급받고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금강 및 소백산 방어선에서 지연작전을 펼치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8월 1일 05시까지 낙동강 남안의 저지진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접수하였다. 이 명령을 받고 철수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군단참모회의가 8월 1일 02시까지 4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개최된 군단참모회의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예하부대에 대한 철수명령은 늦게 하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부 경계부대들에게는 철수명령이 전달되지도 못했으며, 철수명령을 받은 부대들도 장비와 물자를 제대로 낙동강 이남으로 이동시킬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결국 최후의 엄호부대였던 제1연대는 8월 1일 04시에 개시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안동시내로 철수하고, 서둘러 05시에는 안동의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시켜 북한군의 시내진입을 저지하기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철수로가 차단된 아

군의 잔여부대는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1군단의 안동철수작전 시 학도병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군단이 철수하기 바로 전날인 7월 31일 저녁에 안동교 남안으로 철수명령이 내려졌다. 이때 안동교 남안에 배치된 학도병은 수도사단 본부로부터 최초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안동교 남안으로 침투가 예상되는 적 게릴라에 대한 경계작전과 안동에서 작전을 개시하던 국군부대가 후퇴할 때 엄호사격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따라 학도병 중대는 최후의 엄호 부대인 제1연대가 안동교를 폭파할 때 강 북안을 향해 엄호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엄호사격은 효과가 있어서 뒤따라오던 북한군의 안동교 진입은 일단 중지되었다.

이후 학도병들은 새로운 명령을 수령하였다. 즉시 현 위치를 출발하여 8km 남쪽의 의성군 길안(吉安)의 후방 집결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다. 학도병들은 도로를 따라 적막한 밤의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학도병들이 안동교를 떠난 지 20분 후에 안동교 방향에서 폭발음과 불기둥이 솟아 올랐다. 이후 학도병들은 8월 1일 오전 09시경에 후방 집결지인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사단지휘소에 찾아가 귀대보고를 하자, 사단사령부에서는 집결지 인근의 민가 몇 채를 숙소로 지정해주며 휴식을 지시하였다. 오랜만에 휴식을 맞은 학도병들은 후방지휘소에서 자신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해 줄 여력이 없음을 알고 근처의 민가에서 도움을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다.

이후 수도사단에서는 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학도병들에게 특별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에 따라 학도병들은 낮에는 8월의 폭염 아래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밤이 되면 사단지휘소 경계임무를 담당하면서 실전부대의 군사작전에 기여하였다. 이후 안동에서 철수한 사단 주력이 낙동강 남안에 배치되고,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다소 안정세를 찾게 되자 김석원 사단장이 격려차 후방사령부를 방문하였다. 8월 3일에 사단 직할

부대인 학도대와 호림대, 백골대, 영남대 등이 길안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 이날 사단장은 감격어린 훈사와 함께 학도병들과 일일이 뜨거운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의 애국충정을 격려하였다. 사열을 마친 사단장은 후방지휘소에 들러 학도병들에게 군복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다시 전선으로 갔다. 이때까지도 학도병들은 집에서 입고 나온 학생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3) 임무 수행 : 주둔지 방어, 낙동강 방어전 전투

8월 1일에 안동을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은 8월 4일에 자체 준비를 마친 후, 전차를 앞세우고 도강하여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기까지 적의 전차는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다. 적의 전차는 진지를 유린하면서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결국, 수도사단은 적의 전차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용감한 병사들의 적 전차 속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발시키거나, 혹은 수류탄을 투척하여 전차의 캐터필터를 끊어서 일시 정지시키는 방법이었다. 사단장은 전차를 격파시킬 수류탄만을 든 육탄돌격대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사단 직할대 앞에서 비장한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적 전차에 뛰어들겠다는 지원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어려운 임무에 지원하고 나선 사람들은 바로 어린 나이의 학도병이었다. 모두 57명의 학도병들이 대전차 특공조에 자원하여 나선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부대를 떠나 사단사령부로 돌아갔다. 아무리 본인들이 자원하고 나섰다고 하지만, 사단장은 차마 이 일을 학도병에게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학도병들은 폭염 속에서도 분대, 소대, 중대 공격 및 방어훈련을 계속하였고, 밤에는 사단사령부에 대한 야간경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8월 5일 아침부터 적의 전방 공격부대가 사단을 포위하고 기습작전을 개시하였다. 심지어 적의 박격포탄이 사단본부에까지 날아왔다. 이처럼 사단사령부와 학도병 숙소 근처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자 학도병들은 1인당 백발 정도의 실탄을 지급받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이후 “학도병은 호림부대 중화기중대 우측 후방의 능선에 위치하라”는 명령을 수령한 후, 중대 전체가 지시받은 고지에 올라가 방어진을 구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학도병 중대가 첫 번째 맞이한 전투였던 것이다.

방어준비 편성을 완료하고 전투를 대기하고 있던 중, 전방 고지에 배치되어 있었던 사단 직할대대가 후퇴하면서 학도병 중대에도 후퇴명령이 하달되었다. 현 진지를 후퇴하여, 아군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진지전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학도병 중대는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뿐 별다른 손실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수하였다.¹³⁶⁾ 또한 8월 7일에는 점차 전선의 전황이 위급해짐에 따라 늘어난 피난민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어려워지자, 결국 학도병들에게 이 임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학도병들은 검문소에서 헌병들을 지원하였으며, 피난민 중에서 수상한 사람을 검문검색하면서 실무부대의 임무수행을 지원하였다.

8월 6일에 김석원 사단장이 육군본부로부터 제3사단장으로 전보 명령을 받자, 사단장은 자신을 따라 온 학도병과 호림, 백골, 영남의 민간 부대원들에게 감사와 건투를 비는 마음으로 특식을 선물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학도병들에게 알려진 것은 다음날인 8월 7일이었다. 김석원 장군을 믿고 따라온 학도병들에게 있어서 지휘관 교체는 기운이 빠지는 난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이 학도병으로 자원하게 된 배경에는 김석원 장군 일 개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계

136) 중앙 학도호국단, 「학도의용병 포항전투기」, 『전몰 학도명단』 (1957), p. 92.

속해서 수도사단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김석원 사단장을 따라서 제 3사단으로 함께 이동할 것인지?의 문제를 장시간 논의하였다.

이때 합의된 내용은 학도병 중대는 수도사단에 계속 남아 독립된 학도 대로서 사단의 지시에 따라 전투에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신임 백인엽 사단장은 학도병들의 우국충정을 치하하였으나, 학도병중대를 독립부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현지입대를 명령하였다. 신임 사단장은 학도병들에게 대학생은 상사, 중학생은 하사 계급을 제외하면서 입대하라고 달랬는데, 이러한 제안을 받은 학도병들은 다시 학도병 해산과 현지입대를 둘러싸고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4) 결과 및 영향

당시 학도의용군 부대가 활동하였던 제3사단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도병들은 스스로 모인 강한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학도의용군이라는 명예로운 자격을 원하였다. 즉, 이들은 전쟁 중에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개별 병사로 싸우거나 혹은 독립된 학도의용군 조직으로 싸우거나 모두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운다는 현실은 동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참전을 위해 나섰던 동기를 중시하여 학도의용군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들의 선택과 결정이 학도의용군의 순수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학도병 87명 중 현지입대 지원자는 16명이었고, 나머지 71명은 학도병 자격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백인엽 사단장은 71명에게 군복과 무기를 회수하고, 즉시 귀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는 발족 10여일 만에 해체되었다. 학도병으로 모인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는 조국에 대한 숭고한 애정과 정열을 쏟아 분기도 전에 중도 해산이라는 비애를 맛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1명의 학도들은 군복을 벗고 다시 교복으

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김석원 장군을 찾아 포항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다. 길안에서 포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학도들은 전선에서의 격전을 피해 행군하다가 8월 9일 정오에 의성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의성역에서 경주로 가는 미군 열차에 군수물자를 실어주고, 그 대가로 이 열차를 이용하여 경주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경주에 도착한 학도들은 이곳에서 포항으로 출발하는 탄약보급 군용 열차를 타고 포항에 당도하였다.

(2) 제3사단 학도의용군

1) 부대 편성 및 포항전투

수도사단을 떠나서 김석원 장군이 부임한 국군 제3사단으로 이동한 대한학도의용군 소속의 학도병들은 8월 10일 07시에 포항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제3사단 후방지휘소는 현재의 포항여자중학교에 자리잡고 있었다. 제3사단 사령부가 사단을 찾아온 학도병들에게 임시 숙소로 배정한 곳은 인근의 포항국민학교였다. 숙소 배정을 마친 학도병들은 작전처 보좌관 김치련(金致鍊) 대위로부터 현재의 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다.

북한군 제766부대는 태백산맥을 따라 강행군으로 8월 8일에는 포항 북방 40km 지점인 보현산까지 진출한 후 포항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북한군 제5사단 병력 일부가 직접 포항을 공격하기 위해 남진 중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3사단 전방지휘소는 적 포병 화력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사동(長沙洞)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적 제5사단이 포항의 흥해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 시민들은 피난을 서둘렀다.

이처럼 전선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은 즉시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위치한 포항여자중학교 강당으로 소속을

옴긴 후 부대를 재편하였다. 부대 재편성은 참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간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중대장에는 김용섭, 제1소대장에는 유명욱, 제2소대장에는 김일호가 선발되었다. 중대 연락병에는 김만규가 다시 지명되었고, 각 분대의 분대장도 임명되었다. 그날 저녁에 학도병들은 신품 M-1소총과 개인당 250발의 실탄을 지급받았다.

8월 10일 야간에 소규모의 적 게릴라들이 포항 시내에 침투하여 교란작전을 폈으며, 적 제5사단은 흥해를 출발하여 포항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사단 지휘부는 학도병중대에게도 03시까지 완전무장으로 포항 시내에 방어선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 04시경 방어 준비에 착수한 학도병중대 전방에 약 20여 명의 적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다행스럽게 이들의 접근을 미리 간파한 학도병중대원들은 적이 근거리에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사격을 가했으며, 이 전투에서 적 20여 명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71명의 학도병들은 준비된 방어진지로부터 적이 공격해 오고 있는 방향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학도병중대의 공격으로 시작된 약 1시간 동안의 접전에서 적은 피해를 입자 일단 후퇴하였다. 그러나 적의 일선 병력이 물러나자, 곧바로 적의 포격이 재개되었다. 국군 제3사단의 후방지휘소에는 사단의 기밀급 중요문서와 다량의 보급물자, 탄약 등이 야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철수 예정지인 감포로 철수작전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 철수작전은 학도병중대가 적 주공의 침입을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학도병들은 8월의 뜨겁게 내려쬐이는 태양 아래서 적과 대치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며, 점차 사단 본부로부터 병력지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연결된 사단사령부와의 통화에서는 “지금 사단본부 정면에 출현하여 공격해 오는 부대는 적이니 반격하라! 현재 영덕 방면에서 아군이 남하하고 있으니 열려 말라! 사단본부를 사수하라! 사수하라!”라는 내용이었다. 여기까지 통

화가 이어진 다음 통신이 끊겨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학도병중대는 사단본부 및 후방부대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포항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적에게 노출된 학도병중대는 부족한 병력과 미약한 소총으로 수십 배에 달하는 적에게 맞서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¹³⁷⁾ 두 번의 공격에 실패한 적은 곧바로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포항여자중학교를 삼면으로 포위하였다. 이후 사방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학도병중대는 효율적인 방어선 편성으로 세 번째의 공격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이 네 차례 연속으로 공격해 오자, 이전 세 번의 전투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전투에서는 국군의 잔존 병력이 학도병중대와 양 측방에서 분전하면서 방어선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으나, 네 번째에는 오직 학도병들만이 적을 맞아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적군 한 명이 독에 올라와 백기를 흔들자, 학도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해 그를 사살하였다. 그러자 확성기로 “우리는 북한군 제5사단 2연대인데, 국방군 동무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30분 여유를 줄 테니 잘 생각해 보라”하고는 사격을 딱 멈추었다. 학도병은 “동무들이나 항복해라. 그래 포항에는 어떻게 들어왔나” 하고 큰소리로 대응하였다. 북한군 진영에서는 “어제 밤에 국방군 암호를 대고 안강을 거쳐 들어왔다. 암호는 달과 별이더라.”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그리고는 “한 명만 나와 보라, 환영의 모범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학도병 1명(길안영)이 총을 놓고 걸어 나갔는데, 몇 발짝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북한군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것을 신호로 다시 그들의 총격이 시작되었다.

포항여자중학교를 포위한 북한군은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의 학교 뒷산

137) 「학도의용병 포항전투기」, p. 94.

에서도 공격을 가해왔다. 불과 71명의 학도병들은 상록수 울타리 밑에서 11시간 동안 네 차례나 적의 파상공격을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었다. 이처럼 네 차례의 전투를 펼치는 동안 실탄이 바닥났고, 학도병들은 손에 몇 개의 수류탄만을 쥐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적이 학도병중대의 방어선 정면으로 접근하자, 학도병들은 눈앞까지 접근해온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피 비린내 나는 백병전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모두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적과 싸우다 죽어갔다.

이 전투에서 학도병은 71명 중 김춘식, 이상현, 윤정환, 김영환, 이상현, 김언구, 윤재정, 금병선, 이우근, 길안영, 서성룡, 정문호, 윤 학 등 48명이 전사하였고, 행방불명자 4명, 포로 13명, 부상으로 인한 후송은 6명이었다. 후송자를 포함하여 살아서 포항여자중학교를 빠져나온 사람은 김용섭, 김일호, 김호경, 김탄, 유명옥, 이병균, 조성태, 주정만, 황기태 외 5명뿐이었다. 초전에 부상을 당한 6명은 적의 강력한 충격에 충상을 입고 부두 방면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학도병들은 포항여자중학교에 설치된 방어선을 고수하면서 모두 쓰러질 때까지 버티고 싸웠다. 총성이 멎자,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실신했던 13명은 적의 포로가 되었다. 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학도병 중에서 2명은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적에게 끌려가고 말았다.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던 김만규, 황재호는 약 10일 동안 적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10여 일 후에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결국 8월 11일 오후 6시경, 포항은 북한군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었다. 이에 미 제8군은 영일만에 접근중이던 군함 헬레나호에서 공중공격과 함포사격으로 적을 공격하였다. 치열한 함포사격과 항공기의 쉴 새 없는 공습에 견딜 수 없었던 적은 포항을 점령한지 불과 3시간 만에 포항을 버리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중대가 담당한 포항전투의 중요성은 포항 시내 남쪽의 영일비행장의 안전과 직결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제8군으로부터 국군 제3사단은 장사동을 사수하고 적의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저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만약 적 전차와 포병부대가 포항에 진입하면 영일비행장이 포격권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적 제766유격부대의 일부 병력이 포항 남방진입로를 차단하고, 주력은 포항 시내를 급습하기 위해 진출하던 중 포항역에서 경비중이던 경찰관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8월 11일 03시에 포항여자중학교 앞에 나타났다. 학도병중대의 포항전투는 11일 새벽 03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 30분까지 계속된 11시간의 혈전이었다. 학도병들이 견뎌준 이 사투로 말미암아 포항 시민들이 영일만의 700여 척의 선박을 통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해군기지사령부 요원과 경찰관 그리고 미 군수지원부대의 일부 병력들도 영일만에서 감포로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약 3시간 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미 제8군의 반격작전에도 도움이 되어 포항을 쉽게 탈환할 수 있었다.

포항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10명의 학도병들이 끌려간 곳은 경북 영일군 기계면에 위치한 적의 후방 지휘부 인근의 포로수용소였다. 이곳에는 국군과 미군을 포함하여 포로 15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적은 아군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선동하였다. 회유에 찬동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 서명 날인하게 되면 겨우 소금 바른 주먹밥을 주었다. 그리고 해방전사라는 미명하에 총알받이로 최전선으로 내보내 공산당의 제물로 삼았다. 하지만 학도의용군들은 포로수용소에서 감금되었던 10여 일 동안 회유당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때마침 아군 항공기의 공습으로 대피소동이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일부 포로들이 결사의 탈출을 감행하였다. 학도의용군 중 김만규와 황재호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포항에 머물고 있었던 국군 제3사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

다. 그러나 총 10명의 학도병 중에 8명은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8월 13일에 아군의 공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일부병력은 다시 포항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유엔군사령부는 의성 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 수도사단과 제17연대를 포항 전투에 투입시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미 제5공군은 북한군 병력이 대거 포항으로 진입하던 순간 일시적으로 영일비행장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같은 시간에 국군 제3사단은 강구동에서 덕성리에 걸쳐 병력을 장사형으로 포진하고, 적에 비해 열세한 병력으로 악전고투하면서 아군의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포항에서 육로를 통해 강구동 일대에서 적에게 고립된 제3사단을 구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보급추진이 순조롭지 못하고, 탄약마저 떨어져 진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자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제3사단에게 해상을 통해서 포항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김석원 사단장은 제3사단 본대의 안전한 철수작전을 위해 적에게 양동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포병과 박격포 등을 이용하여 남아 있는 포탄으로 요란사격을 가하고, 각 대대에서 1개 중대씩을 선발하여 8월 16일 21시를 기해 대대적인 공격을 강행하다가 다른 부대가 모두 철수한 다음날 04시경에 마지막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해안도로에서는 5~6대의 차량들이 해안에서 상륙 부대가 상륙하는 것처럼 헤드라이트를 켜고 해안도로를 왕래함으로써 적을 기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계획 아래 시작된 제3사단의 해상철수작전은 8월 17일에 사단 병력 9,000명, 경찰전투대 1,200명, 지방공무원과 노무 및 피난민 1,000여 명이 4척의 LST를 이용하여 구룡포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해상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국군 제3사단은 몇 시간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포항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포항을 중심으로

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아군의 상황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8월 12일부터 포항은 아군과 적군 간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의 장소였다. 주로 주간에는 화력과 기동으로 무장한 유엔군 특수임무부대가 투입되어 포항을 탈환했다가, 밤이 되면 야간 전투에 익숙한 적군이 야음을 이용하여 도시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 제3사단에게 포항탈환의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포항전선을 시찰중인 김석원 장군

포항탈환의 임무를 받고 포항 시내에 진격한 김석원 사단장은 8월 11일 전투에서 전멸한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 시신을 수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를 받은 남상선 소위와 소진혁 상사, 임노철 중사, 그리고 민간인 5명은 8월 14일 14시 경 포항여자중학교에 도착하여 48구의 학도병의 시신을 발견하고, 약 5시간에 걸쳐 시신을 한군데 모아서 가매장하고 다음과 같은 표지를 세웠다.

여기 장렬히 싸우다 잠든 48구의 학도병이 있음. 후일 다시 찾을 때
까지 누구도 손을 대지 말 것.

- 국군 제3사단장 백 -

한편 8월 20일에는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 그리고 경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일부 학도병들이 다시 김석원 장군이 지휘하는 국군 제3사단 휘하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또한 희생당한 전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의 길로 나선 것이었다. 김석원 장군은 이러한 학도의용군들의 용기에 감탄하여 이들에게 소총과 군복 그리고 전투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 부대 재편성

국군 제3사단으로부터 학도병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은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학도병들은 학도의용군 활동을 함께 할 인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몇 개조로 나뉘서 포항 인근지역에서 학도병 지원모집에 나섰다. 제1조는 경주, 울산, 부산으로, 제2조는 대구와 밀양 등지에서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활동결과, 가장 먼저 대구와 밀양에서 자원한 48명의 학생들이 포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경주, 울산 및 부산에서도 56명이 도착하였다. 이처럼 인원모집에 성공하자 고작 9명에 불과했던 학도병 부대는 모두 113명으로 증원되었다.

8월 24일에는 이렇게 모집된 학생들에게 학도의용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제3사단의 남상선 소위가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학도의용군 부대는 제3사단 사령부에 부대편성 신고를 마치고, 새롭게 증강된 인원들에 대한 소총, 군복 및 군화의 지급을 요청하여 수령하였다. 이후 부대편성이 완성되자, 남상선 소위는 첫날부터 기초훈련에서부터 전술훈련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국군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한 곳은 송도 해수욕장이었다. 그곳은 그 주변에 노송

이 우거진 동산도 있었고, 모래사장도 있어서 훈련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학도의용군 부대는 이후 약 1주일 동안의 자체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지휘자 및 지휘관 선발, 예하부대 편성 등을 완료하였다. 새롭게 편성된 조직에서 중대부관에는 김일호, 제1소대장 백영기, 제2소대장 유명옥, 제3소대장 황재호가 각각 임명되었다. 소대장급 이상은 학도들이 직접 선출하였으며, 중대본부요원은 부대장을 맡은 남상선 소위가 임명하였다.

한편 8월 공세가 실패로 끝나자 북한군은 8월 말부터 9월 공세를 시작하기 위한 부대 재편성에 들어갔다. 먼저 북한군 제12사단은 8월 27일에 수도사단 제17 및 제18연대에 공격을 감행하여 기계를 점령하고, 안강에서는 국군 방어부대와 혈전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포항 정면에서도 북한군 제5사단이 국군 제3사단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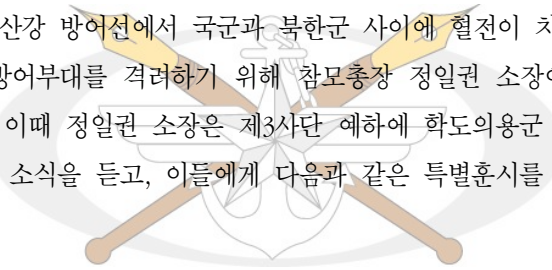
그런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포항을 지켜야하는 국군 제3사단 지휘체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항을 사수해야 한다는 김석원 사단장의 주장과 사단 지휘부를 형산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후일을 도모하자는 미군 고문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 발단이였다. 미군 고문관은 수도사단이 기계를 빼앗기고 안강선으로 후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군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3사단이 형산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포항 지역에서는 지형상으로 방어진지 구축이 불리해서 많은 병력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항을 사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김석원 장군은 북한군이 팔로군 전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적의 매복에는 매복으로, 기습에는 기습으로 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깊숙이 들어온 적의 배후를 차단 공격한다면 적을 일거에 섬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런데 한국군 사단장과 미군 고문관 사이에 이처럼 포항을 둘러싼 차후작전에 대한 구상과 판단이 대립되자, 점차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불화가 계기가 되어 김

석원 장군이 제3사단장에서 물러나고 후임 사단장에 이종찬 대령이 임명되었다.

한편 8월 말에도 여전히 포항을 사이에 둔 북한군 제5사단과 국군 제3사단 간의 팽팽한 긴장과 잦은 충돌에 이은 뺏고 빼앗기는 혈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9월 초가 되자 국군 제3사단은 유엔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포항을 포기하고, 형산강 남안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후 제3사단은 형산강을 도하하려는 적 제5사단과 다시 치열한 혈전을 벌여야 했다. 특히, 형산강 방어선에서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국군 제3사단 지휘부는 형산강 방어선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전투를 계기로 다시 포항을 탈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형산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혈전이 치러지고 있는 동안 국군 방어부대를 격려하기 위해 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이 제3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때 정일권 소장은 제3사단 예하에 학도의용군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훈시를 하달하여 격려하였다.



귀관들! 전선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내 일찍이 귀관들의 무공을 다 들어오던 중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한이 없소. 오늘 조국의 위기를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최전선에 선 것이요. 그동안 귀관들은 8월 11일 적이 포항을 침공했을 때 수많은 전우를 잃으며 이룬 공훈에 대한 본관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귀관들이 흘린 땀과 전우의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훗날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관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요, 아무쪼록 귀관들은 말은 바사명완수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본관은 귀관들과 적도 평양에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이요.

이와 같은 참모총장의 격려는 학도의용군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훗날 9월 공세로 알려진 적의 대규모 공격은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화력 및 병력부족, 기동력과 화력을 보유한 아군 예비부대의 효율적인 활동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선 방어는 위커장군이 제시한 개념, 즉 ‘반격을 통한 방어’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고, 강력하고 신속한 예비대를 운용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안정시키려는 의도 하에서 치러지고 있었다. 특히 전선이 한가한 곳에서 항상 예비대를 차출하여 급한 불을 꺼나가는 ‘진방위 땀질전술’을 구사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군의 9월 공세가 점차 실패로 끝나는 것이 확실해 지던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끝났고, 바로 다음날인 9월 16일에 아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포항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 제5사단과 국군 제3사단 사이에 치열한 혈전이 재개되었다. 이번 전투에서는 국군이 포항으로 공격하였으며, 방어에 나선 북한군 부대들은 시가전을 펼치면서 대응하였다. 수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한 약 3일 동안의 혈전이 끝나가던 9월 18일 경에 국군 제3사단은 다시 포항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3) 반격작전 참가

포항을 탈환하는데 성공한 국군 제3사단은 붕괴된 적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줄곧 북쪽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도 북진대열에 참가할 준비를 서둘렀다. 국군 제3사단이 성공적으로 포항을 탈환하였으며, 용전분투했다는 소식이 감포, 경주, 포항 등지로 확산되자, 학도의용군 부대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원하였다. 그 결과 약 40여 명이 보강되어 총 153명에 달하는 중대 병력으로 확장된 학도의용군 부대는 당당하게 독립부대로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북진대열에도 단일부대로 당당하게 참가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단행된 아군의 낙동강선 총반격이 조직적

으로 개시되자, 북한군은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철수중이던 북한군 제5사단은 다른 북한군 부대들에 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물러나고 있었다. 적 제5사단은 9월 22일에야 포항 외곽으로 철수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이 포항을 완전히 탈환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후 국군 제3사단은 그 여세를 몰아 포항 외곽 방어선을 돌파하여 흥해, 장사동을 거쳐 영덕, 강구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한편 전황이 호전됨에 따라 독립부대인 학도의용군 부대는 주간에는 주로 사단본부로부터 경비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3사단이 북진을 개시함에 따라 기동장비가 부족한 학도의용군 부대가 사단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루에 몇 십 km 진격하는 선두 전투부대들에게 탄약과 보급을 지원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학도의용군 부대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육로를 통해 진격하는 제3사단 정규부대를 따라 북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도의용군 부대 지휘부는 고심 끝에 선박을 이용한 북진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포항지구 해군경비부 사령관의 특별한 배려로 징발한 70여 톤 급의 민간 포경선 2척을 이용하여 북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9월 25일에 포항을 출발한 2척의 포경선은 가장 먼저 강구에 기착하고, 이후에 다시 평해와 죽변을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죽변 인근의 해상에서 퇴로가 차단된 숫자 미상의 북한군이 주변 일대 고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라 학도의용군 부대는 즉시 해변에 상륙하여 단독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제1소대는 측면의 남북 통로를, 제2소대는 후방의 퇴로를 각각 차단하고, 제3소대는 정면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약 5시간에 걸친 수색작전에서 학도의용군 부대는 북한군이 강제징집한 의용군 11명

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들은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이 집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보충병들이었다. 학도병들은 죽변 인근 야산에서 생포한 포로들을 울진경찰서에 인계하고 다시 선박을 이용하여 복진하였다.

한편 생포한 포로들을 울진경찰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학도의용군 부대는 국군 제3사단의 주력이 삼척을 거쳐 묵호를 탈환하고, 강릉을 향해 진격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에 자극을 받은 학도의용군 부대를 실은 선박 2척이 강릉항 근처로 접근하던 중 인근 해안으로부터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인해 대원 중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첫 번째 포경선이 파괴되어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하여 복진하던 학도의용군 부대는 일시적으로 배를 돌려 묵호항에 기항하였다. 묵호항에서는 부상당한 2명의 대원을 병원으로 옮겼고, 전사한 대원에 대한 조출한 영결식을 가졌다. 또한 고장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제3사단 사령부로부터 2대의 트럭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시기에 국군 제3사단은 강릉을 점령하고, 당분간 강릉에 머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학도의용군 부대도 사단사령부가 주문하고 있는 강릉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으로 이동한 학도의용군 부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전재민 구호양곡에 대한 무상배급이었다. 제3사단의 주력은 계속 복진 중이었으나, 사단사령부는 38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우선 약 3개월 동안 적의 통치를 받으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군의 신망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이종찬 사단장은 사단의 모든 장병들에게 국민 재산보호, 전재민 구호양곡 무상배급, 피난민에 대한 정성어린 수용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훈시를 하달하였다.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이 일시에 붕괴됨에 따

라 신속하게 38도선까지 밀고 올라온 국군 부대들은 전쟁발발 이전의 국경선을 돌파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일시적으로 고민에 빠졌다.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부대들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는 것은 사실상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처럼 국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 수뇌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0월 1일에 예하 부대에 38도선 돌파를 지시하였다.

38도선을 가장 먼저 돌파한 제3사단의 진격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제3사단은 낮이나 밤이나 도보로 상급부대와 거의 통신연락도 없이 목표를 원산에 두고 하루에 20km씩을 전진하였다. 제3사단 예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학도의용군 부대들이 38선에 당도한 것은 10월 3일이었다. 양양에 도착한 학도의용군 부대에 새롭게 부여된 임무는 수복지구에 대한 선무공작 임무였다. 이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기존 우익단체의 부활 및 조직, 둘째, 적 노획물자 관리, 셋째, 시가 질서 확보였다. 이처럼 학도의용군 부대는 임무가 바뀌면서 대원들이 가지고 있던 경기관총과 로켓포를 제외한 중화기를 사단에 반납하였다.

학도의용군 부대는 본부를 중심으로 12명씩 4개조로 편성하고, 편의상 각각 동·서·남·북조로 명명하였다. 각 조는 부여 받은 트럭 1대와 확장기 1개를 이용하여 조별로 할당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가두방송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 특히 여자학도병들의 방송은 큰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학도의용군 부대는 적으로부터 노획한 쌀, 밀가루 등 물자를 주민들에게 골고루 무상분배하였다. 이처럼 학도의용군 부대의 대민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자, 비로소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학도병들은 이 지역 학생들은 모아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양양지부를 결성했으며,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한청년단 조직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실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큰 성과였다.

4) 북진 작전 수행

이와 같이 양양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어느 정도 달성하자, 학도의용군 부대는 북진을 계속하여 속초를 거쳐 고성에 도착하였다. 학도병들은 지나는 곳곳에서 적의 잔존부대나 유격대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매번 전투를 통해 이들을 격퇴하면서 북진을 계속하였다. 10월 6일에 진해에서 43명의 자원 학도들이 합류하였다. 새롭게 합류한 학도병들은 대한학도의용대의 진해지대 소속이었는데, 이들은 부산에서부터 포경선을 타고 북진하여 제3사단 학도의용군 부대와 고성에서 합류하였다. 이들은 뒷날 ‘진해소대’라고 불릴 만큼 단결이 잘됐고, 합류 당시에 이미 훈련수준도 상당한 정도였다. 학도의용군 부대에 예속된 진해소대는 제5소대로 편성되었고, 조치도 대원이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부대편성이 증강됨에 따라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의 총병력은 198명으로 증가되었다.¹³⁸⁾ 10월 10일에 제3사단 제23연대와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공동으로 원산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학도의용군 부대는 이로부터 이틀 후인 10월 12일에 원산에 입성하였다. 원산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사단사령부로부터 사령부와 원산시청 주변에 대한 경계임무를 부여받았다. 국군이 원산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적의 저항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간 및 야간경계는 매우 중요하였다.

한편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원들은 10월 13일에 원산 시내에서 남녀 중학생 300여 명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원산지부’를 창설하였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남북학생 친선대회’를 개최하고, 사단 군악대를 선두로 하여 함께 시가행진도 하였다. 학도병들은 원산에서 3일간

138) 진해소대 도착 이후의 재편된 학도병에 관한 내용이 「6·25와 학도병」과 「학도의용군」이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후에 발간된 「학도의용군」의 내용을 따랐음.

머물면서, 원산형무소에서 학살된 반공인사 수백 명의 시체를 노무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임무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형무소 뒷산의 방공호에서 후퇴하는 북한군이 학살한 600여 명의 시체를 안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북진하던 국군 제3사단이 원산에서 함흥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도의용군 부대도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함흥에서 제3사단은 수도사단에게 선봉의 임무를 넘겨주고, 함흥 지역에서의 주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제3사단과 함께 이동하던 학도의용군 부대도 함흥에서 오랫동안 주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 사이에 학도병 생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고, 느슨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도의용군 부대 지휘부는 학도병들의 해이된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고 먼저 부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도의용군의 임무에도 변화가 있었다. 30여 명에 이르는 학도병들은 낮에는 사단사령부 각 부처의 행정병으로 파견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밤이면 학도의용군 부대로 복귀하여 사단사령부의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함흥에서는 대한학도의용대 예하의 학도의용군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격적인 모임도 있었다.

10월 말에 학도호국단 주최로 학도병들의 함흥 입성을 환영하는 모임이 열렸던 것이다. 학도의용군 환영식에 모인 3,000여 명 중 학생이 1,500여 명이었고, 나머지는 함흥 시민들이었다. 영생중학교 교정에서 개최된 환영식 직후에는 시가행진과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개최되는 등 함흥 지역에서 학도병들이 수행한 선무활동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한편 11월 7일에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는 함흥을 떠나 신포에 도착하였다. 신포에 도착한 직후 학도병들은 '학도호국단 신포지부'를 창설하고 체육대회도 개최하였다.

특히 신포에서는 이 지역의 학생들과 교류가 활성화되어 주민들과 접촉

이 확대되었다. 학도병들은 사단 정훈부의 협조를 얻어 군민합동의 위문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¹³⁹⁾

5) 중공군의 참전과 후퇴

1950년 12월 1일을 전후하여 유엔군사령부는 전군에 후퇴명령을 하달하였다. 후퇴명령을 전달받은 학도의용군 부대는 12월 3일 저녁 무렵 중공군이 개입하여 서부전선에서 유엔군과 교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남으로 진출했던 제3사단의 주력도 후퇴하고, 나진과 회령 방면으로 진격하던 수도사단도 길주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부대 철수가 단행되었다. 이 와중에 그동안 제3사단 예하의 학도의용군 부대를 지휘했던 남상선 소위가 사단 작전처로 복귀하고, 임시 부대장으로 유명욱이 임명되어 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철수에 나선 학도병들은 철수할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도보에 의존한 행군계획을 세웠지만, 많은 피난민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던 중 학도병들은 길주 근처에서 적이 숨겨둔 화차와 기관차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소문 끝에 기관차를 발견한 학도병들은 교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인표 대원의 노력으로 길주부터는 기관차를 이용하여 남하할 수 있게 되었다. 화차 26량에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잔여 병력 그리고 길주 시민 2,0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중장비, 탄약, 피복, 소모품, 식량, 휘발유 등을 가득 채운 기관차는 남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길주를 출발하여 약 10시간에 걸친 운행 끝에 기관차가 성진항에 도착하였다. 성진항은 철수를 위해 모여든 국군 및 유엔군부대 외에도 수많은 피난민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학도의용군 부대도

139) 11월 15일에는 제3사단 학도의용군 부대 소속의 학도병들에게 준위에 준하는 봉급 3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되기도 하였다.

국군 제3사단 병력들과 함께 화물선에 승선하였다. 드디어 12월 9일 밤 24시경에 성진항의 LST와 수천 톤 급의 화물선은 화물과 병력을 싣고 철수를 위해 부교를 거두었다. 이들은 부닷가에 승선하지 못한 수만의 피난민을 남겨둔 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철수하는 부대와 피난민을 실은 선박들은 4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부산역으로 이동한 학도병들은 제3사단 후속부대와 함께 열차편으로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제3사단 주력부대는 이미 원주 지구에서 전투임무를 수행중에 있었다. 제3사단 후속부대의 집결지였던 포항에서는 도착하는 후속부대들이 재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곳에서 정비를 마친 부대들은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학도병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비를 보충받아 포항을 떠나 열차편으로 원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원주에 도착하자, 제3사단 사령부는 이미 홍천으로 이동중이어서 학도의용군 부대는 도보로 홍천까지 이동하였다.¹⁴⁰⁾

6) 부대 해산

중공군의 신정공세, 즉 3차 공세 이후 공산군과 아군 사이에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던 전선은 1951년 3월이 되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은 속초-인제 선에서, 중부전선은 춘천-화천-신철 원 선에서, 서부전선은 연천-장단 선에서 교착되고 있었다. 이처럼 전선이 안정되자, 고향을 떠났던 피난민들이 하나 둘 고향으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1년 3월 중순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자, 점차 전세 호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갔다. 이처럼 남한 전역에서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에

140) 학도의용군 부대는 이곳에서 긴급한 남상선 중위와 재회하였다. 남상선 중위는 홍남철수시에 학도호국단 함흥지부에서 1천여 명, 홍남지부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을 승선시켜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따라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문교부장관의 복교령이 하달되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제3사단장 최석 장군은 남상선 중위를 불러 학도병에 대한 사단 방침을 하달하였다. 즉, “그동안 학도의용군 부대의 구국충정과 전공은 인정하나, 더 이상 편제 외의 부대를 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학도의용군 부대는 해산하고 계속 전투에 참가할 학도병은 현지 입대할 것이며, 학업으로 돌아가겠다는 학도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 귀향시키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결정이 하달되자, 서북청년 출신 학도병들은 끝까지 적과 싸우기를 원하여 현지입대를 지원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학도병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7월 26일 대구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대한학도의용대는 처음에는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로 출범했다가 다음에는 제3사단 학도의용군으로 활동을 계속하였고, 이후 제3사단 학도의용군으로 포항전투의 신화를 간직한 채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하던 1951년 3월 16일 강원도 홍천에서 해산하였다.¹⁴¹⁾

(3)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1) 형성 과정

6·25전쟁 발발 이전에 전라도 북쪽의 광주나 전주에 비해서 여수와 순천 등 호남 남부에는 전국학련이나 학도호국단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전국학련의 활동이 활발해진 계기는 여·순 10·19사건 때문이었다. 반란사건 이전에는 좌익 학생들의 위세가 워낙 강했으나, 그 이후 전국학련 소속의 학생들이 진압군을 도와 반란군 색출 등에 나서면서 이들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여수지역

141) 남상선, 학도의용군(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75)의 내용을 발췌 초록함.

에서 전국학련에 가입한 학생 수는 대략적으로 300~400명 정도였으며, 반란사건 진압 후 우익학생들의 보복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당시의 학생활동은 주로 정부기관의 전위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50년 6월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신분은 모두 노출되었다. 따라서 우익 학생들은 모두 피난을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군대는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제공해 주었다. 우익 학생들 외에 기독교 학생들도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여수와 순천지역은 일제 강점기부터 기독교의 뿌리가 깊었으며, 그 결과 해방 후에는 교회별로 기독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예를 들면, 여수 제일교회의 경우 기독교 학생 수가 50~6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또한 순천에서는 기독교계 학교로 설립된 매산중학교가 있었다. 이들은 과거 여·순 10·19사건 때 재판도 없이 여러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도 국가가 전쟁상황에 처하자 군에 입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처럼 여수와 순천 지역의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에 참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48년의 반란사건 발발 이전에 우익에 참가하였으며, 반란사건 후에 진압군에 협조를 하였던 학생들이며, 둘째는 기독교학생들로서 여순사건 때 기독교인들이 반란군들에 의해 길에서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국가도 위하고, 나 자신도 위하여 서슴없이 학도의용군에 지원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남 남부지역의 학도의용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조직되었다. 다른 지역의 학도의용군들이 대개 북한군 점령기간 중 피해를 입은 우익 학생들이 보복적 차원에서 9·28 수복 이후 참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형성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7일 즈음에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이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여수와 순천 지역에도 전달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7월초부터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군부대에 자원입대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가 학생들의 자원을 거부하면서 되돌려 보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의 학생들은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이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2년 전에 여·순 10·19사건을 목격하였고, 그 사건과 연관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순 10·19사건 중 전국학생총연맹과 기독교학생회의 우익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학생 중 일부가 좌익에게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당이 조국을 장악하기에 앞서 어려움에 처한 조국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청년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훈련중인 학도호국단(전남여중)과 배속장교

한편 1949년에 전국학생연맹, 즉 전국학련이 학도호국단으로 개편되면서 각 학교에 배속장교라고 불렀던 학도호국단 담당 장교가 1~2명씩 배치되었다. 이들의 평시 임무는 학도호국단 소속의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사실 이들 배속장교들은 체육담당 교사들이었는데, 국방부가 교련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이들을 특별 소집하여 단기훈련을 시킨 후, 소위로 임관시켜 일선 학교로 돌려보낸 것이었다. 이들은 학교에 복귀한 후 제식동작, 총검술과 같은 간단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런 훈련들이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을 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라남도 남부 지역에서 학도의용군들로 구성된 자체 부대가 최초로 조직된 것은 1950년 7월 13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7월 10일에는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5연대 소속의 일부 장교들이 주동이 되어 여수시민 반공궐기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들 장교들은 현재 전황이 매우 위급하여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연설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이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입대를 요청하였다. 불과 며칠 전 광주에서 학생들의 지원을 거부하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만큼 전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때는 이미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학생들이 혈서 지원하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중이었다.

학도의용군 모집에 자원한 여수와 순천 지역의 학생들은 모두 흥분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학도병으로 나가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7월 1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학도의용군 모집에는 모두 83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당시 여수에는 여수중학, 수산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등 남자학교는 모두 4개 학교였는데, 여수 지역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여수중학교 학생들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가장 고학년은 중학교 6학년이었고, 1935년생인 중학교 3학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7월 13일에 학도의용군 출정식이 거행되었고, 이들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환송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장에 나온 시민들은 전선을 향해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무운장구를 빌어주었다. 각 학교는 학도의용군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주었고, 주위 사람들은 얼마간의 돈도 모아주기도 하였다. 한편 순천지역에서도 약 70여 명의 학도의용군의 출정식이 순천 행동우체국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순천 시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시민들이 모여 이들의 무운을 빌어주었다.

2) 부대 편성 및 전투 준비

여수, 순천, 광양, 벌교, 보성, 강진 등 전라남도 남부 지방에서 모인 학도의용군은 모두 185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순천역 인근의 국군 보병 제15연대에 입소하였다. 당시 제15연대는 순천역 광장을 연병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이영기 대령, 대대장 조남철 중령, 중대장 정태경 중위였다. 학도병들이 입대했을 당시에 연대에는 기간병이 거의 없었고, 장교들만 몇 명 눈에 띄었다. 학도병들은 신체검사를 마친 다음 곧 바로 훈련에 들어갔다. 이때 이들이 받은 신체검사는 외관상으로 아직 너무 어려 충기를 다루기 힘들다 싶은 학생을 몇 명 골라내는 정도였다. 중대장 정태경 중위는 신체검사 직후 학도병들을 5개 소대로 편성하였다. 순천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2개 소대를 편성하고, 여수 출신 학생들도 2개 소대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학생들로 1개 소대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편성된 학생소대의 소대장은 각 학교에 배속되었던 장교들이 맡았다. 분대는 약 9명에서 10명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각 분대장은 주로 각 학교의 6학년생들이 맡았다. 그리고 각 소대에는 '향도'라고 불린 현역 병사들을 2명씩 편성하였다.

학도병들은 약 10일에 걸쳐 간단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보급품은 죽창

이나 목총 한정이 고작이었으며, 훈련은 주로 제식훈련과 총검술, 각개전투 위주로 실시하였다. 소총을 포함한 실제 무기는 그때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1950년 7월 22일 새벽에 학도의용군 부대에 출동명령이 떨어졌고, 이들은 총 한번 쏘아 보지 못하고 열흘 만에 전선으로 향하였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모인 학도의용군 중대는 7월 22일 중대장 정태경 중위의 지휘에 따라 전북 전주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순천역에서 열차편으로 출동하였다. 개인화기는 각 소대별로 일부는 기차에서, 일부는 남원역에서 지급받았다. 어떤 대원은 구 일본군 99식 소총을 받았고, 다른 대원은 M-1소총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이들은 남원역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서 소총의 분해결합, 실탄 장전, 사격술 등 무기조작법을 간단하게 교육받았다. 그때서야 대원들은 처음 가늠자도 조정하고, 가늠자와 가늠쇠 조정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날 점심을 먹고 기차에 오르자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전주로 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런데 전주는 이미 적이 점령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도의용군 부대의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작 200명도 되지 않는 학도의용군, 특히 제대로 사격조차 해보지 못한 어린 학도병들을 인솔하여 불명확한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시킨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지휘하고 있던 부대 지휘관들도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고, 부대의 전투수행 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였다. 결국 7월 22일 오후 늦게 학도의용군을 태운 기차는 남원역을 출발하여 오수 쪽으로 향하였다. 이후 열차의 운행이 어려워지자, 학도의용군 부대는 임실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관촌으로 진격하였다. 행군을 해가는 길은 국군 패잔병들, 경찰관 그리고 피난대열로 길이 꽉 메여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 발발 이후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대는 학도의용

군 중대밖에 없었다. 관촌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중대장 정태경 중위는 관촌마을 옆에 있는 한천에 진을 치고 야영을 준비하였다.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대포소리가 진동하고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북한군이 전주에 입성하는 소리였다. 이미 관촌역 부근 초등학교까지 북한군이 진출하였으며, 전주는 이미 북한군이 장악한 상태였다.

정태경 중위는 학도의용군 중대의 야영준비와 동시에 주위의 적정을 확인하고 부대의 안전을 위하여 몇 개 분대를 차출하여 척후대를 편성 운영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군들이 정규군이 진격하기 전에 민간복장을 한 선발대를 파견하여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척후대로 파견된 학도병 분대가 북한군 선발대로 보이는 수상한 자 2명을 생포해서 돌아왔다. 이들은 관촌국민학교에서 지방 좌익분자들과 접선하는 것을 잡아 왔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둘 다 농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잡혀온 이들은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등 호언하고 있었다. 전투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포 소리만 들어도 기가 꺾이는 학생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중대장은 현 위치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남원으로 퇴각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학도의용군 중대는 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파발총 소리를 들으며 임실역까지 후퇴하였고, 23일 날이 밝자 하루종일 남쪽으로 걸어 남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학도의용군 부대가 남원에 도착했을 즈음, 다행히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었다. 중대장은 학도병들이 전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이들을 여수로 철수시킨 다음 바로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장의 판단일 뿐, 이후 학도의용군 중대의 향방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당장 남원에서 여수로 이동하던 학도의용군 중대는 순천과 여수 중간지점의 율촌역에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연

대장이 기차를 막고 서서 대대장에게 왜 마음대로 후퇴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라고 있기 때문이었다. 화가 난 연대장은 대대장에게 다시 복상하여 최대한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광주가 이미 함락되고 여수를 거쳐 부산방면으로 후퇴할 뱃길마저 끊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들은 다시 순천에서 다시 열차를 타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차출해간 기관사들이 겁을 먹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버티고 나서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구례역에서 하차하여 구례 중앙국민학교까지 4km 가량을 행군하였다.

7월 22일에 출정하여 그때까지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학도병들은 모두 허기가 지고 지쳐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구례 중앙국민학교에 도착하자 언제 준비했는지 부인회에서 주먹밥을 해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이 게눈 감추듯이 먹고는 모두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이들은 7월 24일 20시부터 하동을 목적지로 섬진강을 따라 야간행군을 시작하였다. 도로에는 하동 쪽을 향한 피난민대열도 줄을 이었다. 장비와 보급품이 불비한 이들 학도병들은 야간행군으로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25일 01시 무렵 화개장터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화개장터에 도착한 학도병들이 전술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하자, 뒤늦게 도착한 연대장이 지휘봉을 휘두르며 호통을 쳐 화개지서 뒷산의 참호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당시 화개지서는 여·순 10·19사건 때 반란군들의 지서습격에 대비해 지서 앞에 대나무를 심어 위치를 은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서 뒤에 있는 고지를 주변의 돌을 이용해서 마치 참호처럼 구축해 놓았다. 고지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폐와 엄폐를 제공받으면서 고지로 접근하는 적에 대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던 것이다.

학도병들은 고지에 배치되면서 미군이 일본에서 참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말해, 학도의 용군들의 임무는 적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도하를 저지하고 전

차부대가 부산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하는데 있었다. 고지에 배치된 학도의용병들은 몇 명의 보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식에 들어갔다.

3) 전투 수행 : 화개장터 인근 전투, 하동 전투

7월 25일 04시경에 야간 보초를 서고 있던 학도병 중 한 명이 전방이 수상하다고 보고해왔다. 그는 길이 막혀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고한 것인데, 자세히 관찰하니 그것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풀을 쫓아 위장한 전차가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에 북한군은 전차를 따라 보병부대가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예감한 학도병들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상황을 확인하고 주위의 학도병들에게 자신이 사격을 하기 전에는 사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잠에 취해 있었고 일부는 주먹밥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적은 순식간에 교량부근까지 내려와 잠시 지체를 하고 있었다.

이때를 노려 중대장의 총이 불을 뿜었고, 이와 동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학도병들이 합세하여 사격을 개시하였다. 새벽 05시경이었기 때문에 병력은 제대로 전투위치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계근무 중이던 학생들 일부만 겨우 전투준비가 된 상태였다. 사격을 하긴 했으나 총알이 앞으로 가는지 하늘로 가는지 제대로 분간을 할 수조차 없었다. 사격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제대로 목표를 보고 사격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학도병들이 상대하고 있는 적은 북한군의 최정예부대 중 하나인 제6사단 예하 1개 대대 병력이었다. 북한군 제6사단의 임무는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신속하게 부산 방면으로 돌진하는 것이었다. 화개장터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학도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고지에서 화개장터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 그런데 화개장터 방면에서 박격포탄이 날아오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중 몇 발이 학도병들에게 떨어졌다. 포격을 당한 학도병들은 우왕좌왕하였다. 포탄에 담이 무너졌고 학도병들 중 몇 명은 돌담에 깔려 빠져나오지 못했고 상당수는 포탄에 맞아 산화하였다. 밀려오는 적을 향해 정신없이 총을 쏘아댔으나 학도병들은 이들의 적수가 되질 못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이 고지정상까지 밀고 올라와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08시경이 되자 중대장 정태경 중위는 학도의용군 중대로는 더 이상 적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격중지와 함께 후퇴명령을 하달하였다.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학도병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운반하지도 못한 채 포탄과 총탄 사이를 뚫고 하동 쪽으로 퇴각하였다. 숨가쁜 퇴각 도중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참호를 빠져나와 지리산 속으로 혹은 도로를 타고 집결지인 하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오전의 교전에서 학도병 30여 명이 전사 및 부상 혹은 실종되었다. 적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맹렬한 반격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전투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다급하게 후퇴한 여수·순천 학도병 중대는 그날 오후 화개장터와 인접한 1차 집결지인 악양국민학교 교정에 모였다. 당초 180여 명이었던 학도병들 중에서 남은 병력은 고작 100여 명 뿐이었다. 악양국민학교에 재집결한 100여 명의 학도의용군들은 중대장의 인솔 하에 진주 축석루로 향하였다. 이후 진주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남강 방어선에 배치되어 강 건너편에서 도하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군과 대치하였다. 그러는 동안 양측은 몇 차례의 교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이후 북한군이 남강을 도하하자, 축석루에서 뒤쫓아오는 북한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던 학도의용군 중대는 경상남도 함양군 가야면으로 후퇴하였다. 학도병들은 가야면에서도 계속하여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교전을 벌였으나, 적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학도의용군 부대가 가야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미군 지상군이 참전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중대는 연대본부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의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대장은 8월 초에 일단 하동 방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대가 하동으로 이동하던 중 여러 차례 북한군 게릴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사격을 받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정태경 중위는 중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하동을 향해 행군하였다.

그러던 중 학도의용군 중대 앞에 미군 지프차가 한 대가 나타났다. 학도병들은 이때 미군을 직접 보고나서야 비로소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미군 지프차의 도움으로 중대 내의 부상병들을 부산의 육군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부상을 입어 후송된 다음 완치가 되더라도 자신의 부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그때는 부대가 해체되었거나 해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편제에 있는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가기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하동을 향해 행군하면서 간헐적인 전투를 해나가던 학도의용군 중대는 그때부터 미군의 길 안내를 담당하면서 이들과 함께 행동하였다. 당시 학도의용군 중대와 같이 활동하던 미군부대에는 특이하게도 흑인 병사들이 많았다. 학도의용군들은 이들을 따라서 전차를 타고 다녔다.

4) 해산 및 의의

미군의 참전과 함께 낙동강 서남부전선이 호전되어 여수와 순천 출신 학도병들이 소속된 학도의용군 부대는 미군들과 함께 경남 사천군을 거쳐 진주에 도착하여 재집결한 후 축석루 전투에 참가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마산에서 진주 축석루까지의 공방전은 많은 피난민들이 마산, 부산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었다. 학도의용군 부대는 경남 진주를 사수하려한 최후의 한국인 전투부대이기도 하였다. 이

후 함안과 마산 직전 전투에도 참전한 학도의용군 중대는 처음 순천에서 편성할 때의 병력이 180여 명이었으나, 마지막 전투에는 고작 90여 명 정도만 남아있었다. 결국 하나의 전투단위 부대로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중대장은 여수와 순천 출신 학도의용군 중대를 해산하기로 결심하였다.

학도의용군 중대가 해산된 후 학도병들은 크게 세 가지로 진로를 선택하였다. 첫째는 정규군 부대에 편입하여 전투를 계속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당시 제주도에 설치된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로를 택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전쟁 중에 갑종간부후보생에 응시하여 장교로 임관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초급장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추천하여 장교로 임관시켰는데, 대부분 학도병 출신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학도병으로 남아 있다가 1951년 2월 말에 대통령의 학생복교지시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사람들이었다.

8월 13일에 여수와 순천출신 학도병으로 구성된 학도의용군 중대가 마산에서 해산되자, 중대장 정태경 중위의 제의로 50~60명 정도의 학도병들이 제주도에 설치된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하사관학교의 교육은 약 2주 정도였다. 주로 5학년이나 6학년 등 고학년들이 하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하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주로 국군의 신설사단에 배치되었는데, 당시 제주도에 창설된 제11사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제11사단에 배치된 학도병 출신들은 예하 연대 각 단위부대의 선임하사관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제11사단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광주나 전주에서는 학도의용병들이 제11사단에 지원을 하였고, 이들을 훈련시킨 사람들은 여수와 순천 학도의용병출신 하사관들이었다.

하사관학교를 졸업한 인원들 외에, 일부는 헌병학교 하사관반 제7기, 8기, 9기에 입교한 학도병도 있었다. 이렇게 하사관학교에 지원하여 현역

에 입대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부 학생들은 끝까지 군번 없는 학도병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포항재탈환작전에 참전하였고, 영천, 신령, 군위, 안강, 기계, 영천 등지에서 계속 용전분투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극소수만이 1951년 초 이승만 대통령의 학도의용군 복교령에 의해 다시 학교로 복귀하였다.

(4) 서울학도포병대대¹⁴²⁾

1) 배경 및 형성 과정

서울학도포병대대의 모집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뒤이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과 통일을 위한 북진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전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울학도포병대대가 모집된 이후 10월 24일까지 전선은 지극히 평온하였고, 유엔군들 사이에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모든 전쟁이 끝나리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과 한국군 제2군단이 서로 압록강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북진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6·25전쟁 개전 이후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국군은 차기작전을 위하여 후퇴하였고, 이에 따라 포병도 6월 28일에는 시흥, 29일에는 수원, 7월 1일에는 평택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대전에 집결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1950년 7월 8일 보병사단의 재편성과 제1군단의 창설에 따라 포병 제1, 2, 3, 5, 6, 7대대가 해체되고, 제1야전포병단이 창설되어 초대 단장에 신응균 대령이 임명되었다.¹⁴³⁾ 이후 포병부대에 대한 재편성과 재장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한편 김계원 대령이

142) 그 당시 제18포병대대에 자원입대한 학생들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은 없었으나, 6·25전쟁이 끝나고 참가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서울학도포병대' 라고 칭하였다. 단, 1972년에 중앙일보사에서 편찬한 『민족의 증인』 제2권에서는 이들을 '학도포병의용대' 라고 칭하였다.

143) 「포병의 발자취」, p. 15.

학교장을 맞고 있던 포병학교는 전세에 따라 임시 폐교하였으며, 급속한 병력증원의 필요성에 비추어 해체된 포병대의 기간요원으로 포병 제10, 11, 16, 17, 18, 50의 6개 대대를 창설하였다. 7월 11일에는 포병 제10대대 제1포대가 105mm M-2를 갖추고 진천-충주 방향으로 출동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부대 재편성이 진행되어 각 사단은 신에 포병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7월 하순부터 미군의 지원하에 계속 증편되던 각급 포병부대는 서둘러 조직편성을 마치고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7월 11일 포병 제10대대 제1포대 출동을 필두로, 7월 17일에는 제17대대 및 제50대대 제1포대가 함창 방면에 출동하였다. 이후 7월 30일에는 제11대대 제1, 2포대 및 본부포대와 제17포대, 제3포대가 포항 방면에 출동하였고, 8월 4일에는 대구주둔 제50대대 본부포대 및 제2포대가, 8월 10일에는 제16대대가 의성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8월 11일에는 제11대대 제3포대가 안동지구로 출동하여 적의 공세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적의 약육을 분쇄함과 동시에 아군의 전세만회와 반격작전을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였다.

한편 대구에 도착한 제1야전포병단은 즉시 신병모집에 착수하였다. 당시는 낙동강 공방전이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제1야포단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9월 8일에는 다시 진해로 이동하였다. 이후 9월 10일 국본 일반명령 제59호에 의거 제1야전포병단에 예속된 부대를 각 사단에 예속시켜 포병의 전투를 밀접히 지원토록 하였다. 당시에 편성된 포병대대들은 105mm M-2(최대사거리 12,205야드)로 장비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는 75mm M1(산포로서 최대사거리 7,000야드)로 장비된 부대(포병 제11대대, 포병 제18대대)도 있었다.

국방부는 9월 10일 국본 일반명령 제63호에 의거 육본직할로 포병 제20, 26, 27, 30대대를 창설하여 요구되는 화력증강에 대비하였다. 이와 함

게 유엔군 및 아군의 총반격으로 적을 제압하면서 전황이 호전되자, 포병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지휘를 위해 국본 일반명령 제66호에 의거 포병감실을 해체하였다. 이후 포병사령부로 개칭하고, 초대 사령관에 신응균 대령이 임명되어 전 포병부대를 지휘하였다. 또한 제1야전포병단을 포병교육대로 개편하고, 초대 교육대장에 김계원 대령이 보직되어 점차 확장되는 포병부대 장병의 육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¹⁴⁴⁾ 또한 9월 15일에는 국본 일반명령 제69호에 의거 보병교육대를 제7훈련소에 편입시켰으며, 9월 22일에는 아군의 진격으로 경남 부산에 주둔하던 포병사령부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1950년 10월 중순, 북진 중이던 제7사단 제18포병대대의 장병들이 서울에서 학도의용군을 모집하였다. 패주하는 적을 뒤쫓아 올라가던 국군 부대들은 미군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포병장비를 제공받았지만, 이러한 포병장비를 운용할 병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당시 포병 병과는 여러 병과 중에서도 두뇌와 체격이 우수한 자원을 골라서 편성하는 것이 통례였다. 학도의용병들이 어느 병과보다도 포병에 대거 입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제18포병대대는 6·25전쟁 발발 시 강릉 북방에 주둔하면서 제8사단 포병대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 대대장과 3명의 포대장들은 모두 1950년 3월부터 포병학교에서 실시중인 교육과정에 들어갔고, 부대에는 부대대장 겸 인사장교인 이남구 대위와 부중대장격인 전포대장 뿐이었다. 가장 위급한 시기에 대대의 지휘권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휘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18포병대대원들은 모두가 서북청년단 출신들이라는 동질감으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여서 비상소집이 되

144) 「포병의 발자취」, p. 16.

었으나, 워낙 잦은 비상소집이어서 전쟁이 났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반신 반의하던 부대원들도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모두들 정신없이 싸웠다. 포신이 달아오르면 찬물을 부어가면서 포를 쏘았고, 전세가 불리하였으나 후퇴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포병이 보병보다 앞에서 포를 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나 아군의 노력은 점차 역부족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북한군이 해안으로 상륙하여 아군의 후방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대대원들은 모두 분개하면서 강릉시내 사단사령부 주위에 포진하였다. 이후 6월 28일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대대장과 포대장들이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후 포병대대는 대관령으로 철수하였고, 다시 대구로 이동하여 경북여고에서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초기의 격렬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피해는 경미하였다. 초전에 사병 몇 명의 인명손실을 제외하면 장비나 인원에 큰 손실은 없었던 것이다. 제18포병대대는 이후 대구농림학교로 옮겨다가 고산초등학교에 주둔하였다. 이곳에서 박정호 중령이 새로 대대장으로 부임해 왔다. 박정호 중령은 전쟁발발 시 웅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17연대를 지원했던 제7포병대대장이었다. 그는 부임해오자 부대를 다시 훈련시키고 재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제18포병대대는 안강-기계전투와 포항전투에 참가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을 시작하면서 많은 포병부대가 창설되었다. 창설 요원으로 기존의 부대원들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북진하는 과정에서 제18포병대대는 대부분 간부들만으로 구성된 기간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대병력이 부족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제18포병대대는 드디어 10월 중순에 서울 시내에서 학도포병의용대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으로부터 대포를 지원받아 5개 대대였던 포병대대가 10개 대대로 증편되었으나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학도포병의용대 모집책임은 최철 대위가 맡았다. 최철 대위는 “전쟁은 3~4개월이면 끝날 것이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철 대위의 호소에 응한 학생들은 대학생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고, 특히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특히 5, 6학년들은 전쟁 이전에 이미 좌우익 관계로 상당한 이념적인 대립을 겪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 3개월 간 적 치하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학생들이었다. 이때 포병 학도의용대에 지원한 김석찬은 “학도의용단으로 참가한 사람들의 배경은 저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8·15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복을 점령하고 난 다음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38선을 넘어 월남한 가족의 학생들, 그리고 6·25전쟁으로 부모가 남북당하거나 납치되어 3개월 동안 적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면서 체험한 사람들이 즉, 우리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¹⁴⁵⁾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과 조건, 적 치하의 경험은 학생들이 주저없이 학도의용대에 참가하도록 작용하였다. 학도의용군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도호국단 간부로 활동하던 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서울이 함락되어 수복되기까지 3개월 동안 북한군들에게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학도포병대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적 치하 3개월 동안 낮에는 산으로 도망 다니고, 밤중에는 내려와 끼니를 겨우 해결하는 상황을 겪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이 수복된 지 약 보름이 지난 10월 15일경, 을지로 2가에 있는 학도의용군 본부의 협조를 얻은 최철 대위는 서울의 각지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모집을 시도하였다. 적 치하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학생들에게 최철 대위가 행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역설하는

145) 김석찬 증언 (1993. 7. 26).

연설은 큰 감명을 주었다. 이러한 최 대위의 모병활동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선발실무에 관한 업무는 길영용 대위와 몇몇 하사관들이 담당하였다.¹⁴⁶⁾ 제18포병대대 병력들이 용산중학교 정문을 통제하였으나, 서로 지원하겠다고 몰려들기도 하였다.

이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8포병대대는 용산중학교에서 학도의용군 모병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먼저 간단한 신체검사를 통해 키가 작고 왜소해 보이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만 합격시켰다. 그리고 합격자들은 구술시험을 다시 치렀다. 간단한 수학원리 등을 묻는 구두시험을 마지막으로 학도포병의용대원을 최종 선발하였는데, 이때 선발된 인원은 341명이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10월 19일에 부대를 편성하였다. 학생들은 중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즉, 17, 18세가 제일 많았으며 16세도 상당수 있었다. 대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고려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¹⁴⁷⁾ 341명에 최종 선발된 대원들 중 용산중학교와 서울중학 출신들이 제일 많았으나, 경기상업, 서울공업, 한양공업, 경기중학, 경동중학, 대광중학 등 서울시내에 소재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모이다시피 하였다.

2) 조직 편성 및 부대 이동

제18포병대대에 입대한 병사들은 입대 기수별로 5기까지 기별로 특색이 있었다. 제1기는 국방경비대 시절 포병대대가 처음 창설될 당시 보병에서 포병으로 전과한 인원들이었으며, 제2기와 제3기는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입대 자원자들이었다. 제4기는 대구에서 충원된 인원들로서 대

146) 김석찬 증언 (1993. 7. 26).

147) 김석찬 증언 (1993. 7. 26).

부분 학생들이었으나 포병대대가 증설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의 인원들은 다른 대대 창설요원으로 차출되었다. 그리고 제5기는 서울수복과 함께 입대한 서울학도포병의용대이다.¹⁴⁸⁾ 이들의 구성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전쟁 기간에 병무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였기 때문이며, 또한 각 부대들이 병력을 거의 자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최종선발된 341명의 학도병들은 용산중학교 교실에 수용되었다가, 10월 18일과 20일 2진으로 나누어져 군복도 지급받지 못하고 교복에 교모를 쓴 채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10월 18일 제1진 2백여 명이 트럭에 분승해서 북진중인 제18포병대대에 합류하였으며, 10월 20일 제2진이 의정부와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광성중학교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교실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이곳에서 중대와 소대 편성을 임시로 마무리 짓고 고학년 학생들이 이 부대를 지휘하였다.¹⁴⁹⁾

1950년 10월 말이 되자, 평양의 날씨는 싸늘해졌다. 당시까지 학도의용군들이 입고 있던 학생복으로는 날로 추워지는 날씨를 견딜 수 없어서 포병 대대의 고참병들이 입던 작업복을 얻어 입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광성중학교가 북한군의 보급소였기 때문에 일부 학도의용군들은 학생복 위에 북한군 창고에서 나온 솜옷, 병거지 등을 끼입기도 했으며, 가장 시급했던 작업화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약 4~5일이 지난 다음 학도포병의용대는 부대를 재편하였다. 전 인원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70~80명 정도씩 각 포대로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각 포대에서 인사기록을 작성하였다. 그 기록을 토대로 입영절차를 마쳤다. 일부 몇 명의 대원들은 자신들에게 군번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도의용군들은 자신들이 정식으로 군에 편입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학생신분으로 전

148) 최창선 증언 (1993. 7. 24).

149) 「민족의 증언」 제2권, p. 343.

투에 참가하다가 중전이 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군번은 11월 중순에 나왔으나, 이들이 자신의 군번을 확인하게 된 것은 덕천에서 철수하여 서울 청운국민학교에 재집결한 후 알게 되었다. 이들 학도의용군들은 당시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수 년 간에 걸쳐 군복무를 하여야만 하였다. 생존자의 절반 정도는 종합학교로 들어가 갑종후보생으로 임관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하사관으로 복무하였다.¹⁵⁰⁾

각 포대는 다시 인원을 소대와 분대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부대가 재편되자, 학도병들은 순천을 거쳐 신안주로 이동하였다. 11월 3일 안주공업고등학교에 도착한 이들은 그곳에서야 비로소 칼빈소총 한 정씩을 지급 받았다. 이곳에서 학도병들은 낮에는 전포 및 통신훈련을 받았고, 밤에는 경계임무에 투입되었다. 어린 나이였으나 중학교 때 학도호국단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모두들 열심히 배웠으며, 고참병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3) 임무 수행 : 비호산 전투, 덕천 전투

11월 4일 오전에 사격훈련을 받은 이들은 오후에 청천강을 넘어 평북 박천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마지막 단계에 달했을 때이며, 전세는 주로 비호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었다. 622고지인 비호산은 청천강 계곡과 군우리에서 순천과 덕천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감제하고 있어 이 산의 확보여부가 미 제8군의 우측방에 대한 사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충지였다.¹⁵¹⁾ 그러던 중 제3포대에서 최초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관측병으로 관측소에 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겁이 난다고 뒤에 있던 관측장교와 위치를 바꾸었는데, 그때 적의 불발탄이

150) 최창신, 김영환, 김무경 증언 (1993. 7. 24).

151) 본문 1절, 1. 서울 학도포병대 활동 당시의 전황 참조.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¹⁵²⁾

중공군의 1차 공세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치룬 비호산 전투에서 이미 학도의용군 출신들은 제18포병대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11월 초순에 전체적으로 국군 포병부대가 계속하여 증설되면서 고참병들이 많이 차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제18포병대대에는 대구에서 입대한 사람들이 약 50여 명 정도 있었으나, 점차 창설부대의 기간요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미 서울학도포병의용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¹⁵³⁾ 아무래도 학생출신이다 보니 공백도 빨리 메워졌다. 분대장과 부분대장을 제외한 모든 요원은 학도병 출신이었다. 그리고 적응이 빨라 영리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¹⁵⁴⁾ 순천, 안주, 개천 등 평남 곳곳에서 포술을 익히며 싸우고 또 싸우면서 학도의용군들은 열심히 보고 배웠다.

11월 10일 경에 제18포병대대가 청천강을 통과한 이후 3~4일이 지나자, 미 제24사단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때 국군 제7사단은 미군과 진지를 교대하고 영변을 거쳐서 개천과 덕천의 중간인 아일령 고개에 이르러 중공군과 조우한 후 여기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당시 포병대대는 1개 포대가 1개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제1포대가 제5연대를, 제2포대가 제3연대를, 제3포대가 제8연대를 지원하였다. 약 1주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덕천으로 이동하여 묘향산 밑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또한 크리스마스 공세에 임한 11월 말경 덕천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통신, 관측, 측지, 사격, 지휘 등 포병대의 전 분야를 독자적으로 맡을 만큼 숙달되어 있었다.¹⁵⁵⁾ 그동안 유엔군에 의한 파죽지세의 공격으로 여유있는 지원작전을 하던 포병대대도 숨돌릴 틈 없이 바빠졌다.

152) 김석찬 증언 (1993. 7. 26).

153) 김석찬 증언 (1993. 7. 26).

154) 김석찬 증언 (1993. 7. 26).

155) 김석찬 증언 (1993. 7. 24).

포병학도의용군이 제18포병대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중간에 간간이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최전방의 급박한 상황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11월 23일에는 포병대대가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의 일환으로 덕천군 풍덕면 풍덕리로 들어가서 포진지를 확보하였다. 전방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했으며, 대원들은 다급한 포병지원 요청에 잠을 빼앗겼다. 졸음을 못 이겨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깨우며 사흘 동안 한잠도 자지 않고 포를 쏘았다. 105mm포의 포신은 녹아내리듯 달아올랐다. 포를 열심히 쏘는 만큼 전선의 상황은 더욱 다급해져 가는 듯 하였다. 공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적의 포성이 죄어들듯 가까이 다가왔다.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실패하고 아군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운명의 순간이 점점 다가왔으나, 당사자인 제18포병대대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었다. 포신은 나날이 고개를 치켜 들었다. 25일 오후쯤 전방의 통신이 모두 두절되었다. 대대본부도 두절되었다가 연결시키면 금방 끊어졌다. 이때는 이미 중공군들이 포진지 앞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22시 쯤 대대본부에서 보병부대 지원을 나간 관측장교들이 한 시간이 안 되어서 없어지곤 하였다.

25일 밤부터 계속해서 포를 쏘아오던 포병대대는 26일 02시에 사격지휘본부로부터 사격각도를 더욱 높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포신은 지도에서 거의 90°에 가깝도록 고개를 쳐들게 되었다. 이것은 적이 이미 코앞에까지 육박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뒤이어 장약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사각도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적이 최근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대장 박정호 중령은 직접 전황파악을 위해서 덕천시내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예하부대와 통신이 두절되자 대대장은 전체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대장 박정호 중령, 미 고문관 물피 소령, 그리고 작전보좌관이던 오정석 중위는

사단사령부로 쓰던 군청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이미 상황은 절망적이었다.¹⁵⁶⁾ 덕천 일원이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군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군청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덕천의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학도포병대가 자리잡고 있던 지역은 묘향산을 약 30km 앞에 두고 있었다. 묘향산의 잔줄기인 능선이 부대 앞을 병풍처럼 둘러싼 지형에 포대의 중심을 두었다. 10월 26일 새벽이 되자, 두절된 통신선을 복구하기 위해 통신반 하사관이 지프차를 타고 포병대대에 들어왔다. 그는 통신병을 데리고 포진지 앞에 있는 야산을 돌아 개천을 건너던 중, 양쪽에서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다. 그중에 누군가가 “중공군이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적의 추격을 받던 보병부대가 끌려 내려왔다. 포진지에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포진지 앞의 야산 위로 중공군들이 불쑥 나타났다. 당시 제2포대는 덕천에 주둔하기 전에 이미 제50대대를 따라 철수해버린 상태였고, 제1포대와 제3포대만 남아있었다.

당시 포병의 조직편제상 1개 포병대대가 1개 사단을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각 포대는 붙어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덕천에서는 이들이 모두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제1포대는 포를 방렬한 상태에서 이동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3포대는 먼저 포를 달고 나가다가 중공군의 습격을 받고 말았다. 희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후방에도 적이 나타났다. 돌연한 기습을 받은 포병대는 일순간에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포진지 20~30m 후방의 개울가에서 칼빈소총을 응사했고, 일부는 이미 벌써 접근한 중공군들과 백병전을 시작하였다. 적의 총탄이 비오듯 날아들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학도병들은 포를 적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일부가 적과 백병전을 벌이는 틈에 일부

156) 오정석 장군 증언 (1993. 8. 13).

는 포에 달라붙어 공이를 빼냈다. 누구하나 총을 버린 사람이 없었다.

4) 철수 및 재편성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드는 중공군을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포병학도의용대 대원들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는 참호를 너무 깊이 파서 미처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포로로 잡힌 대원들도 있었다. 지휘계통이 마비되자, 대원들은 각자 임기응변으로 포위망을 뚫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덕천 시내를 집결지로 하고 개인별로 철수하기도 하였다. 포진지 뒷산을 올라가다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동료들을 목격했으나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3포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포대 단위로 존재를 유지하여 철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공군의 추격은 끈질겼다.

이 시기에 덕천의 상황은 이미 매우 복잡하였다. 전선이 붕괴되자,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사단, 제7사단, 제8사단 병력들이 모두 덕천으로 모여 들었다. 그러나 덕천은 이미 적의 포위권 내에 들어 있었고,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청천강을 건너는 방법밖에 없었다. 청천강은 강폭이 30~100m 정도였는데, 중공군은 청천강을 감제할 수 있는 고지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미군 전투기가 중공군을 공습했으나, 참호에 깊이 숨어 있는 중공군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녁이 되었고, 이제 국군부대들은 강을 건너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나이 어린 학도병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청천강을 도하하여 성공적으로 철수하였다.

가용한 트럭에 나눠 탑승한 병력들이 개천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고자 하였다. 학도의용군들도 일부 여기에 동승하였다. 덕천읍에서 약 2km 쯤 지나자,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들이 사격을 가해왔다. 습격을

받은 부대는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그 사이 날은 어두워졌다. 학도병들은 야음을 이용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청천강을 도하하였다. 그 와중에도 중공군의 추격과 기습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이후 학도병들의 철수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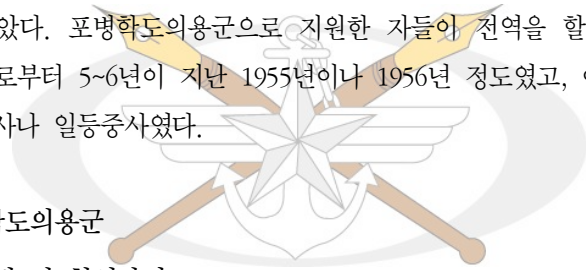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학도병들은 낙심하였다. 그러나 낙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청천강 이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학도병들은 17일 새벽부터 무작정 남쪽을 향해 걸었다. 이후 오전 10시쯤에 학도병 일행은 남쪽을 향해 철수하던 아군 중대병력을 만났다. 제8사단 제10연대 중화기 중대였는데, 이들은 철수중임에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비록 실탄은 모두 다 소모하고 없었지만, 박격포나 기관총 같은 중장비들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중대장이 앞에서 지휘하고 소대장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후미에 같이 따라오는 학도병들도 10여 명에 이르렀다. 사선을 지나 다시 만나 반갑다는 인사도 할 겨를도 없이 학도병들은 이들 대열 제일 후미에 붙어 계속 행군을 하였다.

제8사단 소속의 중화기중대 후미에서 철수하던 학도병들은 해질 무렵 북창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제8사단 제50포병대대의 1개 포대를 만나 포차를 얻어 타고 평안남도 신창으로 나왔다. 철수하는 도중에 길가에 제18포병대대의 집결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군데군데 서있었다. 비교적 후방에 남아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부대대장 최철 소령이 철수하는 병력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길가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군데군데 표지판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개인별로 철수를 하기 시작한 학도병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서울을 향해 철수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서울에 집결한 포병학도의 용대 대원들은 다시 효자동의 청운국민학교에 모여들었다. 이곳에 모인 학도병들은 자신들과 함께 고락을 나눴던 2백여 명의 전우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재편성을 서둘렀다.

하지만 머지않아 1951년 1월 초에 개시된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인해,

서울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18포병대대의 학도의용군들은 다시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경산에 위치한 질남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다. 가 다시 안동으로 복진하였다. 안동에서 새롭게 포를 지원받은 학도병들은 다시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사창리 전투, 철원지구 전투 등에 투입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포병부대는 계속 증편이 되고, 학도병 출신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철원지역 전투에 투입된 제18포병대대에 남아있는 학도병 출신 대원은 모두 30여 명을 넘지않았다.¹⁵⁷⁾

이후 이들은 각자 종합학교에 지원해서 장교로 임관하거나 하사관으로 남아 복무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났으나 현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역도 쉽지 않았다. 1951년 2월 말에 공포된 학도병 복교령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포병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한 자들이 전역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로부터 5~6년이 지난 1955년이나 1956년 정도였고, 이들의 계급은 이등상사나 일등중사였다.



(5) 태백학도의용군

1) 배경 및 형성과정

태백중학교는 본래 1948년 9월 20일 교육자 김유덕에 의해 삼척군 상장면 장성리에 태백야간중학교로 설립되었다. 그후 1950년 5월에 태백공립공업중학교로 개편되어 주·야간 남녀 공학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흔히 태백중학교로 불렸다. 이 학교는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산간벽촌인 장성리, 황지리, 철암동 일대에는 하나밖에 없는 중학교였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도 배움의 열기가 뜨거웠다.

1951년 1월 4일의 1·4후퇴로 인해서 중공군 참전 이후 전세가 아군에

157) 김석찬 증언 (1993. 7. 26).

게 어렵게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백중학교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1월 8일 오후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들었다. 그들은 최근에 북한군이 태백시내의 병원에서 난동부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북한군 부상자가 버젓이 장성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머지않아 북한군 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놀라서 짐을 꾸려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작년 여름에 공산 치하에서 생활해 보았던 터라 마음이 불안하였다. 당시 이들은 북한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골짜기와 산 속으로 들어가 짐승같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태백지구에도 또 다시 북한군이 들어온다면 그때처럼 숨어 살아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의용군에 끌려가 전선으로 내몰릴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이때 일부에서 “후방으로 내려가서 학도병으로 지원하자”며 제안하였다. 이 의견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이후 학도병에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 이때 학생들은 지난해 여름 낙동강 방어선에서 포항 인근에서 모여든 학도병들이 북한군과 싸워서 전선을 방어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다음날인 1월 9일 아침 일찍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몰래 빠져 나와 태백중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었다. 전날 일부 학생들의 결의사항이 하룻밤 사이에 퍼져 뜻을 같이 하겠다는 학생들이 몰려온 것이다. 이때 상장면 방위대 청년들도 모여들었다. 태백중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많은 학부모들과 형제자매가 학교로 와서 전선으로 떠나는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송해 주었다. 태백중학교 학생들과 청년방위대원들은 운동장을 빠져나가 고향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다. 이때 학도병으로 자원하고 나선 학생의 숫자가 123명이었는데, 당시 태백중학교 재학생이 남여 모두 약 300여 명 정도였으니, 여학생과

일부 유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학생이 학도병에 지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학을 가르치는 박효칠(朴孝七) 교사가 학생들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박효칠 교사는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으로 해방 이후 남하하였다. 신의주제일공업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1945년 11월에 소련과 김일성에 맞서 반공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온갖 고생했던 사람인데, 학생 있는 곳에 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교령이 내려져 집으로 돌아와 있던 학생 3명이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학도병 지원 소식을 듣고 합류하였다. 이처럼 태백지구에서 학도병이 되기 위해 출발한 인원은 박효칠 교사를 포함하여 모두 127명이었다.

당시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국군부대를 찾아서 행군하던 1월의 기온은 매섭도록 추웠으며,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너무 미끄러워 행군속도가 더디었다. 이들은 경북 봉화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최종 목적지인 육군본부가 있는 울산을 목적지 삼아 이동하였는데, 일행 중 누군가 “울산에 가면 학도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태백에서 울산까지 거리는 300km가 넘었는데, 영하의 기온과 강풍이 계속 몰아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모두가 몸이 얼어 잔뜩 웅크리고 말없이 걸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행군한다면 학도병에 지원하기 전에 모두 동상에 걸려 쓰러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학생 2명이 동상에 걸려 계속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학생 대표와 박효칠 교사는 의논 끝에 이들을 귀향시키기로 하였다. 결국 인솔자와 두 명의 부상자가 대열에서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123명은 계속 울산을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였다.

2) 학도병중대 편성 및 임무 수행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경북 봉화군 범전면 어지리의 한 마을을 지나던 1월 11일 경에 청년방위대 소대장 2명과 학생 대표 5명이 인근에 있는 육군 제3사단 제23연대 본부를 찾아갔다. 이들은 제23연대장 김종순 대령을 만나 입대를 요청하였고, 김종순 대령은 이들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다음날 이들을 입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입대 이전에 간략하게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태백중학교 학생과 청년방위대원 전원이 합격하였다. 드디어 1월 14일에 제23연대는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입대식을 거행하였으며, 이튿날 이들을 제23연대의 학도중대로 편성하였다. 학도중대는 4개 소대 12분대로 편성하였다. 제4소대는 편제상 화기소대였지만, 이름뿐이었고 모두 소총수로 구성되었다. 박효칠 교사는 이등상사로 임명되어 중대 인사계를 맡아 학생들 뒷바라지에 힘썼다.

입대식 이후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즉시 중앙초등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전선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여 학도병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 일정이 짝박하게 짜여졌다. 하지만 학도병들은 모두 잘 참고 견뎠다. 제23연대에서는 현역병 5명을 조교로 선발하여 훈련을 지도하였다. 하지만 교육여건 및 장비가 불비한 상황에서 학도병들이 받은 훈련은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불과 5일간의 기초적인 군사훈련만 마친 1월 20일 야간에 학도중대는 군용차를 타고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로 이동하였다.

다음날인 1월 21일 아침, 학도병들은 식사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1월 14일부터 5일간 북한군 3개 사단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적 1,500여 명을 사살하고 67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타격을 입은 북한군 부대들은 원주와 평창, 단양군 방향으로 흩어져 패주하였다. 제23연대 학도중대의 임무는 이 전투에서 나오된 북한군

패잔병을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전투를 수행하던 1월 16일 오전에 첫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학도중대는 제23연대가 제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함께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1951년 4월에는 제3사단이 국군 제3군단에 편입됨에 따라 학도중대 역시 중동부전선 최전방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학도중대가 소속된 제23연대는 북한군 제12사단과 한석산과 매봉을 둘러싸고 벌인 혈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5월에는 중공군이 양구 방면에서 상남리와 한계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북한군이 인제와 한계령 지역에서 현리를 향하여 공격하자 제23연대의 학도중대는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하려는 적과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에 밀려 아군이 후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도중대에게도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학도중대는 임계까지 철수하였으며, 이후 강릉을 거쳐 양양군 서면 송천리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1951년 3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중군학생 복교령’을 하달한 사실이 태백학도병에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학도병들은 당장이라도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6월 1일에 양양군 송림에서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 받고 현역으로 입대함으로써 귀가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

한편 제23연대는 학도병들에게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한 이후 학도중대를 해산하고 중박격포중대로 개편하여 이들에게 박격포, 무반동포, 화염방사기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학도중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특공대를 결성하고, 약 1개월 동안 특공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는 북한군의 무기 사용법, 게릴라 전술 등을 훈련시켰다. 이러한 훈련을 마친 학도중대는 간성 쑥고개 전투에 투입되었고, 바로 이어서 214고지 탈환과 적 후방 20리 지점까지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 차단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748고지, 949고지 탈환전투, 가칠봉 전투, 김

화 지구 전투 등에 참전하여 성공적으로 특공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1952년 9월 중순에 태백중학교에서 교사 2명의 인솔 하에 후배 학생 30여명이 위문차 전선을 방문하였다. 제23연대장은 학도중대와 위문단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학도중대를 일선에서 철수시키고, 다른 중대를 진지로 올려 보내며 배려하였다. 학도중대를 만나자 선생님들이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진 입대하여 분골쇄신 피흘려 싸우고 있는 여러분 덕택이다”라고 먼저 인사말을 건네자, 학도병들과 후배 학생들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였다.

이후 일행 중 한 사람이 “한 학교 출신이 한 부대에서 1개 중대가 되어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모교에 태백출신 전몰학도병 충혼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자, 후배들이 박수를 보내 동의하였다. 이에 학도병들은 봉급을 학교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태백중학교 출신 학도병들의 친목회를 만들고 명칭을 화랑도와 태백을 뜻하는 ‘화백회’로 정하기도 하였다.

3) 결과 및 의의

1953년 7월 25일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 학도중대가 중심이 되었던 제23연대의 특공대가 해산되었으며, 이후 연대에서는 이들이 학도병인 점을 감안하여 각 부대의 행정부서에 분산 배치하여 행정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 이후 태백학도병은 여러 병과로 분류되어 전후방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새로 배치된 부대에서 문맹 퇴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국군의 많은 장병들 중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력이 높은 학도병들은 중등반을 만들어 영어와 수학 기초반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모교와 연락을 하여 도서를 지원받아 도서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태백학도병들의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간하

는 <정훈>이라는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내 손으로 고향을 지키겠다면서 눈보라 속을 뚫고 행진하여 제23연대에 학도병으로 입대한 지 2년 6개월 20일 만에 총성이 멎었다. 학도중대는 국군 제23연대의 주축으로 대내외로 용맹을 자랑했으며, 중대원의 국가관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 그동안 학도중대를 떠난 학도병도 많았다. 장교가 되기 위해, 혹은 타 부대의 요청에 의해 떠난 것이다. 아쉽게도 18명의 학도병이 임무수행 중 전사하여 생사를 달리하였다. 다행스럽게 살아남은 대부분의 태백학도병들은 1955년부터 1957년 사이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서 일해왔다.

태백학도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태백중학교에는 199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기념관이 건립됐으며, 국군 제3사단은 2005년 4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사단 교육장 앞에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던 태백학도병들을 위해 전적비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태백중학교는 학도병 참전 이후 평균 5년 정도씩 군에 복무하느라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생존 학도병 70여 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2.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서 결성된 학도의용군

1950년 8월에 전선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물리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전선에 나간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무렵 전국학련구국대는 전선을 따라 대구와 경북으로 내려온 외지의 학생들과 현지의 학생들로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 시기에 형성된 학도의용군 주축의 부대 중에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일명 명부대)는 그 규모가 다른 어느 학도의용군 조직에 비해서 컸고, 육군본부 직할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특히, 1950년 9월 14일 동해안 장사동 해안에서 감행된 상륙작전을 수행한 장본인이 바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였다. 소위 ‘장사동상륙작전’으로 알려진 이 작전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양공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 제1유격대대 소속의 학생 700여 명을 포함한 약 8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학도병들의 희생이 대단히 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최전선에 나아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나 전쟁기간을 통하여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것이 정훈활동이었다. 비록 창군과 더불어 정훈업무가 시작되어 정훈병 및 장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수는 미미하였다. 전쟁기간 중에 특히 활발히 실시된 심리전 활동을 위해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적의 귀순 종용, 대북한 주민 선무뿐만 아니라 아군 장병과 국민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활동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의 분투상, 통일의 기회로 총진격하자는 각종 호소문, 표어, 포스터 등을 제작, 살포하였다. 특히 1950년 말이 되자, 국방부는 새롭게 독립정훈대대를 창설하여 활동을 배가하였다. 비록 대대는 정규 정훈장교들에 의하여 운용되었지만, 중심을 이룬 병력은 학도의용군이었다.

(1)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명부대)

1) 형성 배경 및 과정

낙동강 전선이 형성될 즈음이던 1950년 7월 말에 대구 시내에는 온통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으로 가득찼다. 이들 중에는 서울, 인천 등 경기 지역과 충청도 및 호남 지역에서 이동해 온 수많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구에 와서 비로소 본격적인 학도호국단 조직을 이루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미 대구에서는 전국학

런구국대, 선무공작대 등이 만들어졌고, 학도경찰대, 치안학도대 등은 이미 전선에 투입되어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편 외부에서 모여든 이러한 학도병들과 달리, 영남지역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도병들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에서는 전쟁발발 초기인 6월 27일부터 호국단이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29일부터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각급 학교별로 4학년 이상 학생들이 학교방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후 7월 1일 대구역 광장에서 개최된 국민결기대회에서는 대구의 각급 학교 학도호국단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임시정부가 대구로 내려온 후인 7월 8일에도 대구역 광장에서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때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무장관 등이 국민들에게 시국연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설을 들은 젊은이들은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앞 다투어 나섰다.

특히 7월 15일에는 대구 지역 학도호국단 학생들이 주축이 된 제1차 지원병 입대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학도병 대표는 “오늘부터 펜을 총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겠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였다.

이 선서가 끝난 후 지원 학도들은 군에 입대하였다. 당시 육군본부는 대구농고, 남산초등학교, 경북여고 운동장을 지원병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수많은 지원 학도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출전하는 학도병들은 여학생들이 수놓아 만든 비둘기 마크의 ‘학병’이라는 표식을 가슴에 달고 어깨 또는 모자에 태극기를 둘렀다.

백만 학도여!

풍운의 5개 성상을 가진 고초를 불문하고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수호신이 되고자 혈맹한 전국 학련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쌍견에 짊어지고 두 주먹을 높이 쳐들어 용감히 군세에 걸어나가자!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천추만대에까지 이 한을 남기지 말고, 요동, 만주 넓은 들, 우리 옛터를 찾아 돌진, 돌진 우렁차게 외치며 총진군하자!

뿐만 아니라 학련구국대 경북지대장이 영남일보에 게재한 다음의 호소 문에도 용솟음치는 기백이 서려있다.

전국 애국 10만 학도여!

제1선은 젊은 학도 용사들을 부른다. 구국의 남북통일 성업에 일치 단결하여 일선에 출진한 학병 동지들의 뒤를 따르라. 자유군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찾자.

1950년 8월이 되자 대구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계속되어 점차 대구는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었으나, 구국전선에 자원한 학도들의 사기는 높았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무렵, 전국학련구국대가 발표한 위의 성명서는 그와 같은 학생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구 지역에서는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이곳으로 내려온 외지의 학생들과 현지의 학생들이 구국의 의지를 불태우며 전선으로 나갔다.

6·25전쟁 기간 중 학도병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이 때인데, 이 시기에 자발적으로 나선 학도병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일명 명부대)’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는 대구에서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단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 부대는 규모가 다른 어느 학도의용군 조직에 비해서 컸고, 육본 직할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1950년 9월 14일 동해안 장사동 해안에서 감행된 상륙작전을 수행한 장본인이 바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였다. 소위 ‘장사동상륙작전’으로 알려진 이 작전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양공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는 독립 제1유격대대 소속의 학생 700여 명을 포함한 약 8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학도병들의 희생이 대단히 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장사동상륙작전은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학도의용군 조직뿐만 아니라 정규군 부대도 실시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다. 특히 젊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유격부대가 실시한 상륙작전이라는 점에서 이 작전과 임무를 수행한 학도의용군 단체에 대해 눈여겨 볼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초기부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갔다. 이들의 전투참여는 주로 학도의용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 직접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특히 8월 초에는 육군본부 정훈감실의 협조로 학도기간대가 조직되었으며,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자원해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독립 제1유격대대에서 활동한 학도병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독립 제1유격대대의 형성 및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물은 이명흠 대위였다. 육사 5기생으로 임관한 이명흠 대위는 소대장 및 중대장을 마친 후, 국방부 내에 정훈국이 창설된 때부터 정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발발 전에는 서울 시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상범과 북한에서 월남한 젊은이들을 교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전쟁이 시작되고 전선이 남으로 밀려 내려오던 1950년 8월경, 그는 국방부에서 ‘대적공작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대구를 중심으로 민·관·군의 사기양양과 적군의 귀순공작 등 선무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유격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군이 공격을 실시하는 경우 항상 유격대를 미리 후방에 침투시킨 다음 야군을 교란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군 각 부대의 예하에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국방부 정훈국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 정훈국이 자신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자, 이명흠 대위는 이후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인 강문봉 대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강문

봉 대령도 처음에는 이명흠 대위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흠 대위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강문봉 국장을 설득하여 마침내 유격대 조직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이명흠 대위는 직접 대구역 광장에 나가서 모병을 시작하였다. 인파로 북적대는 틈바구니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학생의 힘으로 조국을 지키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명흠 대위가 대구 일대에서 모병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인 8월 18일에는 대구지역에 대한 주민소개령이 선포되었고, 근교인 다부동 지구에서는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포성이 들려 왔으며, 밤이면 포화로 인하여 북녘 하늘이 낮과 같이 밝아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민심은 극도로 동요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군이 쏜 것으로 보이는 박격포탄 몇 발이 대구 시내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극 받은 대구 시민들의 분위기가 이대로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때문에 의외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병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신의 모병활동에 호응한 학생의 숫자가 예상 외로 많아지자, 이명흠 대위는 그들 중에서 체격이 좋고 담력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즐거운 고충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명흠 대위의 모병활동에 자원하여 이후 소정의 신체검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대구역 광장에 집결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인원 확인을 받고, 학도병들은 화물열차에 몸을 실었다. 오후 4시경 학생들을 실은 화물열차는 대구역을 출발하여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경에 밀양역에 도착하였다. 밀양역에서 다시 인원 점검을 마친 후 그들은 곧바로 숙영 장소인 농협 창고로 이동하였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학도의용군에 자원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농협 창고에서 가마니를 덮고 숙영해야 하고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2) 부대 편성 및 전투 준비

밀양에 도착한 지 3일 후인 8월 27일이 되자, 그 동안 학생들이 변화된 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음을 파악한 이명흠 대위는 대구에서 모집한 560명과 밀양에서 최윤동 의원이 모집한 약 200명을 합하여 760여 명을 대상으로 부대편성을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약 80%에 달하는 600여 명이 주로 18, 19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먼저 유격 부대장은 이명흠 대위, 부관은 백운봉 중위가 맡았다. 공식적인 부대창설은 그 후인 1950년 9월 7일부로 육본 일반명령 (육)제72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의해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대장인 이명흠 대위의 이름 중에서 ‘명’ 자를 따서 ‘명부대’로 불렸으며, 이후에도 이 유격대는 정식 명칭보다 별칭에 해당되는 명부대로 널리 알려졌다.

이처럼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폭염에도 불구하고 즉시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 초기에는 개인에게 소충은 지급되지 않았고, 주로 구보와 체식훈련, 극기훈련 등 군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기초훈련이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체력단련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특수훈련을 받을 때에는 북한군 장교였다가 남하하여 국군에 가담한 박창암 중위가 2명의 현역 사병과 함께 와서 훈련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훈련이 시작된 초기에는 여러 면에서 서툴렀던 대원들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훈련에 익숙해지면서 잘 적응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백적간두의 조국을 구해야겠다는 학도병들의 철저한 정신력이 이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밀양에서 부대편성 및 훈련이 끝나고, 명부대는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된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라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8월 31일 새벽에 명부대의 유격대원들이 기차를 타고 밀양역을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부산진역이었다. 이들은 다시 약 30분 정도 행군으로 이

동하여 문현동의 육군본부 청사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향후 약 10일 동안 유격대의 주둔지 겸 훈련장이었다. 육군본부에 도착한 직후, 유격대원들은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이 발행한 육본 직할 유격대원이라는 대원증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유격대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특수임무훈련에 돌입하였고,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여 일간 진행되었다. 급박한 전황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실시된 훈련이었지만, 명부대의 유격대원들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 시기에 유격대원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은 크게 정신교육과 전술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정신교육은 국가관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민주주의 이념 및 민족 문화사 등이 교육되었다. 그리고 전술훈련에서는 군사학, 병기조작법, 사격술, 소대 및 분대공격과 방어, 교량 파괴법, 토치카 파괴법 등 주로 유격대 활동에 필요한 전술훈련이 실시되었다. 한편 유격대원들이 훈련 시에 사용한 장비는 모두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적군의 장비였다. 이 장비에 대한 조작법을 교육하기 위해 방원철 소령과 조교 2명이 파견되었는데, 교육 중에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조교가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격대원 중 북한 출신인 오창순 대원으로부터 김일성 군가를 포함한 몇 곡의 북한군 군가도 배웠다. 적 후방 지역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할 경우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르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격대대의 교육 및 훈련 상황은 매일 육본에 보고되었으며, 수뇌부에서도 명부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러던 중 훈련이 시작된 약 10일여 만에 유격부대가 실전에 투입될 시기가 다가왔다.

3) 임무 수행 : 장사동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전환점이 되는 군사작전이었다. 미 제10군단을 인천에 상륙시키겠다는 맥아더 원수의 작전 개념은 어려운 작전환경에 대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과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개전 초기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맥아더 원수는 이후 이 작전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참모장인 알몬드 소장에게 지시하였다. 이때부터 ‘블루 하트(Blue Heart)’라는 작전 명칭으로 추진되던 이 계획은 8월 중순 이후 낙동강 방어선의 전황이 워낙 위급했기 때문에 점차 순연되고 있었다. 이후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확대된 인천상륙작전이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6·25전쟁의 초기 전세는 점차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에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키기에는 역시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와 합참 내부에서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며, 인명 피해도 매우 클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해군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5,000대 1의 도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고 있었다. 맥아더 원수의 신념도 바로 이런 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기습’ 달성 여부였다. 비록 상륙작전을 위한 기술적 곤란점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전의 성공 여부는 과연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맥아더 원수는 “기습할 수 있다. 적은 마음을 놓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북한군이 인천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인천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천항의 지형적 곤란과 합쳐져서 유엔군의 상륙작전은 크게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입된 미군은 재기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많았다. 따라서 인천상

륙작전 수행의 전제 조건은 이 작전이 기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적에게 추가적으로 기습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만과 양동작전이 검토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적에게 군산에 대한 상륙작전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5해병 연대는 부산에 집결한 후 지속적으로 ‘군산상륙작전’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기지 안에서는 드나드는 한국 사람들에게 군산지구의 지도와 모형도가 눈에 띄도록 하였다. 또한 미 제5공군은 군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였고, 9월 12일 밤에는 미군과 영국군 유격대가 군산 해안에 상륙하여 위력정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9월 13일에도 미 제5공군은 군산 지구에 미·영 연합군이 상륙하니 해안의 주민은 피난하라고 쓴 전단을 뿌렸다. 한편 전함 미주리호는 동해안의 삼척에 대해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영국 항공모함 트립프호와 중순양함 헬레나호도 같은 날 진남포를 공격하였다. 이처럼 맥아더사령부에서는 북한군에게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맥아더사령부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인천상륙작전의 기습 달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임박하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인천이라는 지명이 너무나 뚜렷이 알려지는 바람에 북한이 인천을 속임수로까지 판단했던 기색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륙 작전을 실시하고 나서야 판명된 사실로서, 사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하던 유엔군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의 기만과 양공 또는 양동작전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상륙지점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점, 특히 동해안의 어느 지점인 것처럼 속임수만 있다면 실제 상륙지점에서의 작전수행에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미 해군의 미주리호는 수 척의 구축함을 이끌고 인천상

륙작전 이틀 전인 9월 13일 아침에 동해안의 삼척에 출현하여 구경 40cm의 거포로 상륙작전 준비사격으로 오인될 만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거행되기 하루 전인 9월 14일에 독립 제1유격대대가 실시한 장사동상륙작전도 북한군의 관심을 인천의 반대편인 동해안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였다. 이명흠 대위는 9월 12일 오후에 육본 작전국장실에서 독립 제1유격대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령하였다. 이날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수령한 작전 임무는 “포항지구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김무정 산하 북한군 제2군단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유격대인 명부대가 적 후방인 동해안의 장사동에 상륙하여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게 된 이 대위는 의외였기 때문에 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특히 다양한 임무를 고려했지만, 이 대위 자신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명흠 대위에게는 ‘장사동’이란 지명마저도 생소하였다. 장사동은 영덕 남쪽 약 15km, 포항 북쪽 약 26km 지점에 자리잡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다. 이 해안은 8월 중순에 영덕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맞서 싸우던 국군 제3사단이 후방을 차단당하자 부득이하게 해상으로 철수하였던 곳이었다. 지형상으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평지로서 동해 바다와 이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북한군은 통상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해안 가까운 산기슭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명흠 대위의 입장에서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휘해야 할 부대는 학도병들로 구성된 유격부대이며, 그것도 실제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 무리

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을 강문봉 대령에게 건의하였으나, 강문봉 국장은 이명흠 대위에게 전선 병력의 배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정규 부대로는 이 작전을 실시할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 시기에 아군은 은밀히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동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작전에 투입할 마땅한 정규부대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날 이명흠 대위가 수령한 작전명령서는 1950년 9월 10일부로 발행된 육본 작명 제174호였다. 그 작전명령서의 핵심은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해안에 작전 상륙을 감행하여 김무정 중장 휘하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울러 적의 후방을 교란하라’는 것이었다. 출동일자는 9월 13일이었으며, 작전기간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이었다. 해상기동 및 상륙은 LST를 이용하고, 유격대의 상륙작전 감행 직전에 유엔 항공기에 의한 공중폭격과 해상으로부터 군함에 의한 지원 함포사격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계획상으로는 입체적으로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통신은 육본 통신감실로부터 12명으로 편성된 무선통신반을 배속받아 국군 제1군단을 경유하여 육본과 통신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필요한 보급품은 제1군단에서 수령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중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독립 제1유격대대의 전술 고문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유격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으며 전쟁 초기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으로 싸우다가 부상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작전명령서에 나타나 있던 내용은 작전 목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사동상륙작전을 통해 장차 실시될 예정인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만작전을 수행하며, 이로써 적의 관심을 동해안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작전에 참여한 유격대원들 중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 수뇌부가 왜 그토록 자신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는지, 더구나 왜 하필이면 9월 14일에 작전을 실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일단 부대장이 명령을 받은 이후 독립 제1유격대대의 출동을 위한 준비가 신속히 진행되었다. 9월 12일에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급품이 지급되었다. 1인당 3일분에 해당하는 피복과 식량, 그리고 토치카 파괴용 폭약 및 각종 탄약 등이 대원들에게 개인별로 분배되었다. 대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보급품을 수령하였다. 이제야 진짜 군인처럼 제대로 무장을 갖추게 되는구나 하고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전에 대한 마음의 다짐이 되어 있었고,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낼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이날 모든 대원이 출동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9월 13일 오전에 출동을 위해 유격대대의 편성이 크게 조정되었다. 대대가 사단으로 바뀌었고, 중대가 연대로 확대 재편성되었으며, 연대의 병력은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작전상 부대의 규모를 숨겨서 적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대를 사단으로 호칭함에 따라 지휘관과 참모의 계급도 상향 조정되었다. 그래서 장교 및 사병들에게 부대 규모에 맞는 임시 계급을 부여하고 임시 계급장을 붙이도록 하였다.

9월 13일 오전에는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유격대의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일권 참모총장 외에도 육군 고위관계관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출정식에 앞서 유격대원 전원은 각자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일부를 잘라 봉투에 넣어서 육본에 보관해 두었다.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나타내 보인 것이었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비록 많은 훈련을 쌓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정신력은 단단하고 사기는 높았다.

출정식이 끝난 후 유격대원들은 군용 트럭을 타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

송을 받으며 부산항 제4부두로 이동하였다. 거기에는 대원들과 운명을 같이 할 '문산호'(선장 민간인 황재중)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배는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2,700톤급 LST로서, 징발되어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배에 승선한 인원은 모두 828명이었다. 전투원은 명부대원과 육본통신감실에서 파견된 무전통신병 12명을 포함하여 772명. 그 외에 문산호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선박 안내장교인 미군 중위 1명, 통역 1명, 그리고 특별 수행원인 전성호 대령과 연락병 3명, 민간인 고문으로 전 중국군 소장 출신으로 알려진 박영선 외 2명도 함께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격대원들이 모두 승선하면 곧 출발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배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원들은 영문을 모르고 하선했는데, 이번에는 미군 병사들이 그 배에 승선하였다. 다시 유격대가 승선하는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며 유격대와 미군들이 승선 및 하선 연습을 하더니, 결국 유격대가 승선했을 때 배가 출발하였다. 미군 병사들과 유격대원들이 것처럼 승·하선을 반복한 것은 아마도 적의 스파이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기만책인 것 같았다. 드디어 출발하게 되자 영국 구축함 Q-34호가 저만큼 앞서서 문산호를 호위하여 전진하고 있었다.

유격대가 부산항을 출발한 다음날인 9월 14일 새벽 4~5시 정도에 문산호의 몸체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듯 한 둔탁한 소리를 내더니 엔진 소리가 바뀌었다. 힘차게 달리 때와는 다른 요동치듯 높아졌다가는 낮아지기를 여러 번 반복한 후에는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다. 목적지에 도착한 듯 하자 대원들이 한 두 사람씩 잠에서 깨어났다. 대부분 심한 뱃멀미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명흠 대위 자신도 멀미 때문에 몸이 편치 않았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선장의 보고를 받고 일어난 다음 배가 몹시 흔들리는 탓으로 몸의 균형을 잡느라 애쓰면서 겨우 선장실로 갔다. 해상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었다. 그리고 배는 육지

에서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접근해 있었다. 확인 결과, 문산호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불행히도 해안 가까이서 좌초되고 말았다. 게다가 태풍 ‘케이시아’의 영향으로 5~6m 정도나 되어 보이는 파도가 배를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다.

상륙을 위해 배의 앞문을 열었으나 모래사장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열려진 문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높은 파도가 배와 모래사장을 삼킬 듯이 휩쓸고 있었다. 이날 일출 시간은 오전 6시 12분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 오고 있었다. 어둠이 가시고 안개도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시계가 트이자, 전면으로 산봉우리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마주 보이는 해안의 고지 어두운 산 속에서 갑자기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총구에서 뿜어대는 불빛이었다. 그 불빛이 수없이 반짝일 때마다 탄환이 비오듯 날아왔다. 적의 사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장사동은 서, 남, 북의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며, 남방 지경동고지와 북방 부흥동 고지는 해발 200m 높이였다. 적군은 그 고지에 잠복하여 문산호를 향해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적의 사격은 3개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직사포를 비롯한 각종 화기가 일제히 문산호에 집중하면서 작렬하였다. 적탄에 맞아 쓰러지는 자도 생겼다. 이때 적이 쏜 직격탄 한 발이 선장실을 뚫고 들어왔다. 그때 마침 선장실에서 지도를 펴놓고 지형을 살피던 명부대장 이 대위는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 대원의 기억에 따르면, 상륙지점에서 배가 좌초되고, 상륙명령은 내려졌으나 모래사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상륙이 불가능하였다. 부대장은 “적의 병력이 1개 중대뿐이니 대대병력이 적을 보고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면서 상륙을 독려하고 있었다. 드디어 배의 앞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니 갑자기 파도가 들이닥쳐 문 옆에 있던 전우 5, 6명이 순식간에 파도와 함께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이처럼 문산호 여기저기에 적탄이 떨어지는데다 무작정

뛰어내리다가는 성난 파도에 휩쓸릴 형편이었다. 이렇게 되자 상륙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원들은 슬금슬금 대열의 뒤쪽으로 물리고 있었다.

출발 전에 하달된 육본의 작전명령에 의하면, 유격대가 상륙할 때에 유엔군은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항공폭격과 함포지원을 병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즉, 막강한 화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해안의 적군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킨 후에 유격대가 상륙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문산호를 인도하여 장사동으로 갔던 영국군함 Q-34호 한 척만이 상륙을 지원하는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조건은 최악의 상태였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부대장은 백사장에 있는 소나무에 밧줄을 매고, 그것을 붙잡고 대원들이 상륙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밧줄을 소나무에 연결할 7명의 특공조를 선발하였다. 물론 학생들로 이루어진 조원들이었다. 이들 특공대원들은 아군 함정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적의 일제사격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몸에 밧줄을 감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염도 서툴고 바닷물의 흐름도 잘 알지 못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 올라갈 때를 적절하게 맞추기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산호 선원 두 사람이 물때를 잘 맞추어 바다에 뛰어 들었다. 과감하고도 결사적인 노력의 결과, 마침내 그들은 모래사장의 소나무에 밧줄을 동여매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문산호와 해안의 상륙지점 간에는 4개의 밧줄이 연결되었다.

드디어 부대장의 상륙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렇지만 상륙에 따르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최재명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대원들은 배안에 머물러 있어도 독 안에 든 쥐의 형편인데다가, 더위 때문에도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차라리 시원하게 바다에라도 뛰어드는 게 낫겠다는 체념어린 마음이 들었다. 물론 상륙을 하게 되면 다행이었고, 나무에 매어 놓은 밧줄을 의지하여 상륙을 하기로 하고 서서히

입구 쪽으로 옮겨갔다. 밧줄 중간 부분은 완전히 바다 속에 잠겨 있어서 파도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밧줄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해안으로 다가갔다. 아군의 함포사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우리 상륙 대원들을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회상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상륙 당시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명령에 따라 제1중대(임시 편제로는 제28연대)가 선두에서 상륙을 실시하였다. 일단 밧줄이 소나무에 걸리자 대원들은 그 줄을 붙잡고 해안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그들은 밧줄을 의지하여 밧발치는 적의 포화를 무릅쓰고 상륙을 감행하였다. 강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적의 맹렬한 사격에 쓰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하였으나, 상륙작전은 계속되었다. 전면에 있는 적의 초소와 좌우의 산에서 맹렬히 쏘아대는 적의 사격을 뚫고 상륙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다. 이런 위험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친 대원들은 겨우 해안의 모래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상륙 후에 적을 향하여 사격을 하려고 했으나, 총이 바닷물에 젖고 총구에 모래가 들어가 있어서 사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적과 교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안의 소나무를 방패삼아 소총을 정비해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의 상황은 배수용 대원의 회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나는 선두 그룹으로서 일곱 번째로 상륙했다. 따릉 장총을 추켜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LST배 밑으로 갈 뻔 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버티어서 겨우 모래톱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적의 박격포탄, 소총탄 등이 무자비하게 퍼부어지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약 20명이 상륙한 후 더 이상 상륙하지 못하여 중단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다.

제1중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상륙한 제2중대도 상륙과정에서 역시 적지 않은 희생을 당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격대는 마침내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상륙과정에서 희생된 대원이 며칠간의 전투에서 잃은 숫자보다 더 많았다. 당시 유격대 부관이었던 백운봉 대원의 회고에 의하면, 상륙 초기에 60여 명이 전사하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것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피아간에 필사적인 사격전이 전개됨으로써 장사동의 아침 해안은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 찼고, 모래는 핏빛으로 얼룩졌다. 얼마 후 미 해군의 함포사격에 이어 항공지원이 시작되자, 장사동은 포연으로 덮였다. 이 때문에 적의 사격은 상당히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상륙이 성공한 이후 제28연대는 전방에 있는 200고지 정면으로, 제29연대는 그 우측으로 돌아서 공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가장 먼저 상륙을 완료한 제28연대 대원들은 문산호에 대한 맹렬한 사격을 가하고 있는 적의 토치카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 피아간에 격렬한 사격과 수류탄전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 중에 선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던 제28연대장 이영훈 대령이 전사하였다. 연대장이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대원들이 과감하게 적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리고 육탄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적의 토치카 3개소를 파괴하고 이를 점령하였다. 적은 아군의 공격을 당해 내지 못하고 퇴각하였고, 유격대는 오전 9시경에 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의 전투는 아군의 함포사격과 비행기의 지원사격이 큰 힘이 되었다.

목표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전투에 참가한 대원들은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하였다. 그러던 중 유격대원들의 저돌적인 공격에 의해서 200고지 정상에서 밀려난 적들은 다시 이 고지의 후사면과 220고지에서 저항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는 유격대가 상륙을 완료한 후였으므로, 사전

에 계획된 작전명령에 따라 3개 연대가 3개 방면을 담당하고, 나머지 제37 연대가 예비로 지원사격을 실시하는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도 이번에는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듯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점점 좁혀지는 유격대의 포위망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서남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명부대는 마침내 장사동 해안의 주요 거점인 200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때는 오후 3시경으로 문산호가 장사동 해안에 도착한 후 무려 10시간의 사투 끝에 이룩한 쾌거였다. 고지를 점령한 후에 즉시 부대장은 무전병에게 본부와 무전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장사동 해안에 무사히 상륙을 끝마쳤다는 것과 상륙 중에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하려던 시도는 무전기 고장으로 끝내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유격대는 적 지역에 고립되었지만, 일단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 후방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격대대는 적 39명을 사살하고, 3명의 포로를 붙잡았다. 또한 9개소의 도치카를 파괴하고, 적사포 2문, 지프차 1대, 기관총 45정, 로켓포 1문, 따발총 5정, M1소총 9정, 소련제 장총 12정, 박격포 1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유격대대의 피해도 상당히 커서 전성호 대령, 황재중 선장, 이영훈 대령 등 무려 23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

한편 적의 방어거점을 점령한 후 유격대는 곧 바로 장사리 일대에서 저항하는 적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몇 차례의 총격전을 치러야 했지만, 장사리 일대를 점령,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장사동 해안의 방어 진지를 상실한 적이 대부분 도주하였기 때문에 소탕전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이후 유격대원들은 200고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야영 준비를 서둘렀다. 날이 저물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서 약 2m 간격으로 개인호를 만들어 진지를 마련한 대원들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여 판초우의를 덮어쓰고 경계근무를 시작하였다. 전투에서의 피로와 굶주림에 졸음이 엄습하여 대원들은 즐기게 내리는 비속에서도 하나, 둘씩 졸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총성이 요란하여 잠에서 깬 대원들은 모두가 적의 위치도 분간하지 못한 채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사격 중지!”라는 소리에 사격을 멈추었다. 알고 보니 대원들 중의 한 사람이 졸면서 오발을 한 것이 전 부대원의 사격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이후 22시 경에는 적의 공격으로 또 한 차례의 교전이 벌어졌다. 대원들은 용감히 싸워 적을 물리쳤으며, 날이 밝은 후에 확인해 보니 약 8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며 다수의 장비와 무기를 노획할 수 있었다.

다음날인 9월 15일이 밝아오자, 이명흠 대위는 유격대원들을 집합시킨 자리에서 상황을 정리하여 브리핑하였다. 먼저 향후 유격대대가 추진해야 할 작전계획은 장사리를 지나가는 동해안의 7번 국도를 통해 북한군이 전방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격대대가 이 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폭파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 적 탱크의 통행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할 대원을 선발해서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세 명이 이 임무에 자원하여 교량 2개를 파괴하는 등 적군의 보급지원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이명흠 대위는 부대병력을 재편성하여, 각 중대를 분산 배치시켜 일정 범위를 확보하는 거점 확보작전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군의 주요 보급로로 사용되는 포항과 영천 방면으로 통하는 모든 국도를 차단하여 적군의 보급을 마비시켜야 했다. 이렇게 아군 유격대가 적의 후방에 확고한 거침을 확보하자, 북한군의 주력인 제2군단은 후방의 보급로가 차단됨에 따라 차후 작전 수행에 큰 장애를 받게 되었다. 비록 유격대대의 활동이 불과 며칠 동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적의 작전수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이 분명하였다.

유격대대가 장사동에 상륙한 지 3일째인 9월 16일은 오전부터 적과 또 다른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날의 교전은 대대가 200고지 전방 고지군으로 이동하던 중에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군에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산 중턱까지 대형을 갖춰 이동하던 대대원들은 적의 기습적인 사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앞서가던 대원들이 쓰러지자, 후방 고지에서 적을 향해 엄호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엄호병들의 소총으로는 적의 기관총사격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결국 전방 고지군을 향해서 진격하던 대원들이 원위치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접전에서 의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지휘관의 조치나 병사들의 훈련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물론 이 당시 대원들은 상륙 후 3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모두가 극도로 허기진 몸이었다. 그 때문에 싸울 기력이 떨어지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었다.

한편 명부대가 장사동에 상륙전을 감행할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동부전선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포항 및 영덕지구를 담당하던 적군은 북한군 제5사단으로서 그 병력은 약 5,5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었고, 후방의 방어 및 치안임무는 제101치안부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즉, 제1유격대대가 상륙한 장사동 해안 일대에는 최소의 병력만으로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6일 저녁 7시경에 유격대의 정찰대원이 북한군의 대부대가 포항방면으로부터 북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북한군 대형에는 4대의 탱크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곳에 파견된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 2개 연대규모의 이동은 영덕지구에 상륙한 유격부대를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적군의 진출상황을 보고 받은 부대장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하 지휘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여 부대를 배치하였다. 그에 따라 제28연대는 125고지 좌측 능선을, 제32

연대는 219고지 우측 능선을 각각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제29연대는 1개 대대병력(약 40명)으로 271고지를 경계하고 나머지 3개 대대병력은 철수하여 이날 밤 9시까지 사령부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각 연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진지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밤새도록 땅을 파고 흙을 쌓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날 새벽 3시 경에는 어느 정도 방어진지가 만들어져서 적과 대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적의 박격포탄과 전차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유격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고지들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산발적인 포격을 가한 후, 제32연대의 방어 지역인 219고지 정면으로 가장 먼저 공격해왔다. 진지 내에서 포격을 피하며 침묵을 지켜 오던 대원들은 적군의 선두가 50m 지점까지 접근하였을 때,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실시하였다. 기관총과 소총사격이 일제히 적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공방전이 약 40분이나 지속되었으며, 그 사이에 유격대대는 근접전을 통해서 접근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후퇴한 적은 지속적으로 유격대대 진지에 대하여 간헐적인 포격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제32연대 지역에서 일단 후퇴한 적은 약 1시간에 걸친 포격 후에, 이번에는 제28연대가 배치된 정면으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전 공격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훨씬 거세게 밀고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도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사실상 적은 북한군의 정예인 제5사단 병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한 유격대의 용감한 저항 앞에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유격대원들의 싸움에 대한 전의와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는 비장하였다. 그러나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탱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자, 이명흠 대대장은 2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육군본부나 아군 정규부대에 전달하려 하였다. “첫째, 9월 14일에 상륙 완료하여 적 후방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9월 17일 포항 방면으로부터 적 2개 연대의 반격을 받고 있다. 셋째, 대원들은 악조건 하에서도 최후까지 적을 저지, 격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탄약과 의약품 보급을 바란다.”

하지만 또 다시 적의 공격이 개시될 징후가 보이자, 유격대대는 다시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장은 제28연대와 제32연대로부터 각각 1개 대대 병력을 지출하여 125고지와 219고지의 좌우 능선을 담당케 하고, 전 병력을 200고지로 철수시켰다. 주위가 어두워진 탓으로 이 병력 재배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이튿날인 18일 새벽 2시 30분경에야 완료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격대사령부를 그동안 주둔하고 있던 200고지로부터 장사동 해안에 좌초되어 있는 문산호로 이동시켰다. 대대장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악의 사태에 치할 경우 최초 상륙전을 감행했던 이 배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대원 전원이 장렬한 최후를 맞겠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기다리던 적의 공격은 9월 18일 오전에 개시되었다. 적의 선두부대가 200고지 동남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거의 3시간 동안, 적은 처음 두 번의 공격과는 달리 급속한 접전보다는 지속적인 장기전을 피하면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유격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실탄은 제한된 양이었기 때문에 전투가 장기화될 경우 탄약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았다. 사실 유격대대가 출발 전에 하달된 작전명령에 따르면 작전 기간은 3일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부대를 부산항으로 철수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육본으로부터는 철수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고 간단한 연락조차 없었다. 게다가 대원들은 허기로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흠 대대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한 가지 방안은 철수 선택이 올 때까지 현 위치에서 계속 버티는 것과, 다른 한 가지 방안은 포항 방면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만약 유격대대가 장사동 지역을 벗어나 포항 방면으로 남하한다면 아군과 대치 중인 북한군의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적을 교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판단한 이명흠 대위는 유격대대를 이끌고 포항 방면으로 진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유격대대는 9월 18일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200고지에서 내려와 도로변에 집결하여 남쪽으로 행군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유격대대가 몇 시간 정도 행군했을 때, 유엔군 정찰기 한 대가 행군중인 대원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그 비행기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는 듯 행군대열 위를 몇 바퀴 선회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그 비행기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흔들기도 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대원들의 희망과는 달리 그 비행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동해쪽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그렇게 정찰기가 사라지고 난 얼마 후 이번에는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다. 이 헬기는 동해안을 봉쇄하고 있던 유엔군 함대사령부에서 보낸 미군 소속의 비행기였다. 헬기에서는 부대장에게 올라오라는 쪽지를 투하하고 사다리를 내려보냈다. 부대장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헬기는 곧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부대장을 태운 헬리콥터는 곧 바로 동해안 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유엔해군의 순양함 헬레나호에 도착하였다. 몇 분간의 심문을 통한 신분 확인 후에 그는 함장실로 안내되었다.

이명흠 대위는 미군 함정에서 96.5기동함대 하트먼 소장과 헬레나호의 함장 스텔트 대령을 만났다. 미군 지휘관들은 유격대대의 성격과 그 동안의 활동사항, 그리고 남쪽으로의 행군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명흠 대위는 유격대대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하고, 대신 미군에

게 유격대대의 철수와 부대 철수시의 함포 엄호사격, 그리고 탄약 및 식량보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령관은 유격부대의 철수방책과 엄호사격 그리고 식량보급에 관해서 의논하였다. 그 결과 유격대를 구출하기 위해 9월 19일 새벽 4시 30분에 LST 한 척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대원들을 위해 식량을 보내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유격대의 철수 시에 이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명흠 부대장이 지도상에 명시한 사격 요구지점에 함포 지원사격을 해줄 것도 약속하였다. 하지만 유격대가 소지하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 적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명흠 대위는 헬레나호의 미 해군 참모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후 순양함 갑판을 이륙한 헬기를 타고 다시 유격부대로 복귀하였다. 부대장이 없는 동안에도 행군은 계속되어 헬기가 도착했을 때, 부대원들은 출발지였던 200고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정도 되는 지점을 이동하고 있었다. 부대장이 돌아오자 부대원들은 일단 행군을 멈추고 그를 맞이하였다. 부대에 도착한 즉시 부대장은 예하 연대장들을 소집하여 미 해군과 논의한 바를 설명하였다. 즉 9월 19일 새벽에 배가 올 것이며, 다시 최초의 상륙지점인 장사리 해안에서 해상철수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부대장은 남쪽으로 진행하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장사동 해안으로 북상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유격대대는 그동안 이동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장사동 해안을 향해서 북진하였다.

9월 18일 오후가 되자 장사동을 향해서 이동하는 유격대대를 향해 적이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다. 즉시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탄이 부족했던 유격대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실탄마저 떨어진다면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에 동해상에 떠 있던 미 함대로부터 약속대로 유격대의 행군을 엄호하는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함

포사격의 뒤를 이어 유엔군 제트기 1개 편대가 나타나 적이 점령하고 있는 200고지를 맹렬하게 폭격하였다. 이러한 지원사격 덕분에 적의 공격은 거의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유엔군의 때맞춘 지원에 힘입어 유격대는 그날 오후 7시 경에 좌초된 문산호가 있는 장사동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도착이 완료되자, 해상의 미 함대를 향하여 신호탄을 발사하였다. 이때가 9월 18일 오후 6시 50분경이었다.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 함선에서 날아온 수송기가 유격대대에게 야전식량(C-레이션)을 떨어뜨려 주었다. 몇 시간에 걸친 행군과 죽음을 무릅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대원들은 극도의 피로와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고맙게도 미군 수송기에서 투하된 시레이션으로 대원들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웠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한 후 이제는 철수선이 가능하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유격대대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며칠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유격대대가 상륙하던 당일부터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미 해군의 요원들이 육군본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상륙부대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한국 해군본부에서는 즉시 미 육군의 스피어 소령을 LT(해난구조선) 636호에 승선시켜 현장으로 보냈다. 이 배는 15일 밤 10시경 부산항을 출발한 후 다음날 아침 7시경에 현지에 도착하여 문산호 구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배가 너무 깊어 좌초되었으므로 구조에 실패하고 일몰과 동시에 감포로 돌아갔다. 또한 한국 해군의 304정도 역시 문산호를 구출하고자 출동하였으나, 시계불량으로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채 풍량이 심하여 구룡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드디어 9월 19일 새벽 5시가 지나서 LST 1척이 문산호로 접근해 왔다. 이 배는 조치원호로서 미 육군 소령 프랭크 스피어가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조치원호를 문산호가 좌초한 북방 약 400m 지점에 대도록 지

시켰으나, 당시 해운공사 소속으로 민간인이었던 선장은 배가 좌초될 것을 염려하여 해안 접근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스피어 소령은 조치원호에 뛰어올라 자신이 직접 조종하여 문산호 북방 약 400m, 육지로부터 약 30m 떨어진 지점에 배를 접안시켜 닻을 내렸다. 그리고 철수작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격대사령부가 있는 문산호로 올라왔다. 이후 스피어 소령의 지휘로 유격대원 구출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로프를 타고 험한 파도를 무릅쓰면서 해안에 상륙하여 용감히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

철수를 위한 승선 순서는 가장 먼저 환자가 탑승하고, 다음으로 일반 대원들이 탑승하였다.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대원으로는 제28연대, 제37연대, 사령부, 제32연대, 제29연대 순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LST가 해안에서 너무 멀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한 끝에 보트를 활용하는 외에 LST로부터 해안까지 밧줄을 연결한 후 그 줄을 이용해서 승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배에 승선하는 일은 예상 외로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해안에서 배까지 고무보트로 몇 사람씩을 수송하는데, LST에 접근한다고 해도 갑판이 상당히 높아 올라가기가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파도가 다시 심해져서 배에 걸쳐 있는 그물을 타고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간혹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철수하는 대원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장비라도 더 가지고 타겠다는 마음으로 완전군장한 채로 승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배에 오르는 도중에 휩쓸리는 대원들이 생기게 되자 무거운 것들은 버리고 승선하였다.

한편 승선하는 과정에서 적군의 사격도 만만치 않아 적탄에 맞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그 동안 웅크리고 있던 적들은 유격대의 철수를 눈치 채고 맹렬하게 사격을 가해왔다.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올랐으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는 않았다. 적이 쏜 박격포탄이 여기까지도 떨어져 이미 승선한 대원들 상당수가 희생되었다. 이처럼 승선 수단이 좋지 못하고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는데다가 적의 맹렬한 사격까지 받게 되어 철수 시간은 예정보다 크게 늦어졌다. 본래는 낮 12시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승선이 오후 3시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승선이 지연되자, 조치원호의 선장과 철수 책임을 맡은 미군 소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해안의 고지에서 쏘아대는 적의 박격포 탄이 LST 주위의 해상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그 중의 몇 발은 갑판 위에 명중되기도 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이들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 LST 자체마저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 이 정도로 승선을 중단하고 출항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부대장은 간곡히 사정을 하고 위협까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원들의 철수를 독려했다. 해안에는 아직도 2개 대대병력 약 60명이 남아서 적과 교전을 계속하며 승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약 30명의 대원들이 더 승선했을 즈음에, 그동안 줄곧 철수 중단을 요구해온 미군 소령은 밧줄을 절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부대장이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배와 이미 승선했던 인원들마저 크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까닭에 부대장도 하는 수없이 이를 수락하고 말았다. 이때가 오후 3시 40분경, 해안에는 아직도 약 30여 명의 대원들이 남아 있었다.

이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처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모래사장에 남아 있는 대원들 못지않게 그들을 두고 떠나는 동지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었다. 해안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조치원호의 갑판 위에서 부대장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승선하게 된 대원들은 아직 해안에 남아 있는 동료 대원들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손을 흔들었다. 점점 해안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들의 모습이 희미해졌을 때, 산에서 내려온 북한군들이 해안에 남아 있는 대원들을 포위하는 것이 아득히 보였다. 이때 조치원호에 승선하지 못한 대원들은 대부분 북한군에

게 포로가 되었다.

이처럼 어렵게 조치원호에 몸을 실은 약 640명의 대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그들은 9월 20일 새벽 6시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유격대가 부산항을 출발한 것이 9월 13일로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에서 완전히 1주일 동안 북한군과 혈전을 치른 후에 귀환한 것이었다. 배가 부산항에 도착하자 부대장은 대원들에게 몇 가지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즉시 육군본부로 향하였다. 육군본부에 도착하니 강문봉 작전국장 이하 상륙작전에 관계되었던 장교들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육본에서는 애초부터 모두들 전사할 것으로, 그리고 상륙작전 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태도에 오히려 어안이 병병하였던 이명흠 부대장은 곧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보고절차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원들은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에 우연히 신문 호의를 읽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실시한 장사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 수행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된 양공작전이었음을 이때서야 알게 되었다.

4) 결과 및 의의

장사동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환한 유격부대는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국본 일반명령(을) 제72호(1950. 9. 18)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로 명명되었다. 이후에 유격대는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뒤를 따라 북한군 패잔병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일주일가량 김해에 주둔하면서 부대정비를 하고 있던 유격대대에 이번에는 북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에 따라 유격대대는 9월 27일 21시에 구포역을 출발, 대구역을 경유하여 자정쯤에 영천에 도착하였다. 영천에서 또 다시 일주일가량 숙영한 후 이번에는 행군으로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매우 무리한 명령이라고 부대장 자신도 판단하였지만

전황이 급하다는 말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유격대대는 우여곡절 끝에 10월 3일에 안동에 도착하였다. 숙영할 적당한 곳을 물색한 끝에 마침내 안동 동부교회에 주둔하기로 결정하였다. 무리한 강행군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밭에 물집이 생긴 대원들이 속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쌀쌀한 가을 날씨에 땀을 흘린 관계로 몸살에 걸린 대원들이 많았다. 환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들이 복용할 만한 약품이 제대로 있을 리 만무하였다. 안동에서 4~5일 동안 지낸 후에 유격대는 영주, 풍기를 거쳐 10월 10일 양평에 도착하였다. 양평에 도착한 후 유격대는 계속된 이동을 잠시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잔비소탕전에 임하였다. 양평읍에서 동북쪽으로 40여리 떨어진 곳에 용문면 용문리가 있었다. 이 지역에 있는 용문산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이 만행을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유격대가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들 북한군 패잔병과 지방의 좌익들이 합세하여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양민들을 강탈하고 심한 경우에는 살상조차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이들은 용문산 깊숙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10월 12일경 유격대는 완전무장하고 용문산을 산 아래에서부터 포위한 채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적은 유격대가 올라오면 은신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일제히 사격을 가하곤 하였다. 이때마다 유격대원들은 즉각적으로 산개하여 적의 은신처에 은밀히 접근, 일제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적이 점차로 좁혀지는 유격대의 협공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악착같이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하루의 토벌작전으로 잔비 사살 4명, 생포 2명, 기관총 2정과 수류탄 3개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¹⁵⁸⁾ 다행스

158) 「최영욱 증언」, 「버림받은 충혼」, pp. 40~41.

렵게도 유격대의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¹⁵⁹⁾

용문산과 그 일대에서 준동하던 북한군과 좌익분자들을 소탕하면서 약 20일간 양평에 주둔하였던 유격대는 행군으로 양평을 출발하여 11월 1일 홍천에 도착하였다. 양평에서 홍천까지의 행군로는 문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다. 산에 은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군들이 당장이라도 기습을 해올 것만 같았다. 대원들이 신고 있던 작업화는 거의 다 헤어져서 행군에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발가락 아래에 물집이 이중으로 생겨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었고, 신을 한 번 벗으면 다시 신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것이라도 신고 있어야만 하였다. 홍천에 도착 후 희망리 농업중학교(현 홍천중학교)에 주둔하며 또 다시 이 지역에 출몰하는 북한군 잔당들의 소탕작전에 임하였다. 횡성 방향으로 16km 거리에 있는 오음산(390고지)에서 북한군들이 준동하면서 근처의 양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를 소탕하기 위해 이원직 중대장의 인솔 하에 제3중대 전원이 출동하였다.

주둔지에서 도보로 오음산 하단에 도착한 중대는 4개 소대로 나뉘어 작전을 개시하였다. 공격개시 신호와 함께 일제히 적의 은신처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 끝에 고지 정상에서 맹렬하게 저항하던 적의 토치카를 완파하였다. 거점이 없어지자 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깊은 산속으로 도주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아군도 인명 피해를 입었다.¹⁶⁰⁾ 이후 유격대대는 약 20여 일 동안을 홍천에 주둔하면서, 패잔병 소탕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전투 중에 부상당한 대원은 후방으로 후송조치하고 전사자는 근처에 가매장하였다.

1950년 11월 15일에 유격대대는 홍천에서의 패잔병 소탕전을 끝내고 춘

159) 「박치복 증언」, 「버림받은 충혼」, p. 41.

160) 「최영욱 증언」, 「버림받은 충혼」, p. 42.

천 북방 화천댐 위쪽의 지촌리로 이동하였다. 당시에 약 8천명의 적군이 화천발전소 부근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부대는 상부로부터 이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¹⁶¹⁾ 춘천, 화천을 경유하여 38선을 넘었다. 11월의 날씨는 무척 추웠지만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유격대원들은 더더욱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명색이 유격부대이니 큰 도로를 통하여 행군할 수도 없었다.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산중턱으로 새롭게 개척하며 걸어가야 했다.

유격대는 11월 15일 새벽까지 고지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며 대기하였다. 날이 밝아오면서 하산한 이들은 강을 건너 앞에 보이는 적의 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을 하며 산위로 진격하는 중에 고지 중턱에서 북한군이 백기를 흔들면서 아군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를 북한군들이 투항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대장이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곧 중대한 판단착오임이 드러났다. 유격대가 공격을 멈춘 후 곧바로 적군이 물밀듯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피아간에 치열한 근접전이 전개되었으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격대는 하산하여 도강한 후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중대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반면 유격대대가 얻은 전과는 적 포로 8명, 기관총 1정, 아카보 소총 20정, 기관단총 6정, 탄약 수천 발 노획 등이었다.¹⁶²⁾

한편 강변에서의 격전에도 불구하고 유격대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작전상 춘천으로 후퇴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춘천에서 3일간 주둔한 후에 다시 서울방면으로 후퇴하였다. 도중에 11월 17일 제2사단의 가평 공략작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작전중에 유격대는 지휘부에 매우 중요한 손실을 입었는데 그

161) 「백운학 증언」, 「민족의 증언」, p. 327.

162) 「최영욱 증언」, 「버림받은 충혼」, p. 49.

동안 유격대를 이끌어온 부대장 이명흠 소령이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고, 부관이었던 백운학 대위마저 총상을 입고 천신만고 끝에 후방 병원으로 이송되었다.¹⁶³⁾

이후 11월 말에 명부대는 해체되었다.¹⁶⁴⁾ 유격대대의 해체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로 철수한 유격대대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육군본부에서 해산시켰으며, 해산된 부대원들 중에 몇몇은 장교 모집에 응시하여 장교로 임관되었지만, 대부분 기간부대인 제2사단 32연대에 현역으로 배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명부대장 이명흠 소령은 병상에서 일어나 육군본부에 가서 항의를 하였지만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었다.

(2) 육군본부 직할 정훈 제1, 2대대(국방부 독립 정훈대대)와 선무반

1) 형성 배경 및 과정

최전선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기간을 통하여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것은 정훈활동이었다. 비록 창군과 더불어 정훈업무가 시작되어 정훈병 및 장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수는 미미하였다. 전쟁기간 중에 특히 활발하게 실시된 심리전 활동을 위해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적의 귀순종용, 대북한 주민 선무뿐만 아니라 아군 장병과 국민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활동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의 분투상, 통일의 기회로 총진격하자는 각종 호소문, 표어, 포스터 등을 제작, 살포하였다. 특히 1950년 말에 국방부는 새롭게 독립정훈대대를 창설하여 활동을 배가하였다. 비록 대대는 정규 정훈장교들이 운용하였지만, 중심을 이룬 병력은 학도의용군이었

163) 이종훈, 「명부대의 ‘천의 명예’를 위하여」, 신동아 (1970. 6), pp. 290~291.

164) 「명부대의 ‘천의 명예’를 위하여」, p. 291.

다. 흔히 제772부대, 제773부대로 알려진 정훈대대는 1951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지 이틀 후인 6월 27일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을 위시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을 방문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도 국가를 위해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훈계하면서 학생들의 요청을 거부하던 정훈국장도 이들의 결사보국정신에 감동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¹⁶⁵⁾ 이것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도의용군 결성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시각을 다룰 정도로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행한 초기의 활동은 후방선무공작, 피난민 보호와 안내 등 정훈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비록 국군이 후퇴하던 와중에서도 학도들은 간헐적으로 실제 전투참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숫자였다. 이처럼 정훈업무에 치우친 학도들의 활동경향은 전선이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후퇴 시 대전에서 조직된 의용학도대의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신규 학도병모집과 후방지역에 대한 선무공작활동이 여전히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군과 함께 대전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려던 아군의 계획은 전력의 현격한 열세로 인하여 실패하고 국군의 지휘부와 주력은 할 수 없이 대구로 이동하였다. 학도의용군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체적인 전선의 변화와 움직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원에서 국방부 정훈국의 도움을 얻어 조직되었던 비상학도대와 그 이후에 대

165)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출판국, 1986), p. 522.

전에서 조직된 의용학도대는 대구에서 대한학도의용대로 통합되었다.

전선이 고착상태에 처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된 학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에서 이들은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애국심에 호소도 하고, 피난을 위해 온 학생들을 흡수하여 적극적으로 자원자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되면 인근 부대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게 단기훈련을 시키고 곧바로 각 지방의 선무공작원 또는 일선 전투요원으로 보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통제는 주로 국방부 정훈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인 문교부가 전사인 관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정훈국은 이들 학도의용군에게 물심양면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대한학도의용대가 선발한 학생들은 전후방 각지로 배치되어 용감하게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나 전선으로 직접 투입된 학도의 숫자는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학도는 후방지역에서 선무공작활동에 임하였다.

2) 대한학도의용대의 선무반 활동

정훈공작과 관련하여 학도의용군이 자체적으로 활동한 사항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엔군의 이북 진격과 더불어 시작된 이북 선무공작이었다. 즉, 대한학도의용대가 중심이 되어 국군의 북진과 병행하여 이북의 각 도(道)에 선무반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서울수복 후에 본부를 서울로 옮긴 대한학도의용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과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될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당시는 아군이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북지역으로 진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도들의 마음은 흥분과 기쁨으로 들떠있었다.

국방부 정훈국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우선 100여 명

의 대원을 선발하여 서울의 청계국민학교에서 이북과건과 관련된 교육을 1주일 동안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그리고 국군의 이념 등 정훈활동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바로 북한에 파견된 학도의용대 1기생이었다. 도(道)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명 내외의 학생대원들이 각 도에 분산, 배치되어 주로 선무공작과 현지 학생들에 대한 선도 임무를 담당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이 관할하는 대한학도의용대 소속의 북한과건 선무대원들은 대체로 1950년 10월 중순부터 부푼 희망과 설렘을 안고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방 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향에 가지 못하다가 자기 고향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대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들 선무반이 어떻게 활동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다. 서울에서 1주일가량 훈련을 마친 28명의 황해도 선무반은 1950년 10월 28일 정훈국에서 간단한 선서식을 가진 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임지인 해주로 향하였다. 장비가 부족하던 터라 이들은 가는 도중에 운이 좋으면 가끔씩 차를 얻어 타기도 하였지만, 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곤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임지에 도착했을 때, 해주의 주민들은 이들 학도의용군 선무공작대를 열성으로 환영해 주었다. 뜨거운 환영에 대원들의 가슴은 뭉클해졌으며 새로운 힘과 각오가 솟구쳤다. 해주에 도착한 선무공작대원들은 재빨리 짐을 정리한 후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한시라도 빨리 북한 동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대원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일차적으로 그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들을 해주공전(海州工專)에 집합시킨 후에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등을 가르쳤다. 특히 선무반에 속해 있던 3명의 여자대원들은 낭랑한 목소리로 이들에게 애국가와 몇 곡의 군가를 가르쳤다. 일제하에서 해방된 이후에 만세 한 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그동안 공산당의 학정에 시달려온 해주 시민들은 선무반의 활동

에 커다란 호응을 보여주었다. 대원들의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진정한 원리를 깨달은 주민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와 이를 내세우는 김일성 무리의 허구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열심히 활동하던 선무대원들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그동안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대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우선 3명의 여자대원들을 먼저 남쪽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남자대원들은 가능하면 끝까지 현지에 남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진격속도가 예상외로 빨라 해주에 남아있던 대원들 중에 상당수가 얼마 후에 중공군에게 포위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이들은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해주에서 행한 이들의 열성적인 선무공작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전세 변화로 인하여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였다.

한편 평양에 도착한 선무반 대원들은 현지에 진주한 국군과 유엔군의 협조를 얻어 평양시내에 있는 각 학교마다 소위 북한학도단을 조직하였다. 이때 그동안 공산치하에서 기회를 보며 은거하고 있던 북한 내의 우익학생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대원들의 복장은 서울에서 훈련받을 때에 군부대를 통해 지급되었던 군복에 그대로 교모를 쓴 것이었다. 비록 정상적인 복장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평양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선무반의 활동은 엄격하게 평양 시내에 대한 정훈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평양시 인근에 위치한 각 군(郡)에도 대원들이 교대로 파견되어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막 피어나려는 시기에 전세가 악화되어 이들 선무대는 12월 2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평양을 뒤로 하고 후퇴하였다. 이때 평양에서 선무반을 도와 함께 활동하던 북한학도단

요원 중 많은 수가 또다시 그대로 적 치하에 남게 되었다. 일부는 선무반을 따라 남하하였지만, 대부분은 후일을 기약하며 지하에서 공산당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고자 후퇴하는 선무반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공산치하에서 이들이 당했을 시련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함경도에서 활동했던 선무반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 선무반과는 달리 담당 지역이 먼 곳에 있었던 관계로 이들은 함흥에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대에 재학중이던 양병후의 인솔 하에 50여 명의 함경도 담당 선무대원들은 10월 중순에 도보로 서울을 출발하여 임지인 함경도로 향하였다.¹⁶⁶⁾ 그러나 일행이 의정부를 지나 동두천에 이르렀을 때 잔비(殘匪)를 만나게 되었다. 일행 중에는 도보이동을 예정대로 강행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직도 활동지역에 도착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보이동을 포기하였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던 중 동해안 쪽으로 가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선무반은 해군부대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로 해군 LST를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항진하여 10월 25일에 원산에 상륙하였다. 원산에 도착한 후 대원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임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보로 당초 목적지였던 함흥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들은 함흥시에 본부를 설치하고 선무활동을 개시하였다. 1차적으로 결정된 선무공작의 주 대상은 이북학생들이었으며, 의외로 이들의 반응이 좋아 짧은 시간 안에 3천여 명의 이북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선무대원들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고 간혹 군사훈련도 시켰다. 가까운 흥남과 원산에도 10여 명의 대원을 파견하여 선무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11월말에 실시된 중공군의 공세로 인하여 후퇴할

166) 「양병후 증언」, 『민족의 증언』, pp. 352-353.

수밖에 없었다.

3) 독립 정훈대대의 활동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과 함께 이북에 학도의용군으로 구성된 선무반을 파견한 국방부 정훈국은 1차에 이어 2차로 북한에 파견할 대원을 모집하였다. 왜냐하면, 1차로 파견된 도(道) 본부 이외에도 이북 각 군(郡)에 2명꼴로 선무대원을 파견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즉, 북한 지역의 완전 수복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주축으로 정훈부대를 편성, 북한 주민에 대한 선무와 현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맡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갔던 학도의용군 선무대원들은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의외의 변수로 인하여 실망을 안고 후퇴하였다. 따라서 1차에 이어 2차로 북한파견 선무대원으로 이미 모집되었던 학도들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 즉, 1·4후퇴로 말미암아 북한에 가서 활약하려던 이들의 꿈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변화에 직면한 정훈국은 모집한 대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훈대대를 조직하여 남한에서 정훈 및 선무활동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이 바로 제772와 제773정훈대대였다.¹⁶⁷⁾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아군은 총반격을 실시하여 10월 1일 마침내 38선을 돌파하였다. 진격의 기운은 그 힘을 더하여 11월 중순경에 동에서는 해산진, 중앙에서는 초산, 서쪽에서는 신의주를 눈앞에 두었다. 이제 대망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였다. 이렇게 아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해 올라감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그동안 공산정권 하에서 기만당해 온 북한주민들에 대한 선무공작의 필요성이었다. 김일성 일파에 의해 철저하게 교육되어 온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167) 『민족의 증언』, p. 355.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국군이 북한 땅에 진격할 이유와 의의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심과 공포를 해소해 주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조직적인 활동과 이를 수행할 대규모의 인원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를 관찰한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급히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사태의 긴급성을 군 고위층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끈질긴 설득 작업을 통하여 마침내 1950년 11월 24일 국본(國本) 일반명령(육) 제109호에 의거하여 육본직할 정훈부대의 창설을 허락받았다. 이에 따라 탄생한 것이 정훈 제1대대(제772부대)와 제2대대(제773부대)였다. 즉, 청년단체와 학생층에서 우수한 인물 500여 명을 선발하여 약 1개월간 훈련을 실시한 후, 이북 6도에 1개 중대씩 파견할 예정하에 6개 중대를 편성하고 이를 2개 대대로 나누었던 것이다.

독립적인 정훈대대의 창설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쟁 전부터 각 부대에 기존해 있던 정훈업무와 정훈대대의 업무가 혼선을 자아낼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0년 11월 25일 고급부관이었던 육군대령 오덕준 명의로 정훈업무 한계에 관한 공문이 각 예하부대에 하달되었다.¹⁶⁸⁾ 이 공문에 의하면, 각 군단과 사단, 연대급에 있던 기존의 정훈기구(정훈기구)는 주로 군내 장병의 정훈공작에 치중할 것이며, 대외적인 정훈공작에 대해서는 새로 창설된 정훈대대에 일임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단, 정훈대대가 주둔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훈기구를 이용하여 대외공작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첨가하였다.

공문은 또한 정훈대대의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훈대대는 주로 대외공작에 치중할 것과 38선 이북 정훈공작 계획서를 지침삼아 제반 정훈공작을 담당 실시해야만 했는데, 이 계획서의 주 내용은

168) 『정훈50년사』, pp. 139-140.

다음과 같다. 북한 수복지구에 대하여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민족 정책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 둘째, 6·25전쟁의 진상과 공산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셋째, 민주주의적 이념과 생활방식을 체득시키며, 마지막으로 국군에 대한 신뢰감과 대군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임무를 갖고 조직된 대대는 1950년 12월 4일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5호에 의거하여 임지로 출동하였다. 이때 이명흠 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정훈 제1대대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3개도가, 김병률(金炳律) 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정훈 제2대대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의 3개도가 관할 지역으로 할당되었다. 제2대대는 육로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부 병력은 후퇴 전까지 이북 지역에서 잠시나마 활동한데 반하여, 제1대대는 부산에서 배편으로 원산으로 이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임무지로 출발도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제2대대(773부대) 5중대 소속으로 황해도 사리원까지 올라갔던 장봉석(張鳳錫)에 의하면, 중대마다 2~3명의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정훈공작대에 대한 호응은 대단하였다고 한다.¹⁶⁹⁾ 그리고 대원들 중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기대와 각오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대가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중공군이 6·25전쟁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 거침없는 북진으로 인하여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던 국군과 유엔군은 초기의 영웅적인 분전에도 불구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훈활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원래 대북 정훈공작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정훈대대는 북한에서 계획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13일 평양에 정훈분실을 설치하여 초기 공작을 실시하며 정훈본대의 도착준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정훈대대가 입북한 후 불과 3일후에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제773

169) 「정복석 증언」, 『민족의 증언』, p. 362.

정훈대대장 김병률 소령은 “북진 때 평양에 미리 정훈대대 사무실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전세의 급변으로 정훈대원들이 오기도 전에 후퇴를 했다”고 당시의 아쉬움을 술회하였다.¹⁷⁰⁾ 결국 차후에 북한이 다시 수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남한에 있어서의 대민 정훈업무가 하달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 12월 25일 육군본부는 작전지시 제 13호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정훈 제1대대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여 업무를 추진하였고, 제2대대는 안동에 본부를 두고 주로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병력으로는 강원도 지역의 대민 정훈공작을 실시하였다.¹⁷¹⁾ 이들 중 일부는 제3군단 관할의 각 사단으로 파견되어 병사들의 정훈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중공군의 침입으로 일단 후퇴하였던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서울을 비롯한 중요거점을 탈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훈 제1대대는 수복지구 대민 선무 계몽공작을 실시코자 육군본부 행정지시 제54호에 의거 예하의 제1중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정훈 제2대대는 대대본부를 영주로부터 영월로 이동하여 업무를 계속하다가 다시 강릉으로 본부를 이동하여 대민 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제2대대장 김병률 소령의 회고에 의하면, 영월에 전투사령부가 발족되어 정훈대원들은 1개 사단에 1개 소대씩 배치되었다. 영월 후방에서는 뉴스와 전황을 가두방송하면서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성과 군위 지역에 파견 나갔던 정훈 1개 중대는 공비들과의 교전에서 중대원 2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였다.¹⁷²⁾ 주로 후방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무장상태가 소홀하였기 때문에 일단 적의 기습을 받게 되면 정훈대원들의 피해는

170) 「김병률 증언」, 『민족의 증언』, p. 355.

171) 「이영치 증언」, 『민족의 증언』, pp. 356-357.

172) 「김병률 증언」, 『민족의 증언』, p. 356.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놓임에 따라 정훈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고지 하나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투에서 전의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칫하면 전선의 소강상태로 인하여 규율이 이완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각 부대장들은 특별히 정훈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대대는 더욱 바빠지게 되었다.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정훈대대는 대민계몽과 대군 정신교육 및 사기진작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양 정훈대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정훈 제2대대의 경우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대원들을 한번 둘러보는데도 1주일 이상이나 걸렸다. 이외에 무엇보다도 대원들은 모두 군속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소홀하였다. 대대가 사용하고 있던 활동장비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과 개선을 육군본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 대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훈대대의 통합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최초로 창립된 정훈 제1, 제2대대를 1951년 5월 15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55호에 의거하여 강원도 삼척에서 통합하였다.¹⁷³⁾ 제772부대를 해체하여 절반은 귀향 조치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제773부대로 흡수하였다. 통합된 제773부대의 대대장으로 김병률 소령이 취임하였다. 단일부대로 발족된 것을 계기로 대원들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5월 28일부 육본 행정지시 제101호에 의거하여 강원도 삼척에서 약 1개월간 이론과 정훈 실무공작에 관한 교육

173) 『정훈50년사』, p. 141.

을 실시하였다.

재교육 후에 대대는 대대본부를 강원도 강릉에 두고 대대 전방 참호 속에 있는 최전방의 전투부대까지 투입되어 활발하게 정훈활동을 전개하였다. 최전방의 개인 참호 속에까지 투입되어 사병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등 병사들과의 밀착 접촉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부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대 내에 잠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물론 병사들의 사기도 매우 고양되었음은 당연하다. 이외에도 대적방송과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심문활동도 실시하였다. 이처럼 대원들이 열성으로 활동하고 있던 1951년 9월 5일에 대대장이 김병률 소령에서 이영치(李榮治) 소령으로 교체되었다.

4) 후방지역 선무활동

아군의 용전분투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계속하여 교착상태를 이루었다. 피아간에 수많은 희생자를 수반하는 소모전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이럴수록 아군의 사기를 고양하고 적의 전의를 꺾기 위한 정훈공작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지휘관이 교체된 정훈대대는 새로운 각오로 정훈업무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였다. 이즈음 국군의 수뇌부에서는 전쟁 국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작전을 새롭게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서의 전선상태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후방지역의 평정 및 안정에 관심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1951년 연말에 이르러 후방지역이었던 서남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북한군 잔당과 공비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의 개시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군의 주력이 전방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에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후방에서는 공비들이 준동하고 있었다.

지리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들의 세력이 커지자 이를 소탕하기 위하여 토벌대가 조직되었다. 토벌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

부터 정훈 임무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소탕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하지만 작전의 성격상 정규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빨치산을 소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무하고 회유할, 그리고 해당 지구의 주민들을 선도할 정훈공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한마디로 작전의 본질과 작전지역의 위치 등으로 보아 정훈공작이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예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서남지구 공비 토벌작전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1951년 12월 2일 육본 행정지시 제204호로 대대에 하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부의 명령에 입각하여 대대는 본부를 신속하게 강원도 강릉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였다. 강원도에서 주 작전지역인 지리산 근처로 옮겨온 대대는 이후 토벌작전을 주도한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지원부대로써 활약하였다. 대대의 주 임무는 토벌작전이 전개되는 지역에 대한 대민선무공작과 대적 귀순 권고활동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공비들을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시키는데 정훈대대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정훈대원이었던 윤하규는 정읍 파견대에 소속되어 과감하게 공비들이 준동하던 산 속으로 들어가 귀순방송을 하고 뼈라를 뿌려 한꺼번에 23명의 공비를 귀순시키는 개가를 올렸다.¹⁷⁴⁾

일반적으로 아군 토벌대가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정훈대원 2~3명이 짝을 지어 공비들에게 귀순권유방송을 하였다. 또한 다른 파견대에서는 공비가 활동하는 산간부락에 직접 들어가 생명안전증을 발급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공비들의 귀순공작을 전개하였다.¹⁷⁵⁾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훈대대의 학도들은 주저없이 임무에 임하였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활동은 공비들에 대한 심리전이었다. 유격부대간의 싸움에서는 적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174) 「윤하규 증언」, 『민족의 증언』, p. 358.

175) 「안명식 증언」, 『민족의 증언』, p. 361.

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⁷⁶⁾

이러한 대군, 대적 정훈공작활동 외에도 작전지구 주민들의 문맹퇴치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글을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문구를 작성, 한글 카드화한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정훈대원들은 산간벽지의 주민들에게 우리글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난생 처음으로 글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 작전지역의 주민들은 정훈대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정훈대대는 임무수행상 타 병과 부대와 편제를 달리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중대를 선전소대, 교육소대, 지도소대 등으로 편성해야 했으나 융통성을 갖기 위하여 정상적인 편제를 택하지 않았다. 각 대대는 대대본부나 중대본부를 포함하여 현역 기간장교 1명 아래에 문관 신분의 학도의용군을 정훈관이라 하여 3~4명씩 소조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1개 대대에 3개 중대씩 전체적으로 6개 중대로 나누어 각 도 단위에 1개 중대씩(중대본부는 도청 소재지에 둠) 배치하였다. 부대원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규 장교들도 있었지만 정훈공작의 직접적인 추진세력은 바로 이들 학도의용군이었다. 특히 여자학도의용군도 다시 포함되어 용감히 활동하였다. 1950년 11월 24일 발족된 이래로 대대는 대소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훈대대의 활약상은 1952년 9월 25일 대전에서 대대가 해산될 때까지 크게 5기(期)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⁷⁷⁾ 부대가 통합, 재편된 이후의 활동 역시 통합전과 대등소이하였다. 좀더 본격적인 활동은 백야전전투사령부 관할 하에 서남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할 시기에 이루어졌다. 1951년 12월 2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실시된 정훈공작만을 살펴보더라도 정훈대대의 활동이 매우 고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비토벌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사항을

176) 「정훈50년사」, p. 145.

177) 『정훈50년사』, pp. 143~145.

살펴보면 이들의 기여를 가늠할 수 있다.

〈표 3〉 정훈대대 활동상황

부대	활동내용	주요실적	비고
제1대대 (제772 부대)	시각공작	포스터 3종, 표어 73,500매, 벽보 46,800매 제작	
	시사 보도	매일 3회(마이크 설치 30개소)	
	대외 개최	2,474회 479,000명 참가	연 685시간
	대민 계몽운동	501,000명 참가	연 6,042시간
	문맹 퇴치	총 퇴치자 12,734명	연 4,070시간
	각종 조직	연 78회 1,272,400aud ckark	연 235시간
	대적 방송	연 5회	연 9.5시간
제2대대 (제773 부대)	시사 보도	매일 3회(대대본부, 각 중대, 소대, 분대주둔지에 마이크 설치)	
	벽보 발간	연 50회, 연 18,000부	
	진중신문 발간	35,000매	
	시각 공작	포스터 1,830매, 표어 7,750매 제작	
	대회 개최	연 6회, 34,700명 참가	연 15.5시간
	문맹 퇴치	통계치 불명 (주둔지구별 행정구역 따라 실시)	
	군가 보급	군가발표대회 개최, 연 2회 3,000명 참가	연 5시간
	군내 사병 교육	정신훈화, 군가지도 등	
대적 전투참가	수회	제5중대 주관	

〈표 4〉 정훈대대의 공비토벌작전 활동상황

구 분	횟수	시간(연)	인원(연)	비 고
귀향촉진 대적방송	211	368	100	잔비활동 지역 및 고지에서 실시
임산자 가족 및 연고지에 대한 정훈교육	191	358	2,950	

약 2개월간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한 정훈대대는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왜냐하면 백야전부대의 토벌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부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대전으로 옮긴 정훈대대는 자체적으로 대대를 부분적으로 재편성하고 3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은 대대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룬 학도의용군들에게는 매우 기억에 남는 시기였다. 한창 젊은 나이였던 이들은 전란으로 폐허가 된 대전시가를 돌아보고 김일성의 무모한 도발이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강도있게 실시된 재교육을 통하여 좀 더 치밀한 정훈공작과 선무활동방법을 습득한 대대는 서남전투사령부가 녹음기 공비토벌작전을 재개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또 다시 남원으로 이동하였다. 이 시기의 정훈공작은 연초에 백야전전투사령부에서 실시하였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것이 거점작전이었다고 한다면, 후자에서 실시한 방법은 이동식 정훈작전이었다. 즉, 녹음기인 관계로 백야전부대가 적을 찾아 다녀야하는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훈대대도 작전부대와 호응하여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등 작전지역 곳곳을 빠짐없이 정훈계몽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였다. 녹음기 토벌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정훈대대의 존폐 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대는 1952년 9월 25일부로 해산하였다.¹⁷⁸⁾

대부분이 학생이었던 부대원들은 군번과 계급없이 2년 동안 복무하다가 해산 복교하였다. 대대가 해체된 후 대다수의 대원들은 병역필로 처리가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현역 군인과 다름없는 군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교한 후 당국에서 병적처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대원들이 병역기피자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고통을 당한 경

178) 『정훈 50년사』, p. 149.

우가 있었다. 이들의 병역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다가 1958년에 함께 참전하였던 대원들의 증언과 협조를 통해 비로소 정리될 수 있었다.¹⁷⁹⁾

위와 같은 활동의 결과 정훈대대는 많은 실제 성과를 거두었다. 정훈병과라 하여 2선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일선 장병들과 기거를 함께하며 정훈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가끔씩 직접 총검을 들고 적과 싸우는 일체감을 병사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부대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각 군부대장은 정훈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치하하는 많은 감사장을 정훈대대 본부에 보냈다.

대대가 단일화된 이후에도 선무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군공작과 더불어 후방지역의 대민 선무공작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즉, 작전지구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전황을 알려주고 시국관과 반공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공헌에 대해 정훈대대에는 각 지방 기관장과 유지들의 감사장이 쇄도하였다. 특히,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 작전을 지원한 정훈대대의 업적에 대하여 1952년 1월 31일부로 사회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감사장을 보내왔다.¹⁸⁰⁾ 대적방송과 이동교육대의 활동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11사단장의 서한이 도달하기로 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 시 정훈대대가 기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벌작전기간 중에 귀순자가 1,239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정훈대대의 대적선무공작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이 정훈대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생명보장증'이나 '귀향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훈대대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많은 수의 적의 세포조직을 분쇄하는 데 기여하였다. 작전이

179) 『민족의 증언』, p. 359.

180) 『정훈 50년사』, p. 150.

개시된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1월 25일까지 달성한 성과는 적 아지트 발견 117건, 루트 발견 160건, 지방세포 적발 1,033명, 정보획득 30건에 달하였다. 셋째,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628개소에 이를 설치하고 4,124명에 달하는 요원을 확보하여 대민 계몽활동에 활용하였다. 넷째, 기타 일반선전, 계몽, 교육 등의 다양한 공작을 통하여 작전지구 주민의 반공사상을 공고히 하였다. 이로써 이들과 공비 간에 이간을 유도하고 공비들의 활동무대를 축소시킴으로써 토벌작전을 수월하게 하였다. 아울러 아군 측에도 민폐근절 8대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훈대대 자체로도 이 시기를 통하여 수많은 정훈공작을 실습하였으며, 이로 인해 값진 경험적 요소들이 누적되어 차후의 정훈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특수작전(유격전)을 수행한 학도의용군

6·25전쟁에 참가했던 학도의용군 중에는 최전방 전선에서 적과 맞서 싸웠던 참전자들 외에 적 후방에서 유격대 임무를 수행했던 자들은 물론이고 아군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담당 및 공비소탕에 참여한 자들도 많았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도서 일대에서 유격작전을 수행하던 부대에 참가한 용진학도유격대는 1951년 봄에 창설되어 1954년 초 해산될 때까지 전사자 272명, 실종자 100여 명, 중상자 130여 명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끝까지 항쟁하였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들도 해내기 어려운 유격작전을 어린 나이의 학생의 신분으로 생명을 바쳐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계급도 군번도 그리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전쟁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태극단 학도의용군처럼 북한군 치하에서 각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형성

되어 활동하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합된 학도의용군들도 있었다. 6·25전쟁 기간 동안 활동했던 다른 의용군들과는 달리 태극단은 아군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훈련된 간부들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얼마간의 활동도 적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큰 피해까지 당하는 상황이었다.

(1) 용진학도유격대

1) 초기 활동(1950. 6 ~ 1951. 1)

6·25전쟁의 발발과 북한의 남침, 유엔군과 국군의 압록강을 향한 북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1·4후퇴로 이어지는 민족상잔의 와중에서 황해도 일대 주민들의 상당수는 서해 도서로 피난해 있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용진반도 일대의 주민들이 연안의 도서로 피난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서해의 여러 섬에서 전선의 동향만을 주시하며 피난생활을 하던 용진지역 출신 학생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전황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위협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느낀 이들은 마침내 자발적으로 몽처 전투에 나섰다.

6·25전쟁 중 용진출신 학생들은 창린도에 본부를 둔 ‘용진학도의용대’를 결성하고 전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휴전이 될 때까지 3년간 이들 학도유격대는 피난민 구출, 대민 선무활동, 다양한 형태의 기습작전을 통해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또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여 국군과 유엔군에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활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유격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용진반도는 38도선의 가장 좌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38° 분계선과 해주

만에 의하여 내륙과 육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방위하고 있던 아군 부대는 일단 유사시 이 반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상으로 철수해야 하는 전술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웅진반도의 방어는 제18연대의 뒤를 이어 1950년 3월 1일부로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던 국군 독립 제17연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백인엽 대령은 3월 1일 이후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야전축성을 끝마쳤고, 기관장들의 협조를 얻어 여러 단체들을 ‘향토방위대’라고 하는 단일체제로 통합하고 군에서 간부요원부터 2주간의 단기교육도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웅진지구 각 중학교 학도호국단 간부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은 후일 이들의 유격부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25전쟁 개전 당일 적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자, 제17연대는 38선의 다른 국군부대들과는 달리 전투태세를 비교적 양호하게 갖추고 있었다. 비록 적의 공격에 의해 연대가 양분되는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으나, 피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도 있었으며 적의 돌파를 저지하는 역습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 전선에 걸친 상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제17연대는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웅진반도의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제17연대는 해상철수를 감행해야 했고, 6월 26일 11시부로 연대장 백인엽 대령과 포병대대장 박정호 중령의 철수를 끝으로 전 부대는 모두 철수하였다.

북한군의 치하에 들어간 웅진지역의 학생들은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군부대의 지원요청에 따라 각종 작업에 동원되는 등 일찍부터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북한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대부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동향을 살피거나 혹은 집을 떠나서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뜻이 통하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선무공작활동을 의논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지하조직이 확산되면서 웅진중학교 학도호

국단에서는 전선상황과 유엔군의 근황에 관한 뉴스를 등사기로 복사한 후 밤을 이용하여 거리에 벽보로 붙이기도 하였다. 옹호도지역 학생들은 해군 함정과 연락을 유지하고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한편 옹진전투에서 낙오한 정보원들을 구출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지하 학생조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 초순경이었다. 당시 옹진중학교 가사교사로 전쟁이 발발하자, 시택이 있는 옹호도로 피난 와있던 윤수선(尹守善)이라는 여교사가 자신의 조카(박상희)가 옹호도 학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옹진중학교 제자들과 연결을 주선하였다. 9월 중순 윤 교사는 옹진중학교 방응삼, 전윤근과 수산중학교 오덕수, 김학선 등과 은밀하게 만나서 자신들의 조직을 일지회(一枝會)라 하고 상호 첩보교환과 선무공작활동을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조직된 학생조직이 활동을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될 위기에 처하였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보도를 등사 배포한 사실을 어느 조직원의 누이동생이 정치보위부에 밀고하였던 것이다. 9월 20일 첫 번째로 방응삼이 체포되었다. 수일간의 고문 끝에 옹진중학교 회원의 명단이 밝혀진데 이어 수산중학교 회원의 명단도 일부 밝혀졌다. 이후 황인석, 정정섭 등이 체포되어 냉정리 비행장의 학살장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¹⁸¹⁾ 학생 지하공작원들의 체포령으로 더 이상 마을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옹진읍의 회원들은 천장산, 수대산 등에 은거지를 만들고 지하로 잠적했으며, 도서지구의 회원들은 다른 섬이나 육지의 친지

181) 당시 상황을 경험한 오지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산속이나 집의 다락방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학생공작대원 중 3명(방응삼, 황인석, 정정섭)이 지하활동 중 불행하게도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학생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동지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냉정리 비행장 대학살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멀리에서도 송장 썩는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코를 막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하니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참혹한 상황이어서 학생공작대원 동지의 시체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학도 유격부대 전사』, p. 116에서 재인용.

집에 은거하였다.

일지회의 검거선봉과 함께 지하로 잠입한 학생들은 10월 1일을 기해서 국군 제3사단이 38°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뒤이어 10월 7일 원산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서부전선에서는 유엔군과 국군 제1사단이 평양을 향해서 북진중에 있으며 북한군들이 웅진반도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하에 숨어있던 학생들은 물론 많은 군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 10월 9일 새벽 산속이나 마을의 은거지에서 나오기 시작한 학생들은 곳곳에서 공공건물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북한군은 비단 웅진읍 뿐 아니라 지방의 면사무소 분주소 등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공공건물에 방화를 하고 도주하였다.

북한군이 철수하자 일지회 대원들은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 학생들을 규합하여 웅진읍의 치안유지에 나섰다. 김운경 학생의 사가를 웅진학도호국단 본부로 정한 이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지방당원들과 그들로부터 잔악하고 고통스러운 학대를 받은 주민들 간의 원한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은밀하게 지하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누가 공산당원이고 그들의 앞잡이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한 주민들로부터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앞장섰다. 학생공작원들은 학도호국단 치안대의 감찰부요원이 되어 지방 공산당원과 부역자들을 심사하였으며, 10월 13일 경찰이 들어오자 그동안 체포한 공산당원과 지방 공산당원을 인계하고 경찰이 그 후에 체포한 부역자들의 신분을 판별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철수와 함께 평온이 찾아온 것도 잠시였다. 북진 2개월 만에 전세가 역전되어 1·4후퇴가 시작된 것이었다. 전세는 계속 불리하게 진행되어 유엔군은 서울 이남지역까지 철수하였다. 1월 중순부터 적의 후속부대와 공산당원들이 웅진으로 몰려들어 웅진군민들과 학생들은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웅진읍에서 활동하던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 학생 일부가

소강으로 자리를 옮겨 섬으로 피난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강에서는 서면지역 학생들과 외지로 유학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서부학도대(대장 목영설 배재 6년)를 결성하여 자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용진읍에서 피난나온 학생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면서 합심하여 소강에서 치안 및 선무활동을 하고 있었다. 1월 하순 학생들은 북한군의 세력 확대에 의해 소강에서 해상으로 8km 남쪽에 위치한 창린도로 피난하였다. 이들은 피난생활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이나 공터에 모여 집총 및 제식훈련을 하는 한편 야간에는 청년방위군(국민방위군)부대를 도와 도서경계 및 순찰을 실시하였다.¹⁸²⁾

2) 동키부대 예하부대(1951. 1. ~ 1953. 4.)

1951년 1월 하순, 창린도에는 용진만도 서북부의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많은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문제였지만, 각 학교별로 편성된 학생조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용진학도호국단 및 서부학도대의 학생들이 모여서 용진학도의용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청방대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18~20세로 자신들의 힘만으로 기성세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700여 명에 달하는 학생 모두를 일사불란하게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도 원만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고향 선배 대학생인 이종학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고 같이 일할 것을 청하였다. 이들은 이종학의 동의하에 그날부터 각 섬에 흩어져 있는 학도

182) 당시 서해 각 도서에는 청년방위군(국민방위군)이 편성되어 일제 구식무기(99식, 38식 소총)로 장비하고 섬의 경계 및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호국단원들을 모두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창린도, 기린도, 어화도, 용호도, 순위도 등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규합하여 통합된 웅진학도의용대로 명명하고 1951년 2월 4일 창린도 국민학교 교정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1951년 3월 초순부터 웅진학도의용군은 본격적인 부대확장에 들어갔다. 3월 8일 부대장 이종학은 간부들과 함께 백령도 표(豹)작전기지사령부의 이희창 중령을 찾아가 자신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희창 중령은 학생들을 미군 버크 소령에게로 안내하였다. 버크 소령은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웅진학도의용대를 동키 제11유격부대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동키 제11유격부대의 인원을 최초 200명 규모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당시 각 도서에 흩어져있던 학생 수는 약 1,000명에 달하였다. 부대장 이종학은 각 도서를 순회하면서 학도의용군이 표작전기지사령부의 유격부대에 편입되어 앞으로 무기와 보급을 받으면서 싸울 수 있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모든 학생들을 학도의용대로 규합하였다.



각종 무기로 장비한 학도유격부대원

표작전기지사령부는 1951년 2월 미 제8군 작전국 존 맥기(John H. McGee) 대령이 중심이 되어 당시 향토지역 단위로 편성되어 있던 유격부대를 통합지휘하기 위해 설립된 유격사령부였다. 각 부대에 보급된 당나귀 모양의 무전기(AN/GRC-9)의 호출부호를 동키로 정하고 각 유격부대에 동키-1, 2, 3 등으로 부대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때부터 표작전기지사령부에 편입된 유격부대는 동키부대로 통칭되었다. 웅진학도의용대는 바로 여기에 소속되었다.

표작전기지사령부에 소속된 웅진학도유격대는 부대편성에 만전을 기하였다. 웅진반도에는 크고 작은 섬이 8개나 있기 때문에 각 도서 단위로 1개의 단위대를 편성키로 하고 인원수는 크게 제한하지 않았다. 부대가 확장되면서 연대규모로 편성하고 부대본부의 위치도 웅진반도의 중심지인 옹호도로 결정하였다. 옹호도수산중학교의 교사(校舍)를 부대본부로 하고, 6개의 단위부대를 편성한 후 다음과 같은 기구편성과 부대명칭으로 등록하였다.¹⁸³⁾ 기구의 개편과 함께 보급품에 애로를 겪고 있던 학도유격대는 3월 23일 다시 백령도를 방문하여 최초로 소련제 장총 14정, 실탄 약 2,000발, 수류탄(미제) 10상자, 안남미(45kg) 4포를 수령하였다. 비록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정식으로 소유했다는 자부심과 용기를 갖기에는 충분하였다.

(가) 피난민구출작전과 양곡수송작전

표작전기지사령부에 소속된 웅진학도유격부대는 1951년 4월부터 본격적인 유격작전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충분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작전과 식량조달을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그들의 사기는 충천해 있었다. 동키-11

183) 「학도유격부대전사」, p. 136.

부대로 개편된 웅진학도유격부대가 처음 전투에 참가한 것은 1951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개된 교정면 송림리의 피난민구출과 양곡수송작전이었다. 4월 18일 부대장 이종학은 기린도에 주둔하고 있는 맹호대와 창린도에 주둔하고 있는 백호대원 중 주로 교정면 출신 대원들을 선발 인솔하여 마합도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쌍호대에 있는 교정면 출신 대원들을 차출하여 총 68명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기상 및 기후, 조수 및 수로상태, 거리 및 소요시간, 구출예상 피난민수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린도 및 마합도에서 동력선 1척, 중선 3척, 주낙배 10척 등을 동원하였으며, 수송 총책임은 김영직 쌍호대 선박계장이 맡았다.

이 전투는 유격부대로 편입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출동이었으나 대원의 대부분이 지형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점이었다. 또한 대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도 있었다. 부대장 이종학 역시 교정면이 고향이어서 주민 상당수가 친척 또는 친지들이기 때문에 활동에 유리하였다. 부대가 상륙하자 교정면민과 이북에서 온 많은 피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은 우차와 등짐으로 양곡을 운반하여 왔고 월암리에 정박한 피난민과 양곡수송을 위해 계획해 놓은 제2제대 선박들을 이용해서 수송작전에 들어갔다. 김영직 선박계장은 선박수요가 부족하자 현지의 어선을 총동원해서 제2 및 제3제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마합도를 왕복하며 피난민과 식량을 수송하였다.

특공대는 이 작전을 통하여 24일까지 피난민 약 1,500명을 마합도 및 기린도로 무사히 구출하였으며 인민위원회에 징수되었던 미곡 약 3,000가마를 반출해서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피난민들에게 배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민위원장 등 열성 공산당원 10명을 사살하고 무사히 귀대하였다. 학도유격부대는 이 작전을 통하여 중대급 규모의 전투경험을 얻었으며 부대원의 사기도 많이 진작되었다.

(나) 배섬 습격작전

동키부대 예하에서 활동하던 학도의용군 부대는 이후 흥미면 기습작전, 유엔군 항공기 승무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활동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서해안 도서지역에는 국민방위군 예하의 병력들도 도서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웅진지구의 을지병단도 보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서방위와 적지 공작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의 독직사건으로 4월 30일 방위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그 여파로 당시 웅진지구 도서에 있던 을지 제2병단 제26연대는 부족한 보급마저도 중단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백령도 표작전기지사령부는 이들을 웅진학도유격부대와 통합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들 제26연대를 학도유격부대의 특별대대로 편입시켰다.

1951년 7월 5일 학도유격부대는 이들을 특별대대로 편입, 증편하면서 대규모 부대가 되었다. 청년방위대는 정부에서 지급한 약간의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도 증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구 일제무기인 99식 소총이나 28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상당 부분의 소련제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다. 확대편성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학도유격부대는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배섬은 웅진반도에서 내륙으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강령만 내에 깊숙이 위치한 섬이다. 섬 전체가 작은 동산으로 이루어졌고 섬 전체에 가옥 두 채밖에 없는 길이 약 500m, 폭 약 300m에 불과한 타원형의 작은 섬이다.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남서쪽의 동남면 송현리와 불과 400m의 거리이며, 간조 시는 도보로 육지왕래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들었고 적의 동정도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육군 제4863부대(HID), 해군 및 공군 정보대, 호림부대 등 2~3명 규모의 7~8개 부대의 첩보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학도유격대에 있어서도 배섬은 중요한 공작기지가 아닐 수 없었다. 부대본부에서

는 화랑공작대를 편성 파견하였다. 이들은 배섬에 상주하면서 주로 육지에서 입수한 정보사항을 백령도 표작전기지사령부로 매일 10여 건씩 보고하고 있었다.



배섬(舟島)에서 활약하던 화랑공작대원들(1951. 6)

1951년 5월부터 웅진읍을 비롯하여 강령, 그리고 그 주변에서 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적은 배섬이 자신들에게 암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였다. 1951년 7월 17일 적이 배섬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배섬 파견대는 상황이 위급함을 감지하고 당분간 배섬에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부대본부는 이들의 철수를 반대하였다. 배섬 파견대가 철수할 경우 그간 조직해 놓은 적지의 첩보망이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배섬에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거의 없었고 소화기가 고작이었다. 이들은 적의 공격을 앉아서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7월 23일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미 북한군은 공격을 위해 출발한 다음이었다. 즉시 귀대하여 휴식중인 7월 24일 10시경이었다.

적의 포사격이 섬 전체를 뒤덮었으나 즉각적인 병력투입은 없었다.

적은 12시경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화랑공작대원들이 적을 근거리까지 유인하여 사격을 개시하였으나 잠시 주춤하던 적은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대원들은 정신없이 사격을 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김현철 대장은 긴급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상관계로 항공지원이 불가하므로 잠시만 기다리라는 회신뿐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대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수많은 대원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사살되었다. 섬 전체가 아비규환이었고, 결국 배섬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화랑공작대는 전사 9명, 납치 4명 외 다수의 중, 경상자가 발생하였고 같이 주둔했던 다른 부대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

(다) 부대 재편성과 입석리 전투

1951년 7월 5일 국민방위군의 일부를 특별대대로 흡수 통합한 학도유격부대는 이들의 편입과 동시에 지금까지 담당했던 각 도서의 방어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1,700여 명 규모의 대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휘 통제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필요했고, 행정 및 군수지원문제도 대두되었다. 7월 말부터 8월 초순에 걸쳐 이종학 부대장은 주요 간부와 논의를 거쳐 우선 부대의 참모편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부대규모는 병력수와 향후의 증강 등을 고려하여 연대규모로 결정하고 동부대대(파도, 신도, 무도)와 서부대대(창린도, 기린도, 마합도)로 분할하여 운영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다. 대대급 이하의 편성은 현역과 동일한 3각 편제 개념에 따르도록 하였다.

동부대대는 대대부관에 임청을 임명하고 대대본부를 파도에 위치하였다. 예하부대로서 총 4개 중대를 두었으며, 제1중대장에 청룡대장 류명항을 임명하는 한편 중대본부를 위도에 두고 그곳의 국민방위군 부대를 편입시켜

통합하였다. 제2중대는 무파리에 위치하며 주로 용마대 출신대원으로 편성하였다. 제3중대는 중대본부에 대대본부와 같이 파도에 위치하고 국민방위군 부대를 편입하였다. 그리고 신도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방위군 부대를 제5중대로 편입하였다. 또한 연대본부 직속 공작대로 있던 무궁화공작대와 까치산공작대가 동부대대로 편입되었다. 이들 공작대는 10~20명 규모의 대원으로 편성되었고 초기 장비는 대부분 북한군 노획무기였으나 동부대대에 편입되면서 미제 M1소총과 칼빈 소총, 수류탄과 무전기(SCR-300) 등으로 새롭게 무장하였다.

서부대대의 편성은 동부대대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기존의 학도유격부대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목영설이 대대장으로 임명되고 부관 윤하필, 인사관 정운섭, 정보관 김현국, 작전관은 대대장이 겸임하고 보급관에는 장운범이 임명되었다. 예하 중대에는 창린도의 백호대를 모체로 제1중대장에 이종관, 제2중대는 기린도의 맹호대를 모체로 이종하가 중대장으로 임명되고, 마합도에 있던 학도유격부대 요원과 그곳 출신의 국민방위군을 제3중대로 편성하여 중대장에 윤동택을 임명하였다. 서부대대의 공작대는 제81공작대와 본영공작대, 갈항리공작대, 소강공작대로 편성되었다. 이들 공작대의 규모는 인원수가 적을 때에는 1개 분대규모로서 7~8명, 많을 때도 2~3개 분대를 초과하지 않았다.

부대개편과 주둔지 조정을 끝내고 치른 최초의 전투는 동남면 입석리 전투였다. 동부대대가 수행한 이 전투는 동남면 입석리에 주둔하고 있는 1개 소대규모의 적을 기습하고 보급품을 노획하기 위한 전투였다. 그러나 유격부대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전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공격 기도를 노출하는가 하면 목표지역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적의 역습을 받아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모처럼 실시된 대규모 공격의 실패는 많은 대원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여기에 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 것은 송산리의 아군 첩보원 구

출작전이었다. 위도에 주둔한 제1중대는 적지에서 활동중인 아군 첩보원이 신분이 노출되어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섬으로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첩보원 구출임무는 청룡대의 전신인 제1소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소대장은 모두 5명으로 구출요원을 편성하고 9월 9일 작전을 개시하였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군 첩보원을 접촉하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무사히 철수 선박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구출작전을 눈치 챈 주민들이 적지를 떠나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다. 당시 철수 선박의 정원은 15명에 불과했으나 무려 25명이 모여들었다. 제발 같이 가자고 애원하는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소대장은 위도까지의 거리가 5km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과 함께 썰물을 이용해 천천히 빠져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선상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적의 총소리가 들리더니 배에 집중사격이 가해졌다. 배에 타고 있던 피난민들이 놀라서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피난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으나 그 순간 과적된 배는 전복되고 말았다. 전복된 배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었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과 남자들만 전복된 배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배가 전복된 지 4시간여가 지난 새벽녘이 되어서야 구조되었다. 귀대하여 확인한 결과, 윤석중 대원이 실종되었고 민간인들도 어린이를 포함하여 10명이 익사하였다.

이후 10월에 들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작전을 전개하였다. 배넘우는 홍미반도에 이르는 병목과 같은 모양의 협소한 지형이다. 폭이 800m에 불과하여 홍미면에서 내륙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피아간에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1951년 10월 북한정부는 이 지방에서 징수한 곡물을 연일 배넘우를 통과하여 내륙으로 반출하고 있었다. 동부대대 제1중대는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들의 식량을 지키기 위한 제1단계 조치로 북

한군의 식량반출을 저지 방해하기로 하였다. 위도에 주둔하고 있는 홍미면 출신의 대원이 가장 많은 제1중대 1소대가 이 임무를 맡겠다고 자원해 나섰다.

소대장을 포함한 9명의 대원은 대인지뢰, M-7대전차지뢰, 수류탄과 소이탄 등을 소지하고 10월 4일 야음을 이용하여 무사히 침투하였다. 배넘우 목에는 남쪽해변 능선을 절토한 약 300m 길이의 도로가 있었는데, 매복에 매우 적절하였다. 먼저 M-7 대전차지뢰를 매설하고 주위에 대인지뢰를 설치하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새벽 5시경 멀리서 자동차 엔진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적의 트럭위에 10여 명의 북한군과 민간인들을 태운 2대의 트럭이 서서히 다가왔다. 잠시 후 폭음과 함께 선두 트럭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뒤따르던 트럭이 채 멈추기도 전에 유격대원의 맹렬한 사격과 수류탄 공격이 이어졌다. 유격대는 이 작전에서 약 20여 명의 북한군과 공산당원을 사살하고 소련제 무기 10여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고 아군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유격대는 이후에도 배넘우의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4~5차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의 매복작전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적은 불안을 느끼고 홍미반도 일대에 접근을 꺼려하였다.

(라) 창린도 전투 및 철수작전

하지만 웅진학도유격대는 이후 남섬 전투와 닥세미 피습작전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은 후, 재편성을 위하여 창린도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유격대는 창린도에 대한 적의 침공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를 접한 부대본부는 16일 대대장 및 참모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동부대대는 각 도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병력을 부대본부가 위치한 용호도로 철수시켜 방어진역을 축소하고, 서부대대는 현 위치에서 창린도를 방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대대 예하중

대는 12월 20일 각 섬으로부터 대대본부인 파도로 철수하였다. 집결 완료된 동부대대는 12월 25일 10시를 기해 철수를 시작하였다. 바다를 건너는 거리는 간조시라 150m에 불과하였다. 범선 2척이 동원되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였다. 날씨가 따뜻하여 철수에 큰 어려움 없이 14시까지 동부대대 본부를 제외한 전 부대원이 용호도로 철수완료하였다. 15시에 대대본부는 섬에 남아 있는 모든 주민들을 승선시키고 마지막으로 파도를 떠났다.

철수를 완료한 동부대대는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 6일 이상 비상경계근무가 계속되었다. 교대인원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경계근무로 대원들은 지쳐갔다. 1952년 1월 1일 03시경, 주변근무를 서고 있던 정보참모 권승훈은 전화가 불통인 것을 알고 통신대에 즉시 보선을 지시하였다. 보선을 나간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불통이었다. 수상히 여긴 권승훈은 부대본부 주위를 순찰하던 중 동쪽하늘에서 소총신호탄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1952년 새해 첫날에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적은 용호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학도유격부대와 신천부대가 방어하고 있는 경계선을 선정한 후 고무보트와 소형 범선을 이용하여 소수의 특공대를 침투시켰다. 적은 특공대가 아군의 초소를 무력화시키고 초소와 부대본부 간의 전화선을 절단해 놓은 후 대대(-) 규모의 주력부대를 기습 상륙시켰다. 이렇게 상륙한 적은 병력배치를 완료한 후 여명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기습에 당황한 주민들이 모두 밖으로 몰려나와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틈을 타 적은 계속 공세를 강화하였다. 필사적으로 대응하던 유격대원들은 실탄이 떨어지면서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순위도로 철수한 대대본부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참모장 이하 많은 대원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근접항공지원이 시작되었다. 미 해군 함재기 1개 편대가 우군 배치선 근거리까지 기총소사를 가하자 적은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함재기의 지원 하에 끝까지 분투하던 정보참모 작전관을 비롯한 윤동택, 이해수, 박상은 등 약 40명의 대원들과 D-1의 이창식,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한 70여

명은 16시에 무사히 용호도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 대원들은 순위도를 거쳐 어화도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학도유격대는 적 사살 32명(근접항공지원 포함)의 전과를 올렸으나 전사 10명과 다수의 부상자, 그리고 많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1952년 1월 1일 용호도에서 철수한 부대본부와 동부대대원들은 어화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전날 전투에서 부상당한 대원들은 간이치료소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치열했던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1월 2일 밤이 되자 포성이 들려왔다. 적의 76.2mm직사포탄이 어화도 동쪽해안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란사격인 듯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았으나 섬 내에서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어화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1월 3일 20시에 부대장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월 4일 서부대대의 기지인 창린도로 이동하여 서부대대와 합동으로 창린도를 기지방어하기로 결정하였다. 철수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월 4일 08시에 서부대대 본부에서 전체참모회의가 열렸다. 동부대대 및 예하 공작대를 포함한 D-11부대 최초의 전체 단위대장 및 참모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창린도 방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월 9일 04시경 창린도 동쪽 끝 굴내와 매실동 일대에 적 포탄이 수없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날은 음력 12월 13일로서 달이 밝았기 때문에 경계하는 대원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 달이 지자 적은 약 1개 대대(-)의 병력으로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고무보트와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갈항리 방향으로 침투하여 왔다. 서부대대는 매실동 방향으로 우회한 적의 함성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 포위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방어선은 걸잡을 수 없이 와해되었다. 한편 동부대대는 치열한 적의 포사격 중에도 07시경 계획대로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은 맹렬한 포사격에 이어 박격포로 사격을 가하면서 계속하

여 압박하여 들어왔다. 당시 학도유격부대가 장비한 주요 화기로는 M-1소총에 결합하여 발사할 수 있는 유탄발사기가 전부였다. 화력은 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였다.

학도유격대는 창린도 최후의 방어진지인 64고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때 어느 한 중대장이 보리섬을 가리키자 마침 간조로 들어난 통로를 따라 달려갔다. 약 200여 명의 대원들이 일시에 모여들었다. 보리섬으로 가는 통로는 심한 병목현상까지 일어나 좁은 통로가 더욱 비좁았다. 이때 바닷물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적의 주력부대가 도착하여 기관총을 거치하고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적의 기관총사격으로 수많은 대원들이 쓰러져갔다. 전우의 사체를 거들 겨를도 없이 바다 속으로 잠겨버리는 참혹한 장면이 열을 지어가는 대원들의 앞뒤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바다에 뛰어들지 못한 대원들은 바닷가 바위 뒤에 숨어 응전하고 있었으나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북한군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대원들은 영하 10도의 찬 바닷물에 뛰어들어 바다를 건너 보리섬에 도착하였다. 이때가 11시경이었다. 날씨가 개면서 오후부터 강한 태풍으로 바닷물에 젖은 군복이 나무도막처럼 뻗뻗하게 얼어붙었다. 서부대대 대원들이 모여 있는 동굴에는 대대장의 지시로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추위와 싸우고 있었고 동부대대 대원들은 47고지에서 썩은 나무를 주워다 태우면서 추위를 쫓고 있었다.

한편 기린도에 도착한 부대장은 그 곳에서 본부 화랑공작대, 서부대대 기린도 파견대장 등과 보리섬으로 철수한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선박도 없고 또한 표작전기지사령부에 요청한 구조조치도 회신이 없어 밤새도록 고심만 하였다. 그렇다고 긴급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다. 따라서 당시 기린도 동쪽해상에 정박 중인 충주호의 협조를 얻기로 하였다. 충주호는 기린도로 피난민 구호양곡을 수송차 왔다가 정박중인 민간인 선박이었다. 선장의 반발도 있었으나

위협 반 설득 반으로 이미 기린도에서 징발해 놓은 소형범선 5척을 예인하고 보리섬으로 출발하였다. 적의 포격을 무릅쓰고 생존자 272명을 승선시키고 다시 기린도에 도착한 것은 10일 17시경이었다. 이 피습으로 유격대는 약 40여 명의 전사자와 납치 30여 명, 그리고 중경상자 30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다. 실로 엄청난 손실이었다. 용진학도유격대의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막상 기린도에 도착하였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용진반도의 섬들이 차례로 적에게 점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린도의 주민들도 섬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서 유령의 섬처럼 쓸렁하였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한 이들은 해군에서 보낸 LST를 타고 백령도로 이동하였으며, 화랑공작대 그리고 본부통신대원 25명만이 잔류하였다. 봄이 되어 유격전을 다시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기지를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에 기린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마) 기린도 방어작전과 전투력 보강

LST편으로 기린도를 철수한 학도유격부대는 만신창이가 되어 1월 13일 02시경에 백령도 용기포에 도착하였다. 중환자들은 미군 수송기편으로 영등포에 있는 제121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백령도로 철수한 학도유격부대는 이때가 최악의 시련기였다. 용호도에서 철수 당시 700여 명이던 부대원은 불과 2주간의 전투로 약 61%의 전투손실을 입어 백령도에 집결할 당시에는 270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전·사상자도 상당수였지만, 계속되는 후퇴와 철수과정에서 부대원들이 낙오하고 또는 각자 가용한 선박편을 이용하여 남하하거나 연평도 등지로 분산되어 복귀하지 못한 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8240부대 본부에 정보학교에서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

져 총 49명이 지원하였고, 지원자는 용산에 있는 정보학교에 입교하여 4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미군 각 사단에 정보원으로 배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백령도로 철수하였으나 백령도는 부대를 정비하고 재편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격부대는 사령부에 건의하여 일부 부대를 백령도에 잔류시켜 놓은 채, 1월 20일 대청도로 이동하였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는 유격대가 점령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한 방어능력에 회의를 표명함으로써 유격대는 유격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였다. 부대는 그간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창린도 철수시까지 지역을 고려하여 서부대대와 동부대대로 배치했던 학도유격부대는 이번에는 서부대대를 제1대대로, 동부대대를 제2대대로 개칭하였다. 장차 부대운영을 고려하여 제2대대장은 본영 공작대장인 장하상을 임명하였다. 이는 그가 학생신분은 아니지만 제2대대가 활동할 지역이 표작전기지사령부의 다른 유격부대와 같은 기지(순위도)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대를 재편하고 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1952년 2월 7일 백령도 표작전기지사령부로부터 창린도 및 어화도를 재점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부대는 활력을 찾기 시작하였다. 2월 8일 제1대대장 목영설은 제1중대와 제2중대원들을 인솔하여 부대 전용선인 동아호로 12시경 기린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기린도에 잔류하고 있던 본부통신대, 그리고 기린도 특공대와 합류하였다.

기린도 방어를 위하여 제1중대를 잔류시키고 제1대대는 본부 통신대를 비롯하여 특공대원들과 같이 창린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창린도의 적은 이미 철수를 완료한 후였다. 창린도에 상륙하여 2일이 경과한 2월 10일 표작전기지사령부 작전장교 보좌관 마샬 중위가 창린도에 상륙하여 적이 창린도를 비롯한 어화도, 순위도 등지로 침공해오면 가급적 많은 적을 섬으로 유인하여 상륙시키고 유격대는 저항 없이 철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철수 즉시, 해군 및 공군 화력으로 상륙한 적을 공격하여 섬멸하겠다는

의도였다. 창린도 복구작업에 이어 제2대대도 어화도 및 순위도에 상륙을 실시하였다. 섬 전체에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중대는 제1소대에게 수압리 일대를, 제2소대에게 도장개 일대를 각각 맡아 지뢰를 제거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지뢰제거 작업도중 제1소대장 조규진이 양팔을 모두 잃는 중상을 당하기도 했으나 유격부대원들을 잃었던 기지를 하나하나 재점령해 나갔다. 순위도를 재점령한 제2대대는 용호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 섬의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까치공작대를 파견하였다. 섬에 잠입한 공작대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귀순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공군 장교 1명과 병사 2명을 귀순시켰다. 학도유격부대는 그간 적에게 잃었던 각 도서를 차례로 회복하면서 점차 적에 대한 공작 및 첩보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으며, 기지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대청도에 있던 부대본부에도 봄이 되면서 용호도 및 창린도 피습 시 부상당했던 간부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속속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제1육군병원(대구 계성중학교)에 입원했던 일부 인원이 복귀하여 부대에 보충되고 참모부도 보강되었다.

1952년 5월 22일 부대는 부대본부를 전방기지(어화도)로의 이동을 사령부에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전방기지와 부대본부가 너무 떨어져 있어 부대 지휘 및 통제에 지장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방기지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대본부의 이동과 함께 그동안 사령부에 건의하였던 추가 인원배당도 승인되었다. 부대본부는 부족한 병력을 모병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해 참모본부에 교육계도 신설하였다. 또한 1951년 12월부터 1952년 6월에 이르기까지 보급도 원활하게 실시되어 이제 학도유격부대는 제대로 된 화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간 보급된 무기는 다음과 같다.¹⁸⁴⁾

184) 「학도유격 부대사」, p. 307.

〈표 5〉 학도유격부대 무기 보급 현황(1951. 12~1952. 7)

화 기	수(추정)	화 기	수(추정)	화 기	수(추정)
권총(정)	-	기관단총(45구경)	50	무반동총(정)	-
38구경	3	BAR(30구경)	20	57mm	1
45구경	20	정기관총(30구경)	4	75 mm	2
M1소총(정)	450	기관총(50구경)	2	포 켓 포(문)	-
칼빈소총(정)	-	박격포(문)	-	2.46인치	10
M1	20	60mm	3	3.5인치	10
M2	35	81mm	2	유탄발사기(정)	30

(바) 어화도 철수작전

1953년 초 휴전협상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 유격사령부는 4월 들어 휴전이 되었을 때의 현안문제와 기타 관련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군과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5~6월에 철수대상 도서의 유격부대 연대장들은 철수해야 할 지역을 정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부대이동에 대한 대비는 휴전협정 초안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무도를 제외한 황해도와 경기도내의 서북해안 도서로부터 유격부대가 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대세였다. 1953년 6월 9일 표작전기지사령부는 예하 유격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10일부터 각 대대를 비롯하여 부대본부는 탄약 및 수류탄 그리고 지뢰 등을 포장해서 선적하는 일, 철조망을 선적하는 등 철수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6월 12일에 순위도와 어화도의 피난민, 주민 그리고 유격대원들의 가족들이 대청도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부대본부의 잔류인원들이 해군 309정으로 어화도를 떠남으로써 대청도로의 부대철수는 종료하였다. 이제 최종 기착지인 안면도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8일경 갑자기 소규모의 작전부대로 주요 도서를 재점령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명령을 받은 유격부대장들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철수하면

서 유격부대가 사용하던 시설물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둔하기 위해서는 섬에다 방어 및 통신시설을 준비해야 하고 그러자면 자재도 필요하고 준비기간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령부는 즉시 재점령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학도유격부대는 지시에 따라 6월 21일부터 창린도에는 제1대대 81공작대가 재주둔하고, 어화도에는 제2대대 제2중대(중대장 김상동)와 제3중대(중대장 박명석)원 110명과 추가 배치된 화기중대 제1소대(소대장 송락인)의 81mm박격포 2문과 60mm박격포 1문, 그리고 제2소대(소대장 이해수)의 75mm무반동총 2정 등으로 무장한 40명 등 총병력 150명이 다시 주둔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어화도 마을 바로 뒤 중앙고지(59고지)를 중심으로 제3중대는 다즈레 선창이 있는 남동쪽을 방어하도록 하고 제2중대는 섬의 서북방(염소머리)을 방어하도록 배치하였다. 화기중대 제2소대는 59고지 후사면에 81mm박격포 2문과 60mm박격포 1문을 배치하고 기지 내에 조명 및 화력지원을 하도록 하고 59고지 전사면에는 75mm무반동총 2문을 다시 배치하여 순위도 방향을 주로 경계토록 하였다. 7월 12일 백령도에서 마샬대위와 페리 중위를 포함한 미 고문관 5명이 어화도에 파견되었고, 이종학 부대장도 도착하였다. 적이 불시에 기습한 것은 휴전을 불과 며칠 앞둔 7월 22일 이었다. 새벽녘에 약 1개 중대규모의 적이 달이 지고 경계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간을 포착하여 기습적으로 침투하였다. 작은 섬이라 중심이 얹어서 섬 안은 삼시간에 적군과 아군이 혼합되어 전투준비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04시경 날이 밝아오자 적들은 전리품을 챙겨 서둘러 철수하였다. 적이 지나간 전쟁터는 전우들의 시체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겨우 살아난 대원들의 초췌한 모습으로 참혹하였다. 결국 이 피습에서 학도유격부대는 전사자 18명, 납치 7명, 부상자 10여명, 미 고문관 1명 전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휴전을 불과 1주일 앞

두고 이미 포기했던 섬에 재상륙하여 충분한 방어준비 없이 피습을 당한 참으로 무모했던 주둔 결정이었다.

1953년 7월 27일 10시를 기해서 휴전이 성립되었다. 학도유격부대는 악몽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철수명령을 받고 어화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지휘계통상의 변동이 생겨 제8240부대의 한국인 유격대원을 통제하기 위한 제8250부대(부대장 김완룡 준장)가 잠정적으로 창설되었다. 새로 창설된 제8250부대는 유격부대의 인사, 포상, 군기 및 한국육군의 계급을 부여하는 책임을 갖게 되어 상이 유격대원과 전사자의 가족은 한국육군 요원과 동일한 보상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작전통제, 군수지원 및 훈련은 미군의 책임 하에 두기로 하였다.

3) 부대 해체 및 재편

7월 27일 어화도에서 철수한 학도유격부대는 대청도의 고주동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어화도에서 전사한 전우들의 장례식이 끝나자 부대정비가 시작되었다. 부대정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령부로부터 몇 가지의 기본임무가 하달되었고, 이러한 임무수행과 부대훈련을 위해 부대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편성이 완료된 학도유격대는 사령부에서 하달된 교육계획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각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유격군사령부는 부대훈련과 병행하여 유격부대의 간부양성을 위해 1953년 11월경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에 제8240부대 유격학교를 개설하였다. 이 학교는 12월 6일부터 12주간의 교육계획표를 작성, 각 유격연대에서 3명씩 총 45명의 간부후보 제1기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관은 미군장교 및 하사관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학교는 1기생만 배출하고 해산되었다. 당시 학도유격대에서 참가한 대원은 목영설, 강철, 신은량 등 3명이었다.

1953년 후반부터 휴전 후 유격대원들의 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

다. 그리고 1954년 1월에 접어들면서 그 방향은 명확해졌다. 유격부대를 한국 육군으로 편입시키는 작전명령2-254(Quick-Silver)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관 개시일은 2월 24일로 결정되었다. 유격대가 한국군으로 넘어가자 유격부대는 다수의 탈영병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이관작업이 진행되었다. 초기의 혼란은 유격대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격부대가 한국군으로 이관되기 시작하면서 유격대의 간부들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것은 간부들을 유격대에서의 직책에 따라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현지임관을 시키는 것이었다. 제1연대 예하부대에서는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편제를 재검토하였다. D-1, 4, 11, 13부대장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당시 가장 연장자이고 규모가 컸던 D-13부대의 김장성을 연대장으로 추대하고, 각 부대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참모요원을 임명하였다. 학도유격부대에서는 권승훈을 연대 정보참모로, 그리고 연대 의무관으로 이경세가 각각 선임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간부들의 명단은 제8250부대에 제출되었고, 이 명단에 의해 유격부대의 간부들이 장교 및 하사관으로 현지임관되었다. 이들이 현지 임관한 것은 1954년 2월 하순이었다. 학도유격부대의 임관자는 대위 1명, 중위 13명, 소위 29명 등 총 43명이었다. 장교 및 하사관으로 임관은 되었으나 상당수의 간부 및 대원들은 실망하여 우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관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많았으나 부대가 연대에서 대대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대대장급은 중대장(중위)급으로, 중대장은 소대장(소위)급으로 그리고 소대장은 분대장(하사관)급으로 임관되었던 것이다. 후에 이들 중 상당수는 현역병으로 가서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장교로 임관되었다. 전쟁 당시 중학교의 학력은 간부후보생의 자격여건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학도유격부대원 거의가 장교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국군으로의 편입이 결정된 다음 부대원들은 각자 새로운 임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학도유격부대에서 활동한지 2년이 넘는 대원들은 명예전역이 가능하였다. 전 부대원들은 3월 6일 09시를 기하여 새로운 각오로 대열을 지어 그간 정들었던 고주동 골짜기를 떠났다. 선창가에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 주민들이 환송을 나왔다. 이들을 실은 LST 546함은 3월 8일 11시경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제1군에 인계되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웅진학도유격대는 이렇게 해산되었다. 웅진학도유격부대는 1951년 봄에 창설되어 1954년 초 해산될 때까지 전사자 272명, 실종자 100여 명, 중상자 130여 명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끝까지 항쟁하였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들도 해내기 어려운 유격작전을 어린 나이의 학생의 신분으로 생명을 마쳐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계급도 군번도 그리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전쟁에 참가하였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면 항상 자신의 몸을 초개처럼 던졌던 의병의 전통이 이들을 통해 현대사에도 면면히 흘러내려온 것이다.

(2) 태극단 학도의용군

1) 형성 과정 및 조직 편성

태극단은 북한군 치하에서 각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통합된 투쟁단체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활동했던 다른 의용군들과는 달리 태극단은 아군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훈련된 간부들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얼마간의 활동도 적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큰 피해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극단의 활동이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하였다는 그 정신 때문이다.

태극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발발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이다. 태극단 단원들은 경의선 통학생들이 대부분들이며, 이들은 통학하는 동안 차안에서 서로 익힌 친분과 평소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각 마을단위로 조직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경의선의 중심인 일산에 본부를 둔 태극단은 수색에서 문산까지 편성되어 있던 각 조직이 합쳐짐으로써 큰 조직체로 발전하였다.

태극단이 완전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5일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삼정부락에서 이장복을 위시한 안영근, 홍원식, 김복환, 최희성, 박정량, 이승국 등이 모여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치기로 혈서로 맹세한 후 조직을 결성하고 그 명칭을 태극단(일명 TK)으로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태극단은 본격적인 반공구국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단장에 이장복, 총무에 안영근, 조직에 홍원식, 정보에 김복환, 동원에 최희성, 연락에 박정량, 감찰에 이승국 등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 결성이 완료되자, 태극단은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해 우선 김복환을 고양군 민청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조직 확대를 계속하여 접촉 가능한 학생 및 친분 있는 인물들을 단원으로 포섭하였다.

태극단 본단의 결성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열흘이 지나서였으나, 예하 각 지역의 조직은 6·25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하무장조직은 수색, 금촌, 백마, 청석, 산남, 교하, 능곡, 광탄, 송포 등지에서 결성되었다. 먼저 수색에서는 1950년 6월 27일 다시 말해, 전쟁이 발발한지 이틀 뒤 당시 경성상공중학에 다니던 18세의 이순창이 동생과 금촌역 부근에서 M-1소총 3정을 습득하여 철도관사에 은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틀 뒤인 6월 29일 이순창은 수색에 와서 김경규, 황상균 등과 함께 수색에 위치한 북한 보병 제1사단 사령부에 침입하여 배낭 속에 수류탄을 절반씩 훔쳐가지고 나와 김경규의 집에 은닉하였다. 이후 세 사람

은 태극기에 ‘대한민국 지하공작대’라 혈서를 쓰고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주위에서 단원들을 모집한 이순창과 김경규는 믿을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월남하여 인장업을 하고 있던 박문영을 찾아가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후 꾸준하게 조직 확대에 힘써서 많은 대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촌 지역의 조직 확대는 이순호가 담당하였다. 이순호로부터 조직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창은 8월 초 자신이 그동안 구축한 조직과 연결하였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유지 및 공무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하였다. 이로써 수색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 수색, 능곡, 일산, 금충, 문산에 이르기까지 경의선에 걸쳐 조직이 일원화되었으며, 그후 일산의 이장복 태극단 단장과 회합한 이순창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로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초 대한민국 지하공작대가 태극단에 합류하였다. 이후 이순창은 본단 직속하의 별동대장으로, 조성구는 수색 지단장으로, 한기성은 부지단장으로, 김경규는 총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색과 일산 금촌 등지에서 각각 지하조직이 자생하는 동안 백마지구에서도 1950년 7월 1일 강화신과 송태성을 중심으로 박영수, 박용철, 배정균 등이 북한군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M-1소총 수정과 실탄 수천 발을 은닉하여 보관하고 후에 합류한 원희정이 묻어두었던 경기관총 1정과 실탄 2천여 발, 그리고 이길환이 습득한 권총 한 정과 수류탄 40여 발을 보관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이승환 대위와 이학주 중사 그리고 이기환, 최상동, 설한순, 설창희, 최노형, 허창, 조상원 등이 추가로 합류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가던 백마지역의 지하공작대도 8월 중순경 태극단에 합류하였다.

청석지구에서는 1950년 7월 3일경 윤석만과 황세영이 청석지구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같이 활동할 동지들을 물색하던 중 태극단 본부와 연결이 되어 합류하였다. 청석지구에는 각기 따로 조직을 이루고 있던 몇 개의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태극단과 접촉하면서 모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남지역에서는 김봉호, 이장성, 김기웅, 조종준, 이정희 등이 1950년 7월 20일 이장성의 집에 모여 같이 싸우기로 결의하고 대장에 김봉호, 부대장에 이장성, 총무에 조종준, 서기에 이웅선, 선전에 김기남을 임명하고 조직 및 투쟁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각자 따로 활동하던 중 8월 중순 무렵 태극단에 합류하였다. 교하지구는 윤훈용, 유재덕, 박우호, 윤우영, 윤자용 등이 결사투쟁하고 있던 중 1950년 7월 3일 서울에서 피난 온 이기호, 윤영세, 윤이영 등과 합세하여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대장에 이기호, 부대장에 윤영세, 조직에 윤이영을 임명한 후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던 구국결사대는 8월 중순 이병훈의 연결로 태극단과 합류하였다. 능곡지구와 광탄지구에서도 각각 조직이 형성되어 태극단 본단과 연결되었으며, 월롱면에서도 월롱분단이 조직되었다. 송포지구에서는 7월말 경 본단의 이병렬의 권유에 의해 최길환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결성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극단의 조직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각 지역단위로 자생적인 조직이 결성되고 그런 조직이 중앙의 본단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태극단에 참가한 대원들은 그들의 나이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세 전반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원들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공무원 및 낙오한 군인 또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게 참가하였다. 태극단원들은 적 치하에서의 활동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장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국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생명을 바쳐 북한군과의 결사항쟁에 참가하였다.

2) 임무 수행

북한군의 남침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태극단은 8월 중순에 들면서 거의 완전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8월 20일 21시경 고양군 석이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참외밭에서 단장 이장복, 총무 안영근, 조직 홍원식, 정보 김복환, 별동대장 이순창, 파주군단장 이기호, 수색지단장 조성구, 백마지단장 강화신, 청석지단장 윤석만 등 9명이 최초로 회합을 갖고 앞으로의 작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태극단 간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들의 복장은 상·하 의복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흰색 옷을 착용한다. 둘째, 지정된 태극무늬의 도장으로 머리띠와 흉장을 만들어 소지한다. 셋째, 포고문, 벽보 및 삐라 등을 제작하여 살포한다. 넷째, 적의 통신망을 절단한다. 다섯째, 적의 주요 수송로인 철도를 파괴한다. 여섯째, 유격전을 전개한다. 일곱째, 부여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이러한 결정 사항들은 각 지단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본단 또는 인접 지단의 지원이 요청될 때는 봉화로 신호기로 하였다.

태극단이 최초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7월 말경 부터였다. 수색지구의 면청에 위장 가입하여 활동하던 안병철은 이 지역에서 강제로 모집되는 의용군 명단을 사전 입수하여 징집대상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일산의 이수경은 고양군 민청 학생과에 가입하여 일산초등학교 교정에 강제모집된 의용군 속에 침투하여 이연경, 장태수, 조태운, 이봉조, 신건재, 홍갑순, 이명자 등의 현보를 받아 30여 명을 사전 분산 귀가시키기도 하였다.

8월에 접어들면서 태극단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8월 초 수색의 철도통신분소에 근무하던 조원기는 용산 - 평양 간의 직통전화 2회선을 수시로 절단하거나 혼선이 일어나게 하여 적의 통신을 교란하는 한편

정산국은 화전-능곡 간의 철도 전화선을 절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능곡지단의 김인한, 이상준은 능곡-일산 간의 철도 전화선을 절단시키고 성산, 중동의 조성충은 이귀성과 함께 신촌-수색 간의 철도 전화선과 난지도에 가설된 북한군 통신선을 절단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색지단의 이수만은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옹골에 위치한 수수밭에 지하본부를 설치하고 국군낙오병인 김덕재 일병과 이성운, 손기성, 김광환, 임용식 등이 규합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이 고양군 일대에서 착취한 쌀을 싣고 서울 마포 방면으로 운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격하여 적의 수송병 5명을 사살하였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이로 인하여 북한군 경비대와 내무서원 등 30여 명이 단원들의 아지트를 알아내고 수수밭을 습격하였다. 이때 김광환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이수만은 체포되고 나머지 5명의 단원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두 사살되었다.

이러한 희생 속에서도 태극단원들의 활동은 멈출 줄 몰랐다. 8월 중순경 본단의 이장복 단장은 청석지단장 윤석만과 황세영에게 뼈라를 살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여 장의 뼈라가 임진강 독개다리, 교하리, 당하리, 와동리 일대에 살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인류의 적 김일성도당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라.
강제 의용군 모집 및 복구작업에 주민들의 동원을 즉각 중지하라.
유엔군이 참전하였으니 곧 수도 서울이 수복된다.
모든 애국인사 및 반공인사는 즉시 피신하라.

태극단원들은 뼈라살포 외에도 다른 방법의 심리전을 과감하게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와동리 인민위원회 건물벽에 이기호가 작성한 90cm×75cm 크기의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붙여 놓았다.

북한군들의 남침 하일지라도 그대들은 북괴의 주구가 되지 말라!!
적귀들의 기관에 관계된 자는 금일중으로 사퇴하고 타지방으로 도피하라!!

적귀들은 성지에서 떠나 만주 이북으로 가라!!

본 포고를 준수치 않는 자는 금후 일주일 내에 가족과 더불어 멸살(滅殺)시킬 것이다.

8월 중순이 되면서 별동대장 이순창은 수색지단장 조성구와 철로를 파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화전역 북방 800m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김경규, 민두식, 정은수를 포함한 5명이 철로를 지탱하는 개 못(핀)을 뽑아 버렸다. 이날 아침 적의 포탄을 만재한 화약열차 12량이 탈선되었고, 이를 복구하기도 전에 이 광경을 목격한 아군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이 폭격으로 탄약을 실은 열차는 완전히 폭파되었다. 철로파괴공작은 파주지단에서도 이루어졌다. 지단장 이기호는 윤이영, 윤우영을 대동하여 야당리 앞 운정-일산 간의 철로 커브의 선로 개 못과 연결 너트를 풀어 6량의 화약열차를 탈선시켰다. 그리고 탈선한 열차는 우군기에게 발견되어 폭파되었다. 이외에도 임진강철교의 복구작업에 동원된 양민에 의해 운반되어 문산역 북방 2km 지점의 일명 여우굴이라 불리는 터널에 저장된 탄약도 월룡단원인 이준희, 심길섭이 탄약고 위에 대형 북괴기를 그려 우군기를 유도함으로써 완전히 파괴시켰다.

모든 작전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8월 말이 되면서 적의 검거선봉이 불었다. 이로 인해 김영화, 노원우, 신승균, 기인석, 이홍림, 이한춘, 김석태, 이왕림 등 맥금리의 별동대원들이 체포되어 금촌 내무서에 연행되었다. 다행히 김석태와 이왕림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대원 모두는 참혹하게 처형되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태극단원들의 활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광탄지역의 단원들인 최경운, 이준호, 하금석, 조용환 등의 단원들은 8월 말경 파주군 광탄면 분수리에서 내무서 부서장을 사살하고 광탄면 여맹위원장을

체포하여 하급성 상사가 사살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태극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태극단원들에게 인천상륙의 소식은 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어서 미 해병대의 일부 주력부대가 한강하류인 행주강으로 들이닥치자 당황한 북한군들은 정신없이 복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탐지한 행주지단장 황인수는 1950년 9월 18일 유병덕, 황봉수, 장명환, 서강세, 지웅영, 이점산, 이남산, 장사진, 최장진, 안일동 등 20여 명과 함께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를 가지고 적을 기습하여 1명을 사살하고 63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들은 포로와 노획한 장비인 수냉식 증기관총 1문, 따발총 및 아식장총 60여 정을 행주산성에 주둔한 미 해병대에 인계하였다.

유엔군의 진격과 더불어 북한군은 사기가 저하되어 도주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패주하던 북한군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모여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태극단이 활동하고 있던 지역 중에서 그런 장소는 능곡에서 약 2km 떨어진 백마지단이 활동하던 마무리 근방이었다.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인 상태가 계속되었다. 마무리 뒷산 정발산에는 북한군 패잔병 300여 명이 집결하여 있었으며, 능곡에서 원당쪽으로 있는 배밭에도 수백 명의 패잔병이 모여 있었다. 백마지단장 강화신은 수색지단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1950년 9월 19일 단독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병력과 화력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야간에 적의 역습을 받았다. 적의 역습으로 이승환 대위가 현장에서 전사하였고 송태성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배정균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행히 고양내무서에서 3일후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예상외의 피해를 입은 백마지단은 이튿날 능곡에 주둔한 미군부대를 찾아가 전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군으로부터 2대의 전차를 지원받은 백마지단은 다시 공격을 가해 3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기록하였다.

태극단의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1950년 9월 20일경 고양군과 파주군의 내무서 및 북한의 각 기관들은 태극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색출에 나섰다. 이두영 단원이 최초로 체포되면서 조직이 노출되었고, 그 결과 송포지단에서 11명, 산남지단에서 13명, 청석지단에서 4명, 본단에서 10명이 체포되어 송포면 덕이리 은장에서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체포된 단원 가운데 김봉호, 산남지단장 황규복, 조종준 등은 학살 직전에 탈출에 성공하였고, 문발리의 이윤형, 이상래, 황세영, 윤자익, 와동리의 윤재덕, 박우호, 본단의 김병숙 단원도 체포되어 북으로 압송되던 중 탈출하였다. 한편 금촌의 김영화, 신승균, 김인석, 노원우, 이홍림, 이한춘, 김석태, 이왕립 등 8명이 북으로 압송되었다. 이중 김석태, 이왕립 두명만이 북송도중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며, 나머지 6명은 비참하게 학살되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 있을 무렵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수복 후 제일 먼저 중앙창에 태극기를 올리겠다던 조직 결성시의 그들의 결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이정복 단장은 수색에서 작전회의를 열어 가용한 인원을 모두 동원하여 일산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약 80여 명의 단원이 완전무장하고 집결하였다. 단원들은 수색역 선로반에서 사용하던 도로리에 경기관총을 앞세우고 수색을 출발, 경의선 철도를 따라 일산으로 향하다가 능곡치안대에서 고문을 받고 있던 수색지단장 조성구와 본단의 정보부장 김복환을 구출하였다. 계속하여 북상하던 중 행주지단 및 백마지단과 합류하여 일산을 수복하고 고양경찰서에 태극단 본부를 설치하고 고양군과 파주군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였다. 이들은 작전 중 북한군 패잔병 20여 명과 극렬분자 70여 명을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무기도 함께 노획하였다.

적 치하에서 해방된 후 10월 한 달 동안 태극단은 사후 처리에 몰두하였다. 그동안 수거했던 장비를 반납하고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 등의 업

무를 담당하면서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200여 명도 안 되던 단원들이 9·28 수복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이장복 단장은 국방부 정훈국과 연결되어 별동대 소속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후 10명의 단원은 단장 인솔 하에 국방부 대북정치 선무공작 대원으로 들어갔고 40여 명의 단원들은 청량리 소재 서울농업학교에서 미 제8군 정보연락장교단 별동대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1950년 12월 9일 입교하여 동년 12월 23일 졸업한 후 북한군 복장으로 전·후방에 투입되어 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던 단원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조인과 더불어 또다시 각자 분산되어 육·해·공군의 정규군으로 입대하였다.

태극단의 활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공간적으로 상당한 제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빛나는 공적이나 전과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전과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 적 치하에서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제약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태극단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재일학도의용군(在日學徒義勇軍)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면전 소식이 일본에 전해진 1950년 6월 25일, 재일본 한국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학생동맹(韓國學生同盟)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학생들은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속속 사무실로 모여 들었다.

전쟁발발 소식을 들은 이들은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한국학생동맹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6월 30일 민단중앙본부 긴급 확대간부회의는 청년학도를 조국전선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인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아무리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젊은이들은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민단이나 주일한국대표부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에게 징집영장을 발부하여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아무나 쉽게 꺼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 ‘조국전선으로의 자원병 파견’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은 바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조직인 한국학생동맹과 민단에서 먼저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민단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곳에 모인 수십여 명의 학생들은 걱정과 분노가 반반씩 뒤섞인 심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록 공식적으로 소집된 회의는 아니지만 우선 모인 학생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격분을 감추지 못한 그 자리에서 장시간의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도배를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 그리고 동족상잔을 일으키는 공산집단을 조국 땅에서 몰아내고 반드시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누가 강요하기도 전에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조국전선으로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굳은 결의를 민단의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마음먹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6·25전쟁에 참전할 자원병들에 대한 접수와 심사, 그리고 입대한 자원병들을 본국으로 태우고 갈 수송수단의 마련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민단 중앙본부는 우선 재일동포들에게 북한이 저지른 불법남침을 널리 알려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결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한 노력 끝에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발 소식이 일본에 전해진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5일, 5천여 명이 넘는 재일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남침을 규탄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날 도쿄 시내 간다의 교리쓰 강당에서 열린 재일본 한민족궐기대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들은 다시 한번 공산주의 세력을 뿌리째 뽑겠다는 멸공정신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쟁으로 심각한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조국의 동포들을 돕기 위한 1가족 1품목 보내기 운동과 가두에서의 모금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전투도중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혈액을 보내주기 위하여 헌혈에 참여할 것,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보낼 구호물자 보내기와 조국전선을 지키기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파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금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민단 중앙본부 안에 전재민원호사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조국을 돕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모금운동은 그후 1950년 10월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도쿄에서는 민단의 간부들이 직접 가두에 나가 지나가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공산군의 불법남침 사실을 기록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모금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민단 주요 간부들까지 직접 일선에 나서 펼친 모금운동에는 재일동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까지 참여하였다. 몇 달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전역에서 민단이 모금한 액수는 당시로서는 거액인 932,712엔에 달했으며, 이 금액으로 의류와 생필품 107상자를 구입하여 요코하마항에서 한국 해운공사 수송선 편으로 고국으로 보냈다. 한편 전쟁의 참화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고국 동포들을 돕기 위한 민단의 인도주의적인 뜻을 공감한 일본 적십자사에서도 무려 3천만 엔에 달하는 의약품(트럭 10여 대분)을 지원해

주었다. 이처럼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모금 운동이었지만 제일동포를 비롯한 민단의 모든 간부들이 솔선수범한 결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하던 일본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한 민단 중앙본부는 6월 26일에 '38선의 사변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를 통해서 민단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국내·외에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현해탄 너머로 들려오는 조국전선의 전황은 나빠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그동안 좌익과의 싸움에서 일선에 나섰던 한국학생동맹의 청년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총을 들고 직접 싸우는 것이었다.

1) 형성 배경 및 과정

전쟁발발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만인 6월 27일, 한국학생동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약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위기에 처한 조국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였다. 출범 이후 그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좌익들과의 투쟁 대열에서 선봉에 섰던 한국학생동맹은 일본 땅에서 북한군의 불법적인 남침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이날 열린 한국학생동맹의 긴급회의에서는 조국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에 돌아가 국군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내린 결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국 땅에서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우리 한국학생동맹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조국은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뼈나나 뿌리고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조국에 복무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재일동포를 대신하여 조국전선에 참전하여 국군과 더불어 조국을 사수하자.

이러한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석자들의 결론이 모두 조국을 지키자는 쪽으로 모아지자, 즉석에서 재일동포 학생들의 조국전선 참전운동을 담당할 ‘재일한교 학도의용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추진위원으로 박병헌, 안기백, 양태근, 이상태, 정동화, 조영진, 홍기화 등을 선출하였다. 민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조국전선으로의 참전을 결정하자, 한국학생동맹과 민단은 따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이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생동맹과 민단은 7월 17일, 합동으로 재일한교자원병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열렬히 호응하여 일본 각지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국전선으로의 참전의사를 밝힌 청년학생들 중 일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국으로 건너가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그 날짜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쿄의 민단 중앙본부 건물 앞에 모여 빨리 조국전선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민단 중앙본부에서도 조국으로 건너가 공산군과 싸우겠다는 청년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8월 5일에는 민단 중앙본부에 자원병지도본부를 설치하고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자원병지도본부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민단의 지방조직에 조국전선에

참전을 해야 하는 취지문과 격문을 발송하여 용기있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쫓겨갈 것을 호소하였다. 이 무렵 ‘한국방위의용대총본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조국방위선언문에는 당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현해탄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6·25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잘 담겨져 있었다. 민단과 한국학생동맹에서 조국전선을 지키기 위한 자원병들을 접수한다는 소식이 재일동포 사회에 알려지자, 지원서를 접수받는 창구에는 조국전선으로 달려가려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하였다.



의용군 접수처에 모여든 지원자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도쿄에서 120명, 오사카에서 약 80명이 참전의사를 밝혔고, 나라현 13명과 미야기현의 7명을 비롯해 고베, 교토, 시코쿠,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야마구치현, 가나가와현 등 재일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여 일본 전역에서 약 1천여 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좌우익의 투쟁이 치열했던 곳일수록 자원자들의 숫자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좌익과의 치열한 투쟁을 하는 와중에서 이미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강점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자원병지도본부는 광복절인 1950년 8월 15일을 전후해 그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조국전선으로의 참전촉구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박차를 가하였다. 보다 많은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조국전선으로의 참전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내보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일한국대표부와 교섭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자원병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국전선으로 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지원자 모두를 조국으로 보내고 싶지만 민단 자체 능력으로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넘는 자원병들을 현해탄 건너 본국으로 태우고 갈 선박을 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일본 전역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자원병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반하여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일본과 국교를 맺기 전이라 그때까지 주일한국대사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주일한국대표부는 처음에는 재일동포 학생들의 한국전 참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주일한국대표부는 재일동포 학생들의 애국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학생들의 본업은 공부만큼 학업에 열중하여 장차 전쟁이 끝난 다음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전념해 달라고 하였다. 물론 주일한국대표부의 그런 입장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국이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일어난 피끓는 청년학생들의 귀에 그런 설득이 먹혀들 리가 없었다. 이러한 주일한국대표부

의 설득에 대해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국이 공산주의 세력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나라조차 없어진 판국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전선에 참전하겠다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의지가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함을 깨달은 주일한국대표부는 결국 애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존 임과 장재민 두 사람에게 미 극동군총사령부와 교섭토록 하였다. 지원서를 제출한 많은 청년학생들이 당시 미군의 점령 하에 있던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임무를 완수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일본으로의 귀환문제에 관해서는 주일한국대표부와 미 극동군총사령부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것만이 가능할 따름이다. 아마 주일한국대표부와 미 극동군총사령부 사이에서는 임무를 끝마친 재일학도의용군의 일본귀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6·25전쟁 중 국군과 미군부대에서 제대한 재일학도의용군 중 일부가 미군의 주선으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미군정의 지배를 벗어나 주권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쪽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1952년 4월,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미군정 치하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허용되던 재일학도의용군의 재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주일한국대표부와 미 극동군총사령부 사이에 일본에서의 미군정이 끝난 이후 재일학도의용군의 일본귀환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일

본 당국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뺌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황이 최악의 상태로 빠진 상태에서 일을 다급하게 추진하는 와중에 주일한국대표부나 미 극동군총사령부나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은 재일학도의용군에게 또 다른 비극을 안겨 주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조국전선에 참전을 결정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조국수호라는 임무를 끝마치면 당연히 부모형제와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원했지만, 참전을 결정할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귀환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우선 조국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건너가 멸공전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에도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주일한국대표부를 통해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참전의사를 전해들은 미 극동군총사령부는 처음에는 작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조국전선으로 달려가 조국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학생들은 자신들을 조국으로 보내 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한편 미 극동군총사령부 건물 앞에 가서 자신들을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연좌농성을 하기도 하고 혈서까지 써가면서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거절했던 미 극동군총사령부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결심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결국 승낙하였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끝에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미군과 함께 조국전선에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때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참전을 처음에는 거부하던 미 극동군총사령부가 이후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참전을 승낙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그 입장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의지가

미군측이 생각했던 것보다 완강해서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과 들쭉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참전을 어찌면 미군측도 내심 반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미 본토에서 온 미군 전투 병력은 대부분 한국은 처음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력이 북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지리와 언어에 서툰 미군으로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와 풍습 그리고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전투에서의 승패는 단순히 화력의 우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도 화력의 운용 못지않게 전투의 승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미군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25전쟁 내내 카투스(KATUSA)를 선발하여 미군의 각 부대에 배속시켜 운용하였다. 그리고 미군에 배속된 카투스들은 한국의 지형과 언어에 서툰 미군의 결점을 보완하여 미군의 전투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조국전선에 참전하겠다는 자원자들이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일본 전역에서 생겨나자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였다. 아이지현에서 조국전선에 참전하겠다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의 자원신청이 쇄도하여 민단 아이지현 지방본부에 접수된 지원자 수가 4~5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를 비롯해 ‘오사카에서도 모병’이라는 제목 하에 민족진영의 청년으로 조직된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도 6월 28일의 집행위원회에서 재일학도의용군 자원병 모집을 결의하고 이튿날인 6월 29일 아침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 무렵 조국에서는 북한군의 대공세에 밀린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사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다. 조국의 운명이 것처럼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국에서는 징집영장을 받고서도 갖은 이유를 대고 징집을 기피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청년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 수도인 부산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경우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 밀항선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전쟁터로 데려가 달라고 스스로 자원했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바로 조국 땅에 드리워진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등불이었다. 또한 아무리 피 끓는 청년들이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소중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생명은 어누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소중한 법이고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잠시 눈만 질끈 감아 버린 채 조국의 현실을 모른 척 헤버린다면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징집영장도 떨어지지 않는 일본 땅이었다. 본국에서는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마저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자원하고 나선 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쟁터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부모형제들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갖은 고생을 감수하며 조국전선으로 가겠다고 애원하는 것일까?

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지원 동기는 지원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개인의 안위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애국심이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을 공산 침략자로부터 구하겠다는 목적 또한 모두 같았다. 개인의 삶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가보다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요즈음의 젊은이들로서는 쉽게 실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 없는 민족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요즈음 젊은이들과 달리 식민지 민족

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어 본 그들은 누구보다 조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고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 모두가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에 있던 징집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다만 일본에 살고 있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조국전선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다른 뿐이었다. 그렇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이로서 양심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국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비록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자신의 조국을 지켜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는 없다. 실제로 조국전선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중에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령으로 징집대상 연령에서 제외되었을 45세의 중년이 있었는가 하면 어린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일동포 사회에서 최고위급 지도자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단 단장의 아들도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조국전선에 참전한 이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전투 도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자들을 제외하더라도 군에서 제대한 이후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이별을 한 채 한국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자도 허다하였고, 또한 일부는 전투 도중 입은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오기도 하였다.

2) 제1진의 참전

미 극동군총사령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출발날짜를

확정하여 정식으로 통보해 주었다. 주로 도쿄지방의 청년과 학생 중에서 선발된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의 출정식은 1950년 9월 8일 도쿄 시내의 스루가다이 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한국전 참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미군부대에 입영하라는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통보를 받은 민단은 출정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지원을 결의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으로의 출정은 참전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모두 한곳에 집결하여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미군의 사전 계획대로 각 지방별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적게는 45명에서부터 많게는 270명까지 몇 차례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일본 전역에서 지원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집 명령이 떨어진 곳은 바로 도쿄였다. 1950년 9월 7일 오후 무렵부터 도쿄 시내의 지요다구 간다에 있는 스루가다이 호텔은 보통 때와는 달리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서던 그들은 바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입영통지를 받은 도쿄 일대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었다. 도쿄 지방에서 지원서를 제출한 청년학생들의 일차 집결지는 바로 스루가다이 호텔이었다. 건장한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자 스루가다이 호텔 안팎에는 긴장과 흥분이 서로 뒤섞인 듯한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다음날인 9월 8일 오전으로 예정된 미군부대에 입대하기 전에 장도에 오르는 청년학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이날 저녁에 민단이 개최하는 환송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스루가다이 호텔에서 개최된 재일동포 조국전선 참전자들의 환송식 행사장에는 주일한국대표부의 김용주 공사를 비롯하여 민단, 한국학생동맹, 건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조국전선으로 자원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로 젊은이들을 보내야만 하는

환송식이니만큼 행사장 곳곳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젊은 이들의 장도를 축하해 주기 위해 연단에 오른 인사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하였다. 하지만 연단 위에 오른 사람을 빼고는 모두들 말을 아끼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환송식의 주인공인 조국으로 출정하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나 이미 전투를 수행할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들과 동생이나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을 대신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 못하는 나이든 사람들이나 모두들 뭐라고 표현하지는 못할 착잡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 한반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비관적인 뉴스 일색이었다. 그리고 해방 후부터 아무리 좌우익 투쟁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칼과 뿔뿔이 동원되는 싸움이 아니라 총탄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의 한복판이었다. 일본에서 벌이던 좌익과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조국 땅에 도사리고 있었다.

환송식에 참석한 민족진영의 간부들 중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겪어 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두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아들과 동생같은 젊은이들을 보내야만 하는 민족진영의 간부들이 느끼는 심사는 결코 편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 나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간다는 점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환송식이 끝나자 자원병들은 다음날 아침에 있을 출정에 차질없이 응소하기 위하여 대부분 스루가다이 호텔에

투숙하였다.

방으로 돌아간 자원자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지만 곧 겪게 될 전쟁터에 대한 생각에 초조감과 흥분이 교차되어 쉽게 잠이 오지를 않았다.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고이 키운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야만 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날 스루가다이 호텔에서 열린 환송식장에 참석했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은 다들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으로 쉽게 눈을 붙이지 못하고 뜬눈으로 지새웠다. 그들에게 이날 밤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날보다 길게 느껴졌다.

한편 그 전날인 9월 6일, 밤잠을 설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학생들의 조직인 한국학생동맹에 소속된 조국전선 참전자들이었다. 이날 저녁 마침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민단 중앙본부 2층의 한국학생동맹 사무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미군부대로 입대하기 전에 뜻있는 일을 한번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좌익분자들에게 한국학생동맹과 조국전선 참전자의 이름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곳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근처에 있는 우시고메 지부를 습격하기로 하였다. 한국학생동맹 사무실 가까이에 있던 우시고메 지부는 그동안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졌던 존재였다. 따라서 떠나기 전에 한국학생동맹의 기개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한바탕의 뜨거운 싸움을 기대하며 단숨에 도쿄의 밤거리를 달려가 우시고메 지부 사무실을 습격했지만, 그날따라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그들은 그대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그들은 책상과 의자 등 사무실의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로 벽에 걸린 붉은

깃발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한국학생동맹의 뜨거운 맛을 한번 제대로 보여 주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지만 싱겁게 끝나 버린 한판 싸움이었다. 따라서 가슴에 쌓여 있던 울분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돌아와 자리에 드러누웠지만 쉽게 잠이 올 리가 만무하였다. 그렇게 도쿄에서의 하루는 끝나 가고 있었다.

대부분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조국전선 참전자들은 모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겨 식민지 시절에 태어났다. 따라서 8·15해방으로 조국을 되찾은 몇 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줄곧 식민지 국민으로 말 못할 설움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아야만 하였다. 이들은 해방과 함께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조국으로 돌아가 몇몇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잔뜩 기대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벌써 몇 년째 이국 땅 일본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 몇 년도 결코 조용하게 보낸 것은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 단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였던 좌우익 투쟁으로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한반도에서 들려온 남침 소식에 애국심과 젊은 혈기 하나만 가지고 가족과 부모의 눈물어린 만류를 뿌리치고 조국전선에 자원하였다. 이들은 조국이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자원할 수 있었고, 국가가 없는 국민으로 살아야만 했던 세월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은 한 번으로 족하였다. 그날 밤 대부분의 조국전선 참전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몸을 뒤척이면서 새삼 각오를 다졌다.

1950년 9월 8일, 출정식이 열리는 스루가다이 호텔 앞에는 이미 조국전선 참전자들을 태우고 갈 미군 트럭 4대가 도착해 있었다. 출정식은 주일 한국대표부 김용주 공사의 “병역의 의무도 없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오로지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학업과 생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현해탄을 건너

조국 땅으로 달려가는 호국정신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의 앞날에 무훈과 영광이 있으라”는 격려사로 시작하였다. 김용주 공사는 이어 출전하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에게 “영웅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합심하여 끝까지 잘 싸워서 조국을 지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일신의 안위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불타는 애국심과 구국일념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출정하는 78명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얼굴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출정식이 끝나자 자원병들을 인솔해 가려고 미리 도착해 있던 미 제8군 보충훈련소에서 나온 인솔책임자인 키엘 대령의 승차명령이 떨어졌다.

조국전선 참전자들이 트럭에 올라타기 시작하자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태극기를 크게 흔들었다. 환송나온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만세소리는 자원병 78명 모두가 미군 트럭에 탑승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조국전선으로 출정할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모두 승차하자 트럭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출발하였다.

환송객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자원병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기쁨 때나 슬픔 때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대변해 주는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낮에 도쿄 시내를 절주하는 미군트럭 위에서 때 아닌 아리랑 곡조가 흘러나오자 길을 가던 일본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걸음을 멈추고 한참동안 쳐다보았다. 하지만 자원병들은 일본인들의 그런 눈길에 구애받지 않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이들을 태운 트럭은 스루가다이 호텔을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 아사카 기지에 도착하였다. 흔히 캠프 드레이크라고 불리는 아사카 기지 안에는 미 본토에서 전속해 오는 미군 신병들을 일본

각 현지 부대로 보내기 전에 잠시 대기시키는 미 제8군 보충훈련소가 있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바로 그곳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머무를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입대 수속을 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다. 신체검사는 신장과 체중 등 군사훈련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실시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질 미군은 인솔책임자였던 키엘 대령 외에 맥루우 소령과 에모리라는 하사관이 이미 전속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입대수속을 마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간략하게나마 영어시험을 치렀다. 그것은 그들의 교육과 관리를 책임질 미군부대 측으로서는 언어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일학도의용군들과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는 미군 측의 의도였다.

영어시험이 끝나고 나자 재일학도의용군들에게는 개인별로 필요한 전투복과 모자 등 의류품과 부대 내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수건, 치약, 칫솔 같은 일용품이 개인별로 지급되었다. 보급품을 수령한 그들은 미리 지정된 천막의 막사에 들어가 야전용 침대를 배정받은 후 미군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숨돌릴 겨를도 없이 식당으로 안내되어 미군 병사들과 같이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끝낸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담배 한 대를 제대로 피울 틈도 없이 곧바로 집합명령을 하달받았다. 비록 아직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기 전이지만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군인을 닮아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집합을 완료한 그들은 미군 책임자로부터 질서있는 부대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각자의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는 인식표를 지급받았다. 아직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군인은 아니

었지만 인식표까지 수령한 제일학도의용군들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감을 느꼈다. 이날 오후 김광남 자원병지도본부장은 안호상 박사와 함께 그들의 부대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돌아갔다. 이날 대부분의 제일학도의용군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 속에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 가운데 바쁜 하루를 보내야만 하였다. 더군다나 무슨 종류인지 알 수 없는 예방주사를 다섯 대나 한꺼번에 맞은 탓인지 많은 전우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다. 따라서 저녁식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식당으로 갔지만 몇몇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정말로 바빴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취침을 알리는 나팔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대부분의 제일학도의용군들은 드디어 조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흥분과 자신의 앞날에 펼쳐질 일을 생각하며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게다가 훈련기간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그리고 언제쯤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군측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일학도의용군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인 큰 체구의 키엘 대령은 한눈에 보기에 역전의 경력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그리고 맥루우 소령은 키엘 대령과 달리 군인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이 더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서툰 제일학도의용군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맥루우 소령은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자원참전한 제일학도의용군의 애국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틈이 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제일학도의용군들과 몸을 부딪치며 항상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 예모리 하시는 사소한 일까지 최선을 다해 제일학도의용군들을 보살피 주었다.

미군부대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제일학도의용군들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미리 지정된 연병장 한구석에 집합을 완료하였다. 잠시 뒤에 나타난 미군은 훈련을 받기 위한 부대편성을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군은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을 2개 소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1소대장에 김정과 제2소대장에 이성근을 임명하였다. 전날 입소하면서 치렀던 영어시험 결과를 평가하여 재일학도의용군 중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한 자를 소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부대의 임시편성이 완료되자 곧바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군사훈련이라고 해봐야 총을 들고 실제 전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식 호령과 상관에게 경례하는 법 그리고 제식훈련이 전부였다. 미군부대에 입대하기만 하면 당장 총검술과 사격 등 실제 전투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훈련병의 입장이어서는 미군 훈련책임자의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더구나 군사용어가 전부 영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허둥대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군식 호령에 익숙해지자 재일학도의용군은 미군들이 놀랄 정도로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그것은 재일학도의용군 중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서 복무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사훈련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난 9월 12일에는 미군식 호령에 서툴러 허둥대던 재일학도의용군들도 미군의 제식훈련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미군 훈련교관이나 조교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자율적인 훈련을 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식사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던 재일학도의용군에게 갑자기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연병장에 집합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두 대의 군용버스에 소대별로 탑승을 시작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미군 측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달된 갑작스런 이동명령이었으므로 재일학도의용군들의 궁금증은 자꾸만 더해 갔다. 분명히 자신들의 신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갑작스런 이동이 분명히 기밀을 유지해야 할 군사작전에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버스에 동승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추측만 하면서 궁금증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건너간다는 쪽과 아직 실제로 총도 한번 쏘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한국으로 투입되기는 무리이니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마지막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어쨌든 항상 여유를 지니고 행동하던 미군답지 않게 어딘가 모르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에 탑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은 키엘 대령, 맥루우 소령 등 미군부대 관계자들로부터 환송을 받았다.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역시 이별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법이었다. 간단한 작별인사가 끝나자 그들을 태운 군용버스는 곧 출발하였다. 그 사이 벌써 주위는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을 인솔해 갈 새로운 미군 장교가 버스에 동승했으나 그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이 도착할 목적지가 어딘지 설명해 주지 않고 묵묵히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대낮도 아닌 밤에 급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긴 것만은 분명하였다.

그들을 태운 두 대의 버스는 헤드라이트를 켜 채 밤길을 계속 달렸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한 시간쯤 지나자 자신들이 탄 버스가 요코하마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향 감각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창밖으로 가끔씩 보이는 도로 표지판을 통해 자신들이 달리고 있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부대를 출발한 지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짐작대로 요코하마항이었다. 군용버스에서 내린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부두 바로 앞에 거대한 군용수송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을 환히 밝힌 부두에는 바쁘게 오가고 있는 미군들이 눈에 띄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배가 자신들이 타고 갈 군용수송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갑자기 요코하마항 부두에 도착하여 어리둥절해 있던 그들에게 미군 인솔자는 다시 한번 인원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원점검이 끝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승선을 명령하였다. 서둘러 승선을 완료하자 그들을 인솔하고 왔던 미군 장교는 배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추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선실 밖으로의 출입은 삼가고 특히 갑판 위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 즉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낮선 분위기 탓에 긴장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의 이름과 언제쯤 출항하는지에 대해 물어 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받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배가 도착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군사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쯤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승선한 선박은 바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미군전투부대를 싣고 가는 수송선이었다. 미 본토에서 출항하여 태평양을 건너 온 미군수송선은 당시 미 제7사단의 병력 1,500명을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함내에는 대형 영화관이 두 개나 있었고, 장병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10여 개나 될 정도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한국

전에 투입되기 전에 잠시 기항한 일본에서 계급장도 부착되지 않은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배에 승선하자 미군 병사들은 몹시 궁금한 눈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재일학도의용군에게 어느 부대 소속이냐고 물어왔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미군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자신들은 일본 땅에 살고 있던 한국인이며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자원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미군들은 뜻밖이라면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호감을 표시하였다. 미군 병사들은 비록 민족과 신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북한군과 싸우러 간다는 점에서 재일학도의용군들도 전우라는 의식을 가지고 호의를 드러냈다.

다음날 아침에 기상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이미 자신들이 탄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던 재일학도의용군 몇몇은 인솔책임자였던 미군 장교에게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미군 장교는 빙긋이 웃으며 그것은 군사상 일급비밀이라 자신도 모른다면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알 필요도 없고 또 굳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미군 병사들을 보면서 새삼 자신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자각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 공산군과 맞서 싸우려면 최소한 개인화기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사카의 미군부대에서 제식훈련 정도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동명령을 받고 떠나왔으므로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소총을 다루는 조작법조차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물론 일본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대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다치더라도 미군과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소총이 다르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화기인 M1 소총과 칼빈 소총의 조작법은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재일학도의용군

중 일부는 배가 출항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시간을 할애하여 선실에서 미군 병사들로부터 M1 소총과 칼빈 소총의 분해결합요령을 배우기도 하였다. 다만, 배라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실탄 사격까지 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얼마 후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전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총을 제대로 다루는 법이 꼭 필요했던 재일학도의 용군들은 빠른 시간 안에 소총의 조작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들이 소총의 조작법을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것은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 병사들의 도움이 크게 좌우하였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긴 항해중에 비좁은 선실에 갇힌 채 무료해하던 미군 병사들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심심풀이거리라도 만났다는 듯이 실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다. 미군 병사들 또한 재일학도의용군처럼 자신들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군사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으로부터 군사기밀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적의 배후를 기습하는 상륙작전일수록 군사기밀의 유지가 작전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였다. 만일 군사상의 기밀내용이 적에게 노출된다면 적은 아군의 상륙지점에 강력한 수비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는 목적지에 투입되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멀리 한국 땅으로 짐작되는 육지가 보이자 미군 병사들의 행동은 재빨라지기 시작했고 얼굴 또한 눈에 띄게 긴장하였다. 아무리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았다고 해도 전쟁터로 투입되기 직전의 긴장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미군 병사들과는 달리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조국 땅의 모습이 수평선 끝에 보이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미군 병사들과

는 달리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승선한 수송선이 인천이 멀리 보이는 먼 바다에 도착한 것은 9월 16일 오후 무렵이었다. 이날이 되어서야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상륙할 장소가 인천이며, 그리고 훗날 6·25전쟁의 흐름을 한 번에 뒤바꿔 놓았다고 격찬을 받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역사적인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뒤이어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이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과 국군이 이미 기세가 한풀 꺾여 버린 북한군을 추격하며 서울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수도 서울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상징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개전 초기 서울이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재일동포들은 크게 낙담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의 코밑에까지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오는 희소식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일본에 있는 극력 좌익분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비통해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입안에서 절로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떠나보내 놓고 걱정할 부모형제들이 그동안의 무거운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비록 자신들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총 한방 쏘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6·25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의 거대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새삼 굳은 각오가 다져지는 것을 느꼈다.

멀리 보이는 인천 해변에는 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집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마 집중포격을 받아 파괴된 모양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젯더미로 변한 조국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재일학도의용군의 눈에는 예외없이 모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쟁 탓에 젯더미로 변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눈앞에 꿈속에서마저 걱정하던 조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조국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재일동포 청년학도들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반도에서의 갑작스런 전쟁발발 소식과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활개를 치던 좌익분자들의 모습, 눈물로 호소하던 부모형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원서를 냈던 일, 그리고 초조와 긴장의 나날 끝에 미군부대로의 입소통지서를 받았던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어제 겪었던 일처럼 기억 속에서 똑똑하게 되살아났다.

인천이 멀리 보이는 먼 바다에 도착한 다음날인 17일에, 함내에 있던 미 제7사단 병력은 상륙을 시작했으나 재일학도의용군에게는 상륙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조급이라도 더 빨리 조국 땅을 밟아 보고 싶은 조바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일학도의용군에게는 좀처럼 상륙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재일학도의용군의 상륙이 지연되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예상치도 못했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무방비 상태에서 배후를 찢린 북한군은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남아 있던 병력을 최대한 끌어 모아 결사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이를 격퇴하여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투부대를 우선적으로 상륙시켰다. 수많은 배가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 전투수행에 꼭 필요한 물자와 병력에게 우선적으로 상륙허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재일학도의용군의 상륙 순서는 자꾸만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조급한 탓에 상륙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늦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재일학도의용군은 갑판에서 상륙을 위해 하선을 준비중인 미군 병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짧지만 재일학도의용군에게는 길게만 느껴지는 대기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재일학도의용군에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상륙명령이 떨어졌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배의 난간에 내려놓은 하선용 그물을 타고 내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상륙용 주정으로 옮겨 탔다. 멀리서 포성이 들리는 가운데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상륙용 주정을 탄 재일학도의용군은 처음으로 긴장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먼저 상륙에 성공한 아군부대가 인천을 방어하고 있던 공산군들을 전부 격퇴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적의 반격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다행히 육지로부터 총알이 날아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륙용 주정이 육지에 닿자 재일학도의용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몸을 굽히며 갯벌로 뛰어내렸다. 갯벌에는 아직 바닷물이 고여 질척거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재일학도의용군의 가슴에는 누구 할 것 없이 희비가 교차하고 있었다. 상륙작전을 위한 사전포격으로 참담하게 파괴된 인천 시가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파괴의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여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해안에 상륙한 그들에게는 조국 땅을 제대로 살필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이동명령이 하달되었다. 시내로 이동하면서 재일학도의용군은 전쟁이 활쾅고 간 상처를 똑똑히 목격하며 비로소 전쟁터에 와 있다는 느낌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서 있는 건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도로 옆에 서 있던 집들은 거의 파괴되어 있었고 곳곳에 널려 있는 시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초라한 행색의 동포들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때 재일동포 청년학도들이 느꼈던 심정을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에 속해 조국전선에 참전했던 이활남은 훗날 남긴 「혈혼의 전선」이라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 이것이 오늘날의 조국이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던 조국의 면모이다. 얼마나 울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해방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차가운 방에서 굶주림과 싸우면서 희망에 찬 생을 보냈는지... 그러나 현실의 조국은 살벌하고 폐허의 현실이며 이 모든 것이 잔인 무도한 침략으로 자유대만을 일시에 병탄하여 버리려는 공산도배들의 광적만행이니 이 나라에 태어난 자유민주 국민으로서 그 누가 수수방관할 수 있으랴. 오직 멸공투쟁이 있을 뿐, 끝까지 싸워 이 땅에서 멀리 북쪽까지 몰아내는 민족의 투군이 되며 일편단심 혈육과 혼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서 조국의 민주문화 국가건설의 초석이 되어 이 거래의 안태를 수호하리라.

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대부분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조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으며 동시에 조국을 이렇게 만든 공산주의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기필코 적을 물리쳐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은 미군 병사들과 함께 인천시의 중심가 쪽으로 이동하였다. 시내 중앙이 가까워질수록 파괴의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였다.

당시 시내 중심가에 있던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 주둔한 재일학도의용군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 낙오병들의 기습을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며 야영준비에 들어갔다. 그날부터 재일학도의용군은 주둔지를 방어하는 경계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날 밤 재일학도의용군은 전쟁이 한창인 조국 땅에 도착했다는 긴장과 흥분 때문에 하나같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나 달려오고 싶었던 조국 땅이었던가. 그런데 바로 자신이 조국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 조국 땅에 도착하기까지 보낸 몇 달 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또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변민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일부러 깨우지도 않았지만 모두들 기상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쿄에서 자원한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 78명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미군과 함께 인천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일본 전역에서 자원한 재일동포 청년학도들은 본격적으로 조국전선에 참가하여 6·25전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3) 제2진의 형성과 참전

오사카는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해방 이후 오사카는 전통적으로 좌익들의 세력이 우익에 비해 강한 지역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오사카에서는 대한청년단 단장인 안호상 박사의 방문을 계기로 우익단체의 조직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중이었다. 사실 안호상 박사는 좌익 세력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건청을 비롯한 재일동포 우익 청년단체를 본국의 대한청년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재일대한청년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방일하였다. 따라서 우선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일본의 각 지방을 돌며 건청을 주축으로 한 재일대한청년단 창설작업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런 영향으로 그때까지 우익의 방패로 활동하던 오사카 지역의 건청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른 시기인 1950년 6월 19일에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진 해산한 건청의 뒤를 이은 재일학도의용군의 발족으로 후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오사카에서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조국전선 참전에 관련된 안내 및 사무처리는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 전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창설작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29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재일학도의용군은 민단이 좌익과 맞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행동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본국의 재일학도의용군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한편 6·25전쟁의 발발 소식이 전해지던 날은 마침 김용주 공사가 오사카를 방문하고 있었다. 김용주 공사를 모시고 점심을 먹는 식당에 한국에서의 전쟁소식이 전해지자 김용주 공사는 즉시 지방시찰을 중단하고 오사카 비행장에서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항공편으로 동경으로 돌아갔다.

뜻밖의 비상사태에 접한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는 그날 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국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위문품을 보낼 것과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재일동포의 열혈 청년들이 직접 참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오사카 주재의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일본 유력 신문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무렵 자원병 모집을 주도한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단장은 정원진이었다.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주요 간부들은 이후 자원병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누구보다 자원병 모집에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총무부장 조용갑과 감찰부장 신영일은 후일 자원병으로 직접 참전하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증거였다.

다음날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이 신문에 실리게 되자 재일동포들이 뜻밖에 열렬한 호응을 보내 주어 이를 추진하는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의 관계자들을 감격시켰다. 오사카와 규슈는 물론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까지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로 직접 찾아와 재일학도의용군의 자원절차를 문의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편지나 전화로 조국전선에 참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왔다.

조국전선에 참전하려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지원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좌익 세력들의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조국전선에 참전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민단 지부장 이하 2명의 간부가 추천하는 신원보증서를 지참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접수를 한 순서대로 사상심사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본인들에게 직접 통보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갓 발족한 재일학도의용군 오사카본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각지에서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찾아온 사람들이 머무를 숙소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조국을 구하겠다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오사카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숙식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국전선에 지원서를 내러 온 그들이 편안한 숙소와 비싼 음식을 요구할리도 없었다. 다만 밤이슬을 피하면서 자신의 한 몸을 누일 공간과 허기를 채울 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재일동포들에게 널리 알려 뜻있는 사람들의 성금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성금모금운동에는 많은 재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주었다. 특히 오사카에서 사카모도방적이라는 섬유회사를 경영하던 서갑호 사장이 당시로서는 거액인 100만 엔을 선뜻 회사해 주어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뜻있는 재일동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줌에 따라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조국전선 참전자모집운동은 더 한층 힘을 얻게 되었다. 한편 그 무렵 도쿄의 한국학생동맹은 산하에 재일한교학생자원군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원병들을 모집하

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는 각 지방별로 자원병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자원병들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조국에서 들려오는 비관적인 소식과는 달리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지원 열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지원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데 현해탄을 건너 조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수송수단은 그때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사카에서는 하는 수 없이 도쿄의 민단 중앙본부로 연락을 해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당분간 기다리라는 대답을 해줄 뿐 확실한 언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한 것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조국의 운명은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출발통보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민단 중앙본부로 독촉하기에도 지쳐 버린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몇몇 간부들은 고민 끝에 비상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자체적으로 수송수단을 구해 현해탄을 건너 조국전선에 참전하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에서 전투에 필요한 소총과 실탄을 구한 다음 밀항선을 이용해 현해탄을 건너는 어찌보면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계획까지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조국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의 몇몇 간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해양경비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민하였다. 그렇게 회의를 거듭하던 도중에 뜻밖의 안이 나왔다. 만일 현해탄을 건너

가는 도중에 일본 해양경비정에게 발각되면 일단 순순히 검문을 받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아예 해양경비정을 탈취하여 한국으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얼핏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이 계획은 재일대한청년단 오사카본부 단원 중에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해군에 끌려가 복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해군에서 배를 타 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해양경비정을 운항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 계획은 도쿄의 민단과 건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극동군총사령부와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고 단지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에서는 서류심사와 사상검토를 끝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지원서를 냈다고 해서 모두 조국전선에 참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상검토와 신체검사 등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지원자 중 약 20%에 달할 정도였다.

한편 지원자들 중에는 남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도 지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을 받아 주지 않자 지원의사를 밝힌 여성들 몇 십 명이 자신들도 가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건장한 남자들도 힘든 전쟁터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가겠다는 그들의 투철한 애국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만 그들의 지원서를 받아 주지 못하는 것이 지원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도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본인들까지 많이 지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인 지원자들 중에는 일본군 장교출신도 있었는데,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자신의 친구가 일본군으로 복무하던 도중 미군의 공습을 받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주위에 있던 한국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

원에서 지원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한국 전에 참전하는 것은 그들의 순수한 동기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받아들여 줄지가 의문이었고, 또한 또 다른 국제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호의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애타게 기다린 끝에 9월 초순이 되어서야 민단 중앙본부의 자원병지도 본부로부터 출발지시가 내려왔다. 출발날짜가 정해지자 조국전선 참전자가 있는 각 현에서는 젊은이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환송식이 지역별로 열리기도 하였다. 지역내 재일동포 유지들이 개최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지인 전쟁터로 떠나는 참전자들에게 죽음과 연관되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잘 싸우고 몸 건강히 돌아오라는 덕담을 연신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대부분의 환송식은 조국전선에 투입되는 참전자들의 굳은 결의와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힘껏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감까지 말끔하게 없애 버리지는 못하였다. 다만 자기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애써 바랄 뿐이었다.

9월 11일, 오사카에서 자원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열차편으로 먼저 도쿄로 이동하였다. 도쿄역부터는 미군이 마련해 놓은 버스를 타고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이 훈련받았던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 아사카 캠프 드레이크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그들보다 며칠 전에 이곳을 거쳐 갔던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이 밟았던 것과 비슷한 입소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영어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친 후 소대별로 나뉘어져 배치되었다. 그들은 입소한 다음날부터 제식훈련을 받았지만 제1진 때와 달리 바로 M1소총과 칼빈소총 등의 분해 결합교육을 받았다. 미군부대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고 있던 오사카 지역의 청년학생들은 도쿄를 비롯

한 다른 지역에서 온 재일학도의용군들과 합류하여 9월 19일 요코스카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낙동강 전선에서 고전을 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대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경상도 지방까지 진출했던 북한군은 낙동강에 배수진을 치고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유엔군과 국군의 거센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개전 초기의 상황과는 달리 미 공군의 공습으로 보급로가 차단됨에 따라 보충병과 물자의 보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을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판국에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허를 찔리고 퇴로마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전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전황이 낙관적으로 변한 탓인지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이 출발할 때는 부두에 군악대까지 나와 팡파르를 울리며 환송을 할 정도였다. 군악대까지 나와 연주를 해주는 거창한 환송식에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에 속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양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전선에 참전을 결정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국전선에서 기필코 북한 공산군을 격멸하여 조국통일의 대역사를 꼭 이루고 말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이미 한반도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었지만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은 그런 희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에 속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6·25전쟁이 큰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간다는 사실만 알 뿐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병력의 이동은 군사상의 비밀이라 미군은 재일학도의용군들에게는 알려 주지

를 았았기 때문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 2진은 원래 모두 268명이었으나 미군은 다음에 들어오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의 훈련을 위해 2명을 부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훈련을 받아 본 경험자가 설명을 해주다면 재일학도의용군들이 미군부대에 처음 들어와 겪는 초기의 혼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미군측이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은 최종적으로 266명으로 편성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은 그날 밤 상륙한 바닷가에서 야영을 한 후 다음날 이동명령을 받고 인천 시내에 있는 송림초등학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며칠 동안 주둔하였다. 송림초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던 재일학도의용군 2진은 그 때까지 개인별로 소총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2진에 속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설 때는 미군에게 임시로 빌린 M1소총 두 정을 가지고 보초를 설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재일학도의용군 2진은 예상치 못했던 운명과 만나게 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 제2진은 상부로부터 하달된 명령에 따라 적은 곳은 몇 명씩 많은 곳은 몇 십 명씩 흩어져 미군 각 부대에 배속되었다. 그 이후 그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쯤 지나서였다.

4) 후속부대의 참전과정

재일학도의용군 1진과 2진이 큰 차질 없이 조국전선에 출정함에 따라 후속부대의 출발도 활기를 띠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진과 2진이 한국으로 출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재일동포 젊은이들이 지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뒤늦게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나 1진과 2진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드디어 미군부대로 입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9월 28일, 일본 곳곳에서 자원한 102명은 재일학도의용군 제3진으로

편성되어 재일학도의용군 1, 2진이 거쳐 갔던 아사카 부대에 입소하였다. 1, 2진과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에 기초적인 군사훈련만을 받은 그들은 단 1명을 제외한 101명이 9월 30일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한국에 도착한 1, 2진과 달리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긴 항해를 거친 끝에 10월 5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 제3진이 현해탄을 건너는데 것처럼 오랜 시일이 소요된 것은 전투에 필요한 대규모의 물자를 하역하느라 인천항의 적체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빨리 현해탄을 건너도 상륙순서를 기다리려면 인천항 밖에서 장시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아예 항해를 하면서 미리 할당된 상륙시간에 맞추려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모르는 재일학도의용군 3진은 1, 2진과 달리 비좁은 선실에서 떨미에 시달리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느끼는 해도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땅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천에 도착한 그들은 숨들릴 겨를도 없이 경기도 인천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다. 이후 그들은 인천상륙작전에 뒤이은 동해안의 이원 및 원산상륙작전에 참가하여 북진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자 엄청난 손실을 겪으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철수작전 도중에 재일학도의용군 83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때까지 군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전선에서 미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행동을 같이하던 그들은 대부분 시체도 거두지 못한 채 실종 처리되었다. 한편 오이타현 벳부에 있는 미 제8068보충대대에 입소한 규슈 지방의 자원병 145명은 다른 재일학도의용군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아 보지 못하고 1950년 10월 15일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건너왔다. 다만 그들은 앞서 도착한 재일학도의용군과 다른 과정을 거치며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들이 도착

한 곳은 먼저 도착한 재일학도의용군들과는 달리 부산이었다. 그리고 미군이 아닌 국군에 인계되어 당시 부산진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국군 제2훈련소에 입소하였다. 이들은 미군이 아닌 국군에 배속된 재일학도의용군 제4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황이 워낙 다급하게 진행된 탓에 미군은 재일학도의용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군은 재일학도의용군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운용하였다. 이는 그 어떤 부대보다 높은 전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학도의용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미군의 탓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의 능력에 대해 미군이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한 것은 병사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야 하는 미군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조국전선에 참전한 재일동포 청년학도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가장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투입되고 군번도 부여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총을 잡고 최전선에서 직접 공산군과 싸우기를 원할 뿐 자신들의 신분이나 대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게다가 미군은 재일학도의용군만으로 단일부대를 편성하여 최전선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이 한국의 지리와 언어에 미숙한 미군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투부대에 배속된 일부의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후방에서 미군을 도와 군수기지의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등 전투 지원 임무와 경비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비록 애초에 원했던 임무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최전선으로 달려가 전투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다. 하지만 재일학도의용군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그 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곧 최전선으로 달려가 공산군과 싸우게 되리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자꾸만 그 희망이 뒤로 연기되자 차츰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미군은 그러한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일선지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재일학도의용군들에게 후방의 보급업무도 전방에서 치르는 전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일이나 하려고 일본 땅에서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갖은 고생 끝에 조국전선에 자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싹트고 있는 불만은 쉽게 가시지를 않았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만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그것은 끝내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며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만일 미군이 재일학도의용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비록 642명이라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재일학도의용군은 그 숫자를 뛰어넘어 6·25전쟁에서 지대한 전과를 올렸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정은 매우 다양했으며, 각 과정마다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전선에서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미군 측이 재일학도의용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미군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이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⁸⁵⁾

한편 아무리 전쟁 중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참전이라 하더라도, 1진부터 3진에 이르는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을 미군이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도 없이 실전에 투입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에

185)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176;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0;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69.

게 정식으로 군번도 부여하지 않은 채,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전쟁에 투입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었다. 물론 당시의 전선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나 상황을 따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선에 투입한 미군의 조치는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였다. 다만 뒤늦게 재일학도의용군의 상황을 파악한 미군이 재일학도의용군만으로 단일부대를 편성하여 최전선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들에게 미군을 보조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다.¹⁸⁶⁾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전투부대에 배속된 일부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에게 후방에서 미군을 도와 군수기지의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등 전투지원 임무와 경비지원 임무를 부여한 것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⁸⁷⁾

마지막으로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결과와 실제 참전은 전선이 최악의 상황에 몰린 시기에 이뤄졌다는 특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 중 누군가는 주일한국대표부와 협조를 통해 이들의 참전 사실, 인원 등에 대한 현황을 추적하고 관리했어야 하였다. 전시라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당장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느라 국민들의 안위를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쏟은 이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¹⁸⁸⁾

한편 1950년 6·25전쟁에 자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지역별 출전 현황과 출전 당시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186)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170.

187)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0.

188)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69.

〈표 6〉 재일학도의용군 지역별 출정현황

지 역	인원(명)	지 역	인원(명)
홋카이도	13	아카다현	7
미야기현	24	이와테현	1
도쿄도	139	가와사키시	27
요코하마시	5	지바현	23
군마현	8	사이다마현	5
아이치현	19	시즈오카현	7
나라현	6	기후현	3
나가노현	2	니가다현	9
후쿠이현	7	야마나시현	2
시가현	6	오사카부	61
교토부	19	효고현	24
야마구치현	13	오카야마현	18
히로시마현	14	시코쿠	17
나가사키현	20	오이타현	3
후쿠오카현	78	구마모토현	7
사가현	9	미야자키현	3
와카야마현	7	기 타	36
합 계 : 642			

〈표 7〉 재일학도의용군 연령별 출정현황

연령 (세)	인원 (명)	연령 (세)	인원 (명)	연령 (세)	인원 (명)	연령 (세)	인원 (명)
18	2	25	59	32	7		
19	42	26	45	33	9		
20	53	27	27	34	7	40	3
21	47	28	26	35	10	42	1
22	85	29	24	36	3	45	1
23	80	30	17	37	2		
24	81	31	7	39	4		
						계	642

재일학도의용군 자원참전자들은 대부분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던 30대도 상당수 참전했으며 더욱이 어린 고등학생에서부터 본국에 있다하더라도 징집연령을 훨씬 벗어났을 40대도 참전하고 있었다.

5) 임무 수행

642명에 이르는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어떠한 활약을 펼쳤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공식 기록은 제한되어 있다. 이는 매번 필요에 따라 미군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대부분 소속과 임무가 명확치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다룬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선에 투입된 이후에도 재일학도의용군들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미군 측의 명확한 입장과 운용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들의 임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의 전시 활약을 추적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의하면, 미군과 함께 인천항에 상륙한 초기 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부평의 미육군 제3병참기지사령부에서 일정기간 주둔하였다. 이곳에 배치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실제 전투가 아닌 군수기지 경비, 미군의 통역지원, 그리고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등 보조임무를 수행하였다.¹⁸⁹⁾ 그러다보니 조국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기대를 가지고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는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총을 들고 북한군과 싸우고 싶다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미군 측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들

189)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186.

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때 일본계 2세이며, 제2차 대전 시 이탈리아 전역에 참전한 바 있는 지미 고자와 중위를 주축으로 재일학도의용군만의 독립부대를 창설한 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¹⁹⁰⁾ 재일학도의용군들은 평소에 자신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던 지미 고자와(Jimmy S. Gozawa) 중위에게 실전에 참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토로하였고, 고자와 중위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상관들과 당시 제3병참기지사령관인 스튜어트 장군에게 전달하였다.¹⁹¹⁾

그는 이들에게 재일학도의용군만으로 단일부대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갖는 상징성과 그 효과를 역설하였다. 미군 지휘부는 고자와 중위가 제안한 독자적인 재일학도의용군 독립부대의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게 이들을 훈련시키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¹⁹²⁾ 경계나 공사, 물자관리 등의 지루한 임무만 수행하며 실의에 빠졌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자신들만의 단일부대 창설을 환영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의 독립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군 각 부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을 한곳으로 불러 모아야 했다.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참전한 학생들 중에서 전투부대에 배속되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대원들을 제외한 총 323명이 모집되었다. 한 곳에 모인 이들은 2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스스로 “3·1운동의 애국애족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3·1 독립 보병대대’라 부르기 시작하였다.¹⁹³⁾ 1950년 10월 30일에 미군 제3병참기지사령부 연병장에서 재일학도의용군으로만 구성된 독립부대가 창설되었다. 독립 보병부대가 편성된 직후에 미군 측은 이 부

190) 나중에 중령으로 고자와 중위는 예편한 이후에도 3·1 독립 보병대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에 이들에 관한 서신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월간 총력안보』 제49호, 1976년 11월호.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과 활동,” p. 70. 각주 30에서 재인용.

191)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189;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 161~162.

192)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190;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2.

193)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191;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71.

대의 훈련 담당 교관으로 한국군 교관을 초빙하여 이들에 대한 훈련을 맡길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¹⁹⁴⁾ 재일학도의용군들 역시 비로소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꿈에 그리던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였다.

그러나 독립 보병대대가 군사훈련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 뜻밖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어렵게 결성된 재일학도의용군만의 단독 부대를 해산하라는 것이었다.¹⁹⁵⁾ 당시에 3·1독립 보병대대를 해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군 부대의 참전 루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說)’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재일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사라졌다는 설(說)’만 남아있을 뿐이다. 결국 일부 부대원들이 침묵시위를 하는 등 해산명령의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전황의 변화로 인해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원래의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재일학도의용군들은 군번조차 부여받지 않고 정해진 소속이나 부대도 없이, 미군부대 주변의 경계임무나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¹⁹⁶⁾ 더구나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전황이 아군에게 불리해지자, 1950년 11월 중순경부터는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을 다시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군부대에 소속된 자신들의 입장에 불안감을 느낀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듭한 이후 국군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군 지도부와 육군본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섭을 통해 미군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국군으로 가든지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

194)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196.

195)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p. 196~197;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2.

196)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197;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72.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이러한 결정사항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모든 재일학도의용군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육군본부로부터 국군으로의 편입이 허용되자 이를 원했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1950년 11월 28일에 서울 남대문 부근에 있던 육군 제1보충대대에 입소하였다.¹⁹⁷⁾

재일학도의용군이 국군에 편입된 직후, 장교로 임관시킬 인재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던 육군본부는 이들에게 장교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⁹⁸⁾ 처음에는 육군본부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이들 중 일부가 이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는 보충대대에 시험관을 파견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쳐 30명의 간부후보생을 선발하였다.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들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하사관이나 병사로 국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부산 동래의 육군종합학교로 이동한 간부후보생 30명은 1951년 1월 18일부터 약 8주간 힘든 훈련을 받았으며, 그중 24명이 간부사관 제22기로 임관하였다.¹⁹⁹⁾ 이후 이들은 원하던 조국 대한민국의 정규장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격전이 거듭되고 있는 최전선으로 나아갔다.

한편 1950년 11월말 다수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이 국군에 편입되었으나, 이때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우여곡절 끝에 육군하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²⁰⁰⁾ 이들은 1950년 12월 중순경에 철수하는 미군을 따라 함선에 승선하였는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의 모지 항구였다. 미군을 따라서 하선한 이들은 그 지역 미군부대로 옮긴 직후, 일방적으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58명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이런 조치를 내린 미군 측에 항의하였으나, 별다

197)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p. 210~211;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3.

198)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4;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p. 74~75.

199)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213;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 166.

200)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p. 218~219;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p. 76~78.

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후 민단 중앙본부와 주일대표부까지 방문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1951년 2월 13일에 요코하마항에서 한국행 화물선을 타고 다시 부산에 도착하였다. 고국에 다시 돌아온 58명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1951년 2월말에 부산의 제2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훈련소가 육군 하사관학교로 바뀜에 따라, 육군하사관학교가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58명은 전원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었다.²⁰¹⁾

이처럼 약 80여 명의 재일학도의용군은 한국군의 간부로 임관되어 전후 방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전투병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이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단일부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개인 차원에서 뿔뿔이 흩어져 미군부대와 국군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행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결국 현재까지 남아있는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실전 기록은 대부분 구술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일학도의용군 출신 장병이 전쟁 자체의 양상을 바꾸거나, 한 부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공헌하였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부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

한편 6·25전쟁 기간 동안에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소속되었던 부대와 주

201)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220;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 173-175.

요 참전전투는 다음과 같다.²⁰²⁾

■ 소속 부대

- 국군 : 제1, 2, 3, 6, 8, 9, 11, 15, 22, 27, 29, 30, 37, 50사단, 제1, 2훈련소, 육군보병학교, 육군 제1103야전공병단, 제603경장비중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경비대, 육군 제65사단비행대, 육군본부 항공대, 제77비행기 정비중대, 제6비행기 정비대대, 제1군 사령부 항공과, 공군 제10전투비행대대
- 미군 : 제10군단, 제2, 3, 7사단, 제8군 예하 제3병참기지사령부(B), 제60본부중대, 제45부대, 제19병참부대, 제92화기중대, 제65탄약중대, 제330부대

■ 주요전투 참전

- 1950년 : 9월(인천상륙작전), 10월(원산 및 이원상륙작전), 11월(풍산, 갑산, 해산진 탈환작전), 12월(임진강·고랑포작전, 홍남철수작전),
- 1951년 : 5월(중동부 춘계공세작전), 10월(김일성 고지 탈환작전),
- 1952년 : 10월(백마고지 전투)
- 1953년 : 3월(저격능선 전투, 김화지구 전투)

5. 여자학도의용군

6·25전쟁 당시 여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수호를 위해 스스로 자원입대하여 전·후방에서 전투 및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은 육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공군, 심지어 유격대 등에서도 활동하였다. 이들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난을 당하게 되자 구국일념으로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참전하였다.

6·25전쟁 중 여자학도의용군은 다양한 성격을 띠고 활동하였다. 첫 번째는 현역신분인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비록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가 없었고 대부분이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202)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 323.

때문에 여자학도의용군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신분으로 자원입대하여 군번없이 전후방에서 활동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여자학도의용군이었다. 이들은 9·28 서울수복을 전후로 각 전투부대에 자원입대하여 행정업무지원과 간호활동 및 선무활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 번째는 여자의 몸으로 총을 들고 직접 유격대 활동에 참가한 경우이다. 전쟁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적 치하에서 지하투쟁을 하던 이들은 1·4후퇴 시 남하하여 유격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남성들 못지않은 활동을 통해 상당한 공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전투사단 후방지역에서 지원활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후방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등 보급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간호활동에 참여한 여학생들로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앞서 제시한 대로, 학도의용군의 범주에는 신분이 학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와 달리 여자라는 신분은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의 길에 나선 것은 숭고한 의무 이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학도의용군에서 학생의 범위를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학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친 미혼 여성 층까지를 준학생층으로 간주하여 확대 적용하였다.²⁰³⁾

(1) 형성 배경 및 조직 편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문교부는 학원의 사상통일과 훈련을 목적으로 전국학생총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전국학련 외에도 민족진영의 학생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범석의 민족청년단도

203) 본문의 내용은 육군본부 여군처 기획과장 오장경 중령이 1993년 1월부터 6월까지 여자 학도의용군에 관련된 자료와 대상자와의 면담 및 서신 연락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경향신문사, 「43년 만에 밝혀진 여자 학도의용군의 실체, 「뉴스메이커」 제28호 (1993. 6. 20) pp. 76-77. 참조

있었다. 문교부는 다양한 학생단체를 통합하려는 계획에 의거 1948년 10월에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을 결성시켰다. 학도호국단의 설치 목적은 학생의 사상적 통일과 유사시의 향토방위였다. 이후 1948년 12월에는 여자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선생 및 청년단원 130여 명을 선발하여 서울사범대학에서 여자 청년 간부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들 중 35명을 선발하여 육군사관학교 특8기생으로 남자들과 같이 3개월 동안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49년 8월 1일 육본특명 제164호에 의거 이들 중 32명은 제1기 여자 배속장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군인으로 탄생하였다.

6·25전쟁의 발발로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1기 여자 배속장교 출신 11명은 대전에 모여 여자의용군 창설을 결의하고 의용군 모병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전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대구와 부산으로 이동한 후 모집을 재개하여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1,000명씩의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지원자들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중학교 이상 대학교 학력 소유의 미혼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대구 매일신문의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중략) 당국에서는 여자들을 위하여 군문을 넓게 열었다. 여자의용군! 이야말로 북한괴뢰들이 강제로 징발이라는 것과는 그 본의가 판이하여 오로지 구국의 역군 참가를 요망하는 것이다. 남자가 제일선에서 총을 들고 멸적의 행진을 하는 한편, 여자는 그의 우방을 군사적인 행정, 계몽, 정보, 사찰, 간호 등을 담당하여 구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성스러운 일을 도맡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나머지 가일층의 분투로써 우리나라 대한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⁴⁾

1950년 9월 1일 국방부는 국일명(육) 제58호에 의거하여 부산의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 교육대를 창설하고, 초대 교육대장으로 김현숙

204) 대구 매일신문 사설 (1950. 8. 20).

소령을 임명하였다. 여자의용군 교육대는 대구와 부산에서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각기 250명, 총 500명을 여자의용군 1기생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부산 성남국민학교 교정에서 9월 4일 입소식을 실시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여자의용군 교육대의 편성은 대대본부와 권총중대 100명, M1소총중대 200명, 칼빈 소총중대 200명이었다. 여자의용군의 교육과목 편성은 주로 전투에 필요한 화기학 및 전술학 과목으로 실탄사격, 독도법, 야간훈련 등 보병으로서의 기초훈련 과정이었다. 1950년 9월 26일 여자의용군은 4주간의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소 인원 500명 중 중도에서 탈락한 9명을 제외한 491명이 수료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이 되었다.



자원한 여자의용군의 모습

1기생은 2기생과 함께 1951년 1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전방에 배치되었다. 여자의용군 교육대는 국일명(육) 제85호에 의거 1950년 11월 12일

부로 여자의용군 훈련소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8일 2기생 384명이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9·28수복으로 여자의용군 훈련소도 서울 일산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 18일 여자의용군 훈련소는 다시 부산의 서대신동에 위치한 경남상업중고교로 이동하였다. 제2기생은 12월 27일 약 3주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중도 탈락자 1명을 제외한 383명이 수료하였다. 이들 1, 2기생 중 12명의 우수자는 장교로 임명되었고, 부대 당 장교 1, 사병 9명씩을 편성하여 1950년 1월 12일부터 전방 12개 군단 및 사단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행정요원으로 G1-G5와 사단장실에 배치되어 문서연락과 필서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중공군 여군 포로병의 심문 시에는 통역의 임무도 담당하였다. 여군들의 숙소는 부대 내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는 피난지민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²⁰⁵⁾

이들 여자의용군 중 31명은 입관 후 정훈 1, 2대대에 배치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총반격을 개시한 국군은 파죽지세로 퇴각하는 적을 뒤쫓아 38선을 돌파하고 북한 지역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의 정치, 문화, 사상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북한 주민에 대한 대민 선무공작의 긴급성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관망하던 국방부와 육본은 이북의 완전 수복에 대비하여 학생들로 정훈부대를 편성, 그 지역의 선무공작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00여 명의 정훈·선무대원들은 황해, 평남, 함남, 강원지역에 진출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대거 파견하려고 모집한 것이 정훈대대였다. 정훈국장 이선근 준장의 건의로 1950년 11월 24일 국본 일반명령 (육)제109호에 의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정훈 제1대대(722부대)와 제2대대(773부대)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정훈대대의 발족이었다.

205) 여군단 『여군 33년사』 (1984. 5. 10). 참조 유순숙·홍소운·오기완 면담 (1993. 3. 31).

(2) 임무 수행

정훈대대의 임무는 북한 수복지구에 들어가서 공산분자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계몽 선전하는 여자의 몸으로서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정훈 제1대대는 장교 62명 중 여자의용군 장교가 15명, 사병 28명 중 여자의용군 사병이 20명과 문관이 180명으로 편성되었다. 제2대대는 장교 45명 중 여자의용군 장교 16명, 사병 30명 전원이 여자의용군 사병이 있었으며, 문관 120명으로 편성되었다. 정훈대대 내의 여자의용군은 총 81명이었다. 이와 같이 정훈대대 내의 여자의용군은 비중이 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효과도 높았다. 정훈대대는 전세의 변화로 이들 후속대원의 이북과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남한에서 대민선무, 부대정훈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여자의용군은 공비들이 준동하는 지역에서 선무방송과 공비들을 귀순 전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0년 12월 25일에 제1대대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충남·북과 전남·북을, 제2대대는 안동에 본부를 두고 경남·북을 중심으로 정훈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에 공비 귀순공작 활동을 펼치다 장렬하게 순국한 곽용순 여자의용군도 있었다.²⁰⁶⁾ 일반 학도병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훈대대의 학도병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였다. 정훈대원들의 급여와 대우 그리고 장비개선을 육본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훈대대는 1951년 5월 15일에 2개 대대를 통합하여 1개 대대로 편성하고, 1952년 1월 31일에는 전선이 안정됨에 따라 인원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장교 35명 중 여자의용군 장교는 1명, 사병 31명 중 여자의용군 병사는 15명과 문관 299명이었다.²⁰⁷⁾ 결국, 정훈대대는 1952년 9월에 대전에서 해산되었다.

206) 부산일보 (1951. 2. 9).

207) 육본 정훈감실, 『정훈50년사』, pp. 140-142.

전방에 배치된 여자의용군은 1951년 8월경에 대구 보충대로 철수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제대하였다. 이들의 제대사유는 주로 각급 학교의 개교에 따른 복교에 있었으나, 또 다른 이유는 전방의 전투지역에 직접 참가하기를 원하였으나 후방에서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여군의 모집은 체계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활용도 미흡하였다. 한편 제대를 하지 않은 여군들은 타자와 속기, 필서, 통신, 정보교육 등의 기술교육을 받았다. 또한 여자의용군 2기에는 추가로 예술대가 편입되어 국군의 위문활동을 통해 국군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수복과 함께 각급 학교가 정상화되자, 학생들은 속속 복교를 시작하였다. 당시 군은 병원 및 일선부대의 위문을 통한 장병의 사기양양과 전의 고양을 위해 예술대원을 모집 중이었다. 여학생들은 국군의 복상에 따라 2개월의 방학기간 동안 국군을 위문하고 귀교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각 학교 및 개인별로 자원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1월 4일 서울 일신국민학교 강당에서 기능별 시험을 거쳐 11월 7일 입소하였는데, 이들은 동덕여중 3명, 신광여중 3명, 수도여고 4명, 명성여중 2명, 한성여중 23명, 기타 5명 등 모두 40명이었다.

특히 한성여중은 밴드부 전원이 참가하였다. 예술대는 기능별로 연습을 하던 중 여자의용군 2기생이 서울 일신국민학교로 이동하자 12월 10일부터는 함께 훈련을 시작하였다. 여군예술대는 오전에는 군사기초훈련을 받았으며, 오후에는 기능별로 연습하였다. 2기생은 부산으로 철수한 후인 12월 18일 인천에서 IST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2기생과 함께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예술대는 1기생에서 1명과 2기생에서 9명이 추가로 편입되어 총 50명으로 편성되었다.

예술대는 1951년 2월 11일부터 공연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5육군병원을 시작으로 병참교, 간부후보생학교, 미군 함정, 마산병원, 마산 일반극

장, 부산극장, 부산 동아극장, 부산 제5육군병원 순으로 후방지역 공연을 실시하였다. 여름철에는 트럭 2대로 이동하면서 제3사단, 제6사단, 제7사단, 제9사단, 제11사단의 공연과 미군과 터키군 그리고 영국군 부대 등 외국군 부대에서도 공연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연 내용은 군악대 연주와 고전무(춘향전, 초립동, 화랑무, 궁무, 노들강변, 농악, 꼭두각시) 및 현대무용(거지와 소년, 장난감 병정), 그리고 한국 국악원 단원이 반주는 국악이었다. 예술대는 약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학업을 위해 1951년 12월 5일 경에 대구 보충대에서 전역하여 각급 학교로 복교하였다.

여자의용군 3기생은 중간에 상당기간 모집이 중단되었고, 그 공백 기간에 간호후보생반 1개 기와 하사관 후보생반 2개 기에 대한 기초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1953년에 여자의용군은 기술병으로 전환된 의용군 3기생이 입대 수료한 후 6·25전쟁이 끝나자, 이들 여자의용군은 “여군”으로 바뀌어 40여 년간 한국여성의 호국의지의 표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²⁰⁸⁾

(3) 해군과 공군 소속 여자 학도의용군

6·25전쟁 중에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제주도에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였다. 이때 자원입대한 3,000여 명은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이 중 126명은 여학생이었다. 이들 중에는 여교사와 여학교를 마치고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양성소에서 수련 중이던 20여 명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⁰⁹⁾ 여학생들은 1950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주동국민학교에 집결하였다. 8월 31일에 이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두르고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입대식을 가짐으로써 해병대 여자의용군이 최초로 탄생하

208) 여자의용군 2기생 출신인 오기완 증언(1993. 3. 31).

209) 여군 해병 출신인 홍정형 여사 일기 사본.

였다. 이는 육군 여자의용군의 정식 입소일인 9월 4일보다 시간상으로는 앞선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입대식을 마친 여자의용군은 다음날 제주를 출발하여 9월 2일 진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해 경화국민학교에서 간호장교들로부터 3주간의 신병 기초훈련을 받았다. 이 간호장교들은 1949년 4월 9일에 약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된 해군 간호장교들로서 중위 1명과 소위 20명 등 21명으로 편성되었다.²¹⁰⁾ 여자의용군의 교육훈련 내용은 남자와 동일하게 M1소총과 칼빈소총의 분해결합, 제식 훈련, 총검술, 사격훈련, 포복훈련 등으로 여학생들에게는 눈물겹도록 힘든 것이었다.

여학생들과 함께 출전했던 남자들은 9월 6일 부산에 도착하여 미 해병대와 함께 특별훈련을 받고 곧바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수복작전과 북진작전에도 참여하다가 철수 시에는 부산에서 이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다. 해군은 9월 20일 해병대로부터 여자의용군 126명을 인수하여 해군신병훈련소 특별분대를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해병대 여자의용군을 해군 여자의용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10월 10일에 3주간의 해군교육을 마치고 수료와 동시에 소위 2명, 병조장 4명, 1등병조 6명, 3등병조 15명, 상병 93명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 해군 여군은 해군본부(당시 부산소재)와 통제부(당시 진해소재)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해군 여군의 일부는 해군병원에서 간호임무를 맡기도 하고, 또한 예술대를 인솔하여 미 함정에서 창작극 등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해군 여군들은 국군의 압록강 도달로 남북통일이 임박할 무렵인 1950년 11월 23일부터 원에 의한 제대가 가능해졌다. 중

210) 동아일보(1949. 4. 14).

공군의 개입으로 1월 4일 서울에서 철수하였던 국군은 재반격을 개시하여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이후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회담이 개시되어 전선에 큰 변화가 없던 1951년 12월까지 해군 여군은 전원 제대하였다.²¹¹⁾

1948년 12월 1일 국군조직법(1948. 11. 30, 법률 제9호)에 의거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해양경비대가 해군으로 정식 개편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사령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되었다. 국방부는 1949년 1월 14일부로 경기도 김포군에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후의 공군의 모체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달 후인 2월 15일에는 여자 항공교육대를 설치하여 대장에 이정희 중위가 보임되고 제1기생으로 여자중학교 5, 6학년 재학생 중에서 모집한 15명이 입대하였다. 제1기생 15명과 제2기생 38명이 입대하여 53명이 교육을 받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여자 항공교육대는 해체되면서 귀가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4명은 귀가를 반대하면서 공군에서 근무하기를 자원하자, 공군은 이들을 통신·행정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들은 전쟁 중에 대구 정모과에 공군 여군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²⁾

(4) 의의

6·25전쟁 중 조국을 수호하다 이름 모르게 죽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굳이 세상에 그 공적을 내놓기를 꺼려했던 수많은 여자학도의용군들이 있었다. 이들 여자학도의용군은 최전선에 참가하기도 하고, 후방에서 행정업무지원 및 간호활동에 참여했으며, 나아가 유격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다양했으며,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자학도의용군의 참전은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귀한 생명

211) 여자 해군의용군, 『해군지』 1979년 12월호(1979), pp. 85-91.

212) 『공군사』 제1집(1961), p. 46.

을 비쳐가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이 종결되면서 전후의 재건에만 신경을 쏟았던 우리로서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베풀 여유마저도 가지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들을 불순한 동기와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뿐인 영광만을 간직한 채로 역사 속에서 망각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훗날 진실된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는 신념으로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참의미를 되새겨보려 하지만 살아 있는 자가 드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하였다.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발굴함은 물론 당시에 이들이 간직했던 조국에 대한 순수한 이상과 애정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6. 기타 학도의용군

(1) 강릉사범학교 학도의용군

강릉은 38선과 약 100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전쟁발발 전부터 북한군의 남침위협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인근의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의 기습위협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당시 강릉에는 강릉사범학교, 강릉상업학교, 강릉농업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었으며, 동해안 지구 학도호국단 총본부가 강릉사범학교에 자리잡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제8사단 제10연대와 삼척 부근에 제21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사단의 주력이었던 제10연대는 38선의 경비와 오대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고 있었다. 제21연대는 강릉 남방의 해안선 경비와 태백산 일대에 출몰하던 공비토벌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에 기습적인 북한군의 남침공격이 개시되었다. 이날 아침에 학도호국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집연락을 받고 강릉사범학교 운동장에 집합한 학생들은 호국단 담당교관으로부터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강릉이 실향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북한군의 선발대가 강릉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앞다투어 참전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때 자원한 학생은 34명에 달하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 이들은 강릉사범학교 교정에서 1개 소대를 조직하고 당시에 학도호국단 훈련부장이었던 최재환을 소대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강릉에 주둔하고 있던 제8사단사령부으로 입소하였다. 신고를 마친 이들은 즉시 임무에 투입되었다. 즉, 1개 분대는 사령부 지역에 대한 경비에 들어갔고, 나머지 2개 분대는 포탄 및 탄약을 트럭에 싣는 적재작업을 실시하였다. 학도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 6월 27일 15시경에 제8사단의 주력이었던 제10연대마저 많은 피해를 입고 강릉에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단사령부와 제10연대 후방기지에서 활동하던 34명의 학도병들은 각각 후방경비요원증을 지급받고 사단 인사참모의 지시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후 일부는 피난길에 올랐고, 또 다른 일부는 철수하는 제10연대를 따라 계속 종군하였다. 비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전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강릉사범학교 학생들은 부상병 후송과 각종 후방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으로 국군의 전투를 지원하였다.

(2) 진영학도의용군

1950년 8월 1일부터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한 국군과 유엔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는 문제였다. 국군은 8월 중에 급속한 병력 증강계획을 추진하여 신병훈련소를 설치하고, 매일 1,000여 명의 보충병력을 배출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군부대에도 카투스(KATUSA)라는 명칭의 한국군 병사들을 보충하여 전체적인 아군의 전투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당시 부산으로 천도한 우리 정부는 제2국민병 소집을 통해 전체적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급기야 많은 피난민이 모여 있는 부산과 대구 등 경상도 일대에서 가두 징집 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였다.

한편 6·25전쟁에 급작스럽게 참가한 미군은 인력 충원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산축소에 따른 미군의 감군정책과 서유럽 우선 방어정책을 추진하느라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가 지속될수록 미군의 사상자가 날로 증가하여 각 부대마다 신병을 보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9월 15일로 예정된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하여 부대를 운용함에 따라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에 임하는 부대의 병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였다. 따라서 당장 인원이 필요했던 미군부대의 지휘관들은 한국인 병사들을 충원하여 운용하는 임시방편, 즉 카투스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미군에 배속될 병력 보충은 징집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대대규모의 한국경찰로 구성된 국립경찰 화랑대대가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선 재일학도의용군이나 진영학도의용대와 같은 일부 지원병력들이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운용하였다.

진영학도의용대는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여한 학도의용군 조직으로 1950년 7월 20일경에 서울에서 피난 온 대학생 100여 명이 경남 진영에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진영학도의용대를 조직한 대학생들은 최초에 진영에서 학도의용군을 조직한 이후 활동하다가 9월 초에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었다. 미군부대에 배치된 학도의용군은 미군으로부터 기초적

인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을 마치자 각급 예비부대에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미군부대에 배치된 진영학도의용대 소속의 학생들은 불과 열흘 만인 9월 11일에 미 제25사단이 수행한 진동전투와 함안지구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들 중에는 전투에 투입되기에 앞서 태극기에 ‘결사보국 대한민국 만세’라는 혈서를 써서 어깨에 두르고 전투의지를 다진 자들도 있었다. 이어 함안 일대에서 벌어진 갓 템(God Damn)산 전투와 충북 연풍의 소백산 전투에도 참전하였는데, 소백산 전투에서는 다수의 적군을 생포하는 용맹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이후 전세가 안정되자 미군부대에서 전투경험을 쌓고 이후 국군에 편입된 진영학도의용대는 날로 증강되던 국군의 신설부대에 창설요원으로 편성되어 부대 신설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신설 부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국군 제9사단 제28연대에 소속된 최의연 대원의 경우 1950년 12월 강원도 현리에서 적에게 맞서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탄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적의 점령지역에서 숨어 다니다가 극적으로 생환하였으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1951년 11월에 제대하였다.

진영학도의용대는 또한 재일학도의용군처럼 미군에 배속되어 직접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였으며, 보급지원 및 경계임무 등 다양한 후방지역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전쟁 수행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이후 이들은 국군에 편입되어 북진작전, 후방지역 안정화 작전, 공비토벌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대원들이 중공군 개입 이후 후퇴과정에서 인명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와 국방부의 행정체계가 미흡하여 진영학도의용대로 출전한 이들의 명단과 자세한 인적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진영학도의용대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출전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

친 이들의 충정은 후세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3) 정읍학도경찰대

1950년 7월 초 전라북도 정읍경찰서장은 정읍농림학교의 교사인 손금만을 만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학교에 돌아온 손금만 교사는 교장 및 다른 교사들과 논의한 끝에 학도의용군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약 30여 명의 학생들로 학도경찰대를 조직한 손 교사는 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서장에 통보하였다. 이렇게 해서 약 30명으로 시작된 정읍학도경찰대는 대원들이 계속 늘어나 7월 4일에는 42명이 되었다. 당시 정읍학도경찰대의 임무는 첫째 공비 토벌작전에의 참여, 둘째 민심안정을 위한 가두선전 등이었다. 이에 따라 7월 17일 학도경찰대 소속의 학생 7~8명은 트럭을 타고 정읍 시가를 누비면서 선전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7월 19일을 전후로 북한군이 김제까지 진출하자, 손금만 교사는 경찰서장을 만나 학도경찰대가 경찰과 동일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원하는 학생은 모두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서에는 칼빈총과 수류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구식 소총밖에 없었다. 따라서 손금만 교사는 무기도 없이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학생들 스스로에게 전투참전의 의사를 맡겼다. 그런데 적의 급작스러운 기습공격이 가해지자 학생과 교사들은 일단 피신했다가 차후에 다시 기회를 모색하여 반격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전북지방 전역을 점령하면서 손금만 교사는 그들에게 붙잡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석방되었다.²¹³⁾

213) 손금만, 『6·25의 붉은 옥고』, 『6·25비화』 (자유평론사, 1979), pp. 285~302.

정읍학도경찰대가 무기를 확보하지 못해 북한군이나 공비들과 전투를 하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하며 은신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학생 신분으로서 공비토벌과 치안유지를 위해 학도경찰대를 조직하여 짧은 기간 이나마 활동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총 반격작전을 수행하며 북진할 때, 공비토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전 초기 학도경찰대가 결성되고 미약하나마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던 정신은 이후 아군의 재반격 시기에 정읍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칠보발전소 탈환 및 재가동작전에서 목숨을 내걸고 공비들과 싸우는 학도병 활동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칠보지역 학도의용군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전라북도 산간지역에서 공산군의 잔여 세력들이 빨치산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후방이 혼란스럽고 치안이 위험에 빠진 적이 많았다. 특히 1951년 1월 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라북도 정읍군 칠보면 시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칠보발전소가 적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다. 또한 적은 칠보, 용동 방면을 완전히 포위하고 시시각각으로 태인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미 포위된 칠보지서 대원 등 아군은 전멸위기에 놓여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제18전투경찰대대 제2중대, 칠보지서의 대원, 그리고 향토방위대 대원과 지역의 학도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아군 부대는 실탄이 떨어지고 식사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적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칠보발전소와 칠보지서의 함락이 경각에 달려 있던 시기에 제18전투경찰대대는 출동을 요청받았다.

당시 칠보지역 학도병을 포함한 아군을 포위하고 있던 적은 지형상 유리하고 견고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병력면에서도 빨치산은 2,000여 명 규모였으나 아군은 칠보 지서원과 향토방위대 대원, 학도병 그리고 제18전투경찰

대대 등을 모두 합해 불과 100여 명으로, 그 비율은 35:1 정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칠보지서와 칠보발전소를 사수하겠다는 아군의 의지는 견고했으며, 포위된 상황에서도 칠보지역에서 자원한 학도병들과 지서 대원, 향토방위대원은 서로 협동하면서 적과 싸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1951년 1월 13일, 비록 숫자는 중과부적이었으나 제18전투경찰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고 칠보지서에 도달하였다. 포위망을 뚫고 전진해 온 이들과 만난 아군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였다. 이때 학도병들은 우회갑 경위의 지휘 하에 지서 후방의 선왕봉 고지를 점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적들을 완전히 주변 지역으로부터 격퇴하기 위해서는 시산리에 있는 아군과의 협동작전이 필요하였다.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비록 1.5km 불과했으나 사방의 고지에 적들이 은거하고 있어 발전소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간의 연락이 필요하였다. 이때 한 학도병이 자신이 이곳 지리에 익숙하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시산리 발전소에 있는 아군에게 800m 고지인 장군봉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런데 전령에 자원한 학도병이 지서 밑의 개천 둑을 따라 전진하던 중 100m를 앞두고 남방고지에서 날아온 적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어서 자원하고 나선 다른 학도병도 200m쯤 전진하다 다리에 총알이 관통되어 또 쓰러졌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결국 명령서가 전달되어 칠보지서의 병력과 명령을 받은 병력들이 양면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급기야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적은 점차 도주하여 선왕봉 고지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아군은 선왕봉 고지를 따라 후퇴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다. 학도병들이 용감하게 나서 여섯 차례나 공격하였지만, 적의 압도적인 병력과 장

비, 화력으로 인해 매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쓴 일곱 번째의 공격에서 성공을 거두어 발전소 후방의 장군봉과 800고지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밀고 밀리는 육박전 속에서 적은 발전소 부근에서 완전히 퇴각하였다. 그때의 시각은 적과 교전을 시작한 지 11시간이 지난 17시경이었다. 17세의 정읍농고 학생인 김우술은 선왕봉 고지를 탈환할 때 학도병으로 용감히 싸워 제18전투경찰대대의 대대장이 그를 불러 공로를 치하할 정도였다. 1월 14일까지 계속된 탈환작전에서 학도의용군은 적 사살 68명과 M1소총 3정, 소식장총 2정, 수류탄 5개, 실탄 600발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칠보발전소를 수습하여 성공적으로 가동시킨 것이었다. 당시 칠보발전소는 강원도 영월발전소가 적에게 점거된 직후라 남한 유일의 발전소로 남한 일대의 송전을 도맡았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5) 제18전투경찰대대 소속 학도의용군

칠보지서와 칠보발전소의 포위망을 뚫어 아군을 구조하고 칠보발전소를 가동시켰던 전라북도 제18전투경찰대대는 반공과 애국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이 현지 입대하여 이루어진 부대였다.²¹⁴⁾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혀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과 그 동조세력은 지리산, 회문산과 내장산 등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펼치기 시작하여 전단 살포와 차량 및 지시 습격을 감행하며 경찰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을 보조하여 이들을 토벌할 전투경찰대의 증설이 요청되자, 전북경찰국은 1950년 12월에 전북도청 숙직실을 임시 대대본부로 정하고 대원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반공 및 애국정신에 불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폭격으로 타버린 옛 전라감영 자리에 있던 전주시의

214) 박기석 인터뷰(동아출판사 상무실, 1993. 10. 27).

전시 연합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서울 등지에서 피난온 대학생들에게 전투경찰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였다. 한때 그곳 학생이었던 이영구가 많은 사람들을 총용하여 약 40명의 지원자가 나섰다. 이때 공을 세운 이영구에게 경사특전을 주어 학사 출신들을 통솔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리 남성고등학교의 한준석과 박석친, 경남 함양 출신의 박선천 등 18~19세의 어린 학생들이 나이를 스무 살이라고 속여서 입대하였다. 이와 같이 제18전투경찰대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2월 15일에 200여 명의 대원으로 창설식을 가졌다.

이렇게 학생들이 중심을 이룸에 따라, 부대 구성도 학도병이 80~90%를 이를 정도로 현지 입대한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진 입대하여 공비토벌에 나선 학도병들에 대한 보급은 매우 빈약하였다. 특히, 의복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겨울에는 여름 옷 위에 미 육군에서 불하한 방한복을 입고 다녔다. 그리고 전투화가 없어 미 해군에서 나눠 준 방한모를 쓰고 다녔는데, 이것마저도 부족하여 복장이 제각각이었다. 또한 전투화가 없어 일제 때 일본의 탄광노동자를 위해 만든 구식 농구화가 보급되거나 각자가 알아서 짚신을 신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여 무주 구천동작전 시에는 후퇴하면서 죽은 공비의 전투화를 벗겨 한 짚은 버리고 한 짚은 신고 올 정도로 열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군화를 신는 것이 유일한 꿈일 정도로 군의 장비를 부러워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에는 매트리스가 없어 가마니를 깔고 각자가 집에서 가져온 이불을 덮었는데 엄동설한에도 난로는 고사하고 덮을 이불조차 없는 대원들이 많았다. 장비도 열악하여 99식과 38식 그리고 44식 소총이 주무기였으며, M1소총은 대대장 경호병이 소지한 단 1정에 불과하였다. 중화기도 소련제 82밀리 박격포 1문, 미제 60밀리 박격포 2문이 전부였다.

이들은 이와 같이 열악한 보급품 및 장비와 빈약한 훈련 속에서도 반공과 애국심, 자부심으로 악조건을 이겨내는 한편 매일 100리씩 걷고 야간근

무와 매복을 실시하면서 공비토벌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12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토벌을 명령받고 구이면으로 출전하여 토벌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951년 1월 10일부터 남한 유일의 발전소로 적에게 포위된 칠보발전소를 탈환하고, 50일간 칠보에 주둔하면서 발전소를 수습하였다. 또한 발전소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산내면 너머마을과 난공불락이라고 일컫던 독고봉을 중심으로 안시내 고지, 미수복지인 정읍군 산내면과 산외면 등을 탈환하였다.

이와 같은 전과를 거두면서 이들은 1951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고창 지역 작전을 수행하여 사살 165명, 생포 50명, 총기 151정을 탈취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3월 30일과 31일에는 주변일대 산악소탕전에서 북한군 군복 150벌, 불온문서 다수, 소련제 전화기 1대, 실탄 제조기 1대, 생포 152명, 각종 실탄 4,000여 발 등을 노획하였다. 20여 일에 걸쳐 전개된 고창지역 작전을 통해 고창 인근의 치안을 확보하고, 적 316명 사살과 182정의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서 1951년 6월 10일 전주에서 가까운 완주에서 암약중인 전주시당과 김제군당 등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혁혁한 전과는 그냥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수한 장비와 압도적인 숫자의 적이 산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쳤던 것에 비해 무기와 훈련이 부족한 제18대대 학도병들은 정신력이 전부였다. 당시 처자식이 있던 30대 초중반의 전투경찰에 비해 죽임이 두렵지 않고 사람은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배짱을 지닌 겁 없는 18~20세의 학생 전투경찰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하였다.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아군의 피해가 뒤따랐다. 전투가 있을 때는 하루에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이작전 3명, 칠보 공방전 12명, 고창수복 11명, 내장 및 덕태산 토벌작전 13명, 명덕리 탈환 및 고창 문수산, 완주군 주변 산악 전투 9명, 가마골 및 금산 남이면 전투

8명, 그리고 구천동 전투 33명 등 89명이 전사하였다.

이렇게 많은 인명손실 속에서 높은 전투력을 유지하여 혁혁한 전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은 대대장인 차일혁의 리더십이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지식인 학도병이라는 대원들의 동질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강한 자부심, 즉 ‘서로 의지하고 서로 목숨을 지켜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일을 한다. 우리가 이 지역을 방어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급도 좋은 제8사단에서 중사나 상사로 모시겠다고 군대로 들어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정도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존조건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눈 안과는 학생의 순수성으로 열심히 훈련과 작전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부심과 동질성, 그리고 사명감과 용감성이 밑받침되어 다른 어느 경찰 부대보다 강했고, 또한 혁혁한 전과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학생경찰대대는 지휘관인 차일혁 대대장이 1951년 11월 28일 무주 경찰서로 발령받아 떠나고, 전투경찰에 소속되었던 학생들이 다시 군에 입대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대대장의 강한 리더십이 없어지고, 학생이라는 부대원의 동질감과 자부심이 흐러지면서 부대가 변한 것이 계기였다. 1951년 말까지는 학생이 주축이었으나, 1952년부터는 학생들의 입대가 끊기면서 점차 학도병 부대의 성격이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학생들이 제18대대에 입대하여 경찰로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비토벌활동을 벌였지만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칠보발전소 탈환작전, 고창지역 작전, 이현상의 남부군 부대와와의 격전을 통해 혁혁한 전과를 거두면서 지리산 등 전북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공비토벌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지니는 순수함과 자부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동질성, 또 청년학생에게서만 보이는 용감성이 열악한 장비와 보급, 그리고 빈약한 훈련과 생사의 위협을 극복해낸 결과였다.

(6) 고창·부안지역 학도의용군

6·25전쟁 시 아군이 북진을 단행한 이후 고창, 부안 일대에는 북한군 패잔병 상당수가 모여 있었고 지방공비들의 기세도 대단하였다. 따라서 고창수복을 위한 몇 번의 경찰작전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창은 6·25전쟁 당시 전북도내에서 치안이 가장 위태로운 고장이었으며, 군경도 한동안 고창군 일원에는 쉽사리 접근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창경찰서 병력과 경찰 지원부대 1개 중대 등 250명이 1950년 10월 1일 전주를 출발해 고창에 들어가려 했으나, 정읍에서 차단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21일 아침에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가 출동하여 가까스로 고창읍을 수복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한동안 고창경찰서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는 대한민국이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인민공화국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경찰서 주변에 대울타리와 고압선이 둘러쳐졌고, 밤이면 경찰이 울타리 안에 축성된 망루에서 공비들의 기습에 대비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 단위 이하의 마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어 이듬해인 1951년 봄까지도 '낮은 대한민국, 밤은 인민공화국'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해 일단 읍이 수복되자, 고창경찰서는 군부대의 지원 아래 군 일원에 대한 수복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때 강한 반공적 기풍 위에서 고창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창학도의용대는 다른 지역의 학도의용대와는 달리 총기를 휴대하고 학교에서 합숙하는 등 완전한 군사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반공정신과 합숙훈련으로 다져진 학생들 중에서 치안이 확보된 연후에 공부를 하겠다는 고창중학생 60여 명이 결사대를 자원, 공비를 토벌하여 치안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산당의 치하에서 온갖 위협과 박해를 받고, 그래서 다시는 그 아래에서는 살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고창중학교 결사단원이었던 백웅기의 경우,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익 단체였던 학생연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고창중학교 동기생이었던 김병옥에 의해 고창지역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그를 연행해간 김병옥은 전쟁 전 민주학생동맹 활동으로 인천 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전쟁을 맞은 고창 청년 좌익계의 중심인물이었다. 연행해 간 다음날 새벽 그들은 연행해 간 사람들을 끌어내 집단학살했는데, 이때 그는 귀를 삼에 찍혀 먼저 땅바닥에 쓰러져 총탄세례를 피해 살아날 수 있었다.

전쟁 전 우익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문제가 돼 인공치하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백한기는 당시 전라북도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한동안 고향에서 학도의용대와 함께 행동하였다. 이렇듯 결사대학생들은 공산군의 점령치하에서 그들의 만행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남달리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용감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이왕 한번 죽었던 목숨이니 용감하게 토벌작전에 앞장서자’는 결심으로 학도의용대원 중 뜻있는 동지들이 모여 해리면 일대로 달려가 토벌작전의 최선두에 섰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백골 유격단’이라 불렀는데, 빨치산들은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할 만큼 용맹을 떨쳤다. 나중에 생포된 한 빨치산은 당시의 고창학도의용대가 너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자 빨치산 내부에서는 ‘저놈들을 건드렸다간 마을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할 정도였음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고창학도의용대의 태도와 활동은 좋은 모범이 되어 고창 학도들의 애국적 기풍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은 군대와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일조하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치안이 위태로웠던 지역이 다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²¹⁵⁾

215) 백선엽 『지리산』, 『한국일보』 (1991. 6. 11).

(7) 화순지역 학도의용군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적이 패주한 뒤인 10월 초순에 전남 화순군 이서면 연평마을에 이 고장에서 후퇴했던 경찰관들과 학도병들이 돌아왔다. 당시 마을로 복귀한 병력은 고작 20~3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나이 어린 학도병 몇 명이 마을에 주둔하였고, 경찰대는 도피한 무장공비들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마을의 방비가 허술한 것을 알아차린 무장공비들은 그날 저녁에 다시 이 마을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10월 2일에 마을로 들어온 무장공비들은 마을의 유지인 김광준의 집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튿날 새벽 02시경에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학도병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 학도병들은 경찰과 함께 공비들이 잠입한 김광준의 집을 급습하였다. 갑작스런 급습을 받은 무장공비들은 혼비백산해서 담을 뛰어 넘어 도망을 쳤으나, 미처 도망하지 못한 패잔병 2명과 공비 3명이 사살되었다. 경찰대와 학도병들은 마을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달아난 무장공비들을 추격하였다. 이후 김광준의 집 근처에는 학도병 3명이 경계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나,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30여 명의 무장공비들이 새벽에 불의의 습격을 가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또 공격한 곳은 김광준의 집이었다. 무장공비 약 30여 명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은 학도병 세 명은 미처 대항하거나 경찰에 연락하지도 못하고 두 명은 붙잡히고, 한 명은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때 무장공비들은 김광준의 가족도 모두 몰살하였다. 무장공비가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학도병 본대가 몰려들었으나, 이미 많은 희생이 발생한 다음이었다. 아군 지원부대가 등장하자 적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무장공비 3~4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평마을에는 무장공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날 연평마을에서 도망치던 무장공비 30여 명은 아군 군경의 포위망에 걸

려 모두 사살되었다고 한다.²¹⁶⁾ 이처럼 연평마을에서의 학도의용대가 비록 적을 토벌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언제 야간에 습격을 당하여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키다 전사한 것은 학생들의 기개와 용감성을 드높이 보여준 것임을 알 수 있다.

(8) 보성지역 학도의용군

6·25전쟁이 발발한지 5개월이 지난 1950년 11월, 당시 공비들의 만행에 분개한 청년학도들은 평소 훈련도 못 받았지만 총을 메고 조국과 민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학원 내에 적색분자의 침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본연의 자세확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학생총연맹 보성지구 일원으로 활약한 사람들이었다. 전라남도 보성지역에서는 문용주를 비롯하여 30여 명의 학도들이 조국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급우들 사이를 갈라놓은 안락한 붉은 무리들을 이 땅에서 섬멸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섰다. 임두학 학생이 단상위에 올라가서 손가락을 깨물어 ‘멸공통일’이란 혈서로써 굳게 다짐하는 등 학도의용대라는 기치 아래 보성전투경찰대와 합동하여 군내 공비토벌작전에 자진 참가하였다.

1950년 11월 10일 13시 보성군 북내면 진봉리 살치부락 뒤 험준한 산골에 20여 명의 무장공비가 출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보성전투경찰기동대 50명과 학도의용대 30여 명이 현지에 출동하여 치열하게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토벌대와 무장공비들은 서로 목숨을 걸고서 최후의 1인까지 싸웠다. 박격포와 수류탄이 터지고 소총과 기관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대와 학생들은 공비들과 용감히 싸웠다. 막다른 골목에서 잔당 몇 명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간 후 돌아다보니, 침투한 공비들

216) 김선숙, 「명석말이 살인자들」, 『6·25비화』 (자유평론사, 1979), pp. 347-352.

은 거의 전멸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학도의용대원인 문용주 대장과 이중재 대원이 발악적으로 쏘아댄 공비들의 흉탄에 맞아 꽃다운 젊음을 간직한 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비들의 준동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12월 9일 15시경에 다시 보성군 문덕면 가내부락에 또 다시 무장공비들이 출현하였다. 정보를 입수한 보성경찰서 전투기동대와 학도의용대 일동은 작전차량에 몸을 싣고 급거 현지에 출동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비들을 완전 섬멸시킬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의 희생이 컸고 학도의용대원도 다수 전사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의 활약이 있을 때마다 우리측 대원들의 사기는 날로 더욱 충천하였다.

1951년 3월 8일 11시 보성전투경찰 30명과 학도의용대원 27명이 노동면 명봉리 산악지대에서 준동하는 공비토벌을 위한 춘계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전투경찰대의 계속적인 기동작전에 산속 깊숙이 잠입한 공비들은 아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압축되자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으로 기습을 가해왔다. 그러나 사기충천한 전투경찰기동대와 학도의용대는 영웅적인 섬멸작전을 통해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9) 청주지역 학도의용군 - 백훈단

충북 청주의 반공학생들은 1950년 7월 1일 백훈단(白魂團)을 조직하였다. 학련 충북도연맹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영을 위시하여 약 200여 명의 학생으로 조직된 백훈단 대원들은 경찰과 제1군단 육군정보처와 연결되어 후방에서 준동하는 오열을 색출하고, 청주 시민의 질서있는 피난을 돕는 등 맹활약하였다. 이후 단장 김진영은 학련 간부들과 협의하여 전원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으나, 전세의 급격한 변화로 입대하지 못한 채 다시 남하하여 대전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집결된 충북 학련출신 학도는 2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구에서 육군 특무

부대에 파견되었고, 대구 시내의 10여 개 검문소에 배치되어 오열색출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청도, 창녕 지구의 빨치산을 소탕하고 의성, 안동, 김천 지구의 적 후방에 침투하여 적정을 탐색, 정보를 육군에게 제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일부는 9·28 수복 후 청주로 되돌아와서 국방부 정훈국 학도호국의용대를 조직하여 주로 선무공작 및 군경과 협동 하에 잔비소탕전에 투신하였다.

한편 1950년 7월 16일, 대구에서 철저한 반공정신으로 건국과정에 헌신했던 전국학생총연맹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학련구국대를 결성하고, 전국학련구국대 총본부는 참모총장 정일권 장군과 회동하여 학도병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였는데, 이때 육본의 정보요원으로 정옥재 등 500여 명을 투입시키기로 하였다. 김진영 등 충북학련 구국대원들은 김영오 대위와 함께 제5반에서 활동하였는데, 주요 임무는 피난민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오열색출과 중요 생산공장과 철도수송 관계의 제반 내사 등을 담당하였다. 또 이장식 등은 육군본부의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피난민수용소에서 난민을 가장한 첩자를 색출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들은 또 경북 청도, 창녕 지구에 출몰한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에도 대거 참여하여 크게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²¹⁷⁾

공산군은 총공격 전에 반드시 북한군을 피난민으로 가장시켜 후방에 침투시키는 후방교란작전을 펴고 있었다. 그들은 전선에서만 전투를 하려는 유엔군을 배후에서 기습함으로써 유엔군의 작전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정부는 긴급히 그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방으로 침투하는 공산계릴라와 오열의 수색 및 토벌은 경찰과 학도병만이 최적격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조병옥 내무부장은 경찰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8월 초에는 치안경찰과 전투경찰을 구분하여 병력을 증강시켰다. 이때 학생들

217)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p. 539-548.

은 신국봉, 이재복, 송창성 등이 조직한 학도치안대와 유구항, 정규현 등이 조직한 학도경찰대 등을 포함하여 전투경찰에 투신한 학생 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²¹⁸⁾ 9월 4일, 학련구국대는 조병옥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도경찰대를 조직하였는데, 이때 학련 간부출신인 유구환 등을 중대장으로 기용한 50여 명의 학도경찰대가 1주간의 특수훈련을 이수하고 후방치안을 담당할 요원으로 기용되었다. 이들은 지리산 공비토벌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기도 하였다.²¹⁹⁾

(10) 인천학도의용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인천지역의 각급 학교는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결로 인해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당시 학교에서 좌익 세력과 대립하던 우익 학생들이 결집한 대표적인 단체는 전국학생연맹(전국학련)이었다. 당시 인천에서는 인천상업중학교(6년제, 現 인천고등학교)의 이계송을 중심으로 전국학련 인천지부를 결성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날 저녁 인천지역의 전국학련 출신 학생들과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송현동에 있는 이계송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이계송은 인천상업중학교 학도호국단 연대장과 전국학련 경기도 연맹위원장을 지낸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정연옥, 성효경, 이기관, 염상건 등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로 결의하고 학생조직체를 만들기로 약속하였다. 이튿날 신흥초등학교 옆 답동에 있는 정토사에는 약 4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전인천학생의용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계송을 의용대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정토사를 본부로 하였

218)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 563.

219) 『한국 학생건국 운동사』, pp. 548-549.

다. 그리고 이기관, 염상건, 김영택 등 인천상업중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원으로 가담하였다.

다음날 이들은 인천동에 위치한 해군헌병대를 찾아가서 총기를 지급받은 뒤 인천 시내의 주요 관공서를 경비하며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1950년 6월 28일 인천지역 경찰 전원이 수원으로 철수할 때까지 인천 시내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7월 4일에 인천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자, 전인천학생의용대의 대원들은 이후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인 피난 생활을 하였다.

1950년 9월 15일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인천이 수복되자, 북한군 점령 치하에서 숨어 지내던 전인천학생의용대 대원들은 다시 이계송 의용대장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1950년 9월 25일 인천 제1공회당(現 인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대한학도의용대 경기도본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발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후 이 조직은 인천학도의용대로 불리워졌다.

당시 인천학도의용대의 본부는 인천여고 앞 선학양조장 2층에 위치하였으며, 각 지역에 지부 및 예하 조직을 두고 있었다. 당시 지부로는 북구, 동구, 서구, 중구, 영종, 남동, 계양, 강화, 강화남, 주안, 부평, 해성지구 등이었다. 당시 이들의 주된 임무는 시민계몽과 북한군에 대한 부역자 색출, 치안유지, 피난민 안내활동, 군입대 알선 등이었다.

그러던 중 1950년 10월 말에 중공군이 참전하자, 12월 초에 국방부 정훈국 인천과견대와 인천학도의용대는 대원 전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인천을 떠나기로 결정한 인천학도의용대 지도부는 12월 18일에 인천 축현국민학교에 모여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함박눈이 펄펄 내렸다. 이들은 함박눈을 맞으면서 동인천 광장을 지나 도원고개를 넘고 경인도로를 따라 걸다가 구월동을 지나 안양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냈다. 이때 나이가 어린 학생 일부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기

도 하였다.

인천을 떠난 인천학도의용대는 12월 22일 경 대구에 도착하여 앞서 간 동지들과 연대장을 만나 그 동안의 경과를 들었다. 이들은 대구에서 육군 본부를 찾아가 학생증과 인천학도의용대의 대원이라는 증명을 교환받고,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를 떠났다. 도보로 밀양과 삼랑진을 거쳐 절반은 창원, 마산, 통영의 방위군 훈련소로 향했고, 나머지는 부산으로 갔으나 모두 배편으로 마산으로 집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산행 화물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이후 마산에서 약 3일 정도를 지냈는데, 이때 마산시청의 배려로 각 가정집에 분산되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후 육군본부가 다시 이들에게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자, 인천학도의용대 본대는 이동을 시작하여 1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본대에 앞서 인천학도의용대의 이동과 차후 행동에 대한 절차를 협조하기 위해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였다. 선발대의 일원으로 출발한 염상건 대원은 해병 제1연대 본부로 찾아가 “우리들은 인천에서 내려온 인천학도의용대원들인데, 인천에서 3,000여명이 출발하여 남하하고 있다”고 보고한 후 인천학도의용대의 해병대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해병 제1연대는 선발대 중 30여 명을 골라 1951년 1월 1일부터 합숙훈련을 시킨 후 20일 후에 훈련을 마친 학생들을 해병대 각 연대본부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대한 이들은 인천학도의용대로 남하하여 첫 번째로 입대한 해병대 5기 특채 입대자들이었다.

1월 20일경에 선발대 중 30여 명이 입대하자, 4일 후인 1월 24일에 나머지 본대 600여 명이 해병대 6기로 입대하였다. 이들은 인천학도의용대의 두 번째 입대자들이었는데, 이때 입대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16~18세였고,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15세가 갓 넘은 이들도 있었다. 약 2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인천학도의용대 소속의 대원들은 1951년 2월 10일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고, 보병과 포병으로 나뉘어 각급 부대에 배

치되었다.

한편 인천학도의용대 본대가 마산에 도착하자, 지휘부는 대원들의 진로를 찾기 위해 대구의 육군본부를 찾아갔다. 당시에 나이가 많아 지휘부에 속해있던 학생들은 어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이계송 의용대장 일행이 육군본부에서 복귀하였다. 지휘부는 마산으로 복귀하자마자 즉시 진해 해병교육대로 찾아가서 인천학도의용대 대원들의 해병대 지원에 대해 문의한 후, 통영방위군 수용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과 마산에 분산되어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을 이끌고 육군본부에서 지시한 대로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진국민학교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 입소하였다.

부산에 도착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 입소한 이들은 약 2주에 걸친 단기 훈련을 받았다. 제2훈련소에 도착했을 당시까지도 인천학도의용대 대원들은 대부분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이후 훈련이 시작되고 1주 정도가 지나자 중공군 방한복과 비슷한 외투, 밀양직 군복, 일제군화 등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약 2주간 모포가 한 개씩 지급되었지만, 깔고 잘 요가 없어 마대 속에 벼짚을 넣어 듬성듬성 꿰맨 자루를 마룻바닥에 깔고 잤다. 식사 역시 밥그릇이 모자라 프라이팬 뚜껑, 물컵 등에 먹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다. 군사훈련은 제식훈련과 소총사격법을 포함한 기초적인 전투 관련 훈련이 전부였다.

당시에 인천학도의용군 대원들은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자신들은 국민방위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훈련 입교 1주일 만에 학도병들에게 군번이 부여되었다. 육군본부는 이들을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약 2주간의 기초훈련이 끝나자, 인천학도의용대 출신의 신병들은 대부분 통신 병과로 분류되어 유선교육대와 무선교육대에서 실시되는 4주간의 추가교육을 받았다. 추가교육기간 중에는 육군통신학교를 자주 방문하여 훈련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기초훈련기간에 비해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주와 같은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당시 육군통신학교에는 신봉순 대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는 인천에서 내려온 100여 명의 여학생 대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원래 인천학도의용대 소속의 여학생들은 부산으로 이동하자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육군통신학교의 신봉순 대위를 찾아갔다. 이후 이들은 신봉순 대위의 지휘 아래 여군복으로 갈아입고 약 3개월 동안 육군통신학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인천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신봉순 대위의 주선으로 다시 인천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육군 제2훈련소에서 군번을 부여받고 추가적인 통신병과 훈련을 받기 위해 유선교육대와 무선교육대로 이동했던 인천학도의용대 대원들은 훈련을 모두 마친 후 전후방 각지의 부대에 배치되어 적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원래 인천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인천학도의용대라는 학도의용군 단체 출신이었지만, 육군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은 육군의 각급 부대로 흩어져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어도 4~6년 동안의 군복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1) 군산학도의용군

6·25전쟁의 발발로 북한군의 침략이 개시되어 국토가 적에게 유린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후방 각 지역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급하게 전개되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군산사범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선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전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군산사범학교 4, 5, 6학년 학생 약 90여 명은 학도의용군으로 출전하기로 결의하고 자발적으로 전선으로 출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

시 군산사범학교는 남녀 각 1개 학급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학급당 학생수는 60명 정도였다. 따라서 4, 5, 6학년 남학생 총 18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0여 명이 학도의용군으로 나선 것이다.

1950년 7월 13일 군산을 출발하여 전주를 거쳐 남원에 도착한 군산학도의용군은 야간행군을 통해 함양을 거쳐 경남 사천까지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기진 배를 주먹밥으로 채우고 이동하느라 체력이 고갈된 어린 학생들은 졸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도랑에 빠지는 등 그야말로 고난의 강행군이였다. 사천에 도착한 군산학도의용군은 국군부대를 찾아가 훈련을 요청하였으나, 소총을 지급받지 못해 한 달여 동안 목총으로 훈련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였다.

이후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8월 18일이 되자 육군본부는 군산학도의용군을 기차를 이용해서 부산진으로 보냈고, 이곳에서 해군 수송선인 LST편으로 포항 남쪽의 구룡포 해안으로 보내졌다. 바로 이곳에서 대부분의 군산출신 학도의용군들은 육군 제3사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최초로 군복과 소총, 철모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사격훈련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3사단은 이들에게 이들에 걸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고작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교육을 끝낸 후 8월 21일부터 포항, 안강, 기계 방향의 전투지역에 투입되었다. 군산출신 학도의용군들이 참전한 지역에서는 포항 북방의 천마산을 포함한 많은 무명고지에서 피아간에 빼앗기고 빼앗는 혈투가 전개 되었는데, 특히 형산강 전투에서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어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군산과 전주 등 호남지역에서 학도의용군으로 나선 학생들의 숫자는 700여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202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5 장 휴전 이후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 시기별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지속되던 6·25전쟁이 1953년 7월에 휴전이 체결되자 우리 사회는 전후복구를 위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3년 간 지속된 파괴적인 전쟁이 우리 국민의 인명뿐만 아니라 귀중한 재산 역시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고아원 등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바로 이러한 공공시설과 분야를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이겨내고 부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전쟁을 경험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재건에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차 전쟁에 의한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중지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각계각층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발적 열정과 관심의 증가였다. 그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각급 학교를 재건하거나 증축하는 일은 전후재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전후 재건임무를 담당하던 유엔군 담당자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중시하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드러났던 것은 심지어 6·25전쟁 중에도 확인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6·25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51년 2월 28일에 정부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학생들에게 학교 복귀령을 하달하고, 3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학생 복귀령을 지시했던 것이다. 1951년 초에 중공군 참전 이후 위기에 빠진 전선이 점차 안정되고, 이후 유엔군이 주도하는 아

군의 반격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감에 따라 정부는 개전 초기부터 위기의 상황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펜 대신 총을 잡았던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이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배려로 인해 6·25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전투 및 비전투 행위를 수행하던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것이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이들의 손실은 그 자체가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951년 2월과 3월에 정부와 대통령이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남아있던 학생들 중에서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보다 돌아가지 않은 학생의 숫자가 더 많았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시에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학도의용군이나 학도병의 신분으로 지원하였다가, 나중에 군번을 부여받고 정식으로 군 복무를 하던 이들 중에는 1951년 후반부터 격렬하게 전개된 고지쟁탈전 등에서 중공군 및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도 많았다.

한편 휴전 이후 5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들 중에는 당장 학교로 복귀하기보다는 생계 때문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인생의 역정이 급하게 선회하고 만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학생의 신분이었다가 전쟁발발과 동시에 전쟁에 참전하여 활동하던 학도의용군들에게 1951년 2월과 3월에 정부와 대통령의 담화와 지시에 의한 학생 복교령은 중요한分水령이 되었다는 점이다. 1951년 초 학교로 복귀한 이들은 학업을 계속하였고, 이들의 높은 학력은 장차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기여하였음

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1958년부터 1961년 사이에 새롭게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 사유는 6·25전쟁에서 학도의용군으로 활약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은 전쟁 중에도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전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6·25전쟁 초기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은 이후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반면 1951년 초에 학교로 복귀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휴전 이후 제대하였으며, 일부는 장교와 부사관의 길을 택해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도 하였다. 제대한 이들 중 학교로 복귀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을 잡는 등 생계를 해결하는 일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6·25전쟁 초기에 학도의용군이나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한 경험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앞서 1951년 초에 학교로 복귀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휴전 직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관심의 핵심이었던 제일학도의용군은 별도로 두더라도, 1955년부터 생환학도병(生還學徒兵) 혹은 생환학도의용군(生還學徒義勇軍)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소위 ‘학도의용군’과 ‘학도병’ 혹은 ‘학도의병’으로 구분되는 단체들의 정체성(identity)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1. 휴전 ~ 1950년대의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6·25전쟁의 휴전 직후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관심의 가장 앞자리에는 항상 제일학도의용군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중 대부분이 참전의 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많은 인명손실을 입는 등 고귀한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²²⁰⁾ 특히 제일학

도의용군 중 상당수가 한국과 일본의 외교마찰로 인해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642명으로 인해 6·25전쟁 전체의 흐름이 바뀌거나 혹은 이들의 역할이 한 부대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재일학도의용군은 각자가 속했던 부대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다른 동료 장병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참전 동기였던 애국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사 52명, 실종 83명 등 135명이 희생되었고, 이에 버금가는 인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심각하였다. 이들 중에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약 240여 명이 휴전이 체결될 때까지 각종 전투에 참가하면서 재일학도의용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럼에도 휴전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재일학도의용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들의 참전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참전초기부터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던 국방부 관계자들 중에는 이들로 인해 일본군이 참전했다는 루머가 돌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우리말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병영에서 ‘왜놈’이라는 편견 섞인 대우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과 동료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²²¹⁾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겠다는 애국심 하나만으로 참전한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각박한 대우는 서럽고 눈물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화된 시점은 휴전 직후 일본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재일학도의용군 242명의 입국을 반대했

220)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49.

221)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pp. 31~33.

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였다. 1952년 4월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국권을 회복한 일본이 아직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이들의 일본 재입국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²²²⁾ 일본으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한 재일학도의용군의 딱한 사정은 곧 국내언론으로부터 동정을 얻기 시작했으며, 신문과 방송이 이들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였다.²²³⁾ 전쟁 내내 이들을 외면하던 우리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재일학도의용군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직업을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서 그나마 이러한 정도의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참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많은 인명손실을 입는 등 고귀한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²²⁴⁾ 그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 중 국내잔류자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문교부가 직접 나서 25명의 학도의용군을 국내 대학에 편입시키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²⁵⁾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정부는 이들의 일본 재입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수수방관하였다. 그 결과 비록 이들의 불쌍한 사연이 소개되어 사회 각계와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연말연시에는 매번 위문과 격려의 대상으로 널리 소개되기도 했지만,²²⁶⁾ 일본과 한국 중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던 이들의 상황은 점차 비참해지고 있었

222) 조선일보, 1954년 10월 1일자, 4면; 한국일보, 2000년 9월 14일자;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88. 각주 56에서 재인용.

223) 경향신문, 1953년 8월 1일자, 1면

224)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49.

225) 경향신문, 1954년 10월 31일자, 2면.

226) 경향신문, 1956년 9월 6일자, 2면.

다.²²⁷⁾

그리던 중 1958년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인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추모탑을 건립하고, 전몰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²²⁸⁾ 이후에도 재일학도의용군은 매년 거행되는 현충일 기념행사나 6·25전쟁 추모행사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학도의용군에 대한 원호 및 보훈정책에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이었다. 또한 주요 일간지나 방송이 학도의용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선정하여 소개하였기 때문에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학도의용군에 대한 이미지의 많은 부분은 재일학도의용군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학도의용군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55년 8월에 서울시 영등포구 흑석동에 학도의용병 충혼비 제막을 계기로 생환학도의용병들이 재결속하여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결성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학도의용병들의 단체는 1955년 10월 16일에 동아일보에 “학도의용군 출신 동지에게 고향”이라는 소형 광고를 게재하고, 그날 오후에 서울체육관에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1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와 전국 8개 도에 지부 결성을 완료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창립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였다.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업은 학도의용군 및 학도병의 격전지였던 포항, 인천, 낙동강 등지에 전몰(戰歿) 학도의용군 동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탑 건립운동이었다. 이를 위해서 1956년 8월 13일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결성 1주년

227) 조선일보, 1954년 10월 1일자, 2면; 1956년 8월 29일자, 3면; 경향신문, 1956년 8월 29일자, 3면.

228) 경향신문, 1958년 10월 3일, 3면.

기념식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노량진에 건립된 현충비를 참배하고 “호국의 신으로 순직한 전몰학도병의 영복을 비는 추도식을 거행하였다.”²²⁹⁾ 한편 서울을 제외하고는 경북 포항에서 가장 먼저 학도의용병으로 참전한 이들에 대한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1957년 6월 30일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경북지부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6·25전쟁 중 포항전투에서 산화한 학도의용군 47명에 대한 위령제 형태로 포항여자중학교 교정에서 개최되었다.²³⁰⁾

한편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중앙본부에서는 군번없이 참전한 학도의용군 및 유가족 누락자 등에 대한 전체 인원 파악을 위해서 참전 당시 발행한 증명서류를 통한 등록을 시도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재건 및 회원 확보에 체계적으로 나섰다.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이러한 조치는 1956년 4월에 원호처에서 공포한 “4283년 12월 20일부터 4284년 5월 12일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전사한 자 중 미등록자와 학도의용군으로서 병적에 편입되지 않고 전사한 자 전원의 유가족에 대하여 사금과 위문 광목을 지급하리라 하며, 서울지구 대상자는 전원 빠짐없이 당 병사구사령부에 등록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등록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1개월간이라 하는데, 동 기간 중에 등록 누락되면 차후 원호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 한다.”²³¹⁾는 공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를 포함하여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 혹은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들 사이에 일대 혼란과 반목을 불러온 계기는 바로 1957년의 병역법 개정과 그에 따른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에 대한 병역면제 결정이었다. 이 사안은 언론이 병역법 개정과 그 이듬해에 공포된 시행령의 적용 대상, 즉 병역면제 대상자로서의 학도

229) 경향신문, 1956년 8월 13일, 2면.

230) 경향신문, 1957년 7월 3일, 4면.

231) 동아일보, 1956년 4월 7일, 3면.

의용군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소개하면서부터 사회 전반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된 병역법에 대한 따갑지 않은 시각에 더불어,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에 대한 병역면제는 아무래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와 전혀 달리 비판적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바로 소위 ‘생환 학도의용병’ 출신자들이었다.

1957년 8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제62조는 “(1)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 괴뢰 집단의 침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이하 학도의용군이라 약칭한다.)는 군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2) 전향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정하였다.²³²⁾ 이처럼 자격을 갖춘 학도의용군을 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되자, 병무당국에서는 1958년 초부터 관련법 시행령과 요강 작성을 서둘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도의용군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강이 필요하였다.²³³⁾ 또한 시행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병무당국에서는 미리 학도의용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자들에게 등록하도록 공고하였다.

그런데 1958년 초에 등록이 시작되자 전국 각지에서 학도의용군 참전을 명분으로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병무당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당시에 병무 관계자들이 추산한 학도의용군 복무자수는 대체로 1,115명 정도였는데,²³⁴⁾ 실제로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

232) 동아일보, 1957년 8월 1일자, 1면.

233) 경향신문, 1958년 3월 30일자, 2면.

234) 경향신문, 1958년 6월 8일자, 2면.

며 신청한 자들이 이를 훨씬 넘어서자,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결국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1,200명 정도로 간추렸으나, 국방부와 병무당국이 공동으로 2, 3차에 걸쳐 엄격하게 재심한 결과, 그 중 절반인 600명만 최종 예비역 편입 대상자로 판정되었다.²³⁵⁾ 그리고 1959년 2월에 학도의용군으로 정식 인정받은 600여 명에 대한 제1예비역 편입이 이뤄진 이래 1961년 9월까지 3차에 걸쳐 예비역으로 편입된 학도의용군은 모두 1,844명이었다.²³⁶⁾

흥미로운 사실은 1958년에 자신이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다고 신청한 숫자가 고작 1,200여명 정도였으나, 병역당국은 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판단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약 절반에 해당하는 600여 명에게만 병역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적발된 허위신고 및 과장된 사례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상적으로 학도의용군으로 활동한 실적이 인정된 경우에도 고작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병역 자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따가웠다. 학도병으로 자원하였다가 군번을 부여받아 군대에서 5~6년 동안 복무했던 자들 중에는 병역면제 대상자들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²³⁷⁾ 이처럼 병역면제의 대상으로 고려된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달갑지 않은 시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달갑지 않은 시각은 1960년 초에 정부가 6·25전쟁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자들에 대한 예비역 편입을 일체 폐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일 단락되었다. 즉, 국방부가 1958년부터 1960년 초까지 수시로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정의 조사를 거쳐 통과

235) 동아일보, 1959년 2월 3일자, 4면.

236) 각주 23 참고.

237)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2011년 2월 21일).

한 자들에 대해 병역법 제62조에 의거해서 예편시켰으나, 일부 참전자들이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었다.²³⁸⁾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병역법 개정과 이를 계기로 학도의용군 참전자에 대한 병역면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 생환학도의용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는 1950년대 후반에 반공을 기치로 보수 및 우익적 성향의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1958년 5월에는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혁명군을 돕자는 반공시위를 펼쳤다. 또한 1959년 1월에는 이승만 정권 말기에 추진한 친여계 청년단체 통합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자유당이 차기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계의 각 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이때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는 ‘청년문제연구회’, ‘국민회청년건설대’, ‘반공통일청년회’, ‘대한반공단’ 등과 함께 통합 대상으로 선정되었다.²³⁹⁾ 물론 이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나서서 ‘대한반공청년단’에 통합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회원들은 대한반공청년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⁴⁰⁾

한편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는 전국 조직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지도이념과 반공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한 웅변대회, 결의대회 등을 주관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 무분별한 서양문화의 수입으로 문란해진 우리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담배 근절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 및 정신 호도에도 앞장섰다. 이와 더불어 장택상, 장준하 등과 같은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시국좌담회

238) 경향신문, 1960년 12월 28일자, 1면.

239) 경향신문, 1959년 1월 29일자, 3면.

240)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학도의용군실전기: 개요』, p. 28.

를 개최하는 등 정치적인 색채의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물론 학도의용군 참전자 중에는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원과 처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경무대에 제출하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도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를 중심으로 매년 6월 6일 전몰 학도의용군의 충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국민들의 반공의식과 더불어 애국심 함양에 적잖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전 직후부터 195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에 관심의 중앙에는 제일학도의용군이 있었으며, 1955년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결성된 이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한 이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소위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자리하였다. 이들은 또한 매년 6월 전몰 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대회를 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반공정신과 애국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 단체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하였다.

2. 1960 ~ 1980년대의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1960년대도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내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형성한 보수 및 우익 단체로서의 성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또한 제일동포학도의용군과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를 비롯한 학도의용군 단체들의 이러한 이미지는 반공과 보수적 성향의 정책을 구사한 박정희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대표적인 보수우익의 관변단체로 성장해 나갔다. 이처럼 1960년대 초에 형성된 학도의용군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즉, 1950년대 후반에 자리잡은 전몰 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도행사와 각종 반공 및 멸공행사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이 갖는 이미

지 형성과 정착은 박정희 정부와의 밀월관계 형성으로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처우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은 정치 상황의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내에 잔류한 재일학도의용군 개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된 시기는 1960년대 초반 이후였다. 특히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처우개선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5·16 직후의 군사정부였는데, 이때 군사정부는 군사원호보상법(제648호)을 제정할 시 재일학도의용군도 포함시켜 이들도 정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은 1968년 8월에 공포된 대한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원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법률 2029호)받고, 이어 정착수당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 이후 1985년 1월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742호)의 개정으로 보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일본지부 회원 및 유족들도 연금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다.²⁴¹⁾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전몰자를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시작된 것 역시 1960년대의 일이다. 우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정착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은 매년 6월 말과 10월 1일, 혹은 9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와 부산의 소림사에 모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먼저 세상을 뜬 동지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때마다 각 방송사와 신문들이 이들의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²⁴²⁾

이와 같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 열기는 참전자 중 일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조직확대로 연결되어 더욱 성

241)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p. 88-89에서 재인용.

242) 국제신문, 1979년 10월 2일자 1면; 동아일보, 1979년 10월 3일자, 4면 등.

황을 이뤘다. 동지회의 역대 회장이나 간부들이 매년 6월, 9월, 10월에 주요 일간지나 잡지에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여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다시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²⁴³⁾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일학도의용군은 매년 거행되는 현충일 기념행사나 6·25전쟁 추모행사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체였으며, 학도의용군에 대한 원호 및 보훈정책에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향상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단지 신화적 혹은 동정적인 차원에서만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언론과 방송들이 점차 이들의 참전 경위와 동기, 훈련과정과 참전절차, 참전 이후의 활약, 그리고 일본 재입국 거부 등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²⁴⁴⁾ 또한 故 박두원, 우지식, 이활남 등 참전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 및 국가 유공자 지정으로 연결되면서, 뒤늦게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에 달하였다.²⁴⁵⁾ 그러한 분위기에서 1990년대 초에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가 발간되었으며, 2002년에는 참전 이후 각종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재일학도의용군의 열(魂)』이라는 자료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²⁴⁶⁾ 또한 주요 일간지나 방송이 학도의용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재일학도의용군을 선정하여 소개하였기 때문에,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학도의용군에 대한 이미지의 많은 부분은 재일학도의용군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243) 경향신문, 1958년 10월 3일, 3면.

244) 『재일학도의용군의 열』, pp. 394~396.

245) 『재일학도의용군의 열』, pp. 394~396.

246) 『재일학도의용군의 열』, p. 395.

1960년의 4·19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으나,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도의용군들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걱정하면서 전몰 학도의용군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1960년 6월 30일에는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주관으로 추도행사를 전몰 학도병에 대한 위령제 형태로 거행하였다. 이 위령제는 포항지구 전투에서 순국한 학도의용군 영령(48위)들의 전공을 추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점차 잊혀져가는 전쟁과 희생자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11월에는 반공사상을 촉진하기 위한 햇불행진을 서울시청에서 거행하였는데, 이 행사는 국민 반공사상 재무장 촉진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반공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의 행사에서는 ‘국민의 반공사상을 철저히 고취 촉진하여 반공통일에 정진하겠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²⁴⁷⁾

한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보수단체로서 정치 활동에 가담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가장 먼저 장면 정부 시절에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남북통일 논의에 대해 학도의용군 단체가 나서서 “남북협상 빠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를 비롯한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당시에 “남북협상 운운은 준비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자체에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의 움직임은 무조건 억제하지만 말고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해서 북한의 실정을 탐지 검토하여 조국통일의 묘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다.²⁴⁸⁾

이와 같은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이들이 반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247) 동아일보, 1960년 11월 9일, 4면.

248) 경향신문, 1961년 5월 14일, 3면.

함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군사혁명을 지지하고 나선 곳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학도의용군 단체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우익 단체와 결합하여 5월 20일에 ‘반공군사혁명환영대회’를 개최하였는데, ‘4월 혁명학생동지회’, ‘서북반공청년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5,000여 명의 군중이 운집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다. 특히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최영방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군사혁명을 열성적으로 지지환영하며, 4·19 이후 헤이해진 반공정신을 재무장하자”고 호소하였다.²⁴⁹⁾

이처럼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직의 활동과 사업을 더욱 반공으로 지향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보수 우익단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학도의용군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홍보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긴밀한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었는데, 그 결과 1960년대 초에 서울과 각 지방에 학도의용군 전몰자들에 대한 묘지 조성, 기념탑 신설 등 추모운동의 붐이 조성되었다.²⁵⁰⁾

이중에서도 1962년 8월에 포항에서 개최된 학도병 추도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끄는 행사였다. 사실 이날의 행사는 정부가 이미 8월 초에 학도의용군 묘지 등 ‘반공유적부활운동 사업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갑자기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당시의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반공애국유적부활운동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1962년에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포항 학도의용군 묘지, 설악산 지구 전적비 등을 건립키

249) 동아일보, 1961년 5월 20일, 2면.

250) 동아일보, 1962년 8월 1일, 3면.

로 하고, 그 비용을 일반과 학생들에게서 모금 각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²⁵¹⁾ 학도의용군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그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포항에서는 불과 1주일 후에 대규모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8월 11일의 추모행사에는 학도병들을 직접 지휘했던 부대장인 김석원 장군이 학도병 생존자 및 유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²⁵²⁾ 이러한 행사는 포항의 추모행사에 자극을 받은 인천, 전주, 대전, 진영, 태백 등지로 확산되었고, 이후 각 지방에는 해당 지역 학도의용군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행사가 정례화되었다.

한편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사례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로 부상했던 상황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되어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며 열띤 성명전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전래환 회장은 국교정상화 비준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과 단체가 비준에 찬성하는 이유를 “우리의 큰 적은 일본보다 공산침략이고, 국민 자세의 위축 분열이다. 일본의 재침이 협정문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²⁵³⁾ 한편 1972년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역시 앞장서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전래환 회장은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구국의 길, 통일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려는 중대한 기점에서 새 헌법안을 절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다.²⁵⁴⁾

251) 동아일보, 1962년 8월 1일, 3면.

252) 동아일보, 1962년 8월 13일, 4면.

253) 동아일보, 1965년 7월 31일, 2면.

254) 경향신문, 1972년 10월 30일, 2면.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었다 하더라도,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보수 및 우익적 성향의 학도의용군 단체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재일학도의용군이나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도의용군들이 베트남 파병, 10월 유신 등의 사안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자,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정치 현안이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2·12 군사정변을 통해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출범 직후 재향군인회(在鄉軍人會)를 확대, 재편하면서 학도의용군을 포함한 6·25참전 단체들을 모두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모든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원호단체(援護團體)의 하나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던 대표적인 학도의용군 단체인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도 포함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전 정부를 지지하던 관련 단체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를 제외한 학도의용군 단체, 특히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해체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후 모든 학도의용군 추모행사와 주요 정치관련 성명 등에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제외되었다. 즉, 이 시기에 학도의용군 관련 거의 모든 언론의 관심과 행사는 재일학도의용군에 한정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던 학도의용군 단체들의 자체적인 행사와 사업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후원에 의해 시작된 학도병 출신 남상선의 『6·25와 학도병』의 출간이었다. 이것은 6·25전쟁 당시 수도사단에 소

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던 71명의 학생들을 모체로 하여 후일 북진대열에 참가했던 국군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실전을 기록한 저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이었다. 이 저서는 국군 제3사단 후방지휘소인 포항을 기습한 적을 맞아 11시간의 혈전을 벌이다 산화한 포항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38선을 넘어 북진하여 수복지구에서 전투와 선무공작 등으로 크게 공헌한 학도병들의 감격적인 기록을 많이 담고 있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 책이 “6·25전쟁을 모르는 전후 세대들에게 24년 전 학생들이 무엇을 했던가를 증언해 주고 있으며, 저자가 학도병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있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할 정도였다.²⁵⁵⁾ 하지만 제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모든 학도의용군 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되자, 각 지역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다양한 학도의용군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제5공화국이 재향군인회를 결성하고, 학도의용군 단체들을 원호단체로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재향군인회의 산하단체로 편성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났다.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 학도의용군 단체를 대표하며 중앙회의 성격으로 활동하던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해체됨에 따라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분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이들의 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다시 말해 학도의용군은 점차 역사의 주인공으로만 기억될 뿐 이들이 전후 세대의 인식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3. 1990 ~ 현재 학도의용군 단체와 활동

1980년대 제5공화국 기간 동안에는 제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다면 학도

255) 경향신문, 1974년 7월 25일,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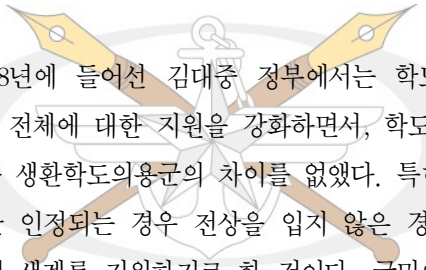
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기회는 찾기 힘들었다. 물론 매년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거행되기는 했으나, 학도의용군 참전자들만을 기억하기 위한 별도의 행사나 계기는 거의 없었다. 이는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세력으로 활동하였던 것을 문제삼아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후원이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6·25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늘어나는 전후세대들에게 있어서 6·25전쟁은 과거의 하나일 뿐,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참전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90년 6월 25일에 학도의용군 단체에 대한 통폐합이 철폐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에 약 10여 년 동안 멈춰졌던 학도의용군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의 모습은 그 이전과 많이 달랐다. 우선 1990년대 초반은 국가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저변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다양하게 자리 잡던 시기인데,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초에 나타난 학도의용군 단체의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동안 학도의용군 단체의 전국 중앙회 역할을 해 오던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중앙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반영되어 조직의 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외에도 참전 단체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여 개의 학도의용군 단체가 생겨났다. 그 결과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재향군인회 예하의 친목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협력단체에, 6·25참전 태극단 전우회, 장사상륙작전유격동지회,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6·25참전 학도병동지회 등도 함께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학도의용군 단체가 난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급기야 이들 사이에 정통성을 주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전국에서 다양하게 생겨난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도의용군을 포함한 6·25참전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1992년에 정부는 6·25전쟁이 진행중인 1952년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참전자 및 제대군인들의 다양한 단체를 모두 통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한 재향군인회를 국방부 산하에서 국가보훈처 산하로 변경하였다. 이는 6·25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처우가 국방정책에서 보훈정책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도의용군 단체의 활동도 점차 자신들의 6·25전쟁 참전을 호국보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였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6·25전쟁 관련 각종 충훈탑, 비석, 공원 등 추모의 공간과 조형물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 이후 학도의용군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확대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학도의용군 참전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유사한 처지의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이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때 다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전면에 나섰으며, 이후 학도의용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한편 1993년에 육군본부 여군처에서 시작한 올바른 역사찾기 운동 중 6·25전쟁 중 활약한 여자 학도병 관련 연구 결과는 의외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육군본부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이후 전국적 규모의 학도의용군 연구에 불을 지폈으며, 그 결과는 1994년에 최초의 공간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출간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의 모교였던 서울대학교에서는 1996년 6월 25일을 맞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1950년 전쟁발발 후 현역과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전사자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각 학도의용군 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재개되고 소위 ‘망각된 역사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학도의용군 단체들 사이에 이상한 역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1951년 3월에 학교 복귀령에 의해서 학교로 복귀한 이후 1959년에 병역면제를 받았던 ‘순수한 학도의용군’과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으나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이후 1955년에야 제대했던 소위 ‘생환 학도의용군’ 사이의 갈등이었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용군에서 찾으려는 단체와 학생신분임을 강조하여 학도병을 중시하는 단체로 구분하여 서로 간에 신경전이 전개된 것이다. 특히 생환학도의용군 중심의 단체에서는 ‘순수한 학도의용군’에게 집중된 정부의 처우와 사회적 관심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도의용군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자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학도의용군의 경우 순수한 학도의용군과 생환학도의용군의 차이를 없앴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전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 국가유공자로 분류하여 생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은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30여 년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나, 다른 참전자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참전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재일동포학도의용군을 제외한 학도의용군 처우에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들을 모두 6·25전쟁 참전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획일화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다양한 학도의용군 단체로부터 불만을 샀다. 특히 의용군의 입장을 강조하는 단체와 학도병의 입장을 강조하는 단체 사이에 정통성의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는 지속되고 있다.

과거 자신들의 행적에 대한 법적 대우와 실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참전했던 학도의용군 개인과 단체의 의견 차이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의 애매한 태도로 말미암아 6·25전쟁의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적에게 낙동강선까지 물리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자원 출병한 것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국가보훈처나 정부 당국의 자세는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어느 학도의용군 참전자의 넋두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 학도의용군의 평가와 의의

1. 학도의용군의 활동에 대한 평가

(1) 국군과 유엔군의 전시 병력충원에 기여한 점

6·25전쟁 개전 초기 낙동강 교두보까지 후퇴를 거듭했던 국군에게 부여된 긴급임무 중의 하나는 병력의 보충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계속된 국군의 후퇴로 호남은 물론 영남의 일부지역까지 적의 수중에 놓이게 됨에 따라 충원이 가능한 지역은 경남과 경북 등 2개 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군의 창설 역사가 일천한 시점에서 제대군인과 같은 예비군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집도 중단된 상태에 있어 미입영 대기 장정도 없었다. 이후 미군과 함께 낙동강방어선으로부터 총 반격전을 전개하게 된 국군은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의 소요가 예상되었으며, 이중 20만 명은 신병으로 보충되어야 할 실정이었다.²⁵⁶⁾ 따라서 1950년 7월부터 제2국민병 소집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 시기는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피난민의 집산과 병사기구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가두소집이나 강제모병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병력충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한 세력이 자원병들이었다. 여기에는 소년병이나 학도의용군과 같이 입영 적령기에 이르지 못한 나이 어린 자들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생략된 채 부족한 무기와 장비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초기전투에서 많은 인력을 손실함으로써

256) 추가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판단은 1. 한국군 10만 명을 25만 명으로 증강해야 하고, 2. 한국군 3만 명을 유엔군에 편입시켜야 하며, 3. 월 평균 2~3만 명에 달하는 인력손실에 대한 보충인력이 필요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 1986 p. 272.

발생한 병력충원의 문제는 한국군에게 가장 급박한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국방부도 필요병력의 적시충원에 인사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8월 4일 무초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군의 병력을 제한했던 미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인 NSC 8/2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전해왔다.²⁵⁷⁾ 한국군의 편제를 10만 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한국정부는 대량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초기의 병력증원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한 소요병력의 판단과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 지역 방위임무와 병력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목적 아래 지역별로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신병보충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²⁵⁸⁾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등 4개 지역에 병력보충을 위한 지역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구별로 2개의 신병교육대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제1), 부산진(제2), 구포(제3), 삼랑진(제6), 진해(제7) 등지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신병보충에 임하였다.²⁵⁹⁾ 이러한 노력으로 제1군단이 평택에서 재편성을 시작하여 재배치될 때까지 각 사단의 병력 수는 급속도로 증가되어 3개 사단의 병력이 거의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그동안 분산되었던 병력이 원 소속부대로 스스로 찾아 모여들고, 또 낙오자들이 소집되어 충원되었는가 하면, 대한청년단원 및 학도병들이 자원하여 현지입대하는 등 여러 보충원에 의해 신속하게 증원되었기 때문이었다.²⁶⁰⁾ 특히, 대폭적인 병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학도의용군들의 참전은 일부나마 병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257) FRUS, 1950, Vol. 7, p. 526.

258) 국방군사연구소, 『6·25전쟁지원사: 인사·군수·민사지원』, 1997, p. 153.

259) 50동우회, 『국군의 뿌리 : 창군·참전용사들』

260) 김행복, 『6·25전쟁의 전쟁지도 : 한국군 및 유엔군 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11.

(2) 국군과 유엔군의 전황반전에 기여한 점

학도의용군의 전투활동은 급박했던 전황을 아군하게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초기부터 학도의용군은 수도사단 의용대의 시흥지구 전투참여를 시발로 후퇴하는 국군을 도와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특히, 북한군의 주요 남침로인 동해안 방면에서는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 포항전투에서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적의 진격을 저지시켜 국군으로 하여금 전력을 재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였다.

당시 전황은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 방면으로 진출, 대구의 동부를 위협하며 부산으로 진격할 계획에 있었다. 반면 길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방어선이 와해되어 의성으로 철수함으로써 청송-기계 축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적 제12사단은 방어공백지대를 이용하여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기계를 점령함으로써 포항이 피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강구에 위치한 국군 제3사단 전술지휘소에서는 침투한 적의 일부 병력에 의한 박격포 사격을 받아 지휘소 요원이 분산되고 한동안 지휘체제가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8월 10일 저녁에는 흥해 남쪽의 냉천동 일대에 적 1개 연대가 출현하여 포항으로 접근함으로써 사단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8월 11일 미명에 북한군 제766부대 일부 병력이 포항 시내에 침투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포항에는 군경·학도의용군 등 2개 소대의 경계병력만이 위치해 있었다. 이때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장갑차 5대를 선두로 하여 공격해오는 적과 정오까지 사격전을 전개하였고, 이 전투에서 47명이 희생되는 피해를 입었다.²⁶¹⁾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결사적인 지연 방어전투로 인해 국군은 전력을 재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261) 『6·25전쟁』 (상), pp. 333~336.

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는 많은 탄약 및 보급품 등 군수품을 안전하게 구룡포로 철수시키고 형산교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는 낙동강 교두보의 한 축인 포항-기계 방면의 방어를 가능하게 하여 총반격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황을 반전시키는데 기여한 학도의용군의 또 다른 활동사례로는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동상륙작전을 지적할 수 있다.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사전에 동해안의 장사동에 상륙하여 양공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실제적인 면에서도 포항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의 배후를 위협하여 아군의 재반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작전인 동시에 많은 위협성을 내포한 작전이었다. 따라서 기습의 달성여부는 작전의 성공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엔군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에 앞서 최대한 기만작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상륙지점을 기만하기 위해 군산, 삼척, 진남포 등에 대한 상륙이나 함포사격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사동상륙작전도 북한군의 관심을 인천의 반대편인 동해안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였다.

또한 이 작전은 동해안에 투입된 적의 배후를 급습함으로써 적을 혼란에 빠트리고 동시에 아군에 미치는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군은 가능한 한 많은 전투력을 인천으로 전환하되 낙동강 전선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 전선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격대대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²⁶²⁾

따라서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동상륙작전은 적이 전혀 예상할

262) 『모래톱에 묻힌 충혼』, p. 88.

수 없는 병력을 적의 배후에 투입함으로써 그들을 혼란에 처하게 하고, 전선의 정면에 투입해도 모자랄 전투력을 후방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국군과 유엔군의 전의 진작에 기여한 점

학도의용군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 외에도, 후방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민간인과 국군 장병의 전의를 진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전쟁수행에 일조하였다. 전쟁초기에는 대한학도의용대 등을 통해 정훈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였을 때부터 학도의용군은 수복지역의 치안유지와 대민 선무공작을 전개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불가피하게 철수할 때에도 웅진학도유격부대 등은 이북 지역에서 게릴라활동을 전개하여 중공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또한 서울학도포병대의 경우는 밀려오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선이 고착된 다음에는 후방지역에서 전개된 공산게릴라 토벌작전에 선무공작 요원으로 참여하여 게릴라의 귀순을 종용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공헌하였다.²⁶³⁾

학도의용군은 6·25전쟁의 발발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자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 참전하였던 의용병들이다. 이들은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6월 29일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를 조직하여 노량진 전투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아군이 전반적인 전세를 장악하고 병력충원제도도 점차 정비되어 원활한 병력충원이 가능해진 1951년 2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의 참전 학도 복교령이 공포되고, 또한 4월 3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훈공작대가 해산됨으로써 6·25전쟁에서 학도의용군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다.

263)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p. 330.

6·25전쟁의 수행과정, 특히 전쟁초기의 전황반전에 적지 않게 공헌을 하였던 학도의용군의 활동은 적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방어체계가 와해된 국군을 도와 직접 수행했던 정규작전의 참여, 적진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통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교란작전을 전개하는 비정규전 수행, 그리고 국군의 반격으로 험준한 산악에 들어가 국군의 작전 및 치안을 교란하던 공비에 대한 토벌작전 참여, 수복지역에 대한 대민 선무활동은 물론 후방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민-군간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학생집단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편성하여 참전하였으며, 또 일부는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 군부대에 예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입대하여 정규군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6·25전쟁 기간 동안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이 국군이나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군이나 미군에 배속된 학도의용군들이 부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 항상 통합된 지휘관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식 기록에도 이들의 전투수행이나 전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자생적으로 태동했던 수많은 지역학도의용군은 물론이고, 강릉사범학교 학도의용군이나 진영 학도의용군, 그리고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같이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조직들도 참전 학도의용군이 거의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대한 실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6·25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학도의용군의 활동과, 그것이 전쟁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미진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은 전쟁 초기의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후방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군은 물론 주민의 전의 진작에 이바지하였다.

2. 6·25전쟁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의

6·25전쟁에서 활약한 학도의용군이 누구이며,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 외에도, 과연 지난 60여 년간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해 왔고, 어떻게 대우해 왔는가?를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이미지 변화를 검토하는 것 역시 학도의용군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는 재일교포 학생을 포함한 동포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서 일본으로 복귀하지 못한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휴전 직후와,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 사안이 제기되었던 1957년의 병역법 개정과 실제 적용을 둘러싸고 대상자들과 병무당국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졌던 시기였다.

휴전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와 언론의 관심의 핵심에는 항상 재일학도의용군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참전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많은 인명손실을 입는 등 고귀한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²⁶⁴⁾ 특히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 중 상당수가 한국과 일본의 외교마찰로 인해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본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고,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정착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특별 원호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²⁶⁵⁾ 그리고 1958년에는 정부가 나서 인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추모탑을 설치하고, 전몰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행사를

264)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p. 49.

265) 조선일보, 1954년 10월 1일, 4면.

개최하기도 하였다.²⁶⁶⁾ 이후에도 재일학도의용군은 매년 거행되는 현충일 기념행사나 6·25전쟁 추모행사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체였으며, 학도의용군에 대한 원호 및 보훈정책에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이었다. 또한 주요 일간지나 방송이 학도의용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선정하여 소개하였기 때문에,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학도의용군에 대한 이미지의 많은 부분은 재일학도의용군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57년에 개정된 병역법과 그 이듬해에 공포된 시행령의 적용대상, 즉 병역면제 대상자로서의 학도의용군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와 전혀 달랐다. 1957년 8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제 62조는 “(1)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 괴뢰 집단의 침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는 군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2) 전향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정하였다.²⁶⁷⁾ 이처럼 자격을 갖춘 학도의용군을 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되자, 병무당국에서는 1958년 초부터 관련법 시행령과 요강 작성을 서둘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도의용군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강이 필요했던 것이다.²⁶⁸⁾ 또한 시행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병무당국에서는 미리 학도의용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자들에게 등록하도록 공고하였다.

1958년 초에 등록이 시작되자 전국 각지에서 학도의용군 참전을 명분으

266) 경향신문, 1958년 10월 3일, 3면.

267) 동아일보, 1957년 8월 1일자, 1면.

268) 경향신문, 1958년 3월 30일자, 2면.

로 병역면제를 신청한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다. 당시에 병무 관계자들이 추산한 학도의용군 복무자 수는 대체로 1,115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²⁶⁹⁾ 실제로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자들이 이를 훨씬 넘어서자,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결국 엄격한 서류를 거쳐 대상자를 1,200명 정도를 간추렸으나, 국방부와 병무당국이 공동으로 2, 3차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그 중 절반인 600명만 최종 예비역 편입 대상자로 판정되었다.²⁷⁰⁾ 그리고 1959년 2월에 학도의용군으로 정식 인정받은 600여 명에 대한 제1예비역 편입이 이뤄졌다. 이후 1961년 9월 까지 3차에 걸쳐 예비역으로 편입된 학도의용군은 모두 1,844명이었다.²⁷¹⁾

흥미로운 사실은 1958년에 자신이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다고 신청한 숫자가 고작 1,200여 명 정도였으며, 병역당국에서는 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약 절반에 해당하는 600여 명에게만 병역면제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적발된 허위신고 및 과장된 사례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상적으로 학도의용군으로 활동한 실적이 인정된 경우에도 고작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병역 자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따가웠다. 학도병으로 자원하였다가 군번을 부여받아 군대에서 5~6년 동안 복무했던 사람들 중에는 병역면제 대상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²⁷²⁾ 이처럼 병역면제의 대상으로 고려된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달갑지 않은 시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69) 경향신문, 1958년 6월 8일자, 2면.

270) 동아일보, 1959년 2월 3일자, 4면.

271) 1957년 8월 15일에 공포된 병역법 제62조와 동법 시행령(1959. 2. 18)의 적용을 받는 학도의용군 참전자(육군)의 참전자 내역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1996년 9월 11일 육군본부에서 확인 발행한 이 명단에 포함된 총 인원은 1,844명이며, 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판정이 이뤄졌다. 특히 5·16 직후에 이뤄진 마지막 예비역 편입 판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272)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 (2011년 2월 21일).

결국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달갑지 않은 시각은 1960년 초에 정부가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자들에 대한 예비역 편입을 일체 폐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즉, 국방부가 1958년부터 1960년 초까지 수시로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정의 조사를 거쳐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병역법 제62조에 의거해서 예편시켰으나, 일부 참전자들이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증빙서류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기회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었다.²⁷³⁾

학도의용군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다른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1955년 10월에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이 발기하여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켰으나, 전몰 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행사에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참이 지난 1960년이 처음이었다.²⁷⁴⁾ 그 이전에 학도의용군에 대한 신문 기사는 원호정책 차원에서 학도의용군 전몰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알리는 광고가 고작이었다.²⁷⁵⁾

그런데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등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1960년대 초반부터 반공을 지향하는 보수우익단체로 성격을 바꾸어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학도의용군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었는데, 그 결과 1960년대 초에 서울과 각 지방에 학도의용군 전몰자들

273) 경향신문, 1960년 12월 28일자, 1면.

274) 경향신문, 1960년 6월 25일, 3면.

275) 동아일보, 1956년 9월 1일, 4면.

에 대한 묘지 조성, 기념탑 신설 등 추모운동의 붐이 조성되었다.²⁷⁶⁾ 또한 이를 전후해서 포항에서 활약하다 순국한 48위에 대한 추모행사가 공개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으며, 포항의 추모행사에 자극을 받아 이러한 추모행사는 인천, 전주, 대전, 진영, 태백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각 지방에는 해당 지역 학도의용군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행사가 정례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회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었다 하더라도,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보수 및 우익적 성향의 학도의용군 단체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55년에 서울에서 출범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는 창설 초기부터 반공 및 보수적 성향의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주요 정치사안마다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범여권 세력에 편입되어 신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단체의 보수 및 우익적 성향은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집권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절정을 이뤄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의 중앙 조직과 각 지부는 한일 외교 정상화, 미준, 베트남 파병 등을 포함한 주요 외교사안, 땅굴 발견 등 주요한 북한의 안보위협 사례, 그리고 10월 유신과 같은 정치 현안에서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핵심 관변단체로 자리잡았다.²⁷⁷⁾

그러나 일부 언론과 야당은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되어 정치 현안이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철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학도의용군 단체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공과 보수적 성향을 고수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우익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비슷한 성향의 다른 단체들과 달리, 학도의용군 단체들이 통합된 전국 조직이나 중앙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276) 동아일보, 1962년 8월 1일, 3면.

277) 경향신문, 1972년 10월 30일, 1면.

지금까지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으며,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침체된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용어 정의, 대상 및 범위를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학도의용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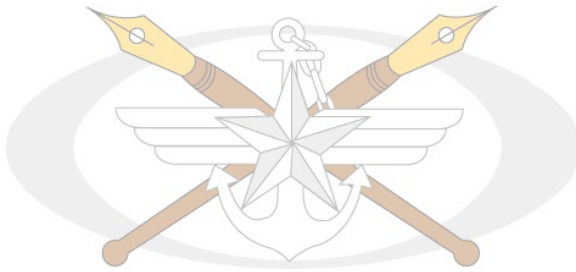
6·25전쟁 시의 학도의용군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펜 대신 총을 들고 국가수호를 위해 사지로 뛰어든 용감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역기피 현상에 대한 좋은 귀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훌륭한 역사 교육의 소재임에 분명하다. 학도의용군의 결연한 행동은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으로 국난을 당했을 때마다 등장했던 의병들의 활동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 60여 년이 지났지만, 6·25전쟁 시 활약했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 그리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충분히 기릴 수 있는 원호 및 보훈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 국가보훈처, 『국가수호정신: 나라사랑』 (서울: 국가보훈처, 2005)
- _____, 『보훈 30년사』 (서울: 국가보훈처, 1992)
- 국립서울현충원, 『호국문예: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제7집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2007)
- _____, 『민족의 얼』 1~6집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 국방부, 『공비토벌사』 (서울: 국방부, 1954)
- 국방부 군사연구소, 『다부동구국전투사』 (서울: 국방부 군사연구소, 1999)
- _____, 『한국전쟁 지원사』 (서울: 국방부 군사연구소, 1997)
- _____, 『한국전쟁』 (중) (서울: 국방부 군사연구소, 199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일지』 (1951); 『한국전란 2년지』 (서울: 국방부, 1953)
- _____, 『포항·안강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 국방부 정훈국, 『정훈대계 1』 (서울: 국방부, 195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7』 (서울: 탐구당, 1968~1974)
- 기록수첩, 『웅진학도유격부대』 (미간행)
- 김석찬 · 김응오, 『가장 평양으로!: 10대 중고학생들의 6·25 참전 실록』 (서울: 한일생활문화사, 1996)
- 남상선, 『학도의용군』 (서울: 효성출판사, 1975)
- _____, 『학생의용군: 6·25 실전기』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75)
- 남상선 · 김일규, 『6·25와 학도병: 3사단 학도의용군 편』 (서울: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1974)
- 문교부, 『6·25 실증자료』 (서울: 성문인쇄, 1976)

- 박경석, 『서울학도의용군』 (서울: 서문당, 1995)
- 박양호,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 (서울: 화남, 2009)
- _____, “학도의용군 고귀한 희생 잊어서야,” 세계일보, 1010. 9. 30.
-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서울: 병무청, 1985)
-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 (상) (부산: 부산일보사, 1983)
- 손규석,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88~89.
- 이내주,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과 활동,” 『나라사랑 국가수호정신』 (서울: 국가보훈처, 2005), pp. 49~90.
-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대전: 육군본부, 1994)
- _____, 『한민족의 용틀임』 (서울: 육군본부, 1983)
- _____,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서울: 육군본부, 1956)
- _____, 『한국전쟁과 유격전』 (대전: 육군본부, 1994)
- _____, 『학도의용군 이환담』 (대전: 육군본부, 1991)
- 정영복 엮음,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태백중학교 127명 학생들의 전투 무용담』 (서울: 은혜기획, 1998)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서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2002)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서울: 중앙일보사, 1976)
- 중앙학도호국단, 『전몰학도명단』 (서울: 중앙학도호국단, 1957)
- _____, 『학도호국단 10년지』 (서울: 중앙학도호국단, 1959)
- 한국 반탁·반공학생운동 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서울, 1986)
- 학도의용군 장사 상륙참전 유격동지회, 『모래톱에 묻힌 충혼: 육본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참전기』 (대구: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 1995)
- 하재평, “한국전쟁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전사, 제3호, (2001. 6.), pp. 1~44.

- Hasegawa, K., "Student Soldiers: The Japanese Communist Party's 'Period of Extreme Leftist Adventurism', " *Scholarl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61. (2006, Winter), pp. 43~52.
- Singer, P. W., *Children at War* (New York: Pantheon Books, 2005);
A. Keene, *Peacemakers: Winners of the Nobel Peace Priz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찾아보기

ㄱ		김득신	50
		김만규	81
강릉사범학교 학도의용군	274	김병률(金炳律)	175
강문봉	139	김석원	62
강화신	216	김종순	132
건국준비위원회	21	김치련(金致鍊)	86
건국학도대	22	김현숙	266
건준	21	까치산공작대	196
고주동	209		
고창·부안지역 학도의용군	285		
공비소탕	15	ㄴ	
구국비상학도대	10	낙동강 방어선	60
국가보훈법	7	남상선	92
국군조직법	33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38
국립경찰 화랑대대	69, 276		
국민개병제	37	ㄷ	
국민방위군	74	대적방송	178
국민 총동원령	14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	34
국방사령부	38	대한학도경찰대	59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	38	대한학도의용대	50
군산학도의용군	295	동부대대	195
김계원	116		
김구	21		

동키부대 73
 동키 제11유격부대 74, 190

口

마합도 192
 매실동 200
 맥아더 38
 명부대 135
 목영설 196

문산호 148
 무궁화공작대 196
 미·소공동위원회 23

ㅂ

박정호 119
 박창암 141
 박헌영 21
 박효칠(朴孝七) 131
 배섬 193
 배속장교 35, 107
 백령도 190
 백야전투사령부 67, 182
 백인엽 85
 백훈단 289

병사구사령부 45
 병역법 7
 보성지역 학도의용군 288
 복교령 1
 블루 하트(Blue Heart) 143
 비상학도대(非常學徒隊) 1
 비호산 123

ㅅ

샌프란시스코 조약 301
 생해보장증 183
 생환학도병(生還學徒兵) 299
 생환학도의용군(生還學徒義勇軍) 299
 서울 학도포병대 18
 서남전투사령부 182

서부대대 195
 서부학도대 189
 서북청년단 118
 선무공작 1
 송진우 21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17, 76
 순위도 190
 시크(L. E. Schik) 38
 신국봉 63
 신성모 40

전성호	148	징병제	34
정읍학도경찰대	278		
정일권	95		
정태경	108	㉔	
정훈공작대	1, 9, 57	차일혁	284
정훈대대	67	창린도	185
정훈 제1대대	175	청년방위군(국민방위군)	189
정훈 제2대대	175	청년방위대	34
제18포병대대	66	청천강	124
제772부대	174	최석	104
제773부대	174	최윤동	141
제1야전포병단	117	최철	66
제2국민병	46, 68	치안학도대	137
제3병참기지사령부	259	칠보지역 학도의용군	279
제3사단 학도의용군	17		
제18전투경찰대대	279	㉕	
제8250부대	207		
조병옥	59	카투스사(KATUSA)	227
조선경비대	37	캠프 드레이크	251
조선공산당	21	크로마이트(Chromite)	143
조선학도대	22		
조선해안경비대	37		
존 맥기(John H. McGee)	191	㉖	
존 하지(John Hodge)	42		
주일한국대표부	224	태극단	19, 210
지미 고자와(Jimmy S. Gozawa)	260	태극단 학도의용군	19, 209
진영학도의용군	275	태백학도의용군	129

	표		한국독립당	21
			한국민주당	21
편성관구사령부	13		한국학생동맹(韓國學生同盟)	218
포항여중	62		해군 목호경비부 학도의용군	70
표작전기지사령부	73		헬레나호	144
			호국군(護國軍)	33
	중		호림부대	193
			화랑공작대	195
학교 복귀령	16		화순지역 학도의용군	287
학도(學徒)	10			
학도경찰대	59, 137			
학도계몽유세대	30	3		
학도기간대	139		3·1 독립 보병대대	260
학도병	4			
학도선전대	50			
학도위문대	49	B		
학도의병(學徒義兵)	11			
학도의병	11		BAMBOO 계획	41
학도의용군	1			
학도전투대	49			
학도치안대	63			
학도호군단	25			
학련	23			
학병	137			
학생의병(學生義兵)	11			
학적	11			
학통	24			

○ 주 간

김 상 원(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 집 필

나 중 남(육군사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김 광 수(육군사관학교 교수, 연 구 원)

박 일 송(육군사관학교 교수, 연 구 원)

이 내 주(육군사관학교 교수, 위탁연구원)

김 현 주(육군사관학교 교수, 위탁연구원)

○ 감수 및 자문

정 도 응(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양 영 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경 서 호(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회장)

박 양 호(대한학도의병 명예선양기념사업위원장)

손 주 형(6·25참전 학도의용군회 회장)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2012년 8월 24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발행처 _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88 / FAX : 709-3111

발행인 _ 최 복 진

인쇄처 _ 국군인쇄창(1206946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은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